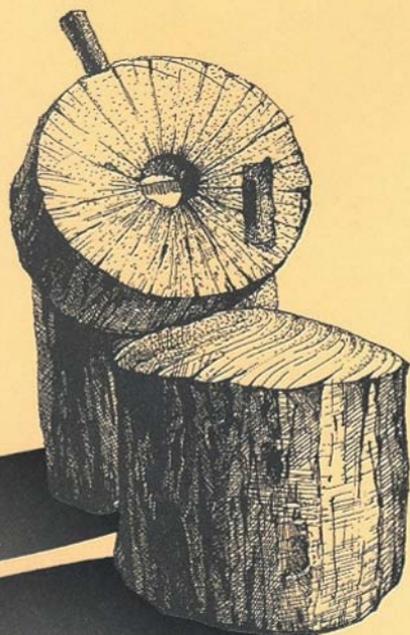


속초의 향토민속

사단법인 속초문화원



속초의 향토민속

사단법인 속초문화원

속초의 향토민속

차 례

발간사	지 일 권(속초문화원장)	5
머리말	장 정 룡	7
제 1 장	속초민속의 개관	9
제 2 장	속초민속의 내용	11
제 1 절	세시풍속	11
제 2 절	통과의례	29
1.	임신과 출산	29
2.	백일, 첫돌	32
3.	회갑	32
4.	관례	32
5.	혼례	33
6.	상례	37
7.	제례	41
제 3 절	의·식·주	43
1.	의생활	43
2.	식생활	47
3.	주생활	50
제 4 절	민간신앙	58
1.	집안신앙	58
2.	마을신앙	63
3.	무속신앙	67

제 5 절 민속놀이	75
1. 아동놀이	75
2. 성인놀이	78
제 6 절 민요	88
1. 농요	88
2. 어업요	89
제 7 절 설화	96
1. 전설	97
2. 민담	143
제 3 장 속초민속 연구 및 조사자료	172
제 1 절 설악산 심메마니 연구	172
제 2 절 속초 북청사자놀이 전승실태 조사	198
제 3 절 속초 무가자료	217
1. 베리데기 오구굿	217
2. 부정굿	241
3. 골매기 성황굿	242
4. 조상굿	246
5. 시준굿	248
6. 용신굿	263
제보자 인적사항	
<부록>신홍사 사적비문	

발 간 사

지 일 권/속초문화원장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적어도 3000년 전부터 우리 속초지역에도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합니다. 물론 인근 양양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들로 살펴보면 8000년전부터 이 일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연구가 더 계속되면 그 이상으로 연대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산 것이 꽤 오래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니다.

이들이 그 오랜 세월, 이 따사로운 햇살과 그 거친 바람을 받으며 이 땅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을 것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나름대로 고유한 삶의 방식을 형성해 왔을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삶을 규율하는 한 환경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의 사고와 행위의 규범이 되는 전통과 관례에 대해 그 형성과정을 이해할 필요를 느낍니다.

다시말해, 이땅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가지는 그 독특한 생활 양식의 실체를 이해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채택해 왔는지 살펴볼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당대를 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궁금중인 동시에 당연한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속초문화원에서는 그래서 지난날 이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그 고유하고 독특한 삶의 방식을 확인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숙원해 왔습니다. 그레 향토사 연구 및 민속 발굴에 주력해 오던 중 이번에 우리 지역이 배출한 민속학자 장정룡박사의 도움으로 이 책 '속초의 향토민속'을 편찬해 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장 박사가 짧은 시일과 조악한 연구 환경속에서도 이처럼 우리 지역의 민속을 집대성할 수 있었음에 새삼 그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일단 이것으로 우리 지역의 지난날 삶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리 지역의 민속과 향토사 발굴에 주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우선 이 책을 자랑스럽게 여러분 앞에 내 놓습니다.

머 리 말

뿌리없는 나무가 없듯이 전통없는 고장이 어디 있으랴. 따라서 속초에는 문화가 없다면, 민속이 어디 있겠느냐는 식의 피상적 언급은 자기비하일 수도 있고 편협한 문화 인식이기도 하다.

민속문화는 과거의 잔존문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창출해 나가는 삶의 총체적 면모이며 동시에 향후에 새롭게 설계할 미래지향적 정통성을 이어주는 정신이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의 현주소를 인식하여 이를 선양하고 보존 육성하려는 노력과 의지에 따라 지역문화는 얼마든지 재창조될 수 있다.

그것은 올바른 문화인식과 향토애가 중심이 되어 문화적 독창성을 확보하고 창조성을 구현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향토민속은 지역문화의 기반에서 생성 발전되므로 문화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한 감추어진 미풍양속과 덜 알려진 민속문화를 가꾸고 다듬어서 후대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지녀야 할 것으로 본다.

속초민속은 나름의 튼튼한 뿌리를 지니고 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빼어난 인물, 돈후한 풍속 등이 오늘의 속초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속초민속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으나 세시풍속, 통과례, 의·식·주, 민간신앙, 민속놀이, 민요, 설화 등을 분석할 때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대상이 되고도 남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현장전승론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향토민속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전통과 창조, 보수와 혁신, 고유와 외래의 갈등속에서도 오늘의 속초는 꾸준히 새로운 민속사회의 문화역량을 축적해 속초인들의 정신문화사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 글을 엮게 된 계기는 1987년 속초문화원의 향토사료로 소략하게 민속을 집필한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에 보다 완벽한 후고를 기약한 바 있는데 「속초시지」의 민속편 집필로 붓을 다시 가다듬고 연구 조사를 거듭하여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무엇이든지 완벽이 불가능하겠으나 최선을 다해 그간의 연구를 점검하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부족한 글을 평이하게 묶었다.

부언하자면 이것으로 발단이 되어 속초의 향토민속이 재평가되고 활성화된 연구성과가 지속됨과 아울러 실질적인 기여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속초가 고향이기에 首邱初心의 애뜻함도 없지 않다. 이북에 고향을 둔 家親과 같은
입장의 실향민과 속초가 고향인 분들에게 정감있게 읽혀졌으면 한다.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고향분들과 시 당국, 지일권 문화원장님, 실무를 맡은 최재도
사무국장에게 감사의 따뜻한 말씀을 드린다.

1992. 5

장 정 룡

속초의 향토민속

제 1 장 속초민속의 개관(概觀)

안정복(安鼎福)의 「임관정요」(臨官政要, 1757년)에도 나와 있듯이 백리부동풍 천리부동속(百里不同風 千里不同俗)이란 말이 있다. 풍속은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고 생활속에 정착되는데 한 지역을 구성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 구성원들에 의해 특수한 모습으로 잔존되거나 소멸해 가기도 하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밟는다.

향토민속은 이러한 측면에서 고유성을 갖춘 내용이 있는가 하면 문화의 전파 속성에 의해 타지역과 차이가 나지 않는 보편성을 띠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간성과 공간성을 지니고 전승되는 향토민속은 자연환경이나 역사, 사회, 풍토에 의하여 형성되고 생활양식이나 방향을 제시하며, 신앙, 유희, 관습등을 내포하게 된다.

속초민속의 특징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승문화적 속성을 오늘날까지 견지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설악산을 바라보고 있는 속초는 또한 긴 동해안을 끼고 있어서 산과 바다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는데, 오랜 시원을 갖고 있는 산신제와 용왕제가 오늘날까지 민간신앙으로 유지 전승되고 있으며 산삼을 캐는 심메마니풍습이나 어로시에 불려지는 뱃소리가 남아있다. 또한 산악지명전설도 상당수 구전되고 있으며, 농촌에서 행해진 농경민속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인근 고성과 양양지방과 긴밀성을 보여준다.

세시풍속상 보름민속이 아직도 강한 영향을 갖고 있으며, 산간지방과 어촌의 현격한 차이를 엿볼 수 있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함경도 이주민속의 토착화도 눈여겨 볼만 하다. 생활방식, 언어, 관습등의 적응과 소실, 새로운 모습의 문화양식적 통합, 세대간 계승의 문제도 속초민속의 특이한 모습으로 파악될 수 있다.

산악과 해양의 대척적 민속현상과 아울러 호수를 배경으로 한 민속문화의 생성도 흥미로운데, 영랑호와 신라화랑도 민속, 청초호수의 논피호 불꽃놀이나 만천동 나룻배싸움 놀이도 속초의 지역성을 보여 주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제 1 장 속초민속의 개관

통과의례나 의식주 전반에 걸쳐서도 이와같은 지역성이 노출되고 있으며 고성문화권과 양양문화권의 상호 영향과 양식의 전파, 대체, 선택적 배제요소등을 추출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또한 이 지역은 교육구국의 일념으로 평생을 학문과 후진교육에 전념한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1872~1946)선생과 항일독립만세를 주도한 애국지사 설초(雪樵) 이석범(李錫範, 1884~1932)선생의 정신사적 맥락이 흘러와 자주자존의 민풍(民風)을 그대로 유지 전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속초지방의 민속은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문화양식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지역민의 정신문화가 그만큼 풍요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속초민속의 해양성은 지역민의 낙천성과 불굴성에서 생성되었으며, 산악성은 웅혼과 약동, 호수성은 화평과 명상에서 꽃피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속초민속의 내용

제 1 절 세시풍속(歲時風俗)

세시풍속이란 일상생활에서 있어서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오면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생활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연중행사라는 말도 있듯이 1년중 특정한 명절의 행사로서 자연신앙과 조상숭배를 바탕으로 깔고 종교, 주술적 복합행위와 놀이가 어울린 철같이 행사이다.

세시풍속은 오랜 전승의례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보편성을 갖고 행해지는 특징이 있다.

속초의 세시풍속은 산간과 어촌, 자연부락간에 차이가 나는 점이 있으며 지역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수집된 내용을 음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월>

●설 날

1월1일을 '설날'이라고 부르며 그냥 '설'이라하는 지역도 많다. 이날에는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떡국차례'를 지낸다고 하는데 차례가 끝난후에 어른에게 세배를 한다. 설날에 입는 옷을 '설빔'이라 하는데 대개 한복을 잘차려 입는다. 이날은 집안 식구끼리 근신하며 지내기 때문에 '신일'(愼日)이라고도 하는데 동네 어른들이나 일가친척 세배는 주로 2일날부터 다닌다.

일부 가정에서는 3일날 저녁에 안택제를 지내고 배가 있는 집은 배안의 배성주신에게 가서 주과포를 차려놓고 한 해의 안전과 풍어를 빌거나 서낭당에 가서 빈다. 복조리는 설이 지나고 첫 개시하는 장에 가서 사야 좋다고 하며, 선주가 사서 선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정초의 십이지일

설날에서부터 열이튿날까지의 12일 동안을 일진에 따라 털있는 동물날인 유모일(有毛日)과 털없는 동물의 날인 무모일(無毛日)로 나눈다. 설날이 유모일인 경우는 오곡이 풍년된다고 한다.

첫쥐날은 정월달어 첫번째 자일(子日)을 말하는데 이날 콩을 볶아먹으며 “쥐주둥이 볶자”, “쥐 부스랭이 깬다”고 말하여 쥐의 피해를 막고자 하며, 또한 쥐불을 놓는다고 하여 논·밭두렁을 태운다.

첫소날에는 치(키)에 밥과 나물을 담아 귀승에다 놓는다.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들어 좋다고 한다.

첫용날인 상진일(上辰日)에는 주부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샘물을 길어다 밥을 지으면 좋다고 하여 행하는 집도 있다. 상진일이 초하루에 들면 용 한마리가 치수를 하고, 10일이 용날이면 열마리가 치수한다고 하여 그 해의 홍수와 가뭄을 짐작한다.

첫뱀날인 상사일(上巳日)은 털없는 날이라 하여 어민들은 출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집안의 뱀은 지킴이라 하여 죽이지 않는다.

●입 춘 날

24절기의 첫째인 입춘날에는 가정의 대문이나 기둥 등에 좋은 글씨를 써서 붙이는데 용호(龍虎)두 글자나 입춘대길(立春大吉)·건양다경(建陽多慶)·국태민안(國泰民安)·가급인족(家給人足)등으로 다양하다. 입춘날에는 아침밥을 먹을 때 취나물을 써서 먹는데 풍년을 바라는 뜻이라 한다. 요즘에는 줄어들기는 했어도 전통이 있는 가문에서는 입춘축(立春祝)을 쓰는 일이 중요한 행사인데 어린이들도 장난삼아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 써서 붙인다.

●까치보름날

정월 14일을 ‘까치보름날’이라 부른다. 이날 아침에는 오곡밥을 해서 먹는 집안도 있는데 보름날에는 오곡밥으로 제사를 지낸다. 또한 수수깡으로 껍질을 벗긴 후 속부분으로 조·보리·콩·벼·기장의 모습을 만들어 두엄위에 꽂아 놓았다가 다음날 “우여 우여”하며 새를 쫓고 타작하는 흉내를 내면 새의 피해가 없고 풍년이 든다고 한다. 수수깡에는

짚신이나 팔랑개비를 달기도 한다. 이날을 ‘여름날’이라 해서 분주히 보내며 13일은 봄날 15일은 가을날이라 하여 풍요롭다. 15일은 귀신날이라고 쉬므로 보름행사는 14일부터 시작된다.

남자들은 14일 낮에 밥 9그릇 먹고 나무 9짐, 거름 9짐을 해야 하고 부인들은 삼을 9광주리 삼는다고하여 한 해의 시작을 부지런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달불금[月滋]’이라 하여 수수깁속에 콩 12개를 넣어 물에 불렀다가 보름날에 부푼 상태를 보고 12달 동안의 가뭄과 홍수를 미리 짐쳐 보기도 한다. 요즘에는 농사나 어업도 기상예보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

14일날 저녁에는 일찍 잠이 들면 눈썹이 하얗게 쏜다고 하여 아이들은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 혹 잠을 자면 밀가루를 눈썹에 칠하고 아침에 놀리기도 한다.

● 대보름날

대보름날은 가장 많은 민속행사가 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세시풍속이 집중되고 있다. 속초지역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약밥·오곡밥먹기

보름날에는 약밥[藥食]을 먹는데 14일 저녁에 찐다. 약밥은 찹쌀에 밤·대추·감·팥·강낭콩·꿀·잣을 섞어서 만든다. 보름차례를 지내는 집안에서는 약밥을 쓰기도 한다.

오곡밥은 쌀·보리·콩·팥·조와 같은 잡곡을 섞어서 밥을 짓는 것으로 다섯 종류의 곡식을 먹으면 좋다고 한다. 약밥과 오곡밥은 자기 집에서만 먹지 않고 이웃에 나누어주고 여러집의 밥을 먹어야 그 해 운이 좋다고 하여 일부러 밥을 얻으러 다니기도 한다.

• 부럼깨물기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밤, 호도, 잣, 은행, 콩 등 껍질이 딱딱한 것을 깨물어 ‘흔디’(부스럼)를 막는다고 한다. 속초에서는 개금을 많이 깨무는데, 문헌에는 작절(嚼齧·부럼) 또는 고치지방(固齒之方)이라 한다.

• 더위팔기

더위팔기는 ‘신병내기’라고 하는데 보름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판다. 이웃 친구나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라”고 한다. 더위팔기를 문헌에는 매서(賣暑)라고 하였는데 이름을 불렀을 때 눈치를 채고 대답 대신에 먼저 더위를

팔면 상대방이 그 해에 더위를 먹는다고 한다.

• 귀밭이술

보름날 시장에서 청주를 사다가 차례가 끝난 후에 아이들에게 먹이면 귀가 밝아지고 한 해동안 좋은 소식을 듣는다고 하여 이 술을 '귀밭이술'이라 한다. 한자로는 유통주(膾鬲酒)라 쓴다.

• 노내기 밥주기

솔잎을 집안 구석구석에 한응큼씩 놓으며 “노낙각시 바늘주마, 여름에 나오지 말고 가만히 들어앉아 바느질이나 해라”고 주문을 외면 초가집에 많은 노내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노내기’ 즉 마륙(馬陸)을 ‘향낭각시’(香娘閣氏) 또는 ‘노낙각시’라고 미화하여 물리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 민속은 오래전에 소멸되었는데 주택을 개량하면서 사라져 기억속에 있을 뿐이다.

• 김치·찬물안먹기

보름날 김치를 먹으면 산에 올라갔을 때 썩기에 쏘인다고 하여 먹지 않고, 찬물을 먹으면 여름에 벼락비를 맞는다고 하여 먹지 않는다. 보름날은 음식이 많고 더욱이 찬물을 먹으면 배탈을 앓는 것을 막기위한 건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5일에는 물이 귀해야 풍년이 되고 눈이 많이와도 풍년이라고 점치기도 한다.

• 새소리듣기

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소리를 듣고 풍흉년을 점치는데 까치소리를 처음 들으면 ‘얼력풍년’이라하여 잘되는 농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한다. 검고 흰색깔의 까치모양을 보고서 점치는 경우이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평년작이 된다고 한다. 가축소리를 듣고도 점을 치는데 소가 제일 먼저 울면 풍년이 들 징조라 한다. 첫닭이 많이 울어도 풍년으로 본다.

• 달점치기

보름날 아침 키에다 밥과 나물을 차려서 주고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들 것으로 점치고 콩나물, 고비나물 같은 것을 먼저 먹으면 보통 평년작이라고 믿는다. 첫소날과 같다.

• 개보름쇠기

대보름날 달이 뜨기 전에는 개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름에 벼룩이 많이 생기고 개가 마른다고 한다. 속담에 “개 보름쇠듯 한다”고 하는 말은 이 풍속을 지칭한다.

• 나무시집보내기

사과나무가 감나무 등의 과수의 가지 친 곳에 돌을 끼워주면 그 해 과일이 많이 열린다고 믿는다. 이를 가수(嫁樹)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전해지는 내용이다.

• 연 귀양보내기

보름날 연을 날리다가 멀리 띄워 보내는 것을 “연 귀양보낸다”고 한다. 대포 마을에서는 참나무 껍질로 배를 만들고 그곳에 연줄을 묶어 참연(방패연)과 가오리연을 주로 바다에 날리는데 연말에 썩을 묶어서 불을 붙이고 띄우면 어느 정도 가다가 날아간다고 한다. 연을 이 날 날려 보내지 않고 집에 놔두면 연에 귀신이 붙는다고 한다. 더러 한자로 ‘迎福送厄’이라 써서 영금정 꼭대기 산에서 바다쪽으로 날려 보내기도 하는데 정초부터 보름날까지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날리고 논다.

보름날 연을 귀양보내고 나서도 날리게 되면 ‘고리백정’이라고 하면서 놀려서 보름 전에 거의 연을 날린다.

• 봉숭이밥싸기

액땀기의 일종으로 문헌에는 어부시(魚鳧施), 어부식(魚付食)이라고 되어 있다. 한지에 자기 나이 수 만큼 찰밥을 싸서 “봉숭이밥 썬다”고 하며 쌓천 등에 버린다. 이렇게 하거나 자신의 밥그릇에서 밥 세 몽치를 떠서 깨끗한 한지에 싸서 생년월일을 적어 냐가에 띄운다. 액을 막는 방법으로 대개 보름날 저녁 달이 뜰때 행한다.

• 햇불싸움

보름날 밤에 두 동네청년들이 싸리와 삼대로 만든 햇불을 가지고 서로 빼앗기도하고 싸우는데, 영랑동 조양동간의 청년들과 중도문마을에서도 고향을 지르고 빼앗으며 놀았다. 내물치와 하도문간에도 강릉으로 만든 망우리를 돌리며 달보기를 하다가 서로 망우리를 가지고 싸우고 놀았다. 속초에서는 동해의 뜨는 달을 처음보면 그 집에 경사가 있다고 하여 햇불로 달을 맞거나 망우리를 돌리며 아이들은 달맞이를 한다. 햇불싸움은 이웃동네와 한다.

• **엄나무와 체바퀴달기**

보름날 가시가 있는 엄나무와 체바퀴를 처마밑에 매달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여 매단다. 속설로 야광이란 귀신이 이날밤 내려와 신을 신어보고 발에 맞으면 신고 가버린다고 한다. 신발을 잃은 사람은 그 해 불길하므로 체를 처마에 걸어 놓는데 야광이가 체의 구멍을 세느라고 신을 훔칠 생각을 잇는다고 한다. 새벽 닭이 울면 야광이가 도망간다고 한다. 신발은 엮어놓고 잔다.

물치마을에서는 대보름날 청년 7~8명이 달이 뜨면 종이로 가면을 만들어 쓰고 행색을 노인과 여자로 꾸며 집집을 방문하여 논다. “이 집에 손님이 왔소, 술 내놓으시오”하면 술과 안주를 주인이 내놓고 잡색꾼들은 아리랑이나 풍년가를 부르며 함께 흥겹게 논다.

• **용왕제·배서낭제**

배가 있는 집은 ‘용왕 위한다’며 바닷가에 나가서 풍어와 안전을 축원하고 배안에 모셔둔 배성주 또는 배서낭이라는 신체에서 빈다. 배성주는 실과 한지를 매달아 놓았으며 문을 만들어 따로 벽쪽으로 상자를 달아놓는 경우가 많다. 속초에는 배성주가 여성인 경우가 많아 금기가 많고 풍어시나 위험한 일이 있을때 현몽하기도 한다고들 말한다.

• **귀신날**

16일을 ‘귀신날’이라 하여 문앞에 머리카락이나 고추씨를 모아놓고 태운다. 이렇게 하면 냄새가 고약하여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체로 이날은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농가에서는 집안에서 쉰다. 정월 호랑이날에 백발을 태우면 길하다고 하였는데 속초지방은 16일날 행한다. ‘귀신닭날’이라는 사람도 있다.

< 2 월 >

● **영등할머니제사**

2월달을 이 지방에서는 ‘바람님달’이라 하는데 그 신이 영험하다며 해안쪽의 마을에서는 더욱 위한다.

바람의 영향이 어업에 영향이 큰 탓도 있지만 농촌에서도 영등할머니를 위하고 있다. ‘영등’, ‘풍신’이라고도 하는데 성격은 차이가 없다.

2월1일 새벽에 주부가 영등할머니를 위하여 장독에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린내 나지

않는 생선, 비늘없는 생선을 놓고 나물과 떡을 해놓고 가내 평안을 빈다. 어느 집안에서는 무우에 명태를 넣은 '무와찌기'라는 음식을 지어 식구 수대로 수저를 꽂아 놓고 빌기도 하고 떡시루에 수저를 꽂기도 한다. 비는 장소는 부엌이나 장독대, 집의 뒤쪽에서 지내기도 한다.

영동할머니는 2월1일날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15일날 다시 올라가며 20일날 수부가 마지막으로 올라감으로 이때에도 상을 차린다.

1일날 영동할머니가 내려올때 비가 오면 '물영등'이라고 바람불면 '바람영등'이라하는데 물영등이 되어야 풍년이 되고 해사가 잘된다고 한다. 영동할머니는 여신이므로 성격이 까다롭다고 하며 영등날 머느리와 내려올때는 비를 내려서 머느리 옷이 젖게하고 딸과 올때는 바람을 불게하여 딸의 치마가 잘날려 보기 좋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고부간의 갈등을 현실에 빚댄 이야기인데 영등제사를 지내려고 쌀나락을 말리는데 새가 이를 먹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동할머니를 잘 모신다. 자연에 순응하고자하는 인간의 심리를 나타낸 이야기다. 「동국세시기」에는 영등신(靈登神)이라고 하였다.

● 좀생이보기

2월6일을 '좀생이날' '좀성날'이라 하는데 좀생이는 28성수중 묘성(昴星)으로 작은 별들이 모여 있는것을 말한다. 이날 달과 좀생이의 거리, 모양에 따라 그 해 풍흉년을 점친다.

달과 좀생이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 풍년이고 가깝게 가거나 바빠가는 것처럼 보이면 흉년이 된다고 한다. 그것은 달이 여름철 모심기 할때 부인들이 이고 가는 밭광주리이고, 좀생이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밭광주리에 바짝 따라간다고 생각한다.

“좀생이 보고 그 해 일할 짚신 삼는다”고 하는데 좀생이 빛깔이 붉으면 가물고 투명하면 곡식이 잘된다고 한다.

● 무(菁根)물먹기

2월7일날 아침에 무채를 썰어 놓고 이것을 찬 물을 동쪽으로 향해서 마시면 1년동안 건강하다고 한다. 이것은 무가 한자로 '無'이므로 무병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월1일 영등날에는 무를 먹지 않고 제물로 쓴다고 한다.

● 머슴날(奴婢日)

18 제 2 장 속초민속의 내용

지금은 사라졌으나 20~30년전에는 노비일이라하여 2월초하룻날 짚지 않은 걸곡을 2월 영등때 쪼어서 큰 시루에 떡을 2~3시루씩하여 일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 또한 농악을 하면서 ‘농군날*일꾼날’을 축하하였다고 한다.

●한식날

동지후 105일만에 드는 한식은 ‘찬밥 먹는날’이라고도 부른다. 한식은 2월에 들기도 하고 3월에 들기도 하는데 2월에 들면 “철이 빠르다”고 하고 3월에 들면 “철이 늦다”고 한다. 이날은 귀신도 꼼짝 않는다고 하여 무덤을 손질해도 탈이 없다한다. 한식날에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데 청명때에 하기도 한다. 한식날 찬밥을 먹는 습속은 흔히 중국 진나라때 충신이었던 개자추가 산에서 불에 타 죽은 날이므로 금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월은 속초·양양·강릉에는 바람이 심하여 ‘꽃샘추위’가 있고 영등제를 지내듯이 불조심을 바라는 뜻도 담겨 있다. 요즘에는 한식이나 청명때 차례를 차츰 지내지 않으나 사토나 이장, 묘소주변에 나무를 심는 일을 한다.

●경칩먹기

경칩날에는 요통에 좋다고 하여 개구리알을 먹는다.

<3 월>

●삼진날

음력 3월3일을 ‘삼진날*삼질날’이라고도 부르는데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 한다. 이때는 나비도 날아다니게 되는데 처음 본 나비가 호랑나비나 노랑나비등의 채색이면 좋고 흰나비이면 상복을 입는다고 말한다.

부녀자들은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솔뚜껑을 뒤집어 놓고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 지져먹는 꽃지짐이를 해먹는다. 이것을 화전(花煎)이라 하는데 가을 9월9일에는 꽃중에서 국화꽃으로 화전을 지진다. ‘꽃다림’이라하여 계를 모아 불당골이나 설악산 등으로 부녀자들만이 화전놀이를 간다. 이때에 약쑥도 뜯어온다.

●곡우물먹기

24절기중 여섯째인 곡우날이 되면 신흥사 산중이나 인근 산에 가서 박달나무에 흙을 내고 쟁통을 매달아 물을 받는다. 이것을 곡우물이라 하는데 나무의 수액은 위장이나

요통에 좋다고 한다.

또한 이때쯤이면 산에 올라가서 피나무껍질을 벗겨 빗줄을 만들기도 하고 농가에서 쓸 봄나무를 해오기도 한다.

여름철에 더위먹지 말라고 곡우날에 오색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먹기도 한다.

● 첫발갈기

3월 들어 길일을 택해서 밭을 가는 데 대보름날에 숫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넓은 밭고랑을 차지하고 젓가락으로 밥먹으면 가는 밭고랑을 만든다고 하여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첫발갈기와 관련된 이야기다.

● 풀각시놀이와 버들피리

여자아이들은 풀로 머리채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인형을 만들고 들로 나가서 노는 각시놀이가 있다. 남자아이들은 버들가지를 꺾어 피리를 불고 다닌다.

● 간장담그기

3월중에 집안에서는 간장을 담그는데 택일을 해서 신일은 피한다. 간장독에 원새끼를 쳐서 부정을 막으며 흑 맛이 변할까봐 염려하여 깨끗이 담근다. 메주를 넣고 여기에 숯과 붉은 고추를 띄운다.

< 4 월 >

● 초파일날

4월8일을 석가모니 탄일이라하여 불교신자들은 일찍 절에 가며 누가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흑 부정달까 염려해서 그렇게 한다.

이날 하루동안 세 군데 절을 찾아 예불하면 좋다고 하여 신흥사, 계조암, 낙산사등을 찾는다.

● 갈떡기

소만이 들어있는 4월중에 '갈떡기'를 하는데 논외 퇴비로 쓴다. 소만때에 갈을 꺾으라는 동네 어른되는 사람의 명령이 있어야 갈을 꺾을 수 있다고 한다. 퇴비권장을 위해서 동네 사람이 공평하게 소만 전에는 입산을 금하고 소만날 '영갈'이라 하여 갈떡으러 갔

다. 요즘도 소만이 되면 으레 갈떡으러 간다.

● 짚어올리기

4월이 되면 남자들은 모심기를 하는데 서로간에 모를 메주는 것을 ‘짚어올린다’·‘질레 짚다’고 한다. 짚은 ‘두레’와 같은 의미로 2~3개씩 만들어 돌아가며 모심는데 이때 모심기노래를 부른다. 지금은 기계영농인 관계로 짚어올리기가 사라지고 있으나 도문들판에서는 이때에 짚어올리며 부르는 도천메나리소리가 멀리 퍼졌다고 한다.

< 5 월 >

● 단오날

5월5일을 단오날, 수릿날, 천중절이라 한다. 이날은 기수(寄數)인 홀수가 겹쳐 있어 좋은 날로 알고 있는데 기수는 음양으로 보면 양수(陽數)에 속한다. 수릿날은 민간속설로 수리치떡을 해먹고, 떡모양이 수레바퀴와 같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하나 수리는 고어로 상(上),신(神),고(高)의 뜻이 있으므로 ‘신의 날’이라고도 본다.

지금은 단오차례를 지내지 않으나 얼마전까지는 행했다고 하는데, 이날은 쑥떡을 해 먹으며 속초에서는 취떡으로도 차사를 지냈다.

● 창포비녀와 머리감기

창포는 뿌리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그 뿌리로 비녀같이 만들어 머리에 꽂기도 하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색실을 꿰어 댕기에 꽂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일년동안 나쁜 병을 물리친다하며 6월15일 유두날 물에 띄워 보낸다.

창포뿌리를 파, 약쑥과 함께 삶아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결이 좋아지고 부스럼이 머리에 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창포비녀를 꽂으면 두통이 없어진다고 하며, 총각들은 창포뿌리를 허리춤에 차는데 액을 물리치기 위해서 라고 한다.

● 약쑥캐기

단오날 아침에 말을 하지 않고 첫번째 약쑥을 입으로 뜯어야 약효가 있다고 하여 발목의 약쑥을 캐러 다닌다.

또한 이슬이 맺혀 있어야 약효가 있다 하여 일찍 캐러나기는데 약쑥은 여름철 배탈날 때 다려 먹으면 효과를 본다고 한다. 속초의 농촌주부들이 주로 다닌다.

●그네뛰기

단오날 행해지는 여성의 민속놀이는 그네뛰기가 대표적이다. 추천희라고도 하는데 큰 소나무에 줄을 매고 뛰는 것이 흔들림이 좋다고 한다. 줄은 남성들이 모여서 깊으로 여러줄을 꼬아 만드는데 동명동의 그네뛰가 유명하다. 그네뛰기는 혼자서 뛰는 '외그네'와 둘이서 뛰는 '쌍그네'가 있는데 반공중의 선녀같다고 하여 '반선희(半仙戲)'라는 이름도 쓰였다. 추석때도 그네를 뛴다.

단오날 남성의 놀이는 씨름이 있는데 속초에서는 성행하지 않았으며, 단오명절에는 인근 양양, 강릉에 놀러가기도 한다.

<6 월>

●유두날

6월15일을 '유두날'이라하는데 유두(流頭)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 하여 '東流水頭沐浴'의 준말이라 한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양기를 내포하므로 여기서 머리를 감게 되면 한여름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다고도 한다.

속초에서는 약수터에 가서 속옷을 입고 물을 적시거나 울산바위밑의 냉정터에 가서 물을 몸으로 받는다. 이렇게 물맞이를 하면 무병하다고 생각한다.

유두날 전후하여 강우량이 많아지면 "유두물 지운다"고 한다. 유두국수나 부침이에 고추장을 푼 장떡을 해먹으면 더위를 피한다고도 한다.

●쓰레씻이

유두날 농촌에서는 '쓰레씻이'를 하는데 일꾼들에게 옷을 해주며 집집이 막걸리를 내놓고 좋은 안주를 차려 좌상, 대방, 부대방, 셋째대방의 순서로 대접한다.

쓰레씻이는 모내기를 끝내고 하므로 봄 3~4월경에 하기도하며 이때쯤에 치르기도 한다. 쓰레씻이와 같은 성격으로 '승백내기', '싱겟상차리기'를 하는데 일꾼들이 큰 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농기구인 '쓰레'를 씻으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것으로 '호미씻이'와도 같은 뜻이 있다.

●복 날

복날은 하지후 셋째 경일(庚日)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후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 하여 삼복으로 친다. 복날에는 '복다림'을 한다고 하여 닭을 삶아서 보신을 하거나

보신탕을 해서 먹는다. ‘복날 개패뒷’이란 속담도 복날의 보신탕을 먹는 습속에서 개들이 수난을 당하는 모습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사철 성행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이때 천둥이 치면 머루다래가 풍작이라 하며, 복날이 낀 6월은 ‘썩은 달’이니 ‘액달’이니 하여 혼인도 꺼리고 이사도 피한다. 이때는 더위와 장마가 닥쳐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앓은 방식도 옳기지 않는다고 한다.

<7 월>

●칠석날

7월7일을 칠석(七夕)이라 하여 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난다고 한다. 이날 비가 오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재희의 눈물이라 하여 그 해 농사가 잘될 징조라 한다. 칠석날 비가 오지 않으면 옛날 책이나 의복, 가구 등을 햇볕에 말리며, 칠성을 위한 집에서는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

●백중날

7월15일을 백종일(百種日), 백중일(百重日)이라 하는데 그 유래는 이때에 백가지 과일과 채소가 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백가지 과일의 제물을 차려 불교의 우란분재를 지내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또는 ‘질먹기’를 하고 나면 눈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므로 발뒤꿈치를 하얗게 씻는다 하여 백중(百踵)이라는 말도 있다. 백중날은 주로 사찰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부처님에게 백중공양을 한다. 신흥사나 인근 사찰에 신도들은 운집하여 망친의 영혼을 달랜다.

●질먹기

‘질먹기’는 호미씻이나 세조연(洗鋤宴)과 같은 뜻으로 그동안의 농사에 고생한 사람들을 모아서 위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봄철의 쓰레씻이와 가을질먹기는 속초농가의 빠지지 않는 잔치로 푸짐한 음식과 빗은 술로 흥겹게 농사의 피로를 푼다.

“간간 5월, 미끈 6월, 어정 7월, 동동 8월”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7월은 질먹기로 농한기를 보낸다. 질먹는 때는 대체로 논 김은 다 매고 밭 김은 두 벌 매고 김장을 심을 무렵에 하는데 질먹기가 끝나면 동네 제반사를 의논한다.

<8 월>

●벌초하기

선조의 묘는 1년에 두 번 청명 한식 무렵에 사초를 하고 7월말이나 8월초에 벌초를 한다. 8월 초하룻날 벌초를 하러 가는 집안이 많은데 낮으로 정성껏 풀을 깎는다. 여름 내 무성해진 풀을 깎고 무너진 흙을 다듬어 깨끗한 선영을 만드는 것이 후손의 도리로 생각하고 행한다. 벌초전에는 간단한 주과포를 마련하여 인사를 드린 후 벌초를 한다.

●한가윗날

음력 8월15일은 ‘한가윗날’이라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추석(秋夕)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설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로 속초지방에서는 제1설, 제2추석, 제3단오라 하여 단오보다 큰 명절로 생각하고 있다.

이날은 새옷을 갈아입고 새로 나온 햅쌀로 메를 짓고 송편을 만들어 조상의 차례상에 올리고 낮에는 성묘를 간다. 차례상에는 ‘치’자든 생선을 올리지 않는데 도치는 싱어, 새치는 이면수라 하여 제물로 쓴다. 가족 모두가 조상들의 옛 이야기를 들으며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정신을 잊지 않는 때가 이 시기로 날씨도 춥거나 덥지 않으며 온갖 것이 풍부하므로 “더도 덜도 말고 1년 열 두 달 한가윗날만 갈아라”는 속담도 있다.

농가에서도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 했듯이 신선처럼 추수한 것을 즐기는 풍성한 계절이며 출타하거나 객지에 있던 식구들이 모여서 단란한 가족의 한 때를 보내는 것이 미풍양속으로 전하고 있다.

추석 명절날은 닭을 요리하고 햅곡으로 송편을 만들고 무와 호박을 섞은 시루떡도 만든다. 또한 송이국과 토란국, 고지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백로때 서리가 일찍 내리면 흉년이 된다고 믿는다.

●배나무골 풍년마당놀이

추석 무렵이 되면 배나무골 도리원마을에서는 풍년 한마당놀이를 놀았다. 1985년 설악제때에 노학동에서 재현한 이 놀이는 태줄에 벋단을 묶어 태를 치고 도리깨질, 치질, 풍구질로 타작을 하는 일을 놀이로 꾸민 것이다.

농사의 풍작을 맞아 농악대와 함께 벋타작을 하며 풍년가를 부르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깨춤을 추고 흥겹게 즐기는 때가 추석무렵이다.

●만천광대놀이

만천마을에서는 한가위때에 일 년동안 땀흘려 가꾸어 놓은 들판을 바라보며 풍년을 자축하는 한마당놀이를 하는데 집집마다 돈이나 쌀을 내놓으며 이것으로 푸짐한 음식을 장만하고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여 농악에 맞춰 달맞이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즐긴다.

농악대 걸립패들은 집집을 순회하면서 마당놀이를 하며 지신을 밟고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 위해 청소년들은 각양각색으로 변복하고 탈을 쓰고 노는 광대놀이를 한다.

1986년 제21회 설악제 민속경연대회시 교동에서 재현하였는데 민속놀이 부분에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성주단지갈기와 문바르기

추석때 새로 처음 거둔 '수댓쌀'(햅곡)을 성주단지에 채워 넣는데 찹쌀을 넣는다고 한다. 성주단지안에 넣었던 쌀은 2월 초하룻날 떡을 하여 나누어 먹는다.

성주단지를 갈때는 주부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여 치성을 드린 후 아침밥을 먹는다. 또한 창호지구멍이 난 것은 7월에 바르면 도둑이 들고 이 날 바르면 도둑이 들지 않는다 한다.

<9 월>

●중구일

9월9일을 중구일(重九日)이라 하는데 9자가 겹쳤기 때문에 중양절(重陽節)이라는 것도 양수인 9자가 거듭되었음을 뜻한다. 이날은 삼짱날에 강남에서 왔던 제비가 돌아가고 기러기가 찾아온다고 한다.

부녀자들은 산과 들로 나가 국화꽃잎을 따서 찹쌀가루로 전을 지져 먹는 낭만도 있으며, 국화주를 담그고 음식을 장만하여 단풍놀이를 설악산으로 간다.

이날에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좋다 하므로 집안끼리 혹은 마을 계원끼리 소풍을 간다.

9월9일은 3월3일과 같이 양수가 겹치는 좋은 날이므로 청학동마을에서는 이때 서낭제를 지낸다. 봄·가을로 양수가 겹치는 좋은 날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빈다.

'9월맞이'라 하여 무당을 찾아가 액이 든 사람의 이름을 걸고 정성껏 빌어주기를 청한다.

중구일에 차사를 지내는 집도 있는데 감떡으로 차사를 하고 정성을 드린다.

<10 월>

●상 달

10월을 '상달'이라 하는데 가정에서는 고사를 올린다. 이 고사를 안택기도라 부르는데 성주신은 안방, 조왕신은 부엌에서 숯뚜껑을 뒤집어놓고 지내며, 토지신은 뒤뜰 장독대에서 지낸다. 곳에 따라 정월에 지내기도 하나 10월에 많이 지내는데 추수후에 1년동안의 수확을 감사하는 뜻도 담고 있다. 진설은 뒤뜰에는 백설기, 붉은 시루떡을 차리고 안방도 붉은 팔시루떡을 쓰며 부엌은 메한그릇을 쓴다. 일부 군웅신을 모시는 집도 있으나 고성지방에서 시집은 여성의 경우에 간단한 제물로 마굿간에 가서 가축의 무병을 빈다.

독축을 하거나 소지를 올리며 기원을 하는데 대문에는 금줄을 쳐서 부정을 막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선주들도 있다. 이날 종이로 상량에 매단 성주신체를 새로 가는 집도 있다.

외옹치서낭당에서는 10월초순에 마을제사를 지내는데 3년마다 굿을 하기도 한다. 10월1일에 날씨가 따뜻하면 겨울날씨가 대체로 따뜻할 것으로 짐작한다.

●설악제

설악제는 신라시대이래 오랜 역사를 지닌 산악제사로서 속초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향토신제로 정착되었다. 1966년 설악제 행사를 시작으로 속초의 향토축제로 자리잡았는데 처음에는 설악제등반대회시 간소하게 산행의 절차로 시작했던 것을 1976년 10월7일 제9회 설악제때 설악산신제를 독립하여 치렀다.

요즘에는 10월1일로 정하여 격식에 맞는 산신제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제단에서 설악산신의 강신을 빌고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등 제관들이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속초시의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종합향토축제로서 설악제는 전야제의 제등행렬, 해상선박불꽃놀이, 폭죽놀이를 시작으로, 제례는 설악산에서 산신강림을 비는 산신제를 지내고 속초 시내로 내려와 봉안제, 대제, 굿마당을 펼친다. 이외에도 민속행사, 체육행사, 시민운동회, 문화예술행사를 겸하고 있어 시민의 날 축제로 정착되었다.

속초시민의 정성을 모아서 민간주도행사로 치루고 있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처음에는 산신제 행사에서 출발한 설악제지만 산악인 뿐 아니라 어민들의 풍어를 빌고 산행의 안전과 지방민의 안녕을 비는 행사로 확대되었다.

설악제때 단풍이 물든 설악산에서 행해지는 등반대회는 전국의 산악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 송개틀기

가을철에 벼베기를 끝내고 10월이 되면 날을 정해서 ‘송개틀기’를 한다. ‘속갱이하는 날’이라고도 하고 ‘송개튼다’고도 하는데 종을 울리며 “송개다 송개다”라고 외치면 집집마다 깎지를 들고 나와 소나무 솔잎 검불을 굽으러 간다.

“나무가 묵어서 썩는 집은 쌀도 남아 썩는다”고 할 만큼 송개를 많이 해다 놓으면 거울을 나는데 연료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연료사정이 좋고 나무를 때기 보다는 연탄이나 석유, 가스를 쓰는 집이 많고 또한 송개채취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 풍습은 사라져가고 있다.

“검불밀이 썩으면 좋다”고 하여 새로해 온 ‘송개’를 위에다가 쌓아 놓는데 송개를 솔갈비, 소갈비라고도 말한다.

● 김장하기

하장동저(夏醬冬蒞)라 하여 10월에는 가정마다 김장을 하는데 겨울동안 먹을 부식으로 이른 봄이 될때까지 배추나 무 등이 비타민과 채소공급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김장을 반양식이라 하듯이 김치, 깍두기, 동치미등 다양한데 한국인의 식성에도 잘 맞아 대표적인 반찬이기도 하다. 김장은 땅에 묻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며 김장때 주부들은 농부들의 두레처럼 공동으로 김장을 해주어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이 전하고 있다. 속초에서는 김장에 명태나 오징어를 넣거나 굴을 넣어서 만든다.

<11 월>

● 동짓날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도 하는데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동지는 1년중 낮이 가장 짧으며 집집마다 팔죽을 쑤다. 동지팔죽으로 차례를 지내는 집도 있는데 팔죽에는 ‘옹생이’또는 ‘옹심이’라 하는 새알심을 만들어 넣는다. 옹생이는 찹쌀가루로 새알모양으로 떡을 만들어 넣는데 나이 수대로 넣기도 한다.

동지가 초순에 들면 ‘아기동지’에 동지’라 하여 팔죽을 쑤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며, 그 해 농사가 잘 안된다고 한다. 중동지나 노동지인 보름이후에 동지가 들면 팔죽을 쑤어 먹는다.

속초에 전하는 말로는 “동짓날 팔죽 아홉그릇 먹고 김불 아홉짐 지고 와야 좋다”고 하는데 대보름날 민속과 유사한 근면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외에도 웅생이로 짐을 치는 것 중에서 집에 임신부가 있으면 팔죽을 끓이기 전에 생웅생이를 화로불에다 구워서 웅생이가 앞으로 빠져 나오면 아들을 낳고, 그냥 갈라지던 딸을 낳을 것이라고 짐을 친다.

팔죽은 색깔이 붉기 때문에 팔죽제사를 지내고 나면 문지방과 대문, 담에다 뿌리고 집안의 잡귀를 쫓는다고 한다. 팔죽은 유래를 보면 중국의 공공씨가 재수없는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 역질귀신이 되었다고 하며 그 아들이 생전에 팔을 두려워 했으므로 동짓날 팔죽을 쑤어 물리쳤다고 하는데, 적두죽(赤豆粥)이 갖는 역사적 기능과 영양적 측면에서 동짓날의 시식으로 퍼진 것 같다.

동짓날 팔죽이 일찍 쉬면 다음 해에 풍년이 된다고 미리 짐작한다. 청호동에서는 함경도사람이 많은 관계로 동지팔죽을 ‘오구랑팔죽’이라 부른다.

● 용 경

동짓달에 청초호가 얼었을 때 얼음이 언 것을 보고 새해 농작의 풍흉을 점친다. ‘용경’(龍耕) 또는 ‘용갈이’라고도 하는데 호수밑의 용이 논두렁처럼 얼음을 갈아 놓은 것으로 판단한다. 즉 얼음을 남쪽으로 향해 갈아 놓거나 북판만 갈면 풍년, 북으로 향해 얼갈거나 옆을 갈면 흉년이 되고, 좌우로 마구 갈면 평년작이 된다고 한다.

속초의 전설에 의하면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고 청초호에는 숫룡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청초호의 용이 얼음을 갈아 놓는 용경민속은 조선시대 읍지와 동국세시기등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만천동 나룻배씨움놀이는 이 전설을 근거로 하여 이뤄진 놀이인데 부월리, 조양동주민들에 의하면 용이 밭을 가는 동지때쯤에는 소들이 진땀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12 월>

●선 달

12월에는 '선달'이라 부른다. 선달은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이므로 분주하게 지내는데, 동지후 셋째 미일(未日)을 납일(臘日)로 정하여 납향제를 지냈으나 요즘은 거의 지내지 않는다.

선달에 잡는 참새고기는 맛이 있고 무병한다고 하여 먹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마마를 깨끗이 한다'고 하여 어린이에게 먹였다.

●수 세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선달 그믐날'이라 하는데 이날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수세(守歲)라 부른다. '수세지킨다'고도 하는데 '눈썹세는 밤'이라고도 한다.

그믐날 밖에는 집안을 온통 환하게 밝히는데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가는 해를 지킨다는 뜻의 수세는 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뜻도 담고 있다.

묵은 새배라 하여 일가에 찾아다니기도 하는데 과세를 잘 하라는 뜻으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이다.

선달 그믐밤 제석(除夕)에 일찍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하여 아이들을 못자게 하고 웃놀이를 하며 보내는데 제석을 '오늘밤'이라고도 부른다.

●윤 달

윤달은 '남은 달'이라고도 부르고 '공달'이라 한다. 윤달은 4년에 한번씩 드는데 시골 농가에서는 윤달이 여름 5~6월에 들어야 좋지, 하 지나 선달이나 정월달에 드는 것을 싫어한다.

윤달은 아무달이 없다고 하여 속담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달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공달이고 재액없는 달, 손없는 달로 여긴다. 그러므로 장례준비를 하여 수의를 만들고 아궁이 수리나 부엌개수, 화장실 등에 못도 칠 수 있으며 묘소도 이때 손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장을 하거나 비석도 이 시기에 세우는데 평소 꺼리던 일을 하게 된다. 집에 노인이 있는 경우는 지난 윤달에 준비해 놓은 수의를 윤달이 다시 돌아오면 꺼내서 손을 보고 도로 넣는다.

제 2 절 통과 의례(通過儀禮)

통과의례(通過儀禮)라 함은 개인이 일생을 살면서 중요한 고비를 넘으려 할때에 사회에서 인정하는 의례형식을 말한다. 흔히 중국식으로 관혼상제를 뜻하기도 하여 4례(四禮)라는 말도 써왔다. 물론 4례는 중요한 통과 의례임을 알 수 있으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점도 있고 지역마다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하겠다.

인생의 긴 행로를 살아감에 있어 출발과 종착점은 출산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혼상제 뿐 아니라 임신, 출산에 관련된 사항과 백일, 첫돌, 회갑연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를 서술하고자 한다.

지금의 실정으로 보면 사례중에서 관례는 그 의미를 상실하여 혼례에 부분적으로 흡수되었고, 전통혼례도 특별하게 치루는 경우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위 신식예식장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다만 상례의 경우는 비교적 전통양식이 유지되고 있으나, 여러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간소화하려는 움직임과 아울러 장의사의 규격화된 형식에 따르고 있는 실정도 나타난다. 제례는 이에 비해 변화를 덜 겪고 있음이 파악된다.

1. 임신과 출산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의례는 경우에 따라 가문에 따라 개인에 따라 차이가 심하지만 크게 본다면 기자속(祈子俗), 산전속(産前俗), 산후속(産後俗)으로 나눌 수 있다.

임신하기를 바라는 뜻은 결혼을 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2세를 낳아 집안세대간의 계통성을 유지하는 뜻이 있는데 이러한 민속을 기자속이라고 한다. 자식을 바라는 심정은 아들, 딸을 불문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어 가계를 이을 아들을 원하는 경우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임신하여 주부는 태교를 하며 조심을 하는데 흔히 태몽에 의하여 남녀 성별을 구분하기도 한다. 태몽을 신봉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고 과학적인 의술을 믿는 경우나 간에 성별 뿐 아니라 장래의 일까지 예측해 보기도 하는 것이다.

기자행위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치성을 드리는 치성기자와 특정사물이나 음식에 의

지하여 주력(呪力)을 바라는 주술기자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치성기자의 경우는 산이나 절 또는 집안에서 부부가 함께 하거나 부인이 따로 정성을 들여 자식을 얻고자 하는 경우인데 속초에서는 설악산에 산치성을 많이 가고 있다. 대체로 몸을 깨끗이 목욕하고 근신을 한 후에 전에 다니던 산이 있거나 바위 또는 고목이 있으면 쌀, 과일, 향, 초, 소지종이등 간단하게 차려서 메를 지어 올리고 절을 하며 축원을 한다. 축원후에는 소지를 올리고 소원이 이뤄질 것인가를 점치는데 소지종이가 위로 곧장 타서 올라가면 좋다고 한다.

이외에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데 대부분 불교신자인 경우에 행한다. 불공을 들여 자식을 바라는 경우에는 대웅전 뿐 아니라 산신각, 칠성각에도 꼭 들러 향과 초를 피우고 기원한다.

다음에 주술적인 기자행위로는 아들낳은 사람의 속옷을 빌려다 입거나 단오날 약쑥 뜯은 것을 달여 먹기도 하고, 아들 낳은 집에서 대문에 걸어놓은 금줄의 붉은 고추중 가장 큰 것을 훔쳐다가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는다. 요즘에는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키운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나 아직도 초음파로 성별을 검사하여 물의를 빚는 일이 있고 보면 남아선호 의식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음 산전속으로는 태몽과 금기가 있는데 태몽의 경우 아들일 경우와 딸의 경우가 있고 길몽과 흉몽이 있다.

아들 꿈의 경우는 무엇이든 선명하게 보이고 딸은 꽃, 호박이거나 희미하다고 한다. 또는 곰, 호랑이, 흑룡꿈은 아들이고 뱀, 대추, 또아리, 연꽃, 청룡꿈은 딸이라고도 한다.

길몽의 경우는 해와 달이 품에 안기거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도 좋고 황룡을 타고 올라가는 꿈도 그렇다고 하는데 과일꼭지가 떨어지거나 썩은 것, 짐승이 죽는 꿈은 흉몽으로 본다. 길몽을 꾸면 그 해 임신을 하거나 건강한 자식을 볼 수 있으며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임신중의 금기는 특히 다양한데 아기 낳기 전이나, 낳고 3주일 안에는 집에 못을 치지 않는데 아기의 눈을 다치기 때문이라 한다. 임신중 오리고기를 먹으면 손, 발가락이 붉은 아이를 낳고 문어고기를 먹으면 빼없는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금한다.

감자를 구워 먹으면 몸이 붉어진다고 하여 못하게 하고, 찹쌀을 먹으면 젖줄이 막히고 죽을 쑤어 먹으면 나쁘다고 하여 금기시한다. 이외에도 불난 것을 보면 부정탄다고 하여 피하고 짐승 죽은 것을 보지 않으며, 의자의 모서리에 앉지 않고 두부도 깨진 것은 먹지 않는다. 또한 임신중에는 부뚜막을 고치는 것을 절대 금하고 화장실도 고장이 나더라도 가능하면 보수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해산후의 산후속에 속하는 것으로 해산준비와 삼신모시기, 태의 처리, 작명, 목욕, 손톱깎기 등이 있다.

해산준비를 하는 것은 이미 산모가 포대기, 기저귀, 미역, 호박등을 준비하는 것 뿐 아니라 출산할 장소를 물색해 놓는 일도 포함된다. 산부인과를 가지 않는 경우 아기는 보통 안방에서 낳으며 마을 산파를 부른다. 혹 두 사람이 해산을 하는 경우 한 집에서 두 명이 몸을 풀면 나쁘다고 하여 며느리의 경우는 친정에 보낸다.

순산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산모의 허리를 가로 타고 넘으면 쉽게 낳고 날달걀을 기름에 넣어 먹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아이는 세상구경을 하게 되는데 집안에서는 '삼신할머니'를 모신다.

삼신할머니는 아기의 머리맡에 있다고 하며 모시는 경우 미리 산모방 구석에 간단한 상을 마련하여 정화수와 쌀을 떠놓고 빌기도 한다. "삼신할머니, 애기 엄마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물처럼 바람처럼 속 빠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빈다. 산모가 마침내 해산을 하면 보통 3일만에 태를 태우고 난후 미역국과 밥을 떠놓고 "다시 옥동자 귀동자를 순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삼신께 빈 다음에 산모가 먹는다. "삼신할머니 산모, 애기 모두가 건강하니 애기 엄마 것이 많이 나게 해주십시오"라고도 빈다.

삼신할머니는 태신(胎神)으로 믿고 있는데 베로 만든 주머니에 쌀을 넣어 안방 가달 시렁에 걸어놓기도 하고 평소에는 따로 모시지 않는 집안도 있으나 출산 무렵에 신을 인식한다. 삼신의 삼은 셋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태를 뜻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제물은 보통 흰밥, 미역국, 정화수 정도로 간략하다.

태의 처리도 보통 태우나 넷물에 띄워 보내기도 하고 땅에다 태우고 난 재를 묻기도 한다. 아이의 목욕은 3일만에 시키는 경우가 많고 손톱은 보름정도되면 깎아준다고 한다.

출산을 하면 금줄을 쳐서 부정을 막고 외부출입을 금하는데 "송침한다"고 하여 원세끼줄에다가 아들일 경우는 붉은 고추와 참숯을 매달거나 보드기술까지 굶은 통째로 찢러 두기도 하며, 딸의 경우는 참숯과 소나무 가지만을 방문앞이나 대문, 앞처마에 약간 늘어지게 "금줄친다"고 매단다.

금줄을 보면 출산한 것을 알게 되고 남녀를 구분하게 되며 상제나 상가출입한 사람, 개고기를 먹은 사람, 피를 본 사람 등은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

다음의 산후속에는 3일째, 7일째, 14일째, 21일째에 따라 다른 행사를 갖는데 3일째 되는 날까지 삼신상을 차렸던 것을 산모가 먹고, 작명도 애기낳고 3일만에 짓는다. 7일째 되면 '첫이례'라 하여 금줄을 걷으며, 14일째되면 삼신상을 차리지 않으며 이웃할머니나

친척들이 애기를 보러와도 괜찮다. 21일째를 ‘삼칠일’이라 하여 이때까지 초상집에 집안 식구들은 못가고 상제도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

대체로 삼칠일의 행사가 끝나면 산모나 애기도 안정이 되고 산후조리를 어느정도 하였으므로 금하였던 일도 해제된다.

2. 백일, 첫들

삼칠일까지는 산모의 건강을 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일이 되면 애기를 위한 경축일이 된다. 백일잔치는 일반적으로 잘 차려서 이웃잔치를 대접하고 어린애기의 무사함을 축복하게 된다. 백설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백사람이 먹으면 좋다고 하며, 수끼떡(수수떡)은 바람물리치라고 만든다.

백설기와 수수떡은 악살을 막아준다 하여 꼭 만들어 백일상에 올린다.

첫들은 애기가 탄생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돌잔치를 할때는 애기가 무엇이든 잡으려고 하므로 돌상위에 돈, 책, 실, 연필, 쌀등을 올려놓고 ‘돌잡이’를 한다. 애기가 돈이나 쌀을 잡으면 부자가 되겠다고 하고, 책이나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고, 실을 잡으면 수명이 길겠다고 장래를 점치며 즐거워 한다. 여자아이의 경우는 가위를 올려 놓기도 하는데 혹 가위를 잡으면 손재주가 있겠다고 한다. 이것을 ‘돌잡힌다’고 하는데 돌날 아침에 미역국을 떠서 삼신할머니를 위하기도 한다.

3. 회갑

회갑(回甲)또는 환갑(還甲)이라 함은 자기가 낳은 해로 돌아왔다는 뜻인데 ‘갑’은 갑자를 뜻한다. 더러 화갑(華甲)이라고도 부르는데 華자를 분석하면 61이 된다고 한다.

대체로 고려조에서부터 회갑잔치를 한 것으로 문헌에서 상고할 수 있는데 회갑날에는 당사자 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상을 받는다.이를 수연상(壽宴床)이라 하며 자손 및 하객들의 인사를 받는 기쁨을 누린다.

4. 관례

관례(冠禮)는 사례증 가장 먼저 행하는 예로서 어린이에게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올려 상투를 만들고 관모를 씌우는 의식이다. 남자의 경우는 관례라 하고 여자는 계례(笄禮)라 하는데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행

해지지 않는 통과례이나 요즘 성균관에서는 관례를 부활하여 성년식의 일환으로 치른다.

관례는 성인이 되어서 사회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책임도 부과한 의례로서 성년례라 하겠다. 관례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근 천여년을 통해 행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헌상 고려 광종16년의 기록이 처음 보인다. 이것은 개화후 고종의 단발령이 이후 상투가 없어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의미를 잃게 되었다.

관례는 빈(賓)이라는 주례자에 의해 거행되는데 주된 의식을 삼가례(三家禮)라 한다. 삼가례는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를 말하며 여기에 초례(醮禮), 수자례(授字禮), 알묘례(謁廟禮), 견존장례(見尊長禮)가 행해진다. 관례 의식은 상투를 짜고 어른으로 행세하기 위해 자를 지어 받고 가묘에 이것을 고하며 집안이나 동네의 어른을 찾아 인사드리는 예인 것이다.

관례의 예는 글을 하던 사람들에 의해 치뤄져 성인례로 인정되나 농사일을 하던 청장년들도 봄철의 쓰레씻이할 때나 가을철 질막기 할 때 적당한 성인의 품앗이를 받을 수 있는 성인식을 한다. 이때는 술과 음식을 잘차려 노고를 위로하고 성인됨을 축하하게 된다.

남자들의 관례는 여러 절차를 거쳤으나 여자들은 결혼전에 형식적으로 계례를 행하였다. 요즘에는 서구식으로 성인식을 떠들썩하게 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전통적인 것은 퇴색해 가고 있다. 다만 복고적인 일부 계층의 관례가 형식적으로 치뤄진다.

5. 혼례

혼례(婚禮)는 결혼을 치르는 과정의 의례로 옛 문헌에는 ‘昏禮’로 써서 저녁에 치뤘음을 말한다. 고대국가 시기에는 아내를 사오는 동옥저의 구매혼이 있기도 했고 신랑이 처가살이를 해야 하는 고구려 부족국가도 있어서 ‘장가든다’라는 말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짐작케 된다. 그러나 차츰 혼례가 정비되면서 신랑, 신부 양가의 동등한 입장에서 인륜대사를 치루게 되었다.

혼례는 ‘의혼’(議婚) 또는 ‘혼의’라고 하여 중신애비를 통하여 서로 양가 신랑 신부의 집안근본, 성품, 건강, 재산, 학력등을 알아 보는 과정인데, 근래는 자유연애를 표방하여 당사자들이 먼저 사귀고 나중에 부모의 허락을 얻는 경우도 있으나 옛 사람인 부모의 의견을 많이 듣고 결정을 하게 되는 집안이 대부분이다.

다음은 ‘납채’(納采)인데 양가의 결혼이 결정되면 사주(四柱)를 보내서 약혼의 징표로

삼는다. 복잡한 절차를 요즘에는 생략하는데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허혼을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고 여자측에서도 회답을 한다. 요즘에는 신랑의 사주가 신부집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 날을 잡는 택일, 즉 연길(涓吉)을 보내는 것으로 끝낸다.

신랑의 사주는 생년월일시를 간지에 맞추어 한지에 내려쓰고 5번 접어서 봉투에 넣고 봉투겉에는 3번 근봉을 씌운다. 그리고는 청홍실로 감고 파란색이 겉에 보이게 묶는다. 요즘에 더러 신부측 사주까지 미리 알아서 함께 적어 보내기도 하는데 이 사주단자는 속이 붉고 겉은 파란천으로 감고 세귀통이에 청홍실을 단 사주보로 쓴다.

사주가 도착하면 작은 상으로 바쳐서 받는데 혼례후는 신부가 장농의 가장 뒤쪽에 평생 보관한다.

‘납폐’(納幣)는 친영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채단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요사이에는 혼인전에 신랑의 친구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통례다. 이를 ‘함애비’라 하여 가까운 신랑 친구나 처아들을 낳은 사람이 함을 지고 간다. 함속에 속초에서는 신부저고리와 치마, 호두, 붉은 고추, 조 이삭을 넣어 보낸다.

다음의 절차가 ‘친영’(親迎)인데 신랑이 친히 신부를 맞이해 온다는 뜻이므로 혼례에서는 중요한 행사이다. 친영시 신랑을 인도하고 신랑집을 대표하는 사람을 ‘상객’(上客)이라 하는데 후행에는 안부(雁夫)가 따른다. 신랑은 아침 일찍 사당에서 조상을 뵈고 혼례함을 고하고 부친께 인사하고 떠나는데 사모관대를 한다. 신랑일행이 신부마을에 도착하면 사처에 든다.

‘전안례’(奠雁禮)는 신랑이 기러기를 안고 전안청에 이르면 장인되는 이가 서쪽을 향해 서고 신랑은 북쪽을 향해 기러기 즉 목안을 내려 놓는다. 그리고 신랑은 전안상 앞에 꿇어 앉아 재배를 하는데 장인은 응답을 하지 않는다. 전안이 끝나면 신랑을 교배상으로 안내하고 신랑은 동쪽에 선다. 신부가 유모 등의 부축을 받으며 교배상에 나와 재배하면 신랑이 답하여 재배한다. 신부가 다시 재배하면 신랑이 읊을 하고 난후 각기 꿇어 앉는다. 상견례가 끝난후 청홍실을 감은 술잔에 술을 부어 신부의 손에 대었다가 하님이 신랑에게 넘겨주면 마시고 다시 보내기를 세 번 되풀이 한다. 안주는 도매 소매에 넣는데 밤은 아들, 대추는 늙지 말라고 하여 넣어준다. 이 합근례, 합환례(合歡禮)가 끝나면 혼례의식은 끝이 나고 정식부부가 된다.

당일 신랑은 신부집에서 하루 밤을 지내는데 사흘안에 신부가 재행이면 동네에 사는 청년들이 모여서 신랑매달기를 한다. 속초에서는 왓달계를 조직하여 계원들이 ‘사위단다’며 도둑잡기를 하고 신랑을 시험하기도 한다. 파자놀이 시험도 하고, 반대말로 시키기를 하여 신랑의 지혜를 탐색한다.

‘신랑매달기’는 동상례(東上禮)라 하는데 동상 즉 사위를 맞는 신부집에서 대접하는

예라기도 한다. 신랑을 불러서 오게 되면 “처녀 훔쳐간 도둑의 발크기를 쟀다”하면서 훔치기를 하여 신랑을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을 때리며 “이 마을 처녀를 훔쳐간 죄가 크다”며 신부를 부르라고 시킨다. 대체로 장난으로 그치고 장모가 음식과 술을 대접하면 그만둔다. 고풍스런 풍속이나 함팔기, 신방엿보기등과 같이 지나치면 오히려 예에 어긋남은 당연한 일이다.

신부가 시가에 신행가는 것을 ‘우귀(于歸)라 한다. 신부의 가마가 집안에 들어서면 가마에 ‘사삼이’라 하여 재봉지를 던지고 짚단으로 불을 피워 넘게 하는데 액살을 막는 뜻이라 한다. 신랑이 신부집에 친영하러 올 때는 이와 같이 행한다.

신부택에 와서 부모와 일가에게 인사드리는 것을 ‘현구고례’라 하는데 폐백상을 차려 드시게 하고 이것이 끝나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청학동에서 제21회 설악제 민속예술경연대회시 재현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식순서는 아래와 같다.

- 영서례…관수,세수(天上 4拜,북향)
- 전안례…안부,집안우(신랑)소퇴,입
- 친영례…서동(婿東) 부서(婦西)
- 교배례…부선4배(婦先四拜) 서답재배(婿答再拜) 서부상향좌(婿婦相向坐)
- 근배례…시자음주(侍者揖酒) 부거작(婦舉酌)3배 시자음주(侍者揖酒) 서거작(婿舉酌)3배
- 폐백
- 신부시내실(新婦侍內室) 신랑시외방(新郎侍外房)
- 예필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참고로 그대로 옮긴다.

지금 행렬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향하고 있는 행렬입니다. 신랑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신랑에게 잣봉지를 치고 있습니다. 이 잣봉지는 잡귀를 쫓기 위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객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심하구나, 되돌아 가자” 신랑행렬은 오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대기하고 있던 집사가 큰소리로 사과하라고 외칩니다. 장난꾼들은 엎드려 사과를 하고 신랑일행은 신부집에 도착하여 혼례행사가 거행됩니다.

예식은 집사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行 迎婚禮…신랑이 왔으니 맞으라. 세수물이 신랑앞에 대령되면 신랑은 손을 씻고 미

리 준비된 물동이의 정화수 앞에 섭니다.

天上四拜…집사의 지시에 따라 신랑이 북향을 해서 4번 절을 합니다. 하늘에 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아름다운 배필까지 주시니 감사하다는 뜻으로 4번씩 절을 합니다.

行 奠雁禮…합아비가 기러기 한쌍을 꺼내 신랑을 주면 신랑은 기러기 머리가 서쪽을 향하고 꼬리가 땅을 향해 왼팔로 꺼안습니다. 기러기는 부부간에 금실이 좋아 절대 서로 떨어지는 일이 없고, 한마리가 먼저 죽게 되면 평생을 홀로 보낸다 하여 이 기러기를 쓴다고 합니다.

이제 신랑이 기러기 한쌍을 장모님께 건네주고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섭니다.

行 親迎禮…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섭니다.

行 交拜禮…먼저 신부가 신랑을 향해 4번 절을 하면 신랑이 답으로 신부에게 2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 앉습니다.

行 僮拜禮…먼저 신부가 술을 부어 3잔을 신랑에게 건네면 신랑이 다시 술을 부어 신부에게 3잔을 건네 줍니다. 이때 장난꾼들이 신랑에게 안주를 먹입니다.

行 新婦侍內室 新郎侍內房…신부는 방에 들어가고 신랑은 차려 놓은 큰상앞에 앉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식은 끝이 납니다.

큰 상을 받으면 신랑 상객상에 ‘단자’가 들어 옵니다. 단자란 한지에 쓰여진 짧은 글로 신랑의 학문을 시험하고 “신랑 상객이 이렇게 큰 상을 받았으니 우리도 좀 나누어 주시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3일후 신랑 신부가 신부집으로 재행을 오고 있습니다. 신부마을 젊은이들은 신랑이 오기를 단단히 버리고 있습니다.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를 도둑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고 이 마을 왕달계장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봐라”, “예”, “며칠전 우리 마을에 20년동안 곱게 가꾸어 놓은 꽃한송이가 도둑을 맞았다는게 사실이냐” “예” “그러면 지금부터 범인을 잡아 오너라. 여기 범인의 발길이가 있으니 재어 보아라”

이리하여 신랑이 잡혀 밧줄에 매달려 술, 담배, 국수, 술안주 등을 푸짐하게 대접하겠다는 언약을 받고 신부가 맨끈을 풀어 준다.

금호동에서 재현한 ‘신랑길 가마싸움’도 구혼례식을 치르면서 생긴 풍습이다. 같은날 혼례한 신랑 신부가 가마가 다른 마을 신랑 신부 가마와 좁은 다리나 길에서 만나면 먼저 지나가는 쪽의 신부가 시택에 가서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득남을 한다고 믿어 실랑이를 벌인다. 다툼이 심하면 어깨싸움까지 하게 되는데 무사히 서로 건넌게 되면

함께 어울려 노제를 지내고 흥겹게 어울린다.

속초지방에서 특별히 통혼을 꺼린 지역이나 성씨는 없으나 일부 집안에서는 간성의 며느리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소귀신 즉 '쇠구영신'이라 하는 집안에서 여자가 모시는 군웅신이 따라 오기 때문이라 한다.

간성지방에서는 소귀신을 많이 모시고 있으므로 자신의 마을로 옮겨 오는 것을 싫어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한다.

6. 상례(喪禮)

상례는 혼례와 달리 전통성이 아직까지 강한 면모를 보여 주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대체로 격식에 맞추어 지내고 있으므로 다른 지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상례는 크게 초종(初終) 염습(殮襲) 성복(成服) 문상(問喪) 치장(治葬) 기타 제의(祭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종' 즉 임종(臨終)을 맞게 되면 부모일 경우에 반드시 안방에 모시고 자손들을 불러 모아 숨이 다하는 것을 지켜 보는데 이것은 자손의 마지막 도리로서, 예서에 의하면 임종시 남자는 남자의 손에 여자는 여자의 손에서 명이 끊어져야 된다 하였다. 지금은 이것이 문제되지 않으나 자손들이 지켜보는 데서 자는 듯이 숨을 거두는 것을 행복한 임종이라 한다. 연세가 많아서 사망하면 호상(好喪)이라 한다.

임종을 맞게 되면 '고복(阜復)을 하는데 초혼(招魂) 또는 "혼부른다""사자부른다"고 한다. 초혼부르는 사람이 사자(死者)의 생존시 입던 저고리나 적삼을 들고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옷의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해 흔들면서 이름을 부른다. 남자일 경우는 "아무해생 아무개 북·북·북"이렇게 외치고, 여자일 경우는 "아무해생 아무개 부인 북·북·북"이렇게 외치고 손을 3번 앞으로 흔든다. 고복의 의미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혼이 나간 것이라고 믿고 나간 혼을 불러들여 재생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고복이 끝나면 '수세견음' 또는 '손발거둔다'고 하여 손을 펴서 배위에 올려놓고, 발을 똑바로 세운 다음 송판을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 놓는다. 다음에 한지를 3번 두르기나 베로 손목, 발목, 허리를 묶는다.

초혼이 끝난 다음에 '역복(易服)을 한다. 상주들은 직령으로 같이입고 남좌여우(男左女右)라 하여 남자가 돌아갔을 때는 왼쪽팔, 여자의 경우는 오른쪽팔을 끼지 않고 통건을 쓴다. 자식이나 자손들은 즉시 곡을 하며 수시로 곡을 한다.

'호상(護喪)은 상주의 친척이나 친구중에서 상례에 밝은 사람으로 지정하여 모든 일

을 돌보게 한다. 발상시에 예전은 머리를 풀었으나 요즘에는 여자들의 경우에 한하고 있다. 호상은 상을 알리고 부고(訃告)를 이웃 친지 친척들에게 띄운다.

‘엄습’(殮襲)은 ‘습염’이라고도 하는데 전에는 습과 소렴의 절차를 구분하였다. 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일체의 의복으로 갈아 입히는 것이다. 소렴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서 묶는 것이고, 대렴은 시신을 아주 묶어서 관에 넣는 것까지를 말한다.

전에는 습을 당일애, 소렴을 그 이튿날, 대렴은 사망후 3일째 되는 날에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3일장이므로 ‘엄습한다’고 하여 한번에 한다. 습의 경우 시신을 목욕시킬때 수세걸었던 끈을 풀고 옷을 벗긴후 썩이나 향나무로 만든 향수물이나 크레졸로 솜에 찍어 씻긴다.

목욕이 끝나면 조발낭이라는 베로 만든 주머니에 머리칼, 손톱, 발톱을 깎아 담아서 관 구석에 넣는다. 습할때 여자의 경우는 분을 바르고 연지 끈지를 찍기도 한다.

‘수의’(壽衣)는 ‘습의’라고도 하는데 속옷·중의·바지·속적삼·적삼·저고리·덧저고리·두루마기를 입힌다. 버선과 악수(握手)·대님·면모(面帽)도 아울러 사용하며 옷을 입힐때는 홀이불로 시신을 덮고 수의를 입혀서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남자는 결혼때 입었던 도포를 입히고 여자의 경우는 죽도리·원삼을 입히기도 한다.

‘반함’(飯含)은 수의를 입힌 다음에 쌀을 물에 불려서 사발에 담아가지고 버드나무 수저로 시신의 입에 떠넣는 것인데 죽은 사람의 양식이라 하고 저승까지 갈때의 식량이라 한다. 이것을 ‘미음쌀’이라고도 하는데 반함은 시신의 입의 오른쪽과 왼쪽, 중간에 세 번 넣고 처음 넣을때부터 “천석이오, 이천석이오, 만석이오”라고 하기도 하고 “백석, 천석, 만석이오”라고도 한다. 이때 동전을 같이 넣기도 하는데 “백냥이오, 천냥이오, 만냥이오”라고 한다. 이것은 사자가 저승까지 갈 노자라고도 한다.

반함이 끝나면 시신의 코·귀를 솜으로 막고 시신을 묶는데 교포(絞布)를 쓰며 소렴(小殮)은 먼저 세로로 묶고 가로로 묶는다. 묶는 매수는 3매듭, 5매듭, 7매듭이 있는데 발끝에서부터 위로 3매, 다시 머리쪽에서 아래로 묶고 나중은 가운데 부분을 묶는 방법이 있다.

교포를 다 매고 나면 고깔이라 하여 창호지를 묶은 매듭 부분에 끼워 밑으로 향하게 접는다.이것은 저승의 열 두 대문을 들어갈때 문지기에게 썩워 준다고 한다. 다음에는 칠성판을 시신밑에 대고 베를 감는데 시신의 밑에 지금(地禽)을 깔고 칠성판을 뺀후 시신을 입관후 천금(天禽)을 덮는다. 시신을 입관할 때는 수평이 되도록 머리밑을 받치고 관의 빈곳을 흰 옷이나 종이에 싸 흙, 짚이나 종이로 보공(補空)을 한다. 이렇게 해야 낙골이 되어도 흠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흙으로 보공시는 불에 쪼여 벌레가 없도록 한다.

이 다음에는 관뚜껑을 닫고 결관을 하는데 결관바는 짚과 종이로 만든 원세끼로 보통 7매듭이나 4매듭을 맨다. 관위에는 명정을 써서 덮는다.

염습이 끝나면 ‘성복’(成服)을 한다. 염습전까지는 상제들이 통건을 쓰고 소매 왼쪽을 끼지 않는다. 성복시 남녀상주가 마주서서 4배를 하고 곡을 한 다음 상복으로 바뀌 입는데 아래부터 치여 입는다. 상복의 종류로 효건(孝巾)은 두건을 말하는데 상제 이외 친척이 쓴다. 굴건은 배에 종이를 붙이고 사이에 침을 넣어 주름을 세 개 잡은 것으로 부모의 상을 당한 참쇠나 재취복인만 쓴다. 수질(首旌)은 머리에 띠는 새끼줄로 만든 띠이고 요질(腰旌)은 허리에 띠는 새끼띠이다. 중단의(中單衣)는 최복을 받쳐서 입는 베두루마기이고 최복(衰服)은 상제가 곁에 입은 제복(祭服)이다. 이외에 상장(喪杖)은 상제들이 짚는 지팡이인데 참쇠는 대나무, 재취는 오동나무나 버드나무 밑을 모지게 하고 위를 둥글게 만든다. 행등이라 하는 행전과 짚신, 버선, 무명으로 만든 바지·저고리가 있고 최상은 여자들이 입는 베치마이다.

성복이 끝나면 혼백을 접고 궤연을 설치하고 성복제를 지낸다. 이를 “상가모셨다”고 하고, 지칭(제칭)이라고도 한다. 제는 제주가 상주의 대리로서 행하는데 호상이나 친척이 분향·단헌·무축의 절차로 지내며 상주들은 곡만 한다. 궤연은 대상때까지 삭망에 상식(上食)을 한다. 요즘은 보통 3일장이다.

복지(服制)는 참취(斬衰)·재취(齋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의 다섯가지가 있는데 상복만드는 배의 바탕 재질에 따른 것이다. 요즘에는 부모의 상에만 상복을 입고 팔촌까지는 두건과 행전을 치고 기간도 3년이나 1년, 몇개월이 아니고 초상을 치르는 기간만 입고 있는 실정으므로 5복제는 희미해졌다고 볼 수 있다. 참취복과 재취복은 3년, 기년복은 1년, 대공복은 9개월, 소공복은 5개월, 시마는 3개월을 입는데 입는 대상의 차이에 따라 달리 입는다.

성복을 한후 저녁제사를 미치면 조문객들의 문상(問喪)을 받는다.조객은 영좌앞에 향을 피우고 부의금을 가지고 왔으면 상위에 놓고 분향후 재배한 다음 상주들과 절을 한다. 상주들은 이때 곡을 하며 맞절을 하는데 서로 조사를 나눈다.

이 과정이 끝나는 3일장이나 7일장을 하면 ‘치장’(治葬)을 하는데 장지를 결정하게 된다. 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면 출상 당일 발인제(發靱祭)를 지낸다. 상여에 관을 얹기 전에 지내는데 제주는 호상이 맡고 상주들은 곡만 한다. 발인상은 한번 지내나 잔·수저·포는 각각 3개씩 한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에 관을 얹고 “에에헤 어이갈까 에에헤”라는 상여소리를 부르며 장지로 출발하게 되는데 방에서 관을 내올때 바가지를 발로 밟아 깨고 나온다. 상여가 출발전 집을 향해 두 번 절하면 상주들도 맞절을 하고 상두꾼과도 절을 한다. 장의 행렬 순서는 명정(銘旌)－영거(靈車)－만장(輓章)－공포(功布)－상여

-상주-복인-빈객의 순서로 된다. 장지로 가는 도중 노제를 지낸다.

상여가 출발전에 장지에서는 산역(山役)을 시작하는데 주·과·포를 마련하여 산신제를 지내고 광증을 파고 묘지를 만든다. 산신축문을 읽고 난 후 꿩으로 3번 찍고 난 후 묘 자리를 판다. 상여가 도착하여 하관시까지 상여옆에 영좌를 마련하여 혼백을 모시고 제물을 차려 조객을 맞는다.

하관(下棺)시가 되면 상주들이 상여에서 관을 내려 모신다. 광증에 넣을 때 관째로 하관하는 경우는 그대로 하나 관을 안쓸 경우는 칠성판으로 시신뒀을 받치고 첩포로 감은 다음 모토를 파고 하관한다. 광증은 술가지로 깨끗이 쓸고 백지를 까는데 시신의 머리가 북쪽, 발이 남쪽으로 가게 좌향(坐向)을 맞추는데 자좌오향(子坐午向)이라 한다. 시신이 들어가면 광내의 빈 곳을 흙으로 채우는 모토를 하는데 옷나무 흥대를 덮으면 좋다 하여 흥대를 하고 만상주가 부드러운 흙을 상복으로 받아 3~4차례 쏟으면서 취토를 한다. 상주가 삼으로 흙을 한 삽 떠서 넣기도 하는데 취토후 한번 다진 다음에 다시 산신제를 지낸다.

하관이 끝나면 '땅다룬다'하여 주·과·포놓고 축문을 외우고 회를 섞은 흙을 먼저 넣고 '예해 달고야'하면서 다진 다음 보통 흙을 넣어 다지며 광증의 흙이 지표에 일치하거나 성분이 다 된 다음에 평토제(平土祭)를 지낸다. 이것을 속초에서는 '달구질'이라 한다.

상주들은 산역을 마칠때까지 계속 곡을 하며 평토제는 산에서의 마지막 제사로 제물을 차린다. 이 평토제 제물은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한다.

이 일이 끝나면 '반곡'(反哭)을 하는데 산으로 부터 본 집으로 반혼(反魂)하는 의식이 다. 성분제가 끝나면 혼백(魂魄)은 묘앞에 묻고 사진이나 지방은 되 모시고 온다.

'우제'(虞祭)는 사자의 신체를 땅에 묻었으므로 그 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지내는 제사로 초우(初虞)·재우(再虞)·삼우(三虞)가 있다. 초우는 장례일에 지내며 재우는 초우 지낸뒤 처음 맞는 유일(柔日, 乙·丁·己·辛·癸)에 지내고, 삼우는 재우 뒤에 강일(剛日, 甲·丙·戊·庚·壬)을 맞으면 지낸다. 그러나 재우는 보통 초우제 지낸 이튿날에 지내고 삼우제는 반혼한지 3일째 되는날 아침에 지낸다.

'졸곡'(卒哭)은 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뜻인데 삼우 지낸뒤 강일(剛日)에 지낸다. 대체로 3개월후 아침에는 졸곡제를 지내나 곡은 삼우제 이튿날 그친다.

'소상'(小祥)은 초상 1년후 지내는 제사인데 기년복을 입은 사람은 복을 평소의 옷으로 바꿔 입는다. 보통 소상때 탈상(脫喪)을 한다.

'대상'(大祥)은 초상후 2년만에 거행한다. 소상때 탈상하지 않는 곳에서는 대상 전날 밤에 상식(上食)을 올리고 새벽에 대상제를 지내고 탈상을 한다.

'담제'(禫祭)는 대상후 3달이나 10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지내는데 이때부터 건도 벗고

소복도 벗으며 빛깔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의 상례는 속초지방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나 전국적인 유사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사례편람등의 예서에 입각하여 상례를 거행함을 증시한 결과로 보인다.

상여소리는 특이한 것이 나타나지 않으나 도문에서는 출상 전날밤에 상두꾼들이 모여 “드장한다” 또는 “손모든한다”라고 하여 빈상여를 꾸미고 행상하는 식으로 소리를 한다. “초초아웁니다”하고 절을 하고 “상주열좌”하여 상주들이 모이면 보통 3번하는데 ‘초초·이초·삼초’라 부른다.

‘초초’는 저녁에 아뢰고, 이초는 밤 1~3시경, 삼초는 발인제 전에 상여가 떠날때 부르는데 영결종친 발인제 축임고 삼초를 지내야 떠날 수 있다 한다. 상여소리는 삼초의 경우, ‘아·아·에’로 시작하여 타불로 끝을 맺는다. 이것은 망인앞에 가서 상두꾼 24명이 “초초 아웁니다”“이초·삼초아웁니다”고 하고 시작한다. 출상시에는 “에-헤, 에헤오, 어이갈까 어이갈까, 에-헤”의 상여소리를 부른다.

만천동(교동)의 회달구절소리나 도문동의 상여소리도 독특한 음색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선소리 가락’이라 한다. 회달구절 소리는 장지에서 상두꾼이 봉분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망인의 왕생극락과 자손의 부귀영화를 축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동명동에서는 ‘회닷기’라 한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귀가해서는 망인의 죽음을 위로하고 왕생극락을 축수하는 ‘길갈이’라고 하는 굿마당을 열기도 한다. 상례는 풍수지리와 밀접하여 명당을 찾는데 대개 자기산을 쓰므로 요즘에는 삼살방과 물만 안나오는 남향이면 대체로 묘를 쓴다고 한다.

사람이 운명하면 복있는 경우에 명당으로 간다고 하는데 상주의 복이고 망인의 복이라고 한다.

7. 제례(祭禮)

제례는 차례(茶禮) 차사(茶祀)라고 부른다. 전에는 설·정월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등 여섯차례를 지냈으나 요즘은 설과 추석으로 축소하여 지내는 집안이 많다.

‘제례’의 형태도 위에서 말한 조상을 위한 차례가 있고 서낭신이나 산신, 용왕신, 성주신등에 대한 민간신앙에 따른 제례가 있으나 후자는 뒤에서 따로 논하기로 한다.

조상에 대한 제례는 사당제·시제(時祭)·기제(忌祭)·묘제(墓祭)·절사(節祀)등이 있는데 절차나 시기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사당(祠堂)제와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조상의 혼백을 모셔두는 사당을 없애고 나

서부터 차츰 기억속에서 지워지고 있다. 사당에는 4대조, 즉 고조까지의 신위를 모시고 그 이상은 시제나 절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망자의 경우는 대상(大祥)이 지나면 상청을 없애고 신위를 사당으로 모셨다. 따라서 사당은 조상신의 봉안처로서 가정사를 반드시 고하고 출입시도 고했던 것이다.

‘시제’(時祭)는 시사(時祀) 전사(奠祀)라고도 하는데 매년 봄·가을에 직계·방계에 따라 고조 이하 각 조상신위에게 지내는 제를 말한다. 대체로 직계의 조상에게는 음력 9, 10월중에 지내고 방계의 조상에게는 음력 3월에 행하고 있다. 제사 절차는 설위(設位)·제물진설·출주(出主)·참신(參神)·강신(降神)·진찬(進饌)·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수조(受酢)·고이성(告利性)·사신(辭神)으로 행한다.

‘기제’(忌祭)는 3년이상 지나는 대상(大祥)다음 해부터 망자(亡者)의 죽기 전날 저녁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대개 고조까지 지내고 그 위의 선조는 시제나 절사만을 지낸다. 이처럼 지내는 것을 4대봉사(四代奉祀)라 한다.

‘묘제’(墓祭)는 집에서 한식, 추석에 차례를 지낸 다음에 제물을 따로 준비하여 묘에 가서 단헌(單獻)으로 지낸다. 제의절차는 시제와 비슷한데 묘제시는 산신에게 먼저 제를 지낸다. 산신에 대한 제의는 간단하여 포와 과일, 헌주로 끝낸다. 대상은 4대 이외의 후손이 생존해 있으므로 시제를 안받는 선조가 대상이 되며 제물은 제전(祭田)을 경작하는 사람이 장만한다. 제주는 반드시 종손이 되는데 묘제가 끝이 나면 제물은 모두 음복하며 나누어 먹는다.

‘절사’(節祀)는 한식·추석등의 명절에 묘지에 가서 지내는 제사를 말하며 설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등을 제물로 쓰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지낸다. 제의 대상은 직계 선조는 모두 지내며 종손이 아니더라도 제전을 부치면 지낸다.

제사 지낼때는 생선의 경우 ‘치’자 들은 것은 쓰지 않는데 속초지방의 경우 도치를 싱어라고 하고 새치를 이면수라하여 제물로 올리기도 한다. 홍치 콩치 눈치(정어리) 칼치 등은 쓰지 않는다.

제 3 절 의·식·주(衣食住)

1. 의생활

현대화의 물결속에서 비교적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의생활은 방적, 염직, 복식, 세탁에 이르기까지 불과 20~30년전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속초지방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베짜는 집안이나 누에치는 집이 농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의복의 간소화는 바쁜 현대생활의 추세에 따르는 시대적 현상이므로 평상복이나 노동복에서 현저하다. 다만 혼례복, 돌옷, 수의등은 예전의 민속복 양식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옷감도 화학섬유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수복의 경우 베·모시·옥양목·광목·명주등을 이용하고 있다.

의생활은 기후와 생활양식등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데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심한 관계로 복식은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속초가 위치한 영북은 동해와 설악산을 끼고 있어 해양과 산악의 지형적 영향을 크게 받아 어촌의 복식과 산악의 복식은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인 우리의 복식은 기후풍토와 주생활을 배경으로 발달했는데 색에 있어서 백의를 숭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지나친 가부장제도와 의례주의가 신체개발을 금하여 여성의 복식은 폐쇄적인 형태로 전승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적 미를 표상할 수 있는 우아미와 함축미를 가꾸어 내적 심성생활과 부합되는 복식을 이룩하였다.

기후조건과 온돌생활로 속옷은 발달하지 못했고 모화사상으로 고유복식의 발전이 저해를 받았으며 중앙집권적 관료정치와 복식에 대한 많은 금령이 복식문화의 발달이나 복식의 지방색을 만드는데 큰 장애로 작용해 왔다고 하겠다.

복식의 종류로 한복에는 평상복, 예복, 상복등이 있는데 요즘에는 착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졌다. 한복 평상복도 특별한 가문이나 명절때에 입는 정도다. 남자의 한복으로 평상복에는 바지, 저고리, 마고자, 두루마기, 도포, 토시, 버선, 조끼, 대넒, 행건등이 있다.

토시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팔에 끼는 것으로 약 20cm내외의 길이로 둘레는 손이 들어갈 정도로 만들었다. 도포는 평상시 입지 않고 예복의 일종으로 제사때 입거나 한다.

여자의 한복 평상복으로는 저고리, 치마, 배자(背子), 단속곳, 장의(長衣), 적삼, 버선등이 있다. 이중에서 장의는 여자들의 외출옷으로 머리에 덮어 쓰는 것인데 지금은 입지 아니한다.

옷감도 봄·가을에는 숙수·자미사·숙고사·관사·옥양목을 쓰며, 여름옷감은 모시·베·목아사·안동포를 쓰고 겨울옷감으로는 옥양목·광목·나단·명주·단속을 쓴다. 근래에는 양복감으로 바지, 조끼, 두루마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루마기(周衣), 창옷, 도포, 중치막은 남자의 겉옷인데, '두루마기'는 온 옷이 휘돌아 막혀있어서 부르는 이름인데 '창옷'은 겨드랑이 밑이 찢어져 세폭이 떨어져 있다. 두루마기를 '후리매'라고도 하는데 독립된 겉옷이 아니고 도포밑에 받쳐 입었으나 근래는 외출복으로 겉옷이 되었다.

'중치막'은 창옷과 비슷하며 소매가 넓고 뒤쪽도 찢어져 네폭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들의 겉옷으로 '큰창옷'이라고도 한다. '도포'는 중치막과 비슷하여 소매가 넓고 폭도 네 폭으로 되어 있으며 등에는 따로 수폭(垂幅)이 붙은 옷으로 반드시 도포띠를 가슴에 맨다. 도포띠는 명주실을 꼬아 수술을 달아서 맨다.

남자들의 윗옷에는 '직령'(直領)이 있다. 여자들의 평상복은 거의 반양장으로 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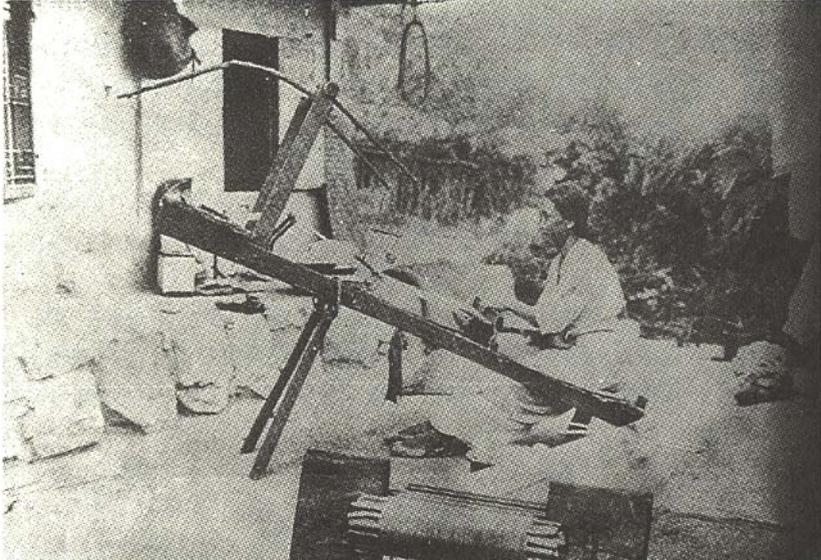
있는 실정인데, 월남치마나 몸배등을 입고 있는 주부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잔치가 있으면 한복을 입는다. 한복으로 부인들의 평상복은 여름에는 치마·적삼·깨끼적삼·단속곳·속바지를 입고, 겨울에는 치마·저고리·단속곳·바지·마고자·덧저고리·두루마기를 입는다. 두루마기는 외출시에만 착용하고 덧저고리는 방한을 위해 입는데 마고자보다 길고 두루마기보다 짧고 안에는 털을 대서 만들기도 한다. 겨울에는 방한구로 남자는 ‘남바위’를 쓰고 여자는 ‘조바위’를 쓴다. 문헌에는 ‘이엄’(耳掩)이라 했는데 앞은 머리와 이마를 덮고 뒤쪽은 목을 덮는다. 조바위는 남바위보다 작게 만들었다.

오늘날의 일상복은 남자들의 경우에 양복을 대부분 입고 있으며 한복은 노년층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옷이 되었다. 여자들의 경우도 간편하게 구입하여 입을 수 있는 기성복들이 시장에 나와 있으므로 특별히 한복 평상복을 입는 예가 드물어졌다.

노동복은 특별히 만든 옷은 없으나 농사일을 할 때는 여름에 ‘베잠뱅이’·‘등저리적삼’을 입고 부인들은 평상복에 광목 행주치마를 두른다.

어촌에서는 고기잡이를 할때에 입는 옷이 특이하다. 상의는 광목에 솜을 넣은 반 오바식의 솜옷을 겹에 입는다.속저고리는 ‘요대저고리’라 하고 겹저고리를 ‘큰저고리’라 하여 7부로 만들어 입는다. 바지는 조각을 모아 만들고 속에 솜을 넣은 ‘투툽바지’를 입는다.

신발은 ‘초복신’이라고 하는데 짚신모양으로 쇠가죽을 덮고 발목부위에는 개가죽을 덮



는다. 고기를 잡을때 그물을 당기기 위해서는 ‘앞가래치마’를 두르는데 물이 베이지 않도록 들기름을 2~3말 베긴다고 한다. 손목에는 토시를 끼고 집에서 만든 통장갑을 ‘버대’라 하여 끼는데 손가락 끝은 구멍을 내어 나오게 하여 작업시 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머리에는 외포수건을 써서 머리카락이 날리지 않도록 한다. 요즘의 어로작업복은 갑바를 입고 장화를 신는다.

예복으로 혼례시 납채 보낼때는 함에다 청색·홍색의 치마 2개, 노랑·연두색의 호장저고리를 바느질을 하여 넣는다. 이때 치마는 겹치마로 한다. 바느질 한 옷은 다홍보자기에 싸고 함 밑에는 예장지를 넣고 아들낭으라는 뜻으로 호두와 고추를 넣고, 자손의 번창을 위해 조를 넣고, 장수하라는 뜻으로 실을 넣는다. 함의 거죽은 진분홍색 보자기로 싰다.

특수의복으로는 배내저고리, 돌옷, 수의등이 있는데 어린이가 갓 출생하여 입힌 옷을 ‘배내저고리’라 한다. 배내저고리는 시험을 치러 갈때나 군에 갈때 넣어주면 액을 면한다고 하여 잘 뇌둔다. 배내저고리의 고름은 실을 꼬아서 만드는데 명이 길라는 뜻이다.

‘돌옷’의 치장은 남아의 경우 바지·저고리·조끼·마고자를 입힌다. 여자의 경우는 다홍치마 노란색동저고리에 염낭을 단다. 염낭에는 은으로 장식된 노리개를 달아준다. 요즘의 돌옷은 대부분 시장에서 기성복을 사다가 입힌다.

타래버선은 남·여아 모두에게 신기는데 버선코에 술을 달고 버선등에는 수를 놓는다.

‘수의’(壽衣)는 혼인때 지어가지고 간 배도포를 사용하기도 한다. 남자수의는 바지·저고리·두루마기·도포까지 하고 여자수의는 바지·속곳·치마·저고리·원삼까지 한다. 수의는 윤달에 만드는데 날을 받아서 바느질한다. 바느질은 실의 매듭을 짓지 않고 꿰맨 다음 실을 길게 느려 뜨리고 옷의 크기는 훨씬 크게 만든다.

전통적 염색방법으로는 쪽물을 드리는 남색염색, 추어리는 옥색을 들인다. 이외에도 이시풀로 보라색이 도는 붉은색염색, 고해나무꽃, 치자열매등으로도 들였으나 요즘은 다양한 색의 직물이 흔하므로 염색을 집안에서 하는 일이 없어졌다.

전통적인 세탁방법도 비누와 세제가 나오기 전이므로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썼다. 대체로 세제는 짚·콩깍지·메밀짚·뽕나무·잡초·종이등을 태운 재를 걸러서 얻은 잿물을 사용하였고 세수나 세발에는 녹두가루·콩가루등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명주 빨래에는 쌀뜨물이나 두부물, 팥가루를 이용하였다.

빨래시에는 금기를 지키기를 강조했는데 다른 지방과 유사한 것이 많았다. 즉 이른 아침이나 해가 넘어갈때 빨래를 두드리면 안된다고 한다. 이유는 아침 식전빨래는 두드리면 소년 죽음이 나고, 저녁때 두드리면 청년 죽음이 난다는 것이다. 밤에 빨래를 널면

남편이 바람난다고해서 금기시하고 목은 빨래는 해를 넘기지 않는다고 하고, 이웃에 초상이 났을때는 흰빨래를 널지 않고, 덜마른 옷을 입으면 남에게 구설수를 듣는다고 하여 금기시 한다.

이외에도 빨래의 풀을 먹이는 쌀풀이나 밀가루풀 같은 것을 먹으면 재수가 없다하고, 다듬이 돌을 베고 자거나 올라 앉으면 입이 돌아가고 여자는 시집가서 소박을 맞는다고 하여 금하였다. 이러한 금기는 실제로 과학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선조들의 생활지혜에서 산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설악산동에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심마니 복식이나 무속에 참여하고 있는 무녀나 남자 무격들의 경우도 다른 지역과 흡사하거나 특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속초지방은 주로 영서 산간지방에서 생산되는 삼베와 명주를 사서 옷을 만들고, 목화는 대체로 영남지방에서 구입하여 들개, 물레, 베틀등을 이용하여 가내 수공업으로 의생활을 꾸려 왔으나 요즘은 화학사 계통의 기성복들이 양복은 물론 한복까지 대량으로 쏟아져 따라 서울등 다른 지역과 유행에도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요즘에 복고적 경향이 불어서 베옷을 해입는 사람들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2 식생활

식생활은 의생활에 비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속초는 내륙쪽의 경우 비교적 농경생활을 해온 역사가 길고 곡류가 일찍이 생산되어 왔으며, 산간쪽의 경우에는 감자, 옥수수, 메밀, 도토리등이 생산된다. 또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긴 동해안에서 각종 해산물이 생산되어 식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속초의 산간지방은 구황식품이 많이 생산되었으나 도문, 노학등 평지는 주로 벼농사를 짓고 있어 식생활은 다양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대표적인 속초의 식생활은 김치류·떡류·장류에 있어서 소박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는데 해안지역은 해물을 이용한 찬거리를 주로 쓰고 있다. 대부분 지저먹는 조리법으로 만드는데 물종은 생선으로 열간생선을 만들어서 양념하여 찌는 조리법도 많다. 또한 신선한 어물은 회감으로 많이 이용하고 탕류로 매운탕이 발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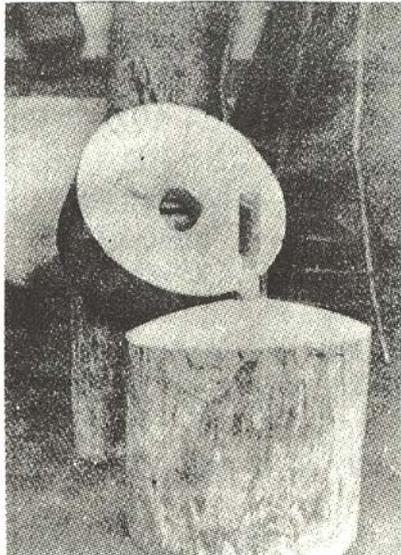
주식은 쌀, 감자를 쓰고 잡곡으로는 메밀이 주로 쓰인다. 이외도 옥수수, 도토리등을 이용한 식생활을 즐긴다고 할 수 있다.

젓갈은 명란젓·서거리젓·창란젓·바다게젓이 대표적이고 요즘은 멸치젓·새우젓도 많이 쓰고 있다.

설악산에 인접한 동네에서는 산채를 캐서 식생활에 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표고

48 제 2 장 속초민속의 내용

버섯·송이버섯볶음 뿐 아니라 송구떡, 취떡, 칩떡등의 떡류나 송이나물범벅, 도토리국수, 메밀국수등도 만들어 먹는다.



주식류로서 조사된 바를 적으면, 산골쪽에서는 강냉이밥, 감자밥, 차수수밥, 고구마밥 등을 해서 먹는다. 특별주식으로는 메밀국수, 메밀만두, 도토리국수, 감자수제비등이 있다. 더러 강냉이수제비나 강냉이범벅, 감자범벅을 해서 먹기도 한다. 요즘은 별식으로 가끔 해먹는다.

김치류는 ‘짠지’라고 하여 겨울 김장김치가 있는데 젓갈로는 멸치젓, 새우젓, 콩치젓, 양미리젓등을 넣고 생태를 넣거나 생오징어, 굴, 갯을 넣어 맛을 낸다. 동해안의 봄철에 나는 생선을 젓담그었다가 겨울철 김장시 넣는다. 깍두기를 만들때는 서거리젓과 오징어, 굴등을 넣는데 서거리의 명태의 아가미로 만든 것이다.

식혜는 생선에 밥을 섞어서 지은 것으로 밥반찬으로 애용한다. 밥식혜는 저벌기식혜, 가자미식혜, 명태포로도 만드는데 고등어와 새치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떡의 종류는 다양한데, 산간지방에서 비교적 다양한 종류가 있다. 쌀떡보다는 잡곡으로 만든 떡이 많고 소박한 맛과 모양을 보여준다. 송편과 시루떡을 주로 많이 만들고 큰 일이 있으면 절편과 인절미를 만들며 개피떡도 만들어 먹는다. 이외에도 개떡이라는 보리떡도 있고 취떡, 솔떡, 칩떡, 쑥떡, 수수떡이 있다.

별식으로 만드는 떡으로는 감자시루떡, 감자떡, 옥수수설기, 옥수수보리개떡, 메밀전병(충떡), 무우송편등이 있다.

반찬으로 속초에서는 삼숙이국을 많이 끓여 먹는데, 무를 넣고 된장을 풀어 끓이면 시원하고도 구수한 맛이 나서 제일로 친다. 이외에도 꼭져구탕, 용곡지탕, 가자미, 명태, 도미, 광어, 열갱이, 우래기, 두루묵등의 매운탕이 별미인데 고추장을 풀어 얼큰하게 끓인다. 명태찜이나 미역국에 가자미를 넣어 끓인 국도 많이 먹으며, 물오징어불고기, 동태구이, 송이장아찌, 오징어무침, 문어무침, 가물치회, 취나물, 지누아리무침, 파래무침, 곰취쌈, 더덕구이, 창란젓깍두기, 돌김, 도토리묵도 반찬에 쓰며 바다게장도 많이 담근다.

산간에서는 감자조림이나 부침을 만히 해먹고 봄에 뜯어 말려놓은 취나물, 드릅나물등을 불렀다가 반찬을 해 먹는다. 그러나 속초시 관내는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서 주로 어시장에 가서 해물을 사다가 식단에 많이 올린다.

명태알 뿐 아니라 도루묵알을 써서 입안에다 넣고 터뜨리며 간식삼아 먹던 시절도 있었는데 속초의 어촌에서 볼 수 있던 지나간 풍경이다.

전래의 음식상에는 반상(飯床), 면상(麵床), 고자상(交子床)등이 있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평상식을 ‘반상’이라하는데 밥, 국, 김치, 간장, 고추장, 구이, 나물, 생채, 짬아찌, 젓갈, 건포, 전과(前果), 회, 찜, 찜등이 있고, ‘면상’에는 국수, 김치, 간장, 지짐, 과일, 떡, 화채등이 나오며, ‘고자상’은 연회상으로 호화로운 상차림이다. 여기에는 신선로 뿐 아니라 약식, 약과, 다식, 생과, 찜, 건포등도 들어간다.

제례음식으로 정초에는 '떡국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고 '메제사'(흰밥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는데 이외에 탕·나물·주·과·포를 차린다. 기제사시에도 제물로는 메·탕·나물·어물·주·과·포·편을 쓰는데 어물은 끝에 '치'자가 붙은 것은 쓰지 않는다. 새치는 이면수라 하여 이북에서는 썼다고 청호동에 사는 함경도민들은 말한다.

지금은 행하지 않으나 단오차례,유두차례,동지때는 팔죽을 올리는 팔죽차례를 지냈다. 혼례음식은 특별한 것은 없으나 폐백시 닭과 엿을 쓰며 밤, 대추, 과줄을 함께 쓰기도 한다. 혼례 잔치음식도 '큰상음식'이라하여 차리기도 하는데 '큰떡'이라 하여 색시의 친정 집으로 보내기도 한다.

고사음식은 터고사를 지낼때 주로 팔시루떡을 하여 집안의 터주신에게 비는데 나물이나 술을 함께 놓는다. 영동할머니 제사때는 '무와찌기'라하여 시루떡에 무우채를 썰어 넣어 찌는 떡을 만들어 그곳에 식구수대로 수저를 꽂아 놓고 빈다. 성주제는 집안에서 정초에 지낼때 팔시루떡을 하며 날고기를 쓴다. 뱃고사시는 메·술·나물등 간단한 제물을 쓰고 진수식때는 국수를 쓰기도 한다. 마을 서낭제시는 소를 잡는데 소를 '말'이라 하고 말머리를 통째로 바친다.

속초지방에서는 절식(節食)을 특별히 해서 먹지는 않으나 정초에는 떡국, 대보름날은 오곡밥·약식, 단오에는 쭉떡·취떡·송편, 유두날은 메밀국수, 삼복때는 보신탕·삼계탕, 추석때는 송편·닭고기·토란국을 먹고 동지때 팔죽을 계절식으로 삼아서 먹었다. 속초도 다른 지방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산촌, 어촌, 농촌간에 몇가지 독창적인 식생활을 여유있고 맛깔스럽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주생활

강원도의 영동지방은 영서지방과 달리 앞은 동해에 접하고 뒤는 태백산맥이 병풍처럼 가리고 있어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해양성 기후에 가깝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주거문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주거생활중 주택은 생활의 근거지로서 풍토적 조건과 생활양식에 의하여 그 모양과 구조를 다르게 한다. 즉 기온의 고저, 강우의 다소, 바람의 강약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다.

주택의 공간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혈족을 가족이라 하는데 이는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이고 주택은 가족이 점유한 최초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가옥을 크게 나누면 가옥이 점유한 '가대'(家堡)와 가대위에 설치된 구조물인 '집'으로 볼 수 있다. 가대와 구조물은 다 풍수와 오행사상에 의하여 선정되고 축조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관념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가대로서 전형적인 형국은 등고(登高)한

곳을 피하고 뒤로는 산이 있으며 앞에는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에 오향(午向) 즉 남향하여 양지바른 터를 전형적인 집터라고 한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내닫고 있어 영의 동서 하천들이 동서로 흐르고 있으므로 배산임수의 남향 대지가 지세로 볼때 저절로 이뤄진 곳이 많으며 취락도 이 원리를 따라 발달한 곳이 많다.

속초는 쌍천과 소야천을 사이에 두고 바로 그 북쪽에서 남향한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속초시 도문동의 고가옥들을 대상으로 주생활을 살피기로 한다.

1) 마을개요

①위치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은 도문이란 지명이 조선시대 도문면 관할아래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가 있어서 동리와 면이름에 들었다. 일제시대는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 속초시의 전신인 도천면이 되었고 동시에 상도문리와 중도문리, 하도문리로 나뉘었다. 그후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었는데 1966년 동제를 실시함에 따라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를 합쳐 도문동으로 묶었다.

도문(道門)의 지명유래는 여러가지 전해지는데 신라때 원효와 의상대사가 설악산으로가는 도중 이곳에서 도통의 문이 열렸다고도 하고 양양 강현면 강선리에서 내려온 신선이 길을 물어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또한 지형은 행주형(行舟形)이므로 부락 북판에는 우물을 못파게 했는데 구멍이 나면 배가 가라앉기 때문이라 한다.

도문동은 6통으로 나뉘는데 1통은 하도문, 2통은 중도문 1·2리, 3통은 상도문2리, 4통은 상도문1리로 구성되어 있다.

②인구

총인구는 1,969명으로 남자 989명, 여자 980명으로 비슷한 인구 비율을 갖고 있다.

③총가옥수는 525세대이다.

④성씨 분포는 해주 오씨, 강릉 박씨, 경주 김씨, 연일 정씨, 밀양 박씨등인데 해주 오씨가 7대째 살고 있다.

⑤경제

호당 평균 소득은 농촌마다 차이가 나지만 농의소득, 민박등을 포함하여 평균 100여만원 내외의 실질소득이다. 토지는 논 102ha, 밭 65ha, 임야 432ha, 과수원 2ha정도이다. 가축은 소 65두, 닭 4,000두, 돼지 10두, 토끼 3,000수 내외이다. 농기계로는 경운기 80대,

이양기 27대, 바인더 18대, 콤바인 5대, 트랙터 1대, 건조기 1대로 기계영농화 되었다.

2) 마을환경

속초에서 설악동으로 가는 도중 버스로 20여분 가다보면 물치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부터 하도문, 중도문, 상도문 순으로 골짜기마다 집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곳은 설악산에서 바람이 많이 내려 부는데 봄 3~4월과 겨울 11~12월에 주로 많이 불고 특히 곡우때 심하다.

토질은 질이서 비옥한 편이며 감나무가 많은데 약 85%정도가 좋은 땅에 속한다. 하천은 설악동 대청봉에서 흘러 내려오는 쌍천이 흐르고 속초시 급수원으로 식수를 사용한다.

마을의 경제생활의 변천을 보면 주로 논농사위주의 생활을 하였으며 종전에는 일부 화전도 있었으나 1975년도에 정리되었다. 하도문에서는 채소재배를 많이하여 소득을 올리며 보리농사나 옥수수, 감자재배는 벼농사에 비해 극소한 편이다. 따라서 주소득원은 농사에 의지하고 설악동 관광민박촌으로서 농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마을안 구조물로는 마을회관 4개소, 서낭당 5개소, 열녀각 1개소, 정자 2개소, 놀이터 1개소, 마을공판장 1개소가 있다.

3) 마을조직

마을의 계는 상포계, 상두계, 혼인계(와달계), 관광계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모임으로는 반상회,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방법추진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이 있다. 품앗이로는 모내기, 벼베기시에 동네 사람들로 구성하여 운용한다. 동네치성은 겨울에 택일하여 서낭제사를 지내며 농악대도 구성하여 정초에 걸립을 한다. 텃고사를 70%정도의 집에서 지내며 집안의 성주신은 한지에 실을 묶어 상량에 매달고 성주단지지를 모신다.

도문마을의 독특한 행사로는 음력 8월16일, 추석 다음날에 상도문 6개반에서 각자 음식을 마련하여 민속놀이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한다. 시상은 농기구와 비누, 낫, 호미, 곡갱이, 삼등 생활필수품을 준비한다. 이 행사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주민이 참석하는 대동제의 성격을 갖는데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주민화합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도문마을은 원주민이 80%이상이 살고 있으므로 주민의 단결력이 강하고 웃사람을

공경하는 예가 중하다. 또한 마을사람들이 온순하여 다툼이 없으며 남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돕는 정신이 전통으로 내려온다. 마을 제사시는 서로 청하고 정초에는 세배를 빼짐없이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범죄없는 마을로도 알려져 있다. 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도토리묵, 메밀국수, 도토리국수, 꽃감, 당귀등이 있다.

5) 살림집 구성

도문동 2통4반, 즉 중도문1리의 김중우(남·1940년생)씨 가옥은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었다.

이 가옥은 규격이 68.30㎡(20.66평)인데 조선 영조 26년(1750년)경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며 현재의 소유자인 김중우씨의 부친이 이 집으로 이사한 후 지금에 이른다. 평면은 안채와 행랑채로 구분되며 그밖에 창고등의 부속건물이 딸려 있다. 집의 본체인 안채는 중앙의 마루를 중심으로 사랑방과 부엌이 있고 마루뒤에 방3칸을 두었으며 부엌 앞에는 외양간을 둔 산간지방의 전형적인 곽집양식이다. 안채는 전면 5칸, 좌측면 2칸, 우측면 5칸의 7자형 집으로 벽돌기단과 주초석(柱礎石)위에 각기등을 사용하였으며 납도리, 홑처마의 팔작(八作)지붕형식인데 안채는 5량(樑), 외양간은 3량의 가구(架構)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가옥의 특징중 눈에 띄이는 것은 기둥 길이가 2m40cm정도로 짧고 24.5cm의 사각형으로 굵다. 바람의 영향때문인지 창문은 쌍여닫이, 외여닫이이며, 겹문이 높이 1m16cm, 너비 94cm로 작고, 처마도 1m20cm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가옥은 풍수지리상 '臥牛形局'이라 하는데 좌청룡 우백호가 잘 앉아서 명당에 꼽힌다고 한다. 일명 '대암(大岩)집'이라고도 부르는데 바 집앞 왕들밭의 직선에 놓인 큰 바위와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다. 집의 형국이 '소가 먹이를 먹고 누운 모양'이므로 재산이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고 여유있는 생활을 한다고도 말한다.

공간을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구성엔 아버지, 어머니, 2남1녀를 두고 있고 아들은 중·고등, 딸은 대학재학중이다. 농업경영엔 아버지가 주로 하고 있으며 벼농사 위주이고 밭농사 외에 가축(소), 닭(오골계)을 키우고 있으며 개도 여러마리 양육하고 있다. 부동산 관리, 현금관리, 가축먹이는 남자가 하고 기타 식생활 문제는 주부 소관이다.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며 식사도 이곳에서 한다. 안마당에서는 곡식을 말리고 농기구 일시보관, 뒷간은 빨감과 장독대를 두었다. 취침은 부부가 안방을 사용하며 사랑방에 아들, 딸이 잠을 잔다. 화장실은 왼쪽에 창고와 함께 따로 지어서 간단한 욕실도 마련하였

다. 식사는 대부분 안방에서 하나 여름에는 마루에 나와서 하며 상석은 안방의 경우 아랫쪽, 마루는 서쪽편이며 가족 전체가 함께 식사를 한다.

하루 일정중 아버지는 6시에 기상하여 농사일을 주로 하며 취침은 10시경에 한다. 부업은 현대식으로 바꾸어 가스를 사용하며 수도물을 이용하나 자체우물도 파놓았다. 어머니가 식사준비를 하며 큰딸이 돕는다. 식단의 경우 아침에는 밥, 김치, 풋고추, 생선, 육류, 찌게류등으로 주로 찐다고 한다.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의 행랑채 창고를 없애고 현대식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생활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수장시설은 옷장이 있고 다락을 외양간 이층에 마련하였고, 정원시설은 집주변에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 노가지, 향나무가 우거지고 앞뜰에는 장미, 백일홍, 무궁화를 심었다.

이 가옥에서 3대째를 살고 있는 이유로 집앞에 쌍천이 흐르고 벼락바위 들판이 광활하여 문전옥답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소득은 대부분 농사에서 거두며 1년에 5~6백만원 정도라 한다. 경운기 1대, 자가용 1대, 오토바이 1대, 자전거 1대, 마을공동 콤바인 1대를 사용하여 농사 및 운송에 이용하고 있다.

집안에서는 따로 신을 모시지 않고 안택, 고사등도 지내지 않으며 특별히 믿는 종교도 없다.

이 가옥과 외부와의 거리는 15분정도로 큰길까지 약 1km떨어져 있어 소음이 없다. 시장은 속초시내를 이용하고 병원도 속초를 나간다. 학교는 중·고·대의 경우 속초시내를 나가고 국민학교는 대포쪽으로 나가서 다닌다.

이 가옥은 외양간과 부엌이 동일 공간에 두어지고 모든 방들이 겹으로 부엌에 붙여지는 6칸 겹집 중앙구들형으로 고성, 강릉의 경우와 같은 7자형이라는 점이다. 또한 부엌쪽에 보통 방크기와 같은 마루방을 두는데 부엌과 통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마루방을 두는 형태는 고성·삼척지방과 서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문동 1054번지, 하도문에 위치한 김근수(남·1912년생)씨 가옥도 1985년 1월 17일에 도지정된 유형문화재 64호이다.

이 가옥은 규격이 69.80㎡(19.3평)으로 확실한 건립년도는 알 수 없으나 약 180년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함평 이씨가 살다가 여러 사람손에 의해 매매되어 현재 소유자 김근수씨가 32년전에 매입하여 살고 있다.

소유자에 의하면 현재 지붕위의 기와에 ‘道光五年’이라고 새겨놓은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확인한 결과 희미하나 거의 비슷한 글자임을 알 수 있었다. 도광5년은 서기

1825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166년전에 기와를 얹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乾隆 27년'(1762년)이라고 새겨진 숫기와의 나옴이 나왔는데 몇년전 공보실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이것을 연대로 본다면 228년전에 신축된 건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량문은 검게 그을려서 판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가옥 역시 겹집양식으로 집의 본체인 안채는 중앙에 마루를 두었고 이를 중심으로 사랑방과 부엌이 있다. 마루뒤에는 방 3칸을 두었으며 부엌앞에는 외양간을 둔 산간지방의 중앙구들형 6칸 겹집양식 7자형 집이다.

주초석위에 각 기둥을 사용했으며 납도리 흘처마의 팔작지붕형식인데 안채는 5량으로 모두 16량(樑)이며 외양간을 두었다. 팔작(八作)지붕은 종도리 길이가 짧고 양끝의 종도리 끝에서는 서까래가 똑바로 내려지고 그 서까래 중간에서 건물 도리에 추녀를 걸치기 때문에 지붕의 양끝에 삼각형의 공간인 합각(合闕)이 생기는 형태로 끝기와를 잇는 지붕에 흔히 사용된다. 이 팔작지붕은 건물의 지붕 가구(架構)로서는 가장 복잡한 구조로서 높은 수준의 목공기술이 요하며 대개 끝기와를 이룰 때 사용되기 때문에 자연히 기둥과 도리, 보, 서까래등도 튼튼한 재목이 사용된다.

이 가옥은 사찰공법으로 처마끝이 올라가게 지었는데 '뒹坐丁向'이라고 소유자는 말하였다. 또한 집터가 세다고 하며 풍수지리상 '蛇頭穴方形局'이라 하였다. 즉 설악산 달마봉에서 뱀이 흘러와 청대산을 뻗어서 이곳에 와서 기봉하였는데 뱀이 마치 머리를 쳐든 형국이라는 것이다.

일명 '회령대' '방아간집'이라는 별호를 갖고 있는데 전자는 이 집의 전주인이 회령으로 피난갔다 온 것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방아간집은 현 소유자가 방아간을 경영한데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였다.

풍수지리적으로 돋보이는 이 가옥에서 많은 벼슬이 났는데 함평 이씨가문에서 27승지가 나왔다 하며 안산은 승지붕이라고 하였다.

이중담의 흔적을 보여주고 기와중 청기와가 있을 정도로 가풍있고 오래된 가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부엌과 마루가 통하고 이곳에 '코쿨'이라는 난방 조명장치를 설치한 것, 낮은 출입문, 외양간과 부엌이 동일 공간에 놓여진 것으로 볼 때 바람이 심한 산간형주택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 소유주가 집안 수리를 하면 우환이 자꾸 생겨서 가능하면 수리를 하지 않는데 터가 새어서 보통 대가 센 사람이 아니면 지탱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공간이용의 실태를 보면 현재 아버지, 어머니, 3남2녀가 이곳에서 사는 것은 아니고 바로 좌측편에 양옥으로 집을 지어 아들 내외는 따로 살림을 하며 두 부부와 막내아들, 딸이 함께 지낸다.

수입은 농사에서 주로 생기며 논, 밭, 임야, 가축등이 있다.

안방은 선반과 시렁이 있으며 TV를 이곳에서 본다. 식사도 이곳에서 하며 앞마당에서 탈곡을 하며 장독대가 앞마당에 위치한 것이 특이하다. 식사는 어머니가 장만하며 시장은 속초까지 나간다.

집안에 모신 신은 성주신인데 1년에 한번 봄 초순에 지낸다. 상량에 한지와 실을 매달았으며 그 옆에 성주단지를 모셨다. 성주단지에는 가을에 새로 짠 신곡을 두말 넣는다고 한다.

이 가옥 역시 전체 집높이가 낮으며 겹문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좌측 사랑방 출입문 높이가 27cm밖에 되지 않아 특이한 모습이었다. 부엌문과 대청의 경우 나무를 도끼로 다듬어서 만들었으며 대문에는 ‘籠虎’글자를 붙여 놓아 액을 막고자 했으며 사랑방 옆에는 대리석 경치돌로 장식을 하였다. 담은 흙담으로 상단에 기와를 얹었다. 장독대가 앞마당에 있고 마당에 석류나무를 정원수를 심었다. 가옥의 뒷산쪽에는 대나무, 감나무, 배나무밭이 우거졌는데 집앞 전방이 트였고 뒤쪽은 산이 집을 감싸고 있어서 명당자리라고들 하였다.

또한 도문동 4통3반에 있는 오수현씨소유 고가옥의 경우도 형태상 앞서 언급된 가옥들과 유사하다. 이 가옥 역시 겹집에 ㄱ자끝은 외양간이 있으며 마루가 있고 코를 흙벽, 까치구멍의 팔작지붕등 특징이 나타난다. 거주하고 있는 김정수(여·65)씨에 의하면 270~300년 정도된 가옥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고조부가 사가지고 왔다고 한다. 이 가옥은 도문동의 학자였던 매곡(梅谷) 오윤환(1872~1946)선생의 체취와 유품이 남아있다. 상당문의 글씨는 지워져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성주단지를 모시고 있었다.

이상의 도문동의 고가옥을 대상으로 주생활을 살펴본 바 우선 공통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사항은 외양간과 부엌이 동일공간에 놓여 있는 ㄱ자형 가옥이라는 점과 모든 방들이 겹집으로 부엌에 붙어있는 중앙집중형 구들양식이라는 특징이다.

다음에 집 중앙의 방배치에서 마루방이 있어서 마루방과 부엌이 서로 통하고 이곳에 ‘코를’이라는 등화 난방기구를 설치하여 생활공간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부엌과 마루방, 외양간이 같은 거리로 좌우에 놓여서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식생활을 할 수 있고 소등의 가축을 돌볼 수 있게 된 산간형 주택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붕이 팔작지붕으로 지붕에 까치구멍을 내어 환기구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코를의 사용에 따른 환기작용으로 생각된다. 집들 전체로 보면 창문이 지극히 적고 겹문, 여닫이를 이용하고 있어서 추위와 바람에 적응하기 위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파악할때 속초지방의 전통가옥은 강릉과 고성지방의 ㄱ자형 가옥과 동일 계통으로 파악되며 삼척지방의 -자형과는 평면구성에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삼척과 고성지방과 같이 부엌과 마루방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특징적인데 고성지방과 동일형태이나 삼척과는 다소의 형태상 차이를 보일 뿐이다.



속초시 도문동 1186 김종우씨 가옥



속초시 도문동 1504 김근수씨 가옥



속초시 도문동 4통3반 오수현씨 가옥

제 4 절 민간신앙(民間信仰)

민간신앙은 다양한 전승체계를 갖춘 신앙으로 속초지방의 경우도 복합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안에서 신봉하는 신앙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로 행해지는 마을신앙, 무속인들에 의해 지속되는 굿, 점복등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전승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민간신앙의 신앙적 체계나 신봉자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어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토속신앙으로서 연면히 전승되고 있다.

외래종교와 민간신앙은 기본적인 차이가 나는 문제이므로 토착적인 믿음의 형태로서 민간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민간신앙을 집안[家神]신앙, 마을신앙, 무속신앙, 기타 점복으로 나누어 속초지방의 실태를 파악코자 한다.

1. 집안신앙

속초지방에서 모시는 집안신은 성조신, 조왕신, 삼신할머니, 토지신, 군웅신, 영등신, 용왕신, 축신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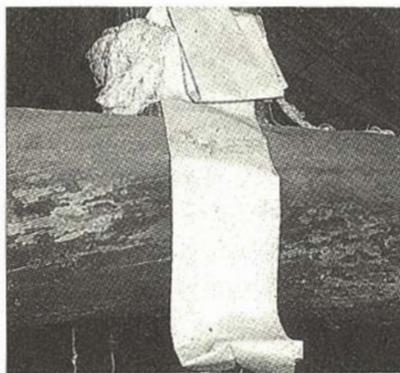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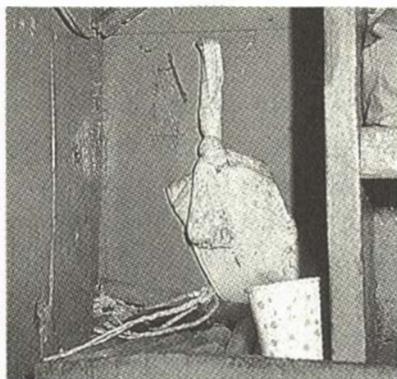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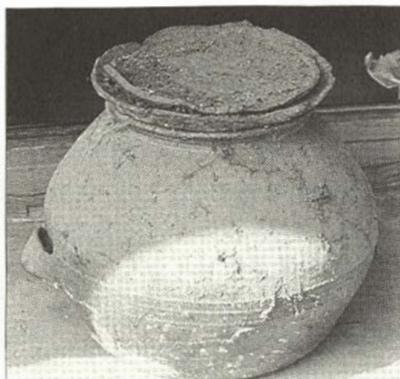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이들 신을 위하는 상황이 다른데 안택제의 경우는 성조·토지·조왕신을 함께 제사한다. 정월달이나 음력 10월중에 좋은 날을 받아 일주일이나 10일동안 나쁜것을 안보고 금기를 하며 팔시루떡과 제물등을 마련하여 빈다.

음력 2월, 6월, 12월은 피해서 가족의 생기와 일진을 맞추어 날받는 사람에게서 길일을 받아 온다. 제사할때는 집안 대주 즉 남자주인이 주로 하며 빌줄 아는 무당을 청하기도 한다. 안택제를 지낼때는 집 대문쪽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친다.

배가 있는 사람은 안택제를 지내고 나서 배에 있는 배성주를 위한다. 배성주는 실과 한지를 배의 선장실에 따로 집을 만들어 걸어놓고 모시는데 그 해 처음 잡은 고기도 함께 매단다.

‘성조신’(成造神)은 ‘성주’(成主), ‘성조대감님’이라고도 부르는데 가내의 안녕을 유지해 주는 집안의 최고신이라 한다. 성조신의 형태는 종이와 단지를 신체로 삼는다. 도문동

일대나 속초일부에는 성주단지라 하여 맨 처음 방아찧은 곡식을 넣어 둔다. 이유는 농사가 잘되고 무병과 평안을 비는 뜻이라 한다. 성주단지는 사랑방에는 놓지 않고 반드시 주인이 거처하는 안방위의 공간에 놓거나 상량대밑의 다락 공간에 종이성주와도 함께 모시기도 한다.



한지로 된 성조신 신체는 부엌쪽으로 통하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상량대 밑의 동자기 등 상단쑈에 무명실로 매단다.

성주단지의 쌀은 가을철 수댓쌀(햇곡)을 넣는데 지난해 넣어 두었던 쌀은 꺼내서 떡을 하여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이사를 갈 경우에는 단지는 산에 묻고, 종이성주는 생나무에 매달고 간다.

성주단지에는 햇버를 찢지 않고 넣기도 하며 이때에 창호지 한 장을 접어 명주실 한 타래를 동여매어 단지손잡이나 상량대에 다시 매달기도 한다.

성조(성주)신앙은 농촌이나 어촌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집 주인신으로 모신다고 한다. 집을 신축하였거나 새로 이사온 사람도 성조신을 믿으면 반드시 택일하여 성조제를 지낸다.

‘조왕신’은 부엌에 모시는 신으로 주부에 의해 신봉된다. 성조신이 주로 남자주인에 의해 신봉되는 것과는 반대인데 부엌에서 주부가 주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인 것 같다. 조왕신의 신체(神體)는 따로 없으나 ‘부뚜막신’이라 하여 아침마다 냉수를 떠서 놓기도 하고 안택제를 지낼때는 따로 솔뚜껑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음식을 차려서 위한다.

성조신을 위한 음식과는 따로 제물을 장만하여 치성을 드리는데 급한 일이나 위험한 일이 있을때에는 조왕신을 찾는다. 요즘에는 입식부엌이 많고 아궁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화신(火神)으로서 조왕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쇠퇴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악산 신흥사 등의 사찰에서는 조왕신을 믿고 있는데 화상을 걸어 놓기도 하였다. 부뚜막에 창호지를 매달아 놓는 경우도 있고 조그만 항아리에 쌀을 담아 놓기도 한다. 그러나 조왕신은 지신제를 지내거나 안택 고사등을 지낼때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고 따로 택일하여 지내는 경우는 없다. 조왕신을 잘 위하면 식복(食福)이 감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쇠구영신’은 ‘군웅신’(軍雄神)이라고도 하는데 소의 건강을 빌게 되는데 소의 삼신이 라고도 한다. 군웅신은 육축을 관장하는 신으로 보는데 농가에서는 소를 위해 신봉한다. 한지를 외양간 입구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베를 짤때 말코 옆을 끊어서 매달기도 한다. 간성지방에서는 특히 위하는데 여성이 시집을 가면 시댁으로 따라 간다고 한다. 도문동에서도 조사된 바 있듯이 혼사를 꺼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는데 쇠구영신을 잘 모시지 않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 한다. 더욱이 모시던 사람이 안 모셔도 좋지 않다고 하여 농가에서는 안택지낼때 반드시 들린다. 대체로 신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팔뚝을 제물로 놓는다.

‘삼신신앙’은 자식을 점지해 주는 태신(胎神)을 믿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삼신할머니’라 하는데 평소에는 별로 인식되지 않는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믿거나 자식에게 병이 있을때도 삼신할머니에게 빈다. 신체는 보통 안방 시렁위나 천정구석에 모시는데 그릇에 쌀을 담아 놓기도 하고 배로 만든 주머니에 밀이나 쌀을 넣어 실경위에 걸어 놓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동쪽 방구석에 물 한그릇, 밥 한그릇, 미역국을 차려 놓고 삼신할머니를 위한다고 한다. 또한 아기가 아프면 역시 제물을 차려 놓고 빌기도 한다.

‘영등할머니’는 풍신(風神)을 지칭한다. 속초지방은 ‘영등할머니’라고도 부르고 ‘영등할머니’라고도 한다. 영등할머니는 2월 초하룻날 내려왔다가 15일날 하늘로 올라가고 20일

날 수부신도 올라간다고 한다. 청호동, 대포동, 영랑동등의 어촌에 속한 집에서는 물론이고 도문, 노학동의 농가에서도 믿고 있다.

보통 장독대에서 비늘없고 비린내 안나는 명태같은 생선에 무우를 썰어 넣는 무우찌개를 끓여 놓거나 큰 그릇에 밥을 해놓고 식구 수대로 수저를 꽂고서 빈다.

밥에 무우를 넣고 '무악찌기'라 하여 끓여 놓고 빌기도 하고 팔밥을 해놓기도 하는데 나물과 주과포를 놓기도 한다. 보통 주부가 제를 지내는데 어촌에서는 정초에 바다에 나가서 잡은 생선을 모아 두었다가 이 날에 쓴다.

영등할머니의 유래는 2월 초하룻날 비가 오면 며느리와 함께 오고 바람이 불면 딸과 함께 내려온다고 하여 '바람영등' '비영등'이라 한다. 비가 오면 풍년이 되고 바람이 불면 흉년이 된다고 하는데 며느리와 올때 비가 와서 옷을 젖게하고 딸과 올때는 바람이 불어 색동옷이 잘 나부끼게 한다고 말한다. 영등할머니 제사를 지낼때는 무색옷을 입는다고 한다. 풍신으로서 영등할머니는 매우 까다로운 신이므로 잘 위해야 농사도 잘되고 바다에서 고기도 잘 잡힌다고 한다.

2월달을 '남의 달'이라하는 것도 영등할머니를 위한 달이라는 뜻이라 하는데 바람이 생계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식한 신관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전승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볼때 신적 의미가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촌에서 더욱 친근하게 믿고 있는데 따로 신체는 없다.

'지신제'(地神祭)는 '터주제'라고도 하는데 땅의 신을 위로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정초에 지낸다. 마을 농악대가 와서 대신 빌어주기도 한다. 조양동에서 행한 지신제 고사문은 다음과 같다.

국태민안이 범울전
 세화연풍이 돌아든다
 태조 등극할때
 삼각산이 기봉하여
 봉황이 주춤 생겼구나
 봉황을 놀려 대궐을 짓고
 대궐앞엔 육조로다
 삼정승 육판서
 오 명분이 가감사요
 각도 각읍을 마련할때
 경상도 71주가 대모관이요
 전라도 54관 함경도 34관 ㄱ

강원도 경관이 대모관
 강원도를 들어서서
 26관을 마련할때
 춘천하고도 도계면이요
 원주하고도 현감동
 영월하고도 단종대왕
 인제하고도 지방도
 양양하고도 속초시
 영동시군을 잡아든다
 시로는 속초시
 동으로는 조양동이요
 양씨가정을 잡아든다 ㄷ

62 제 2 장 속초민속의 내용

상남자 서방님
 중남자 도령님이요
 하남자 여자아기
 무릎위에 동자애기
 무릎밑에 명석아기
 구석구석 처자아기
 작년신수는 가렸거니와
 금년신수를 가려보자
 정월액은 정월대보름으로
 막아내고 2월 영동
 3월 삼진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한가위
 9월 구일 10월 중기
 11월 동지
 12월 그믐
 그건 그러하거니와
 온갖 살이 심하다니
 살풀이나 하여보자
 물앞 출입 하옵시면
 2되도 서왕살이요
 물입 출입 하옵시면
 3되도 서왕살이요
 고개고개 서왕살
 거리거리 서왕살
 마당에는 벼락살
 칠십삼만에 성주살이요
 일오팔십에 조왕살이요
 아래웃방에는 삼신살이요
 도장에는 지석살이요
 사랑에는 걸객살이요
 부모자식에는 고생살이요
 형제기간에 의논살
 부부기간에는 이별살이요
 치켜나 잡아라 천둥살이요 ↗

내려 잡아라 기둥살이요
 을지경도 수문장살을
 천지백살 다 풀어내니
 근들아니 영화로다
 난데없는 봉황이
 한나래를 쪽치니
 102만석을 점지하고
 또 한날개를 치니
 귀동자 아기를 점지하고
 큰아가기 자라날때
 외 크듯 가지 크듯
 억수장마에 비퍼붓듯
 왕대밭에 대손솟듯
 심심산천에 침줄업듯
 높은산에 구름건듯
 뭉기뭉기 자라나서
 과거보러 한양에 올라갈때
 어떤 배를 잡아타니
 썩어져서 못타고
 둘 배를 잡아타니
 가라앉아 못타고
 흑토산을 잡아타니
 풀어져서 못타고
 가랑잎 배를 잡아타니
 바람 무서워 못타고
 철 배를 잡아타니
 지남철이 무섭더라
 고생고생 무릎쓰고
 한양에 당도하니
 춘당서를 바라보니
 어떤 글자 걸렸드나
 강구 연월 동문여라
 일필휘지를 선정하니
 삼시관 받아보니
 어허 그 글 잘지었다 ↙

자자야 마다 귀점이요
 귀마다 관주로다
 한림학사 제수받아 7

금의환양하니
 양씨가문의 영화로다.

2 마을신앙

마을신앙의 대표적인 형태는 성황제(城隍祭)라 할 수 있는데 속초지방도 예외는 아니어서 동리마다 성황당(서낭당)이 존속되고 있다.

마을의 무사태평과 풍년, 풍어를 비는 뜻에서 성황제가 행해지는데 마을마다 제사일에는 차이가 난다. 장사동은 음력 8월 한가위를 전후하여 택일하고, 도문동은 동지달 초순에 택일하며, 영랑동은 단오와 동지달에 두번 지내는데 3년에 한번 굿을 한다. 대포동은 음력 10월 초순 길일을 택하여 지내고 외옹치는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물치는 음력 3월3과 10월 초순길일을 택하여 지낸다.



대포동 외옹치 마을 일명 밧독재마을에서는 성황제와 용왕제를 지낼 뿐 아니라 마을 입구에 목장승을 세우고 장승제를 지내며 솟대를 세워 놓았다. 노학동 학사평에도 1930년대경까지 장승과 수살대에 세워져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대포동은 3년에 한번씩 음력 9월9일대제를 지낼때는 무당을 청하여 굿을 한다. 외옹치 서낭당에는 정면에 화상

이 그려져 있으며 위패는 ‘城隍大神之位’도 되어 있고 입구로 부터 한문으로 ‘魚糧水積三千海’雁路雲開九萬千’門迎春夏秋冬福’無窮花發子孫鄉’春光先到吉人家’建陽多慶’厄運消滅’등의 문구를 써 붙여 놓았다.

영랑동, 중앙동, 장사동 서낭당에서는 화상이 걸려 있는데 성황신을 상징하고 있다. 장사동 서낭제의 축문에는 풍년과 만선, 재액소멸등의 마을신앙적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維歲次 某年十月某日朔初一日 獻官某某 敢昭告于
城隍大神之位伏以 三皇繼天司天可之(中略)
三農豐登 六畜蕃植 漁夫出漁 滿船歸港
萬祥漸至 三物賓興 消災消災 子子孫孫
增福增壽 世世吉昌 官災口舌 虎豹盜賊
消盡火災 驅之遠方 苦有疾厄 有凶有吉
睡神所祐 先見夢思 誠雖菲薄 神庶歆格
尚 饗



대포동 성황제는 남성황신과 여성황신을 따로 당을 마련하여 모시고 있으며 제사일인 10월 초순에 3일간 제를 올리고 있다. 1985년 설악제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한 대포동 성황제 풍어놀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속초의 관문인 대포는 옛날 도천면사무소 소재지로 속초지역의 행정중심지였으며 유명했던 대포항을 끼고 내물치, 대포, 외웅치, 3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소수의 농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이 고기잡이를 주생업으로 하여왔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성황제는 무사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성황제 풍어놀이도 마을주민 전체가 자리를 같이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여 왔다. 일찍이 3개 자연부락에는 부락마다 성황당을 짓고 해마다 성황제를 지내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부락마다 성황제 시기와 장소 내용은 다소 다르며 외웅치 부락은 강남갯ذن 제비가 돌아온다는 음력 3월3일과 제비가 돌아간다는 음력 9월9일에 성황제를 지내며 물치부락은 음력 3월3일과 10월 초순 길일을 택하고 대포부락은 10월 초순 길일을 택하며 1년에 한번 지낸다.

대포부락의 경우는 성황제의 규모가 큰데 첫 해는 큰 무당을 불러 무당굿 중심으로 하고 다음해는 복수리(卜術)중심의 성황제를 지내고 있다. 이 지역의 성황당은 평소에는 지역주민의 기원장소로 지내며 새 어종이 잡히면 꼭 성황당에 올리고 제를 지낸다.

복수리, 무당 중심의 성황제는 각각 그 규모와 내용이 다르고 제사 장소도 다르다. 복수리 중심의 성황제는 제일 당일 동이 트기전 인적이 없을때 제관, 지역 유지와 함께 도가집(제물을 준비하는 집으로 가정이 안정되고 자식이 번창하며 화목한 가정으로 선정한다)에서 준비한 제물로 성황당에서 제를 지낸다.

복수리 중심의 제사는 동네 전체의 안녕을 복수리를 통하여 기원하고 제사가 끝나면 도가집으로 지역주민을 불러 음식을 나누며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놀이가 장단에 맞추어 시작된다.

무당굿 중심의 성황제는 깨끗한 바닷가에 굿당을 차리며 성황을 모신 다음 제관은 제사를 지내고 무당은 마을의 안녕과 무사한 출어 조업 및 풍어를 기원하면서 각 가정의 안녕을 차례차례 기원하고 소지를 올린다. 제물은 반드시 소를 잡아 올리며 소머리를 소라 하지않고 말이라고 칭하며 이는 성황님이 말을 타고 온다고 하여 말대신 소를 준비하는 것이라 한다.

제사를 지내고 무당의 기원이 끝나면 무당의 다양한 12가지 굿이 2~3일간 계속되며 지역 주민은 남녀노소 모여 구경을 하며 무당굿이 끝나면 지역주민의 개별요청에 의하여 마을을 다니며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축원해 준다. 이를 불러 "지신올린다"고 한다. 제사와 굿이 종반에 이르면 동네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풍어놀이가 흥겹게 진행되게 된다.

마을신앙으로 또한 산신제가 있는데 설악제는 산신제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설악산은 옛부터 양양, 인제골의 진산으로 여겨 일대의 산간마을 주민들은 설악산신에게 제사를 올려 안녕을 기원하였는데 그러한 유습이 오늘날까지 산신제의 맥을 잇고 있다.

설악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김부식(1075~1151)의 「삼국사기」잡지 제사조에서 볼 수 있는 삼산오악 이하 명산대천은 대중소사로 나누어 제사지냈다. 이중 소사(小祀)로 설악이 들어 있으므로 설악산신제는 신라때부터 행해졌다고 하겠다.

이처럼 설악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비의형(秘儀形)산제로서 산을 신성시하고 그곳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마을신앙축제로서 정착되어 향토문화축제의 구실을 하고 있다. 어느 지방이나 향토신제가 있으나 설악제는 고유한 산신제의 성격을 갖추고 있어서 무당이 신의 강림을 비는 청좌굿이 들어가고 유교식의 축문을 읽어 설악산신을 위한 행사를 시작한다.

단순한 신앙적 측면의 산신제가 아니라 신과 인간이 제전을 통해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보편적 이상이 설악제에는 담겨져 있다. 설악제는 설악동에서 신목을 택하여 봉

안하는 강신행사로부터 시작하여 제사를 지낸 후 산신이 내린 신목을 모시고 속초시내를 돌아 지정된 장소에 안치한다. 지역 주민 및 각급 기관장들에 의해서 조건제를 지내는데 설악대제라 하여 설악산신, 동해용왕신, 속초성황신을 함께 봉안하여 치제한다. 이러한 대제는 속초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산악과 해양, 자연부락 단위로 치성을 드리는 것을 화합축제의 측면에서 합동으로 제사하는 것이다.

조건제가 끝나면 무당들에 의해서 오신(娛神)굿이 12거리 행해진다. 2~3일에 걸쳐 굿이 마쳐지면 송신제를 지낸다.

이때는 대제의 신들이 즐겁고 흠족하여 1년동안 속초시의 안녕을 가져다 주고 재액을 막아줄 것으로 믿는다.

설악제는 토착신앙으로서 산신제에서 산악무사고를 비는 행사로 1966년부터 본격화 되었으나 그 이후 산악인 뿐만 아니라 전 속초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마을축제로 자리잡았다고 하겠다.

상도문과 중앙동 서낭당은 기와 1칸으로 내부에는 나무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城隍之神位’라고 써있고 중앙동에는 남녀의 화장도 붙여놓았다.



산신제의 개인 치성으로는 심메마니에 의한 것이 있는데 설악동과 도문동의 심메꾼들에 의해 치뤄진다. 이들은 산삼을 캐러가기 위해 금기를 하며 목욕계계를 하여 부정을 피한다. 산삼은 신비로운 것이어서 반드시 꿈을 주는 몽사를 한다고 하며 산삼캐는 것을 ‘심메보러간다’고 한다. 산에 가서 산신령께 치성을 드리는 것은 쌀, 장, 향, 물을 떠

농고 접지해 달라고 빈다음 소지를 올린다. 여러사람이 함께 갈 경우에는 부정탈까봐 말을 하지 않고 마대(지팡이)로 나무를 쳐서 신호를 보낸다. 언어는 은어를 쓰는데 문광록 심메마니는 덤퍼리(안개) 흑저구(까마귀) 우동불(모닥불) 심부름꾼(부지깽이) 뽕(밥) 모래기름(물) 안침(휴식)등의 은어가 있다고 하고, 산신이 접지해야 산삼을 뜯을 수 있다고 한다. 산삼을 캐면 삼색천과 소고기를 사서 다시 산신께 빈다. 설악산 심메마니 신앙과 풍속 언어는 제3장에서 다룬다.

3. 무속신앙(巫俗信仰)

무속신앙은 무당들에 의해 치뤄지는 곳의 형태를 지칭하는데 개인 가정곳과 마을 공동곳이 있게 된다. 공동곳은 시장에서 하는 별신곳과 어촌의 풍어곳이 있다.

한국불교반공연합회와 대한승공경신연합회는 무속인들의 집합단체인데 전자의 경우는 최태경(무격·74세)씨가 3대 속초지회장을 맡고 있다. 초대는 주용호씨가 5년, 2대는 권영숙씨가 6년을 맡아 이끌어 왔다고 한다. 경신회는 1989년부터 하의호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경신연합회 회원은 1990년에 45명이 정식 등록되어서 현재 활동중이다. 속초의 무속인단체는 이처럼 양분되어 있는데 1970년에 대한승공연합회 속초지회가 조직되어 최순천씨가 회장을 맡았다. 당시는 회원수가 100~150여명 정도였는데 1971년 주용호(작고)씨가 정도회(正道會)를 조직, 1976년 한국불교반공연합 속초지회로 개칭하여 200여명의 회원이 있었다. 1985년 주씨 사망후 그 처인 권영숙씨가 계승하였고 내부적 사정으로 회원이 감소하다가 현재는 제3대 최태경씨가 이끌고 있다.

1975년도 장주근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속초시 무속인의 경우 철학 4명, 박수 3명, 만신(萬神)230명, 점술 13명등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속초지방은 최태경씨의 언급에 의하면 명단에 12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곳을 하는 사람은 30여명이고 앉아서 점만 치는 사람이 90명 정도라 하였다. 남자무격인 화랭이는 6명으로 김병익, 박순업, 박재억, 김진학, 최태경, 이씨등이라 하였다. 철학을 하는 사람은 10여명 정도이고, 경신회원 30~40명을 포함하면 현재 파악된 속초의 무속인은 15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속초의 경우 만신(萬神) 또는 대신, 보살이라고 하는 무당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강신무 계통으로 사제관계를 맺으며 12거리 곳을 하고 있는데 능력이 있는 경우에 뽕혀 다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문을 외우는 정도의 보살에 속한다. 무속인의 부류를 최회장의 말에 따른다면 만신, 무당, 복술, 명신동자, 절래가 있다 한다.

곳의 절차로 12석(거리)은 ①부정곳 ②서낭곳 ③조상곳 ④성주곳 ⑤망자곳 ⑥세존곳

⑦오구굿 ⑧별상굿 ⑨대감굿 ⑩말명굿 ⑪칠성·산신굿 ⑫꽃노래·뱃노래·등노래 ⑬뒷풀이가 있다 하였다. 총무를 맡고 있는 최영석(남·55세)씨는 철학을 하고 있는데 12대신을 속초에서는 모신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천지신명, 옥황상제, 일월성관, 칠성, 산신, 용왕, 삼불제석, 신장장군, 호구별상, 골맥이서낭대신, 12대신, 조상대감, 팔도명산, 도사신령, 선녀동자명신등이었다.

12거리가 아닌 일반굿의 경우는 성격상 병굿, 혼신굿, 수살굿, 재수굿, 화도굿, 신굿, 망령굿, 살풀이, 고사등이 있는데 재수굿을 가장 많이 한다고 말한다. 상업·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 1년~3년, 5년사이에 걸러 가면서 크게 한다고 하며, 혼신굿은 결혼혼신굿이라고도 하는데 사혼(死婚) 또는 허혼(虛婚)을 지칭한다. 즉 처녀 총각이 죽었을때에 산 사람과 똑같이 사주단자를 주고 받고 초례도 치르는데 인형을 만들어 사모관대를 갖추어 영혼을 잘 천도한다.

화도굿은 미치는 병이 있을때 광증을 없애는 치병굿인데 잡신이 든 병은 이 굿을 하여야 낫는다고 한다. 망령굿은 조상굿과 같은 것이고 신굿은 강신을 하기 위해서 받는 굿이며, 수살굿은 오구굿이라 한다.수살굿은 특히 물에서 익사했거나 비명횡사를 했을때 하는 굿인데 화랭이패들의 오구굿은 ①초망자굿 ②문열이 ③세존굿 ④군웅굿 ⑤뉘반 내리기 ⑥오귀 풀이 ⑦성주굿 ⑧조상굿 ⑨판염불 ⑩꽃노래 ⑪뱃노래 ⑫등노래가 있다 하였다. 그러나 화랭이패들은 화도굿이나 신굿, 병굿을 강신무처럼 하지 못하는데 신내림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화랭이패는 만신들에 비해 지극히 적은 숫자이나 유명한 만신과 부부가 되어 함께 무업을 함으로써 명성을 얻는다. 최태경씨와 탁순동(여·만신·56세)씨는 부부사이인데 탁순동씨는 오귀새남을 잘하며 창이 아주 뛰어남을 들을 수 있었다.

온정암 산신당에서 만난 이들은 무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최태경씨는 충청도 출신으로 29세때 경기도 포천에서 양화점을 하다가 꿈에 산신할아버지의 신을 받아 신의 밥을 먹고 사는데 30세에 속초로 와서 신어머니로 홍만신이라고 부르는 평안도 무녀에게 굿을 배웠다.

부인 탁순동씨는 빼어난 미모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창에 능하여 앉은 자리에서 신맛이 사설을 거침없이 노래하였다. 속초태생으로 최태경씨와 함께 무업을 한다. 이들은 또한 최연자, 김명숙, 김순자, 김옥랑, 정춘자, 김옥봉, 박길례, 홍동자, 이명례 만신과도 같이 일을 한다. 중앙동에 사는 이명례 만신은 무업을 하지 4년정도로 '아기보살'로 통한다. 그에 의하면 굿은 정월에 가장 많으며 굿의 종류도 정초에 하는 재수굿으로 '웃맛이굿'이 있고 망자굿은 자리거들이라 부른다고 했다. 그의 굿절차는 영정부정굿, 골맥이성황굿, 성주굿, 재수굿(티주대왕굿), 칠성굿(맑은굿), 망자굿, 세존굿, 당금애기,

대감굿, 놀음굿(조롱굿), 뒷거들이로는 뱃놀이, 등놀이등이 있다. 보통 무당을 '만신'이라 하고, 박수무당 화랭이를 '사위', 점치는 사람을 '앞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속초의 무속용어는 다음과 같다.

서삼(밥), 조치기(반찬), 배미(돈), 배기미(쌀), 벗걸이(옷) 디디미(버선), 안대미(장구), 떡쇠(징), 삼세기(부채), 지루(탁자), 지모(제자), 사이(남자무당), 드럭(집), 파이(가정집남자), 구내(가정집여자), 쪼리(자식), 석거리(머리), 식었다(죽었다)등이 있다.

김명익(남·41)씨는 화랭이로 강릉단오굿 인간문화재 신석남여사의 아들로 문화재 후보생인 무녀 빈순애(여·38)씨와 부부로서 무업을 잇고 있다. 이들에 이해서 용왕 위령굿, 모래기 수살굿등이 재현되어 민속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속초 청호동에서 거주하나 강릉, 삼척, 고성, 부산등 동해안 일대를 신석남 무녀와 함께 굿을 하러 다니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여 속초 무속을 알리는데 공헌하고 있다.

속초 인근에는 부산에 사는 김석출 화랭이와 이금옥 무녀가 와서 굿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과 함께 큰 굿의 경우 나누어서 치르고 있다. 김석출씨는 주문진에서 살았는데 악기는 물론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금옥씨와 함께 동해안 별신굿으로 인간문화재가 되었다. 요즘에는 주로 부산 인근에서만 활동을 하고 지난해는 주문진 성황굿에 와서 4년만에 풍어제를 이들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치렀다.

속초지방의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악기와 소도구는 명도, 부채, 방울, 신갈, 장군칼, 신

장칼, 작도, 장고, 징, 팽과리, 재금등을 이용하여 음악도 하고 필요한 소도구로 쓰고 있다. 복색은 한복에 패자를 입으며 화랭이는 한복에 도포를 입고 갓을 쓴다.

조사한 속초의 조상굿 일부를 소개한다.

축원무가(탁순동 무녀)

남선부중야 대한민국이고
강원도 전은 26간이오
이골 군은 양양군이오
시를 걸어서는 속초시요
여기는 온정리 읍시다
터전은 나랏님 터전이고
날은 잡아서 공자님 맛았는데
가정은 함씨 가정이고
명당 잡아야 김씨로 명당안인데
이 정성 이 발원 드리는 정성은
다른 정성이 아니옵시다
김씨네 궁전안에 일력이 나뻐는지
월력이 나뻐는지
자손들이 모든 것이
뜻대로 아니되시니
만 조상님 전에
자손들 명복주고
재수문 열어 달라고
꽃피워 놓고 잎피워 놓고
상당 높이매고 중당 도투매시고
열 두 구멍 대시루요
아홉 구멍 증시루며
일곱 구멍 동시루 바치시고
노구메 침지며는
삼채소며 나물이며
삼실과로 줄을 맞춰
차려 놓고
촛불 화단으로 불밝혀 놓고
함씨네 자손들 명달라고 ㄱ

이 정성 드리시는데
하물며 굿인들
차레가 없겠습니까
선후가 없겠습니까
청각이 착각하니
갑자년에는 하나님어 생기시구
지복이 개축하시니
땅님이 솟아 나시니
일광씨는 해 마련하고
월광씨는 달 마련하고
조광씨 별 마련하시구
화도씨 불 마련하고
순이씨 물 마련하고
인왕씨 인수인간 마련하시니
높은 산에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기로 마련하시고
수많은 배도 모아서
만경창파에다 배 띄워놓고
억조창생으로 왕래를 하시니
억만코에 그물을 매어
고기잡아 먹는 것도
가르치시는구나
신농씨도 나신 후에는
높은데다가는 밭을 치고
낮은데다가는 논을 떠어
농사짓는 법을 마련하시구야
공자왈 맹자왈 하신후는
부실부실 삼강오륜이며
글을 지어내어 ㄷ

마련을 하시는구나
 석가여래도 나신 후에는
 불도불법을 마련하시니
 사월이라 초파일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십니까
 삼백초의 양초를 켜놓고
 맹장 다스릴때
 죽는 자를 살려놓고
 아픈 자는 병 고치리다
 복희씨 성군성덕으로
 하도낙서를 풀어내니
 창해같은 의견으로
 음양조차 분배 가려내니
 남녀가 분배되어
 부부연분 배필을 맞이하시고
 오늘에 정성은
 합씨네 궁전앞에
 타인가족이 태평하고
 만사가 대길하며
 자손창손 부귀다남 하오시고
 천지우주에 뜻인
 재수공귀 받드시자 하시니다 ㄱ

인재복덕이 제일이고
 천만공권을 복만가요
 손도문전 총복긴데
 천년가부 만년대부
 올안태복 열어주시오
 사시사복을 열어주시오
 기수우복에 하복삼추라
 문영왕에 춘하추동 복위인데
 오는 소망 가는 소망
 우리 합씨 궁전에
 심중의 여유하시옵고
 만사가 대길하여시여
 천상에는 천작수라
 합씨네 자손들아
 만세영위하고 장명장수
 무병장수 국태민안
 시화연풍 이범유수
 일취월장 안과태평
 부귀영화 누리시고
 태평성대를 누리주시오
 조상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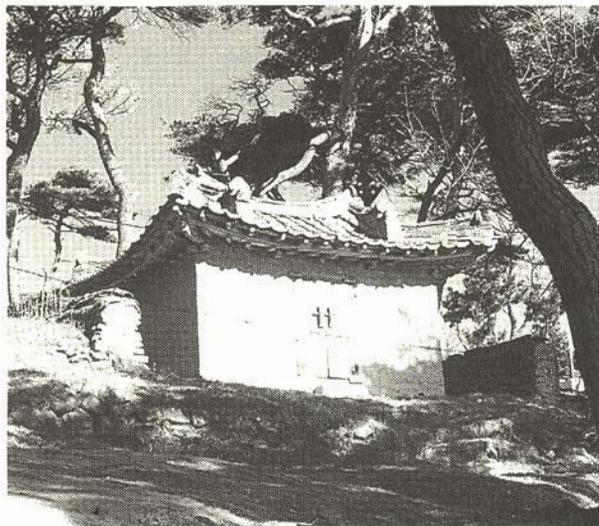
속초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곳으로는 청호동에서 행한 용왕위령굿과 외옹치 고폘이
 굿, 모내기 수살굿등이 지역성을 반영한 굿들이다.

용왕 위령굿은 속초시내 13개동중 어민이 가장 많은 어촌 마을인 청호동에서 어부가
 어로중 바다에 희생된 님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굿이다. 이 굿은 빈순애, 김명익씨의 속
 초 무속인들이 참여하여 제21회 설악제때 선보였다.

외옹치 고폘이굿은 전영문, 서원순씨가 고증하여 1983년 1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
 회에서 발표하였다. 속초시 대표동은 동해의 관문으로 외옹치는 빗독제라고도 부르는데
 독제는 독바우고개라는 뜻이라 한다. 고폘이는 성황제와 용왕굿으로 나뉘어 행해지는데
 장승제를 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외옹치 성황제는 앞서 언급된 바 있듯이 3월과 9월에 시제를 지내고 3년에 한번씩 가
 을철에 용왕굿을 하며 어부의 혼을 위로하는 고폘이굿을 하는 내용이다. 성황제는 지난

해 제주가 날을 받아 오면 깨끗한 사람을 골라 당해의 도가로 정한다. 도가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비용 등을 마련하게 되며 도가집이 된 사람은 목욕재계하고 백미 3되를 가지고 신주를 담가서 성황당 근처에 묻고 금줄을 쳐놓는다. 사방 4곳과 도가집 앞에는 +자형으로 황토를 뿌려 부정을 막고 근신한다. 또한 마을 입구에 장승과 솟대를 세우기 위해 산에 가서 알맞은 나무를 베어와 도가집에서 암수장승을 깎는다.



마을제사가 시작되기 하루전에 장승을 새로 세워 놓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대장잡이를 선두로 하여 제주와 제관들이 앞서고 무당들이 솟장승으로 지신을 밟으며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와 굿을 한다. 암장승에게 가셔도 성황님을 청하여 굿을 하면 장승제는 끝이 난다.

성황당에 갈 때는 암수 두 장승을 모시고 가는데 외웅치 성황당이 솟성황이므로 암장승신만은 안치하고 굿을 한다. 성황당 안에서 굿판을 벌이는데 주로 마을의 안녕과 질병예방, 풍어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사흘동안 계속되는데 굿 철차는 부정굿, 천왕굿(성황굿), 조상굿, 칠성산신굿, 세존굿, 장군군웅굿, 성주굿, 손님굿, 제면굿, 꽃굿, 등놀이굿, 뱃놀이굿등 열두거리굿을 하여 성황당굿을 마치게 된다. 이때 쓰는 제물은 황소 한 마리를 잡아 말머리라 하여 소머리를 통째로 바친다. 소도 반드시 황소를 쓰고 암소나 돼지는 쓰지 않는다. 기타 제물은 시루떡 한 말과 주과포를 마련하는데 떡을 하는 한 말의 쌀에서 3되를 신주를 빚고, 1되를 메를 짓고 나머지 6되로 떡을 찐다.

나흘째 되는 날부터 오시(午時)가 되면 용왕제를 하는데 새로 장만한 제물로 정성껏

차리고 무당이 마을을 다니면서 소지를 올려주며 각자의 소원을 대신 빌어주게 된다. 동네 소지올림이 끝나면 바닷가로 나가 죽은 어부의 혼을 위로하는 위령굿을 한다. 위령굿은 흰 천으로 사자의 혼길을 내는데 무당이 혼길을 가르면서 죽은 어부의 혼을 건져 위로하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절차를 행해 맺혔던 고를 풀어준다. 용왕굿, 거리굿, 오구굿의 절차로 고티는 끝맺게 된다.

외옹치 고티는 장승제, 성황제, 용왕제를 함께 치르는 마을공동제사의 성격을 갖는 종합신제로 볼 수 있으며 이 행사를 무당이 주체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원순 할머니는 집안에 설악산 대청봉 산신을 모시고 있는 분인데 굿은 하지 않으나 용왕신, 칠성신, 보살, 수부신도 화상을 봉안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마을 성황제 도가를 20년 가까이 해 올 정도로 믿음이 깊다.

모래기는 장사동 사진리(沙津里)를 말하는데 이곳의 수살(水殺)굿은 빈순에 무녀에 의해 치뤄졌다. 속초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조업도중 해난사고로 생명을 잃은 가정이 많은 탓에 미망인들이 생기게 된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은 죽은 사람의 혼백이 닳아 몸이 아프고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럴때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혼백을 떨쳐버리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는 굿을 수살굿이라 부른다.

절차를 살펴보면 무녀 2명, 화랭이 2명, 사공 1명이 상주를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가 육지와 어느정도 떨어지면 가지고 간 산땀다리에 끈을 묶어 바다에 던진다. 그때 밥그릇에 밥을 담아 끈으로 묶어 같이 던진 다음 화랭이가 혼을 끌어 올리는 대나무인 '인혼대'에 죽은 사람의 마른 속옷과 한지를 달아매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금일영가 아무개, 금일영가 아무개, 금일영가 아무개"라고 망자를 3번 부른다. 이러면 배에 있는 상주가 "예"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화랭이는 "젖은 옷을 벗어놓고 마른 옷을 갈아입고 육지 환생하옵소서"라고 말한다. 이 과정은 상례의 초혼과정을 무속적으로 치르는 내용이다.

인혼대를 몇차례 더 휘두른 다음 인혼대를 내려놓고 마른 옷을 바다에 던진 땀과 밥그릇을 끌어 올린다. 끌어 올린 땀이 죽지 않았을 때는 혼백을 끌어 올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화랭이는 끈을 당기면서 혼신진 염불인 '대다라니경'을 외운다.

"심오 장년 대다라니, 나무야 다라야 바로기세 세바라야 모지사마야..." 바다에서 건너온 혼백을 담은 돛자리와 위패를 굿당으로 모신다. 죽은 닭은 곧 망자의 육신을 상징하며 여기에 혼백이 실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은 망자의 혼백이 미망인에게 덮혀 소나무 신목을 잡고 강신이 되면 굿

당에서 혼신을 건져 싸서 가져온 돛자리를 보고 쓰러지면 무녀가 미망인을 돛자리로 덮어준다. 그리고 무녀는 복숭아 나무를 가지고 돛자리를 때리면서 “온다~ 귀신이 물에 수살가신 귀신들 일척, 월척, 감척, 수구사자 귀신들 한많은 원많은 귀신들이 잡귀 잡신…”이라하며 수살잡귀를 쫓는다. 전래에 의하면 동쪽에 뻗은 복숭아나무가지는 잡귀를 쫓으며 미친병을 제거하는데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것이다.

복숭아 나무가지로 때려 수살귀를 쫓으면 미망인은 평소처럼 정신이 바로 돌아오면서 아픈 몸이 깨끗해진다고 한다.

미망인은 비록 남편의 영혼이 안스럽지만 억울하게 죽어서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므로 일단 몸에 붙은 수살고혼을 씻어내고 이를 잘 천도하게 된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미망인이 기쁜 마음으로 혼백을 길가름해주는데 길가름은 혼백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곳이다.

상주와 친척들이 상복을 입고 광목천 옆에 길게 서면 무녀는 돛자리와 혼백상자를 가슴에 안고 춤을 추면서 몸으로 긴 광목천을 자르며 무가를 부른다.

무녀가 천을 잘라 길가름을 하면서 혼백집을 이끌고 나갈 때 상주들은 천위에 노자돈이라며 돈을 놓고 절을 하며 혼백이 잘 천도되기를 빈다. 천을 완전히 잘라 두 갈래가 되면 천을 양쪽으로 갈라 쥐고 머리 위까지 올리며 극락춤을 춘다. 극락춤은 상여소리를 하는데 출상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바 무녀의 선소리에 맞춰 주민들이 상여꾼이 되어 뒷소리를 한다. 무녀와 함께 극락에 도달한 혼백을 위해 빠른 장단으로 극락춤을 함께 추고 나면 제사밥을 함께 나누고 태평안일을 기원한다.

이 극락춤은 상주뿐만 아니라 평소 망자와 친했던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수살고혼이 된 망자의 혼백을 건져 올려서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의식이라 하겠다. 무녀의 인도로 극락왕생을 한 망자의 고히은 다시 미망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빈번한 해난사고로 심적 충격을 받은 미망인들을 위무하고 억울한 망자의 영혼이 산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속초지역의 특수성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오구굿계통의 위령굿은 지역성을 반영한 무속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수살굿은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도 속초시를 대표하여 참가한 바 있다.

제 5 절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옛부터 즐겨오던 놀이로서 어린이나 어른, 남녀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더러는 요즘에 전자오락에 밀려 차츰 사라져 가는 형편에 놓이기도 하나 아직도 농·어촌 마을에서 고유한 민속놀이는 계속 행해지고 있다. 민속놀이는 성격상 제의성이 들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향토의식이 반영되고 예술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속초지역의 민속놀이는 산촌, 어촌, 자연부락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어서 계속적인 보존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 참고로 1986년 설악제시에 행해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했던 민속놀이를 보면 향토성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정다지기(영랑동), 등대질놀이(동명동), 짱치기놀이(중앙동), 가마싸움놀이(금호동), 만천광대놀이(교동), 도리원풍년마당놀이(노학동), 장원놀이(설악동) 등이 있었으며 1985년도에는 논피호의 불꽃놀이(중앙동)가 재현된 바 있다.

이상의 민속놀이는 현재 전승되지는 않으나 재현된 것이 있는가 하면 계속 전승되는 것이 있는데 형태상으로 본다면 집단놀이가 될 것이다. 개인놀이로는 속초지방 역시 아이들놀이가 대부분인데 자치기, 말타기, 땅뺏기, 비사치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옷놀이, 풀각시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바람개비돌리기, 고무줄놀이, 그네뛰기, 숨박꼭질, 줄넘기, 햇불싸움, 망우리싸움등이 있다.

이상의 민속놀이 중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아동놀이와 성인놀이로 나누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놀이

●연날리기

연날리기는 설에서 부터 보름까지 날리고 그 이후는 그만 두는데 연을 날려 보내지 않으면 귀신이 연에 붙는다고 하고 ‘고리백정’이라고 놀리기도 한다. 연은 한지에 대나무를 쪼개 붙여서 만드는데 ‘참연’이라고 하는 연은 장방형이므로 ‘방패연’, 통연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이외에도 ‘가오리연’이라 하여 바다 생선인 가오리 모양처럼 만든 연도

날린다.

연은 대보름날 마지막으로 날려 '귀양보낸다'고 하는데 참나무 껍질로 배를 만들어 여기에 연줄을 연결하여 바다에 띄우고 썩을 달아 불을 붙여서 줄이 타서 끊어지게 만들어 액을 보내기도 한다. 또한 서로 연줄 끊어 먹기를 하는데 줄에다가 '쌈치먹인다'하여 사기그릇 깨진 가루를 묻혀서 상대방 줄을 끊는 내기도 하고, 최고로 높이 띄우기 내기도 한다. 바다쪽으로 보통 날려 보내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 액땀을 하기 위해 자기의 생년월일을 적어 날려 보낸다.

속초에서는 문화원에서 주최하여 대보름날 연날리기대회도 하는데 영랑동에 거주한 조춘식씨가 연에 대하여 조예가 깊어 연날리기 대회를 재현하게 되었다고 한다.

● 윗놀이

정초의 놀이로 대표적인 안방놀이가 윗놀이이다. 이 놀이는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데 보통 박달나무나 참나무로 윗을 만들어서 논다. 윗놀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놀아야 재미도 나고 흥도 돋는 노래가락이 나온다. 윗놀이로 윗점을 치기도 하는데 요즘 속초지방에서는 별로 윗점치는 예가 드물고 동네 노인정이나 친척끼리 모여 술내기도 하고 이긴 사람들이 진 쪽의 사람에게 각종 벌칙을 주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윗은 사목으로 낙동내기와 말잡아먹기등의 방법이 있으며 도, 개, 걸, 윗, 모의 말판을 사용한다. 윗놀이는 전국적인 민속놀이라해도 무방하다. 속초에서는 토씨속에 윗을 넣고 흔들어서 윗놀이를 하기도 한다.

● 자치기

자치기는 남자 아동들의 놀이로 속초에서는 '대포치기'라고도 부른다. 50~60cm정도의 나무를 엇비슷하게 양쪽 끝부분을 잘라 이 끝부분을 막대기로 내려치면 튀어오를 때 긴 막대로 쳐서 멀리 보내는 놀이다. 짧은 막대는 메뚜기처럼 튀어 오른다고 하여 '메뚜기'라 부른다. 이렇게 멀리 보낸 메뚜기를 둥근 원안에 던져 원안에 들어가면 끝이 나서 서로 입장을 바꾸게 되고 금을 닿으면 한 번 막대로 다시 쳐서 보내고 금 밖에 떨어지면 세 번 친다. 이렇게 쳐낸 메뚜기와 원과의 거리를 눈으로 측량하여 친사람이 거리를 부른다. 예를 들어 10자라고 했을 때 재어서 10자가 되면 계산에 넣게 되나 미만이면 계산도 안되고 서로 동작을 바꾸게 된다. 이렇게 계속 점수를 가산하여 처음 정해 놓은 500자나 1,000자를 먼저 얻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놀이다.

●비사치기

비사치기는 ‘돌치기’, ‘비석차기’라고도 하는데 두 명이 하거나 여러명이 편을 갈라서 하기도 한다. 보통 10m정도 양쪽에 줄을 긋고 두 편이 줄 밖으로 갈라지며 중간지점에 손바닥만한 얇은 돌을 세운다. 양쪽에서 한 명씩 나서서 돌을 던져 세운 돌을 먼저 쓰러 뜨리면 이기게 된다. 던지는 돌을 ‘말’이라고 하는데 던지는 방법도 다양하여 처음에는 선채로 던지나 차츰 발동이나 무릎사이에 끼워 가지고 “일만만 이백천 삼시문”하고 외치면서 돌을 차서 세운 돌을 넘기기도 한다. 또 머리카락 어깨 위에 말을 올려 놓고 조심스럽게 걸어가서 떨어뜨려 넘기거나 목덜미에 얹고 뒷걸음질쳐서 나가기도 하고 거드랑이, 배위에 끼우거나 올려놓게 하여 다가가기도 하고 고개를 앞으로 젖히고 뺨에 실어서 가기도 한다. 말을 머리위에 얹은 채로 가는 것을 ‘떡장수’라고 하며 재미있게 논다.

●땅뺨기

남녀 아동들이 모두 노는데 직경 1m정도의 원을 그리고 그 원을 여러개의 반월형으로 획을 그어 놓고 토기나 깨진 유리, 사기그릇을 손톱으로 튕겨 구획한 금에 닿아도 안되고 바로 연결한 구획이 아닌 다른 구획으로 가도 아니된다. 이렇게 튕겨서 쳐놓은 구획속으로 말이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는데 서로 딴 땅은 금을 지워서 통합하고 더 이상 땅이 없게 되면 자기 말로 상대방 말을 맞추면 경계선으로 부터 한 뼘, 두 뼘씩 상대방 땅을 점령하여 다 차지하면 이기는 놀이다. 이것을 ‘전투싸움’이라고도 한다.

●풀각시놀이

여자아이들의 놀이중 공기놀이와 함께 가장 많이 노는 것으로 봄철에 만물고지, 솔고지, 난초 잎을 잘라다 나물을 삶듯 하여 후줄구레해지면 수수깥이나 나무에 매어 여자아이 머리뺨듯이 땅고 비너를 찌르기도 하고 여자모양을 만들어 인형놀이를 한다. 속초 주민들 말에 따르면 흥년한다고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알 수 없다. 문헌에는 초각시희(草閣氏戲)라 하였다.

●짱치기

짱치기는 농한기에 나무하러 다니던 청소년들이 나무하고 돌아오던 중에 논밭이나 들판 어름판위에서도 편을 갈라 놀았다.

짱치기는 ‘짱방울’이라 하여 주먹만하게 소나무옹이로 공을 만들고 끝이 고부라진 나

무로 1m정도의 긴 ‘짚채’를 만들어서 상대방 문에 넣는다. 짚채가 특별히 없으면 지게 작대기를 이용하기도 하며 이 놀이에서 진 편이 이긴 편이 나무를 해주기도 한다.

중앙동의 짚치기나 대포 밧독재의 패짚이 유명했다고 하는데, 속초에서 짚치기가 행해진 것은 1920~30년대까지이며 일제시대에는 금지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짚치기터는 중앙동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렁골로 들어가는 곳까지로 지금은 미시령으로 통하는 교차로이나 그 당시의 지형은 양쪽에 낮은 산이고 가운데가 오목하게 골이 저 있었기 때문에 짚이 옆으로 도망가지 않았으므로 짚치기에는 안성맞춤의 장소였다고 한다. 골대는 한 평 크기로 세워 놓았는데 놀이의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짚치기에 능한 장정이 심판을 맡고 양쪽에 10명 정도씩 동·서군으로 편을 가른 다음 짚터 한가운데 짚을 박아놓은 다음 ‘짚받아라’고 외치면서 시작된다. 경기의 제한은 짚을 상대방 골대에 넣는 숫자를 미리 정하여 먼저 득점을 하면 이긴다. 이 경기의 유래는 머슴들이 산에 나무를 한 다음 그 나무를 내기로 하여 이뤄졌다고도 하는데 이긴 편이 진 편이 나무짐을 받기도하고, 아침에 하는 경우는 그 날 나무 한짐씩 해주는 것을 내기로 했다.

속초지방의 짚치기는 매우 성행했던 것으로 옛노인들의 추억에는 나무짚에 맞아 실명되기도 할 정도로 흥미로왔다고 회상하는 정도로만 되었다. 오늘날 필드하키와 같은 민속놀이로서 짚치기는 계속적으로 계승시킬 수 있는 단체경기놀이라 하겠다.

2. 성인놀이

●논외호 불꽃놀이

청초호의 옛이름은 ‘논외호’라 하였는데 문헌에는 쌍성호(雙成湖)라 하였고 택리지에는 관동팔경의 하나로 넣을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이다. 지금은 많이 오염되었으나 이곳에서는 불꽃놀이가 행해졌다.

논외관 논산리를 뜻하고 논외호는 논산리 앞의 호수를 지칭하는데 삼연 김창흡선생이 지었다고 하는 소야8경에도 ‘논산조양(論山朝陽) 또는 ‘논산조연(論山朝煙)’이 들어 있다.

불꽃놀이를 한자로는 ‘낙화유(落花遊, 落水遊)’라고 하는데 청초에서는 이조 숙종때부터 이 고을로 오는 수령을 위해 주민들이 경축행사로 논외호에 꽃배를 띄우고 관기들이 풍악을 울리며 3일 동안 밤을 새우며 축하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때 널판지에다 숯불을 피워서 호수에 띄웠고 주민들은 호수주위에 초롱불을 밝혀 수령을 기쁘게 했다

한다. 이러한 불꽃놀이를 할 때에 구경나온 주민들도 함께 흥겨워하고 뚝에서 주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러한 축하연은 선정을 바라는 지방민들의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것으로 새로 부임한 수령에게 민관일치의 우의를 보여주었던 것이며 아름다운 청초호에서 환영의 뜻을 보여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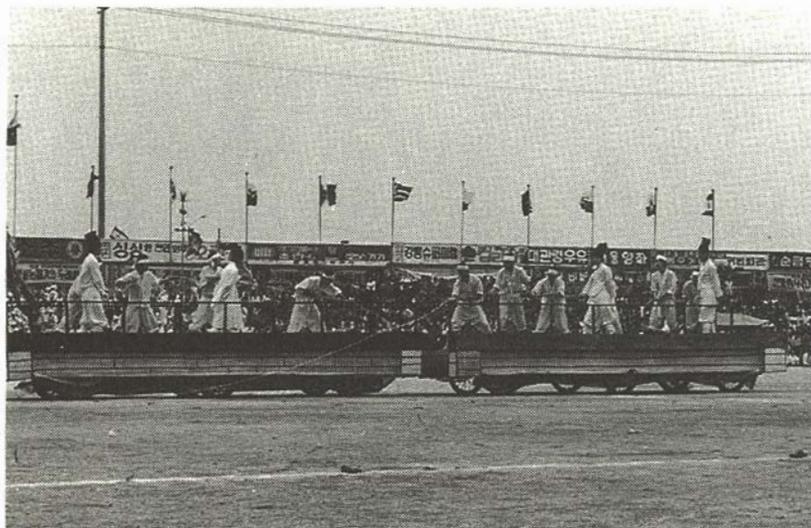
청초호에는 호수둘레가 수십리로 경치가 영랑호보다 좋다고 하고 이곳에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시켰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곳 청초호 불꽃놀이가 중단된 것은 이조 말엽으로 불꽃놀이 중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 뒤로 부터 위험하다고 폐지했다고 한다.

논외호 불꽃놀이가 최근 재현되어 옛모습을 연상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청초호에 유람선을 띄우고 불꽃놀이를 한다면 더 큰 의의가 있겠고, 관광명소가 될 법도 하다.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

만천동은 교동 천주교회 부근을 일컫는 옛지명으로 이곳의 나룻배싸움놀이는 제2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선보였다. 구비전설에 의하면 청초호에는 숫룡이 살고 있었고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아서 서로 땅속으로 통한 물길을 따라 오가며 지냈는데, 어느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 불이나 청초호 주변의 솔밭을 태우게 되어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숫룡이 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벌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로 어민들은 정월대보름날을 기하여 무당을 청하고 정성껏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수룡의 죽음을 위로했다고 한다. 또한 이때의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를 거행했다고 한다. 이 나룻배싸움놀이에서 진 마을쪽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이긴 쪽 마을은 풍어와 대풍년을 거둔다고 믿으며 나룻배를 타고 하루종일 가무를 하며 놀았다고 한다.



지금의 갯배나루는 90m이나 옛날의 만천동 나루는 북으로 영랑호, 남으로 청대리 씨릿재를 이어 도문동으로 연결되었으며 동쪽으로 대포동을 이었다. 나룻배싸움놀이의 시작은 음력 정월대보름이 되면 마을사람들이 모여 용제를 올릴 길일을 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주와 제관은 목욕계개하고 부정을 금하게 되는데 동네 청년들이 용신제를 올린다. 풍년과 풍어 마을안녕을 기원한 다음 나룻배를 타고 상대편 마을로 찾아가 동네 어른을 찾아서 인사를 한 다음 함께 음복을 한다. 서로간의 인사가 끝나면 나룻배를 타고 각자 마을로 돌아와 나룻배에 신주와 제물을 차려 호수로 나간다. 호수에서는 음식을 뿌리며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한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음식과 술을 나누며 흥을 돋운 다음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 양편의 나룻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배끼리 부딪쳐 상대편 마을로 밀고 나가면 이기게 된다. 상대의 힘에 밀려 나룻배가 되돌아 오면 지게 되므로 힘껏 줄을 당기고 노를 젓거나 막대로 서로 밀게 된다.

이처럼 힘을 겨루어서 이기게 되면 풍어를 약속받는다고 믿는다. 나룻배싸움놀이가 승패를 정하게 되면 승자나 패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 마을 청년들이 어울려 놀이마당을 벌인다. 나룻배싸움에서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도선료를 받지 않고 푸짐한 대우를 해주게 되므로 힘껏 싸움놀이를 하게 된다.

나룻배싸움은 결혼하여 가마를 타고 오다가 나룻배에서 만나게 되어도 이와 같이 하는데 '혼례나룻배싸움'에서 이기면 신부가 첫아들을 낳는다고도 하며 육지의 가마싸움놀이와 비슷한 형태이다. 만천동은 동군, 청대리는 서군으로 나누어 편전(偏戰)형식으로 행해지는데 이러한 민속놀이는 줄다리기와 같은 풍요제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나룻배에 아들을 많이 낳아 기르는 장정들을 뽑아서 태우는 것도 상징성을 내포하게 된다. 암수롱으로 상징되는 나룻배싸움이 결국 하나로 화합되기 위한 절차이며 두 마을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것은 풍요로움을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는 용선희(龍船戲)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양민속으로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천광대놀이

만천마을은 나룻배싸움놀이 뿐 아니라 해마다 한가위를 맞아 일년동안의 농사가 풍년된 것을 감사하고 다음해에 풍년들도록 기원하는 광대놀이를 하고 있다. 놀이방식은 집집마다 쌀과 돈을 조금씩 거두어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고 남녀노소가 참여하여 농악소리에 맞춰 달맞이 놀이를 하다가 징소리가 나면 액운이 물러가고 복이 들어온다는 풍습에 따라 집집을 순회하면서 마당놀이를 하는데 이때 탈을 쓰고 광대놀이를 한다.

물치마을에서도 정월대보름날 탈을 쓰고 노는 잡색놀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만천동 광대놀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만천동 광대놀이는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 교동노인회에서 재현하였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마당쇠:(빗자루를 들고 대문밖으로 나와 광대들이 오고 있음을 보고)나리, 나리, 놀이꾼들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양반:마당쇠야, 어디쯤 오고 있느냐?

마당쇠:집근처까지 다왔습니다.

양반:그러면 술상 준비하고 놀이꾼들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라

마당쇠:예예

광대1:김부자 나리, 나오시오. 일년동안 만석농사 지은 결과 풍년이니 같이 흥을 돋굽

시다(양반, 평민들 모두 등장한다.)

양반:아, 올해 풍년을 자축하는 뜻에서 놀이 노자는 푼푼히 내놓을 것이니 놀아보세.
(농악에 맞춰 양반 평민들 모두들 춤을 춘다)

양반:자자-, 목좀 축이세. 많이 들고 마음껏 놀아보세(전체 ‘예예’하고 땅에 앉아서 술 한잔씩 마신다.)

평민1:아, 김부자 나리 대만 만석농사인가? 나도 텃베미지면 만석꾼이지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한번 놀아보세(양반, 광대, 평민 모두 일어나 한마당 놀이 준비를 하며 초가집으로 이동한다)

광대2:최서방, 자네 집에 왔으니 속이 시원한가?

평민1:아, 그렇고 말고, 내 복색이 이렇게만 우리 만천마을에서 세번째 가라면 서러운 게 나 아닌가?

(술상이 나오면서 모두 ‘하하하’웃고 농악과 광대가 움직인다.)

(양반집, 초가집에서 놀이가 끝난 후 전체가 참여하여 농악에 맞춰 난흥놀이를 한다. 한마당놀이가 끝난 후 썰과리를 두들기면서 농악이 앞서고 양반, 평민, 광대가 따라오며 춤을 추면서 퇴장한다.)

●든대질놀이

든대놀이는 전웅암, 박인성, 김형준, 김동성씨 등에 의해 민속놀이로 재현되었는데 김종달씨 연출로 제5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도 참가하였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하므로 몇 개의 개안(항구가 있는 곳)과 날바리땅(항구가 없는 모래땅)을 주축으로 어로 작업을 한다. 속초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오산, 수산, 인구 북쪽으로는 봉포, 공현진, 문암, 가린등은 날바리 땅으로 이루어진 어촌이다.

속초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사진리(장사동)가 대표적인 날바리 땅이므로 든대질로 배를 진수하고 끌어 올린다. 날바리 땅에서는 폭풍이 친다든지 해일이 일어나면 초를 다 투어 배를 끌어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친 파도에 휩쓸려 파손되기 때문에 빠른 동작으로 든대질을 해야 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여유있게 허리도리(선도리꾼)의 유창한 소리에 맞춰 흥겹게 뒷소리를 하면서 든대질을 한다.

든대질 소리는 속초의 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적인 내용은 없고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사설이 여러가지 삽입되고 있다.

배를 처음 만들어 물에 띄우는 진수(進水)시에 사람들은 “배 내린다”고 하고 무사고

를 비는 기원제를 올린다. 기원제는 술가지를 끝에 꽃은 대나무에 5색 만선기(성주기)를 달고 뱃머리 즉 이물에 제물을 차린다. 제물로는 술, 과일, 포, 돼지머리나 소머리를 장만해서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첫 출어를 하게 되면 선주가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고사를 지내는데 동해안에서는 첫 출어를 '설망'이라 한다. 설망날은 택일을 하여 좋은 날을 고르는데 고사를 지낸후 배성주신을 모실 돈은 선주한테 받는다.

'배성주'는 배를 지킨다는 신령으로 그 표상은 흰종이(한지)를 한쪽 변이 10cm쯤 되도록 모나게 여러겹으로 접어서 왕돈 한 푼과 청·홍실을 그 속에 넣어 어부들이 잠자는 '방장'이나 '큰대명'(고기를 잡은 것을 담아 두는 곳 중에서 가장 큰 곳)에 모신다. 배성주를 모실 때 제물로는 어물을 쓰기도 하고 육류를 쓰기도 하나 병용하지는 않는다.

선주가 제주(祭主)가 되며 도사공(선장)은 제관이 된다. 성주기를 꽃고 드리는 고사가 끝나면 모든 선원은 도사공의 선소리에 맞추어 든대질을 하여 배가 물에 닿으면 선원이 노를 저어 떠나게 되고 '따리(키)'를 잡는 도사공이 방향을 잡는다.

노를 저어 항포구를 떠나 바람을 만나면 돛을 올려 노젓기를 중단하고 짚단에 불을 붙여 뱃전을 들고 뒷고물을 휘두른 뒤 바다에 던져 버린다. 이것은 액막이로 벽사의 뜻이 있는데 삼재(수재, 화재, 풍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어로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속초지방에서는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를 말한다. 든대는 ‘드는 대’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질’은 행위를 뜻하는 ‘짓’과 같은 말이라고 하겠다. 든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계’라 하는데 ‘고인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속초 든대질 놀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성주기(만선기)-마을사람들이 만들어 주거나 직접 만드는데 깃대에는 소나무 가지를 묶으며 짚으로 만든 삼재막이를 달고 배성주를 모신다.

②고사-제관은 선주가 되며 도사공과 선소리꾼인 허리도리도 같이 고사를 드린다. 이유는 배가 오래가고 무사고를 비는 뜻이라고 한다. 제물은 술, 초, 향, 시루떡, 포 등으로 간단히 차린다.

③액막이-액막이는 짚으로 만든 포막대에 불을 붙여 배의 앞뒤를 다니며 소금을 뿌리고 부정을 씻는 것을 말한다. 불을 나쁜 것을 씻는 발양력을 지녔다고 보아 주술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④비나리-고사가 끝나면 무녀가 소복을 입고 징을 치며 기도를 드린다. 이때 꿰저는 입지 않는다.

비나리 일부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우리동무 열한명
상고를 위엄하여
조수타고 경세경년에
포박서남 다니더니
오늘날 속초시
각성반이 어부들이
소원성취 비나이다
동해신 아명이며
남해신 축음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북해신 웅강이며
강한지종과 일체동감 하옵신후
비림으로 바람주고
해약으로 인도하여
백철금 되로내게
소망이뤄 주옵소서

⑤든대질-기원과 액막이가 끝나면 허리도리는 젊은이들과 괴꾼, 든대꾼이 선소리와

뒷소리를 부르며 배를 내린다.

●든대소리

자- 자- 자- 자-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자지향이 황금출이요
 개문향이 만복래라
 우리 배를 내리다보니
 모진 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 손발이 다얼었구나
 사공님은 배를 내려
 정라진 앞바다에 당도되니
 여보 사공님 가까운 곳으로
 어서 빨리 들어갑시다
 그것이 좋은 말이다
 정라진 들어가니
 막걸리 장사가 지나치며
 나를 보고 손을 치네
 손을 치는데는 밤에 나가구
 동네 술집은 낮에 나가자
 자- 자-
 이왕지사 왔던 걸음에
 죽서루나 구경가자
 삼척하면 죽서루요
 삼척바다를 떠나보니
 강릉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강릉하면 경포대요
 강릉 앞바다를 떠나가 보니
 양양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

양양 바다를 떠나가 보니
 간성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내고 보니
 장전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장전 바다에 들어가 보니
 금강산 구경이나 가보세
 금강산이 좋을시고
 동해끼고 솟은 산이
 일만이천 봉우리를
 구름같이 물렸으니
 천하명산 그 아니냐
 장안사를 구경하고
 만경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 어디갔나
 장전바다를 떠나보니
 원산바다가 나서는구나
 원산 앞바다에 들어가서
 이리저러 땡기다보니
 명사십리 나서는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설위마라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앞이 피고 꽃이 핀다
 보고 보고 암만봐도
 보배인들 배이erala
 자- 자-
 자- 자-

⑥설망-배가 처음 물에 들어가면 성주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나가며 돛을 올려 바다를 한바퀴 돈다. 마을사람들과 어부들은 선주가 장만한 음식을 먹고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한다.

⑦농악-농촌과 달리 농악대는 따로 없고 농기도 없다. 도가에 악기를 보관하며 놀이

에만 사용한다. 백걸립시에 무녀와 함께 풍악을 울리며 배의 만선과 무사조업을 빈다.

●지정다지기

속초리 1구 마을은 이조 말기부터 농악을 곁드린 지정다지기가 전하고 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설악산의 정기와 천혜의 향구 그리고 영랑호수를 인접한 전형적인 농·어촌으로 많은 주민들이 민족고유의 훈훈한 인보의 정을 나누고 있다. 이 지역은 지질 여건이 견고하지 못한 관계로 마을의 집터를 굳게 다지기 위한 지정다지기 놀이가 계승되어 왔다.

지정다지기는 주로 낮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저녁부터 자정까지 햇불을 켜두고 집터를 다지기 시작한다.

집사가 “오늘 저녁에는 영랑동 장웅석씨가 집을 짓기 위해 마을 이웃 모두 모여 지정다지기를 하겠다”고 고하고 각종 제물을 차려놓고 축문을 읽는다. 이것은 토지신에 대한 제사라 한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와 집주인이 음복을 하고 집주인이 지정다지러 온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술을 권한다.

술을 마시고 나서 지정다지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 서서 집사의 매기는 소리에 맞추어 집터를 다진다.

지정다지기 소리는 다음과 같다.

가을철이 얼른되니
저 농부 거동보소
낮자루 콩무니차고
검정소 앞새우고
이러 특쳐 썩나가니
나갈 적엔 빈말이요
돌아올 적엔 찬말이라
말마같은 상노눔은
질방을 걸어 저들이고
비오리 같은 종년들은
따발이 받쳐 여드리고
앞마당 노적이요
바깥마당도 노적이라
노적가리가 좋을시고

이와 같이 노래를 하며 다지다가 집사가 쉬었다가 할 것을 지시하면 마을사람들은 “어 어차 어이차 어이차”합성을 지르며 지정석을 동시에 높이 쳐들어 신호를 하고 휴식에 들어가며 술과 안주로 피로를 푼다. 이때에 농악대가 나와 흥겹게 논다.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다시 지정다지기를 하면 날이 어두워 진다.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햇불을 들고 집터를 밝힌다.

지정다지기가 끝나면 집주인은 지정을 아주 잘 다져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준비한 음식을 제공한다.

영랑동 지정다지기는 동작의 통일을 강조한 노동요가 첨가되고 서로 협력하는 협동정신이 주축이 된 노동유희라 할 수 있다.

●도문 붓물싸움놀이

도문보(漑)는 도문동과 양양군 강현면 경계에 흐르는 쌍천변에 위치한 사람인(人)자 보로서 이조 중엽부터 근 300년간 5, 6월에 한해(旱害)가 들면 강현면과 도문동의 농가에서 나와 물싸움을 벌였다.

이 붓물싸움에는 100여명 이상이 동원되는 영동 제일의 규모였다고 하는데 석전(石戰)이 쌍방간에 벌어지는가 하면 밧줄로 보를 파는 주민들을 밀어내는 패싸움이 있기도 하였다.

당시의 도문 붓물싸움의 지휘자는 이교대(李教大)씨가 있었으며 천하장사인 정덕오(鄭德五)씨가 도왔다고 하는데 쌍방간에 싸움이 커지자 관권으로 말리기 위해 대포주재소에서 나와 양 대표자간에 합의를 이끌어 강현면 지구는 55만평으로 3/5, 도문지구는 44만평으로 2/5로 나누어 물을 대서 썼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비가 오지 않아 가물때에는 농경용수 문제로 여전히 다툼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70년도 이후 새마을사업 등으로 관개수로가 원활해지고 두 마을간에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면서 이 붓물싸움을 선의의 경쟁으로 승화시켜 놀이화하고 있다. 이 놀이는 박용실씨의 증언과 김양서, 이무전씨에 의해 재현되었다.

제 6 절 민요(民謠)

민요는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이 노래로 표현된 것인데 지방마다 독특한 향토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정선 아라리, 강릉 오독떼기, 삼척 메나리 등은 강원지방의 향토민요가 자생적인 기반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속초지방은 과거에 양양권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농요는 도문동 등 양양과 가까운 곳에 주로 남아있고 설악산 등 산악지방에서는 초동들이 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나 핏골에서 나무하면서 부르던 노래, 산삼캐는 심메노래도 간간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어업요는 속초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다수가 아직도 불려지고 있다. 어업노동요는 크게 나누어 배를 바다에 진수할 때, 닻을 올릴 때, 입·출항시, 그물당길 때, 고기 퍼올릴 때, 그물에서 고기를 털 때 등으로 다양하다.

1. 농요(農謠)

●도천메나리

도천은 일제때 도문면과 소천면을 합친 지명으로 현재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리에서 이 메나리를 들을 수 있다. 농민들이 3, 4명씩 짝을 지어 논 김을 매면서 고달픔을 달래며 즐겨부르던 농요로서 고유의 멋을 간직하였다. 김남형 오대환씨의 창으로 들었다.

매어나 주게 매어나 주게
 요놈 매어 매어나 주게
 다함께 논김을 매어보자
 산들산들 부는 바람
 모시적삼입고 아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 하세
 동해나 동창 솟은 해가
 반공중에 높이 떴다 ↗

아침해가 높이 떠서
 점심때가 되었다
 늦어가네 늦어가네
 점심참이 되었으니
 지루한 점심때를
 몹시도 기다렸다
 매어나 주게 매어나 주게
 요놈 매어 매어나 주게
 심심하고 암암한데 ↙

질꼬내기 불러보세
남쪽남산 봄이드니
불안잠때 새솔잎나네
녹수청강 흐르는 물에
배추씻는 저 처녀야 ↗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설위마라
꽃이 지면 아주나 지나
명년 삼월 다시피지

도 천 메 나 리

김 남 형 창
김 영 운 채보

느리게

심심- 하 . . . 고 . . . 암암 한 . . . 데 . . .

질꾸 내 . . . 기 불러 보 자

2 어업요(漁業謠)

● 속초뱃소리

속초의 뱃소리는 이곳 명칭으로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등이 있는데 강원도식과 함경도식이 있다고 한다. 이는 속초지방에 많은 함경도 이주민들이 있으므로 서로 습합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징은 강원도식이 짜임새가 단순하면서도 소박하고, 함경도식은 잡담 사실이 풍부하고 강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지어소리

‘지어소리’는 배가 항해할때 노젓는 소리로 2/2박자의 경쾌하면서도 애조를 띤다. ‘허리도리’라는 선창자가 부르며 나머지 어부들이 후렴을 부른다.

행- 헤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후렴)
세월아 내월아 가지를 말아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후렴구 이하
생략)
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
지어라 내지-
이팔청춘 그림도다 ↗

저 달 보고 울지를 말아
간다더니 왜 왔던가
기암기산에 왔던 걸음이
발편 잠이나 자구 자거라
자꾸 가구나 지어라 내지
가지 만사를 생각하면
이 가슴이 불이 붙는다
오동추야 달 밝은데 ↙

님의 생각이 절루만 난다
 지어라 내지 지어라 내지
 요차보자 지어라 내자
 가자가자 빨라가자
 이수건너 백로가자
 백로함께 어서가자
 조그만한 자라등에
 크다하는 저 달을 싣고
 우리 고향 언제가나 ㄱ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설위마라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앞이 피고 꽃이 핀다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
 님아 님아 정든 님아
 요내 가슴을 만지어 보아라
 청청 하늘에 별두나 많다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지

②다리어소리

‘다리어소리’는 그물당기는 소리로 4/4박자의 전형적인 뱃소리로 매우 빠른 가락이다. 역시 선후창으로 부른다.

구구청병 일인호야
 다리어-(후렴 이하생략)
 부산이-동실 높이 뒸다
 양국에 잦은 안개
 월봉으로 돌아든다
 오월이라 오단오날
 양류속에 그네매고
 그네뛰는 요치녀야
 한번 굴러 앞줄 높아
 두번 굴러 뒷줄 높아
 삼사번 굴러내니
 녹수청산 자진토다
 말없는 청산이요
 태가 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요
 입자없는 이뎀이라
 일락서산 해는 지고
 월출동산 달이 떴네
 간다간다 나는 간다
 입을 두고 나는 가네 ㄱ

내가 가면 아주 가나
 아주 간다고 잊을쏘나
 가실적에 오마 하더니
 가고나니 그만이구나
 우리부모 날 양할제
 져은 자리 마른 자리
 이리저리 가려 놓혀
 이러 고상 시킬려고
 세살적에 중이나 췌으면
 이런고상 없을텐데
 금강산이 좋을시고
 동해끼고 솟은 산이
 일만이천 봉우리를
 구름같이 물렸으나
 천하명산 그 어디나
 장안사를 구경하고
 만경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 어디갔나
 보고보고 암만봐도
 보배인들 배이러

대포항의 그물당기는 소리는 최종민 교수에 의해 조사된 바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정치망 그물 당길때 멀리서 부터 차츰 차츰 그물을 돋우고 죄여 가면 그물속에 들어와 있던 고기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배에 퍼 담아 가지고 오게 된다. 악보는 다음과 같다.

그물돋우기

속초시 대포항
최종민 채집 채보

에이 야 라 마 이 다 에이 야 라 마 이 다
 에이 야 라 마 이 다 에이 야 라 마 이 다
 에이 야 라 마 이 다 에이 야 라 마 이 다
 에이 야 라 마 이 다 에이 야 라 - 마 이 다
 술근 술근 돌려 - 보자 에이 야 라 마 이 다

그물 당길때의 노래(빠른것)

속 초 대 포
최 종 민 채집

에이아라 - 세이 에이야 라 세이 에이아라 - 세이
야 라 *세이 에이야 라 세이 에이야라
에이아라 - 세이 에이야라 세이 에이아라 - 세이
세이 에이야라 - 세이 에이야라 세이 에이야라

그물 조르기

최 종 민 채집

소나 에 소나 에 소나 에 소나 에 소나 에
소나 에 소나 에 소나 에 소나 에
소나 이에 소나 에 소나 에 소나 에

위의 세 악보는 부르는 형식이 첫번째 것은 앞소리 다음에 뒷소리가 나오고 둘째 악보는 뒷소리가 채 끝내기 전에 앞소리가 나오며 세번째 악보는 세 부분이 되어서 합창을 한다. 음계 구성은 계명으로 읽으면 미·라·시·도·레·미이다. 이중 시는 도와 라 사이에 끼어서 경과음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주요음으로 볼 수 없고 주요음은 미·라·도·레의 네 음이고 이중에서 라는 시작음 종지음으로 가장 우세한 음이다.

가사는 다른 지방에 없는 독특한 것으로 일본어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⑥산대소리

산대는 고기를 퍼담는 어구로 채래식 조업에서는 가래소리, 테질소리라고 한다. ‘산대소리’는 그물에 들어 온 고기를 산대에다 담을 때 부르는 소리로 4/4박자의 정중하고 느린 선후창이다.

에라소 가래소
 에라-소 가래로다(후렴 이하생략)
 퍼설어 보자
 천안삼거리 능수버들
 지밧에 젖어 축늘어졌다
 이번 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다음 산대는 망주님 산대요
 다음 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아가 동자야 술부어라
 매일장천 먹고나 놀자
 아니 먹고 아니 쓰면
 왕장군이 고질래야
 춘추시절은 적막인데
 개고충은 넋을 잃었다
 산천초목은 쭈어 가는데
 인간청춘 늙어간다
 산도 설고 물도 설은데
 무엇하러 여기에 왔더냐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림 큰애기 안고 노는데
 우리 팔자는 기박하여
 이런 고상 허는구나
 푸른푸른 봄배추는
 찬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이부자리 좋-다
 왕구성 풍-세
 셋별 뉘요강이
 사람 간장 다 녹인다
 삼수갑산 딱다구리는
 참나무 구멍을 뚫는데
 우리 저 멧탕구리는
 뚫린 지 구멍도 못 뚫는다
 세상만사는 무과우요
 술이나 먹고 놀아보자

대포동의 산대소리는 고기를 퍼올리면서 처음에는 “어이 어이”하면서 서로 숨을 맡취 가지고 “아이 에이”로 들어간다. 노래는 제창으로 주요 구성음은 라·솔·미·도이고 레는 미에서 도로 가는 도중의 경과음으로 쓰고 있는데 시는 장식음이다. 리듬은 규칙적인 4박자이다. 악보는 다음과 같다.

고기뭇 올릴때 소리

최 종 민 채집

아이에이아이에이 야어꼬 라 - 도 꼬 리 야이 꼬 라
 도 꼬 아이꼬라사 이다 도 꼬 라 야어 꼬 라
 도 꼬 아이꼬라사이다-도꼬 라 야이 꼬 라 도 꼬

⑧베끼소리

그불에 걸린 고기를 베낄 때 부르는 소리로 가장 경쾌하고 사설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고 어부들도 가장 신명나는 소리다. 교창형식은 뒷소리가 끝나기전에 앞소리가 들어가는 형식이다.

해는 지고 저문날에
 베끼어라 보자(후렴 이하생략)
 고편없는 소를 놓고
 그 소 찾기 망경이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악마금전이 원수로다
 손을 흔드는데는 밤에 가구
 동리 술집은 낮에 가구
 얻어 먹다 빌어 먹다
 집이란 걸 지어노니
 아들 나면 효자나고
 딸이 나면 열녀나고
 소가 나면 특소나고
 닭이 나면 봉황나고
 개가 나면 삼살개고
 말이 나면 용마로다
 자지향이 황금출이요
 개문향이 만복래라
 동지선달 긴긴밤에 ↗

닭 개는 잠자는데
 우리 팔자 무슨 팔자
 이런 고생을 하느냐
 이눔을 쥐면 저 늪이 나오고
 저 늪을 쥐면 이 늪이 나온다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원산내기 찬바람은
 취한 술이 절로 쨌다
 설악산 내기 찬바람은
 손발 시려서 못살겠네

어이끼구 내자
 어이끼구 보자구나
 이 늪을 쥐면 저 늪이 나오고
 저 늪을 쥐면 이 늪이 나온다
 첫날밤에 새색시 벗기듯
 이리저리 베껴보자
 명주바지 작살이 걸리듯 ✓

대추나무 연줄 걸리듯
이리저리 걸렸구나
그물터는 동무들아 ↗

어서 빨리 끝내놓고
동리술집에 화담하세



제 7 절 설화(說話)

설화는 입으로 전승되어온 꾸며낸 이야기로서 구비문학(口碑文學)에 속한다. 설화를 일반적으로 신화(神話·myth), 전설(傳說·legend), 민담(民譚·folktale)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속초지방 설화도 이에 따라 분류하였다.

속초지방에서는 신성성(神聖性)을 갖춘 완벽한 형태의 신화를 찾기 힘들었으나 내용상 신선계통의 화소(話素)가 들어 있는 것들도 있다. 이것은 홍미위주거나 지명전설과 관련된 것이 많아서 민담이나 전설에 넣었다. 특징적인 것은 명소가 많은 곳이라선지 지명과 관련된 전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설악산의 각 명소나 속초의 호수, 자연부락에 관한 전설이 풍부하여 수집된 것 중 36편을 수록하였다. 마의태자, 자장율사, 마고선, 달마대사, 원효대사, 권·김장사, 송강 정철, 의덕장사등 인물에 관련된 전설 또한 다양하였고 사찰전설, 승려전설, 효행전설, 풍수전설, 암석전설도 폭넓게 나타났다. 전설은 구체적이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진실성이 있게 되므로 증거물을 확보하게 되는데 속초는 산과 호수의 풍광이 자연적인 지역전설의 발생을 이루게 하였다.

민담은 10편만 수록하였는데 영랑동 새조골 김부자에 관한 이야기나 설악동 다부골 이야기는 지명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힘센 장사에 관한 내용도 3편이나 된다. 아무래도 산악과 관련된 것이 많았고 박문수어사이야기나 세 가지소리, 고려장에 관한 민담은 보편적이 화소라고 하겠다.

제보자로서 가장 많은 내용이 실린 유만석씨는 고인이 되었는데 필자와는 같은 동리에 살았고 한때 같은 집에서 살았던 인연도 있었다. 관광안내원으로서 물에 빠진 학생들을 구하고 자신은 목숨을 잃었다. 1981년 필자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비문학 공동조사위원으로서 속초·양양편 자료수집차 김선풍 교수와 함께 만나 녹음한 것이 그의 마지막 설화제공이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삼가 애도하는 뜻에서 기록한다.

이외에도 전문화원장이셨던 장현영, 김용구님의 설화도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최근 2, 3년간 속초시지 민속부분 집필관계로 여러분들을 만나 설화를 수집했으나 여기 다 수록하지는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설화는 기록된 역사와 물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정사로서 사찰의 창건사라든가 특정인물의 계보나 생물연대,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확실한 고증 등이 뒷받침된 것이라기 보다는 제보자의 창작성이 가미된 경우가 많게 되므로 그런 측면에서 속초지역 설화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설화내용은 현장성과 방언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구연한 대로 침삭없이 실었다.

1. 전설

1) 속초의 풍수지리

10년전에 70여세 된 분 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돌아가고 없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지금 속초라는 것이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이라 소가 누워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그 분은, 앞에 조도가 있지 않습니까? 조도가 마치 푸른 섬이기 때문에 풀을 묶어 놓은 풀담같이 보인다. 그래서 소가 누워 있는데 앞에 풀단이 놓여있으니까 소가 풀을 먹고 힘을 내면 무슨 일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 속초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성이 있는 그런 지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속초에서 제일 오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성씨가 구(具)씨 랍니다. 그래서 제가 구씨를 찾아가서 족보가 있느냐 물으니 없답니다. 없는데 전해오는 말은 구씨가 맨 먼저 속초에 오래 살았는데 그 분들이 인제 벼슬을 하다가 낙향해서 시골로 내려올 때 말을 타고 이 앞을 지나가다 보니 마치 산이 생긴 것이 소가 누운 것 같이 생겼고, 또 호수를 보니까 “아 여기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구나”하고 여기 살 터전을 잡고 살겠다고 거기서 속초는 와우형이라는 게 참, 소가 누워 있으니까 그 앞에 풀단이 있다 해서, 풀을 묶어 놓았다고해서 속초(束草)라 한다. 인제 이런 얘길 그 사람이 합니다. 또 일설에는 새풀이 많아서 속초라 하기도 하는 그런 말도 전해 온다. 그래서 그 분과 내하고 의견이 맞는 건 뭐냐하면 이왕이면 새풀이 많아서 속초라 한 것 보다는 차라리 그 우리 선조들이 풍수설을 많이 믿어왔고 지금도 그 속에서 살아서 명당자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미래지향적인 발전성이 있는 명칭을 붙이는게 낫지 않나 그 사람도 역시 그런 얘기합니다. 나도 그걸 공감하고 지금도 만약 누가 묻는다면 나는 새풀이 많아서 속초라고 하는 건 아주 절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왕 이름을 지은 것이 참 명확한 기록이 없는 이상 그것을 부를 때는 누구한테라도 그럴듯한 복지형이 더 낫지 잡풀이 많다는 건, 그 옛날에 어느 곳이든 잡풀이 없는데가 있겠느냐? 그래서 새풀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어디도 풀이 많아서 속초라 한다. 강원도 내에 속초라는 게 원주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건 어디든 많고 그렇지만 풍수설에 의한 지명은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런 논법이라면 백가지를 든다해도 결국은 새풀이 많다해서 속초뿐이지 그 외

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것은 이왕이면 나는 누가 묻는다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와우형의 속초, 미래 발전할 수 있는 속초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동, 박익훈(남·77), 1992. 4. 21>

2) 속초지명유래

우리 속초를 갖다가 흔히 묶을 속(束)자 풀 초(草)자라 그래서 속초다, 왜 그렇게 속초가 됐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던 그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 한가지 설은 영금정과 연관 돼서 속초가 됐다는 그러한 설이 있고, 하나는 딴 설이(다른 설이)있는데 그러든 영금정과 연관이 돼 가지고 속초라 하게 됐다 하는 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석산이 있을 때 그 옆에 지금 현재 그 성황당이 말이죠 예, 지금 저 정자 앉아 있는 자리 거 거, 서낭당 자리 옛날 서낭당 자리가 말이죠 서낭당 자리데, 서낭당이 정자가 앉기 위하여 그 옆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때 그쪽에 숲이 말이죠, 그때 소나무가 울창했어요 울창한 소나무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쪽에 그 영금정 옆에 솔산(소나무산)이 있을 때 저 바다에서 이 포구를 이려 들어서 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하구 벽에다 풀을 묶어(묶어)다 불을 묶어 가(묶어)가(고)세워는 것(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속초라고 이름 지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일설(一說)은 이 속초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 되어 있다. 소가 누워 있는 형태다. 그레 소가 누워 있는 데는 풀을 맘대로 활동해 뜯어 먹지를 못합니다. 묶어 논 풀밖에 못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속초는 와우형이니까 묶어 논 풀을 갖다 주지 않으면 그 소가 먹지를 못해 죽을 기(죽을 것이)아니나, 그래서 와우형의 지형을 따라서 그 속초를 항시 그 성행 시키기,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그러니까) 속초라는 명칭을 묶은 풀다불(풀단)을 소한테 갖다 주어야 소가 먹고 살 끼(살 것이)아니나, 이래서 속초라는 그 지명을 지었다 하는 이런 두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설이 정설인지 이것까지도 아직 증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두가지 설이 있습니다.

<중앙동 500-8, 장현영(남·54), 1981. 4. 27>

3) 영금정과 속초

고향이 여기기 때문예요 토박이(토박이)로서 가슴아픈 옛날의 명승지 없어진거 말씀 하지요. 제가 어려서 듣건데 선녀들 하강해 가지구 목욕을 하고 비파를 타고 다시 참 날아서 인제 올라갔다 이래 갖구 그런데서 영금정이란 유래가 됐는데, 제가 명승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그 명소에서 암석을 부숴가지구 지금 저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구 축항 항구를 만드느라고 명소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가면 뭇니까 장군이 말을 몰구 탕겼다 그레가지구 내려반석위에 말발굽이 있었구, 장군이 말을 몰구 갈적에 발자국이 남은 게 큰 발자국 남은게 있었어요. 그리구 말하자면 금강산의 옥녀봉인가 거기 내려바위 건네 뛰듯이 움덩이(웅덩이)를 진테를 건네 뿔때 돌맹이를 밟고 건네 뛰야 하는데 그 돌을 팡 밟던 얹이 밟던 소리가 나요. 돌아..., 그래서 징바위같은 소리가 난다 그레가지고 바위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일본놈들이 축항할때 암석을 깼는데 여기 토목과장하던 일본사람 부인이 아주 중병이 들었어요. 그레가지구 아픈 약을 써도 안났는다 해가지구 어디가서 무꾸리를 하니까,

“그 영금정을 당신이 책임가지구 부숴가지구 쓰기 때문에 그 영금정의 혼백들이 당신 부인에 실려가지구 앓으니까 큰 곳을 해라”

그레가지구 그건 제가 어려서 봤는데 구경했는데, 그 장군바위, 그 영금정 저 본바위가 장군처럼 생겼어요. 투구를 쓰구 전체 모형이 투사같이 생기구 선녀들이 목욕하는데는 내려반석 위에 석벽이 있었는데 석벽에 일곱개 여덟개 옷벗어서 넣는 구멍이 파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거기다가 비단 필룩으로 뭐 세가지네 네가지네 필룩으로 바위를 덮다싶이 하구 일본놈들이 큰 곳을 했어요. 그레가지구 그 참 우스운 애긴지 모르지만 토목과의 책임자되는 사람 부인의 병이 나았다는 얘기가 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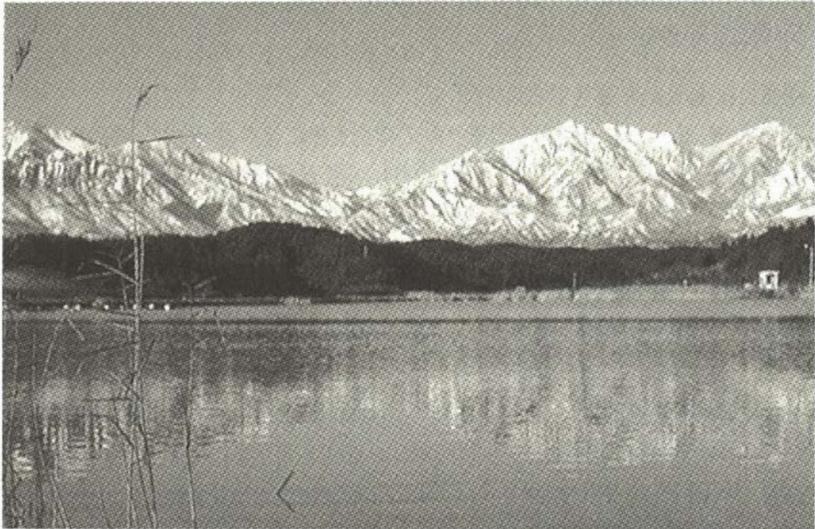
저기 군인들 있는 부대가 있는 데가 거기가 소나무가 이렇게 하늘로 솟구 밑에 바위가 이렇게 되어가지구 딱 이 저 풀잎을 농민들이 이렇게 받는 것처럼 되어가지구 속초라는 이름이 되어 묶을 속(束)자를 거기서 썼다고 그러는데 그기 지금 소나무가 하나도 없고 그건 외딴 섬처럼 되었는데 지금은 다 메워가지구 하나가 되었지요.

영금정 안에는 말이 먹던 그 구유가 있어요. 바위로 된기 있었어요. 바위로 그렇게 만들어서 달아 놔어요. 아주 구유를, 그리고 말밭굽이나 장군 밭굽을 우리가 봤구, 지금보면 몇십톤급 큰 돌인데 사람인력으로 도저히 못가지구 가요. 그 큰 암석을 굴려 가지구 갈매기 바위라고 그 북방으로 갈매기 바위와 서치라이트 있는 사이 연안에 큰 바위를 암석위에 갖다 놔어요. 그래서 영금정도 유명해서 관동의 명소라고 해서 많이 왔지만 그걸 갖다 옮겨놨다고 해서 좌우간 촌에서 갓쓰고 하얀 옷을 입고 치마 두르고 촌사람들이 구경왔어요. 지금은 풍랑에 물속으로 들어갔다구요.

<장사동3통1반 김정우(남·69) 1992. 3. 27>

4) 영랑호와 달마대사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신라시대 화랑인 영랑(永郎), 술랑, 삼조, 남석등이 금강산으로부터 고성 삼일포에 와서 3일동안 수련을 하고 각각 분산했습니다. 영랑만이 이 호수에 와서, 뱃놀이를 하며 선유하던 곳이라 해서 이 호수의 이름이 영랑호라 불리어 왔습니다.



영랑호 남쪽 기슭에 송림이 울창한 복판에 자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서기 637년전에 정혁담이라는 승려가 사지를 건립하고 53불의 보광부처를 보관하였다고 해서 보광사(普光寺)라고 이름이 불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영랑호는 아주 물결이 맑고 잔잔해서 언제나 어족이 풍부하며 낚시를 즐기는 태공(太公)들과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속초 시민의 휴식처가 바로 영랑호입니다.

그럼 영랑호를 떠나서 유래를 마치고 그전으로부터 불교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번성했나 하면 인도에서부터 번성했는데, 인도에서부터 번성하면, 당나라 동남사, 지상사, 온(원)나라 윤재사, 개국사를 거쳐서 금강산으로부터 금강산 신개사, 유점사 장안사 3개 사찰을 거쳐가지고, 이 영동지구 관동8경을 쭉욱 내려 오는 그 승려가, 원래는 승려가 말을 타다고 하면 위법적이지만, 그러나 거리가 워낙 멀고 보니 어딘가는 그 아주 말 먹이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 꼭 말 먹이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에서 내려서 풀을 비어서(베어서) 말을 먹일라고(먹이려고) 풀을 비어서 등에다 싣고 말을 타고 올라와 보니 점심 때가 되어서 시장끼가 있어 하는것 같아서 그 풀단을 풀어 가지고 말을 먹이고 그래 '먹이재'라 하는데가 오늘날에 와서 그 풀단을 풀어서 먹었다고 해서 먹이재입니다. 그래 먹이재를 거쳐서 이 봉우리 꼭대기를 올라와 보니 인도에서부턴 포도 전범이 부족한 지라 여기서 수 년간 수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바위 틈에서 수도를 수 년간하고 그래서 거기서 도(道)가 통했어요. 그 포도 전범을 통달을 해서 그분이 그제서(그제야) 도가 통했다고 해서 이를 '달마봉'이라 불렀고, 달마대사가 바로 이분입니다.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7>

5) 청초호와 민속

청초호는 쌍성호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쌍성호라 했냐하면 영랑호하고 청초호하고 호수가 들이기 때문에 쌍둥이 이기 때문에 쌍성호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청초호 호수 가운데 청룡이 살았다 해서 청초호라 하고 영랑호는 황룡이 살았다 해서 황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랑호라면 기록에 엄연히 영랑(永郎)이란 게 남아있고 또 이곳은 쌍성호라고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때는 같은 호수인데 영랑호는 이미 이름을 얻었고, 청초호는 이름을 못 얻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청초호에서는 무슨 놀이가 있었나 하면 논피호의 불꽃놀이, 논산을 우리말로 하면 논피가 됩니다. 피 산(山)자니까 지방사람들이 그 당시에 청초호를 논피호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그런데 옛날 봉건시대에는 높은 사또가 부임하면 지방사람들이 그 사또에게 잘 보일려고 환영식을 하는데 여기서 해 왔다는 것입니다. 해왔는데 남궁역 선생때까지도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 선생(1863~1939) 그 다음에 최모씨던가 그 양반때 일본에 우리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래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냐하면 그런 불꽃놀이 하다가 빠져 죽은 익사사고가 생겼다. 그래 없어졌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일본사람들이 우리의 풍속을 없애려던 차에 호기가 됐고 또 한가지는 여기 용암이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가 구척이나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남궁역 선생이 4월 초파일에 이 지역사회분들과 거기서 술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다. 일본사람들이 쓴 글이니까 주연을 배풀었다. 그래서 청초호가 한층 더 이름이 높아 났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바위를 항구를 만드느라고 그 바위를 깎습니다. 박상희란 분이 청초호를 개항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다 게가 얼마든지 많았는지 사람들이 가을철만 되면 밤에 햇불을 켜두고 쪽 와서 게를 잡느라고 불야성을 이뤘는데 요즘에는 오징어 배가 불야성(不夜城)을 이루듯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배가 다리역할을 했다 해서 주교(舟橋)라고 저쪽 부월리를 주교리라 불렀답니다. 그런데 소야팔경 중에 주교야화(舟橋夜火)란 말도 그때 그 불이 아주 꽃같이 밤에 피니까 주교밤꽃이라고 소야팔경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참 뭍니까? 옛날보다 기후가 좀 뜨서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30년전만 해도 청초호가 많이 얼었습니다. 열때 바람이 심하지 않습니까? 양강지풍(襄江之風:양양·강릉은 바람이 심함)이라해서 바람이 심하니까 그 열때 마치 파도 물결이 치듯 바람이 부니

까 논밭을 같은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용경(龍耕), 용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고동, 박익훈(남·77), 1992. 4. 21>

6) 논미호 불꽃놀이

그러니까 논미, 논산이라는 뜻입니다. 논산 앞에 있는 호, 그래서 논미라는 것이 나오는데 논미호 불꽃 놀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인제 그 우리 속초를 박서는 고유의 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인제 항간 오래 때의 놀이고 중간에 가서 위험하다 해 가지고서 그 놀이거(놀이가) 끊어졌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불꽃 놀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기(이것이)고을 사또가 부임한다든가 입 출입하게 될 때에 거게서 배를 띄어 가지고 낮으로 꽃배를 띄워 가지고 관기(관청 기생)들과 그 술을 즐겼으나 아주 가창을 하면서 연 삼일간을 거게서 축연이 벌어졌는데 밤에는 널판지에다가 그 숯불을 띄워 가지고 그 호에다 띄워요.

띄우다 보니까 그 물결하고 숯불하고 비추어 가지고 아주 그 에... 꽃이 되는 거죠. 불꽃 밭이 돼 가지고(되어 가지고)아주 그 조명이 제대로(똑바로)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뚝에 강뚝에는 그 이 지역에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마카(모두)이 불꽃놀이하는 거를(것을)보고 거서 흥겨워서 또 뚝에서는 똑대로 우리 주민들이 아주 그 축연이 벌어졌다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가 가 가지고 그만 두었느냐 하는 문제는 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조말엽에 최종락 군수, 그러니까 이 부사 군수 당시에 불꽃놀이를, 불꽃놀이를 하다가 배가 뒤집혔어요. 배가 뒤집혀 가지고, 그때부터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금해졌다 하는 이러한 옛날부터 고유의 여(여기)민속이 하나 있어요.

<중앙동 500-8 장헌영(남·54) 1981. 4. 27>

7) 청초호 용경(龍耕)

청초호에 대해서는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경이 나오는가 하면은 청초호가 또 한가지는 옛날에는 그 겨울에는 호가 얼니다. 어는데 얼음을 보고서 그 다음해의 농사를 풍흉을 그 점쳤다 하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얼음이 어는 것이 꼭 눈을 같아 논 것같이 그런 얼음이 얼니다. 그걸 갖다가 용경(龍耕), 용갈이, 용이 눈을 같아 놓았다는듯이 용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인제 그 용경이 누워 있는 방향을 보고,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겠다 못 되겠다 하는 것을 아마 점쳤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청초호이면서 이 청초호는 앞으로에 우리 속초로 박서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쪽에 남을 향해서 갈아 났을 때 풍년이 들고, 북으로 향해서 엇갈리로 갈아 놓았을 때는 흉년이 든다. 그래서 남북을 나눠서 길흉을 점쳤어요.

<중앙동 500-8, 장현영(남·54) 1981. 4. 27>

8) 소야팔경(所野八景)①

근데 소야팔경은 뭇니까. 처음에는 기록을 찾아내지 못해서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속초귀범’(束草歸帆)을 ‘조도귀범’(鳥島歸帆)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틀린 얘깁니다. 내가 박현영이란 사람에게 들은 얘긴데 그 분은 ‘척산야침’(尺山夜砧)이라는 말도 한다고 했습니다. 척산의 밤에 들리는 다듬이 소리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조도귀범이 아니고 ‘속초귀범’이라 이런 얘길 합니다. 내가 무슨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 속초시장하던 김명환씨 형님인 김종환씨라고 저와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분 아버지가 도천면 시절에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을 했기에 「면세일반(面勢一班)」이란게 그 집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소야팔경이 아주 기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흠(金昌翕)이란 이가 지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어떤 분은 김시습이 매월당 그 양반이 부윤했어 와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시습은 일정한 장소 없이 사방에 돌아다닌 분이었고 김 삼연(三淵)선생은 주로 영시암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영시암은 인제군의 백담사 위에 골짜기에 들어가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영세 불출세(永歲不出世)라”하여 여기 들어와서는 영원히 죽을때까지 안나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범이 자기 식물을 잡아 먹어 가지고 다시 춘천방면으로 갔다는 그런게 있는데 그러니까 김삼연이 거기 와서 놀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전에 청초호였어 청초정이란 게 있었답니다. 김삼연시절은 지금 보담 속종때니까 한 3백년 가까이 안됩니까? 3백년 전에도 그런말이 있었는지 모르나 여기 와서는 놀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되지요.

그래서 김삼연이 그것을 지었다는 것은 그것도 믿을 수 없고, 김시습이 그것을 지었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이 지방 시인들이 모여서 놀다 보니까 그런 팔경을 만들어 냈지 않나 합니다. 이 소야팔경은 소야를 중심으로 했는데 주로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글입니다. 왜냐하면 8경을 보면 청초호가 6경인가 있고 저쪽엔 2경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노동명월(蘆洞明月), 갈대꽃이 많이 피었는데 그 위에 달이 환하게 비치니 그 게 참으로 보기 좋거든요. 노동(蘆洞)이란 동네가 노학동이지요. 그 다음에 이동백설(梨洞白雪)이 있어요. 여기에 이동(梨洞)이란 동네 뱃골이란 곳이 있는데 배나무 오얏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봄에 오얏나무 꽃이 필때는 봄에 눈이 온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왜정때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서 그 경치가 없어졌다고 그 부락에 가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대화병(靑臺畫屏), 청대리

라는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그게 청대산인데 청대산을 여기서 바라보면 병풍그림같이 아름답거든요. 그런것을 누가 배웠다 하여 역부로 찾아 올라갔더니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습니다. 화병은 그림 화(畫)자, 병풍 병(屏)자, 청대산의 모습이 그림을 그려놓은 병풍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청초호에서 본 것이지요.

다음에 주교야화(舟橋夜火)인데 주교리에서 밤의 계잡는 불꽃이 보기 좋았던 모양이 예요. 지금 오징어잡이 배가 저기 나가 있는 걸 보면 서울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속초가 굉장히 크다. 여기도 전기불 있네 저기도 전기불 있네” 그러지요. 주교(舟橋)는 옛날의 부월리(扶月里)를 주교리라 불렀지요. 배다리 동네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 논산조양(論山朝陽), 논산이 속초에서는 그래도 제일높은 곳이지요. 높아서 해가 뜨면 어디 보다도 거기에 먼저 비쳤다 해서 논산에 아침 해가 비치는 광경이 아주 아름답다. 그 다음에는 속초귀범(束草歸帆), 속초에서 고기 잡는 배가 원포귀범(遠浦歸帆)이라고 소상팔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초에서 보면 배가 돌아오는 것이 참 해는 저물고 석양빛을 받아서 돛대를 달고 돌아오는게 너무 아름다워서 소상팔경 하나인 원포귀범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청호마경(靑湖磨鏡), 청초호수는 얼음이 얼면 마치 유리거울 같이 맑게 그렇게 보였다 해서 거울을 갈아놓은 것과 같다. 갈 마(磨)자, 다음에 온정조하(溫井朝霞)가 이리는데 온정의 아침 노을, 그건 뵈고 하니까 지금도 온정에 거기서 더운 물이 나온답니다.

옛날도 물이 뜨시기 때문에 겨울아침이 되면 거기서 인제 수증기가 올라가서 거기서 발산하여서 속초 이쪽까지 전부 설악산에 구름 끼듯이 수증기 안개 같은게 그렇게 아름답게 끼었습니다. 그래서 온정조화라 부른답니다.

<교동, 박익훈(남·77), 1992. 4. 21>

9) 소야팔경(所野八景)②

속초에 고을 소자, 들 야자 소야팔경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 가면은 논산과 노학동 사이에 썩 들어 가면은 끝이 말입니다. 소야평입니다. 소야평야가되고 지금 청초호로 들어 오는 내가 있는데요. 거기 저 달마봉에서 발원됩니다. 달마봉에서 발원되(되어)장장에 그 골짜기 물을 합쳐 갖고 내려 와서 이 청초호에 들어 오는 건데, 이것을 소야천이라고 합니다. 소야천 소야팔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뭐 있나 하면은 논산조양(論山朝陽), 그래서 지금 현재 조양동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그기 하나의 소야팔경에서 따온 하나의 조양입니다. 그럼 왜 그 논산조양이라고 했느냐. 논산이 아주 지대(地帶)가 낮습니다. 낮는데 아침 해가 뜨면은 제일 먼저 햇빛이 비치는 곳이 조양동입니다. 그래서 논산조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온정(溫井)조화 그래

니까(그러니까) 이쪽에 저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온천지대가 있는데 이 온정(溫井)에 짐이(김이)납니다. 아침에 인제 안개 구름같이 짙 깔려 있는 그것이 하나의 경이 됩니다. 산은 우에 솟아있고 산 중허리를 짙 이 뭉이가 구름이 감겨가 있는 것같이 그렇게 해서 온정조하(溫井朝霞).

그 다음에 하나는 노동명월(蘆洞明月), 노동이라 하면은 갈골, 노학동 갈골에서 이보면 저녁에 달밤에 갈밭에서 보면 경이 또 하나의 좋은 경이 됩니다.

그 다음 저 위에 올라 가면은 지금에 배목리라 그러지요. 배목리 그러니까 이동백설(梨洞白雪). 거는 배나무밭이 많아서 말이죠. 봄에 꽃이 확피어 가지고 꽃이 떨어질 때 꼭 눈이 와서 말이죠 설경같은 이러한 경이있었다. 그래서 이동백설.

그 다음이 청대화병이라고 하는데 청대산이 한 쪽에 평풍(병풍)을 펼쳐 놓은 그림같다 해서 청대화병(靑垞花屏)이라 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옛날에는 주교(舟橋) 지금도 청호동을 건너 가는데 배가 있었죠. 저걸 뱃다리(배다리)그걸 갖따가(갓다가) 주교, 주교야화(舟橋夜火), 그러니까 저녁으로 불을 밝혀 가지고 뱃다리(배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기 주교야화다.

그 다음에 여계(여기에)청초호도 하도 그 때 물이 맑으니까 청초마경(靑草磨鏡).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에 노도귀범(鷺島歸帆). 노도귀범이란 저 앞에 보이는 섬입니다. 저걸 갖다가 우리가 새섬이라고 하는데 갈매기 노자(鷺)씁니다. 우리가 청구도에서 지도에서 보면 명칭 나오는 것이 갈매기 조잡니다. 노돛(鷺島)니다. 갈매기도 새는 새니까 새섬이라 이렇게 합니다. 노도귀범, 그러니까 지금의 풍경을 느낄 수 있으나 하면은 조양동 해수욕장에서 말이죠, 이렇게 저 노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 저 영금정(靈琴亭)하고 그 사이에서 배가 지나갈 때 보면은 하나의 경을 이룹니다. 완전한 경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노도귀범이라 이 항구를 들어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중앙동 500-8, 장현영(남·54) 1981. 4. 27>

10) 파명당(破明堂)과 학사평(鶴沙坪)

명당자리를 아주 그 처음에 명당자리를 제대로 잡았는데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잘못 해 가지고 파명당을 만들었다 하는 문젠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위치가 어딘가 하면 척산, 척산서 지금 현재 달마봉으로 연결하는 그 한 산능선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면 지금 서울대학 산장이 거게 있지요. 거 산장 거게서 조금 올라가면 그 구릉 있는데로 쭉욱 올라가면 그 능선이 파명당지가 있습니다. 그래 거게 올라가 보면 상당히 위치가 좋아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그 명당을 어떤 지관에 의해 가지고 그 명당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옛날 그 산

주가 상당히 그 겨울에 사냥하는 것을 상당히 즐겼답니다. 사냥하는 것, 그 수렵을 상당히 즐겼는데 그 친구 세사람이 같이 그 겨울에 수렵을 하러 나갔는데 다른 그 농선은 눈이 잔뜩 쌓였는데 고 위치만은 눈이 녹아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이서 거게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다른 지역에는 전부 눈이 있데 이 지역만은 눈이 녹았으니 이건 분명히 명당자리다 이 말이야, 그래니 우리가 이 자리를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세친구중에서 누가 먼저 죽던지간에 먼저 죽는 사람이 이 자리에 묻히기다.”

그래 약속을 했던 거란 말이야. 그 한사람은 산주입니다, 산주. 그래인제 거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 참, 몇 해 지나고 난 뒤에 공교롭게도 말이지요 그 산주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 산주가 죽어서 그 자리에다 갖다 묘를 쓰게끔 그 친구들이,

“우린 묘터 봐 놓은 게 있으니, 그 아버지가 원헐(원한)자리고 하나까 그 자리에 갖다 묘를 써야 한다.”

이래 가지고 인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묘를 썼단 말입니다. 묘를 써 놓고 난 다음에 참, 우짜 됐던지간에 그 뭐 가정에 말이야 참, 붙은 것은 없지만 또 망한 것도 없고 약간 그, 그래도 뭐인가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가지 여자들이 딸이 낳으면 그 딸들이 팔자가 세단 말이야. 그래 한 번은 가만히 그 딸들이 어테 가 점을 해 보니까 그 묘자리가 말이야. 너무 억세서 말이야. 남자들은 그 가정에 잘 되지만 여자들은 그 팔자가 억세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네들이 말이야 남자들만 잘살라고 그런 자리에 묘자리에 묘를 써 놓고 우리 딸네들은 완전히 만날 그 과부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니 안 되겠으니까 이 묘자리를 옮겨야 하겠다. 그래 인제 딸네들이 냅다 우기니 아들네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사실 그렇거든요. 자기네들만 잘 살겠다고 여형제간들은 만날 망하도록 놔 둘 수만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 그 묘자리 나쁘다면은 우리 옮겨 보자.”

고 말이야. 그래서 인제 사람을 다리고가 가지고 묘를 뺐단 말입니다. 묘를 파니까 아, 정말 봉분을 다 파 가지고 관이 드러날까 하나까 학이 두 마리가 날라 나오드랍니다. 학이 두 마리 날라 나와서 한 마리는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한 마리는 남쪽을 향해서 날아갔는데, 북쪽을 향해 날아간 학이 어테 앉았나 하면 지금 학사평(鶴沙坪)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지금 경상대학 짓는 그 건물 거게가 학사평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래밭이에요. 이 노학동을 옛날에 갈골, 갈밭이라고 했었는데 이 영랑, 청초호가 물이 그꺼정 연결이 되어 가지고 거기 갈골입니다.

그래서 그 우에가 학사평인데 모래밭입니다. 거게 인제 학이 내렸다 해서 학 학자에

모래사자를 써서 학사평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남쪽으로 날아간 학은 지금 저 손양, 양양군 손양면에 가면 학포리(鶴浦里)라고 있습니다. 그 학포리에 앉았다 해서 그 학포리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그 고지명(古地名)을 보면은 그 학포리는 그래서 학포리가 아닌데 마, 그러한 전설이 한 면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노학동, 노학동이라 명명이 된 것이 옛날 그 노동입니다. 갈골인데 갈골과 학사평이라는 학자와 그 다음에 갈골 노동의 노자를 따 가지고 노학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치는 바람에 노학동이라 하는 이름이 나왔지요.

그래서 그 파명당에 얽혀서 그하나 생겼는 이름이 합쳐가지고 우리 속초의 고유 동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파명당에 대한 전설로서 이쪽에 학사평이라는 말은 그 비슷한 점이 수궁이 가는데, 손양면 학포리 문제는 전연 수궁이 가지않는 얘기가 되긴 합니다만 전설은 전설이니까…….

<금호동 13통2반, 김봉춘(남·54) 1981. 4. 27>

11) 설악산과 마의태자

설악산은 어떻게 되서 설악산이냐, 눈이 많이 와서 설악이냐 아니여, 설악이란 건 왜 설악이네 하면 춘추추동 사시절 봉우리 끝을 보면 눈이 온 것 같애. 늘 하애. 늘 하얗고 울산바우만 불겅지. 자색이 나지. 설악산은 해를 지구 산앞을 보면 첫 눈이 온 것 같이 “초설경(初雪景)이 설악(雪岳)이다” 첫번 약간 내린 눈 온 것과 같다. 설화영(雪化嶺)이 설악이다. 눈으로 화한, 눈 온 것 같은 설악이다. 그렇게 됐어요. 설악산 유래가 근데 설악산 전체를 그렇게 놓구는 자장올사가 천 년 그맘때 들어와서 향성사를 먼저 지으셨거든. 향성사를 자장올사가 짓구 그때에 권금성에 마의태자란 이가 떠나니까 군대가 쫓아온 모양이에요. 아래서 힘 센 사람이 돌을 던지니까 위에서 받았다는 그때 이야긴데 권금성에 올라가면 돌 쌓은 게 뵈키구 권금성 안쪽에 돌을 일곱자 쌓았어요.

첫번 들어와 정고평에 가면 초소막이 있어요. 사방 열 자쯤 되는 초소막이 있어요. 석자 너자되게 거기서 부터 쌓았어요. 권금성까지 마의태자 패가 집을 거기다 짓는데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오행으로 짓는데 동대문은 동방 살팔목오왕성문이라, 동대문이라 안하구, 서대문은 서방일치화화엄산문이라, 남방일울수왕성문이라, 중앙목이오십토문이라, 중앙을 말하니까 네 군데 문을 내구 위는 북판을 집을 지으니 중앙목이 오십토왕문이라, “우리집 태호는 토왕성집이다”이래서 인제 토왕성폭포가 생겼지 옛날에는 신평폭포여. 신평폭포때 이네들 마의태자가 참 토왕성을 지어 놓구는 그담에는 폭포를 토왕성폭포라 지었어. 그래서 지금 토왕성이 내려오지.

<노학동 2통5반, 박일호(남·78) 1992. 4. 5>

12) 설악산과 금강산

설악산은 처음엔 설산(雪山), 설봉산, 설악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반도 중부 평령을 가둔 영점에 높이 멋지게 솟아 오른 설악산은 해발 1,708m로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태백산맥을 동·서 양쪽으로 나눠 서쪽을 내설악, 강원도 인제군이라 하면 동쪽을 외설악, 강원도 속초시라고 부릅니다.

금강산은 고구(古久)로 서림의 상함이라고 불렀지만 설악산은 살매 설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해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설(雪)은 살의 음역이요, 살은 인간의 법률의 활동상을 뿔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다고 생명, 숨을 쉬니 호흡, 인간, 쌀미(米), 샘천 등을 포함하는 한 어군(語群)이 되고 있으며, 불교에서도 불타의 몸에서 나온 염주와 연꽃을 가리켜 사리라고 합니다.

청정한 생명의 신비적인 표시물을 연꽃이라고 하였으니 ‘설악’이라는 ‘설’은 결국 신성을 의미하는 살의 음역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강산 대(對)설악산, 설악산 대 금강산, 금강산과 설악산은 아형아제라, 금강산을 성(형)이라 하고 설악산을 동생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설악산을 성이라 하고 금강산을 동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금강산과 설악산은 아형아제’다. 금강산은 그 어여쁜 아가씨가 화장을 하고 노상에 앉아 노정을 하고 있는 형색이라고 하면, 거머뭇특한 남자가 떡 골방지침을 도사리고 앉아 있는 형색입니다. 금강산보다 설악산이 더 높고 과연 멋있는게 설악산이지요.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7>

13) 설악산 길을 묻다

그러니까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낙산에서 이 설악산으로 수도차 났을때 거기 오니까 뭐, 도대체 산은 울창하고 도저히 어티게(어떻게) 건너 가면 어디로 가야 될런지 그 위치를 모르겠다는 기야. 그래서 거서 머뭇 머뭇하고 있는데 불연 어데서 말이지 백발 노인이 에, 나타나서 설악산쪽으로 손짓을 하고 사라졌다, 이기야.

그러니까 그제 인제 하나의 강선, 신선이 내려 왔다. 신선이 내려왔다 해 가주고(해가지고)그 동 이름을 강선리(降仙里)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다리 이름을 강선교라고 이래요.

그래서 인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그 사람 손짓을 하는데로 보고서 뜻을 따라

올라가는데 이 공중에서 말이죠, 어떤 그 당황한 그 말이죠 음향이 들려서 법장을 멈추고 섰었는데 무아경을 이루었다.

예, 그래서 인제 수도에 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설이 있는데, 그래 인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설악산을 찾아 올라가는데 그대는 이지역은 뭐, 전부 뭐, 산이고 솔밭이고 이래 도저히 무형지경입니다. 도저히 인제 길을 몰라서 그래서 지금의 도문동 쪽에 조그마한 부락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게서(여기서) 설악산으로 갈라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길을 물었다 도를 닦으러 가는 도인이 길을 물었다. 그래서 도문이라 이래는데 그때는 물을 문자(間)를 썼는데 요즘은 변화돼서 문문자(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닦으러 가는 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도를 닦으러 가는 길을 물었다. 그래서 인제 이거 도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도문동이라는 전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쪼끔 올라가면은 지금은 잘 흔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설악동 관광촌이 이쪽이 인제 오부댕이(전부, 모두)신단지로 구성돼서 내려오면서 거 보면 지금 현재 거게 파크호텔 거가 있죠. 예, 설악파크 있는 고, 고개 능선이 하나 있습니다. 고 능선을 노루목곡(谷)이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안이 장항(獐項)입니다. 장항인데 그러면 왜 거 노루목 고개라고 했느냐 그래 인제 도문동에서 길을 물어가 고(거기)갔는데 거가 뭐, 워낙 뭐 앞이 캄캄하고 숲이 깊어서 갈 바를 몰라서 거 머뭇머뭇 하는데 백록(白鹿) 그러니까 흰 노루죠, 흰노루가 흰 노루는 신성시 하는 것이고 그 동물은…… 신성시 한답니다. 백록이 와 가지고서는 고개와 몸짓으로서 말이죠, 도인들을 그 길을 안내했다 해서 그 노루목곡, 그래니까 노루목고개라고 했고, 그래 또 그 구릉(丘陵)이 말이 이래 생긴 것이 꼭 노루목처럼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개 올라가 가지고 이 길을 찾아 올라와서 어데로 갔느냐. 그래서 저 와선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비선대로서 이 하늘로 올라 갔는 신선이 있었다. 이래 가지고 고와 같은 설화가 생겼다 이런 설이 있죠. 있는데…….

<중앙동 500-8, 장현영(남·54) 1981. 4. 26>

14) 권금성(權金城)과 달맞이꽃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삼국시대 때 고구려, 고구려 보장왕을 왕으로 올려 놓고 연개소문이 정권을 손아귀에다 올려 놓고 정권을 해 가는 무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권씨, 김씨 양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서 역적으로 몰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럼 그분들이 고구려 역적으로 몰았으니 붙잡히면 죽을 꺼고 그러면 신라로 도피를 해 가지고

신라에 와서 저 권금성이라고 하는 저 산 꼭대기 해발 860m정상에 올라 가서 거기서 인제 그 권, 김 양 장군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난세를 피하기 위하여 난을, 성을 축소하고 난을 피하고, 난세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하들을 시켜 가지고 저 정구평을 지나면 촛대바위라고 있습니다. 촛대 바위라고 하는데 거기는 봉화대, 그 봉화대를 일러서,

“이 골을 수상한 사람이 들어 오면 봉화불을 올려라.” 그게 전화보담 빠르지요.

그래서 거기 봉화대로 한 때는 불려 오고 그 군량장이라고 하는데는 군량미를 갖다 저장하고 군량미를 저장해 가지고 그게 인제 권금성으로 쭉 올라가고 금강굴에도 그 금강굴이 결과적으로 마적굴이라고 마적굴이야. 마적단이 있는 굴.



그 양양고을 원 이도은씨가 그 원을 할 때 양양 고을을 털어다가 군량미를 갖다 저장 해서 권금성을 올리고 금강굴로 옮기고 그러면서 난세를 피하고 그 난을 우리나라에 들어와, 권금성에서 난을 피했다고들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내려 오는 전설이지만 그 권장군이라는 그 장군은 그 부근에 그 막사 부근에 어느 여인이 나타나서 낮에는 나타나지 않고 밤에만 나타나서 이렇게 뱅뱅 돌고 돌아댕겨. 권금성으로 돌아댕기면서 그 사랑을, 마음의 사랑을 하면서 돌아 댕기는데. 그 낮에는 어디 풀 속에 숨었다가 밤에는 저녁마다 그렇게 아주 쉴새 없이 매일 빠짐없이 비가 오나 그저 언제든지 이래 돌아 댕기다가 결과적으로 지쳐 가지고 그래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부하들이 와서 대장한테 문안 드릴려고 와 보니 웬 여인이 하나 죽었거

든. 그 여인은, 대장이 하는 말이,
“그 여인은 저 풀속에다 갔다 물어라.”

그 여인을 풀 속에다 갔다 묻었는데 그 묻은 자리에서부터 그 웬 풀씨가 나와 가지고 기름이 되어 가지고 잘 커 올라 오더니 그래 인제 꽃이 밤에 피었다가 낮에는 지고 노랗고 좋은 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달맞이꽃이라고 해서 달맞이 꽃은 낮에는 피지 않고 밤에 피어 가지고 밤새도록 반기다가 낮에는 시들어지는 게 달맞이 꽃이, 그래서 달맞이 꽃이 생겼다고 합니다.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7>

15) 권금성(權金城)과 토왕성(土旺城)

권금성은 하나의 완전한 그 연대라든가 축조에 대한 기록이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문헌에도 보면 전설에 의해 가지고 작성된 것이라고 봐지고 있고요. 확실한 거 언제 어느 연대에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축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듣고 있는 바로서는 하나 마, 전설적인 애긴데 우리가 문헌에서 보면은 성종 21년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대충 보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그 중국병이 이쪽을 거침입했을 때 그때 이쪽 지역의 사람들을 피난 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축성했다 이렇게 대략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런데 거기 따르는 구비전설로서 내려오는 전설을 보면은 권장사와 김장사가 성을 축조했기 때문에 권금성이다, 이렇게 명명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권장사와 김장사가 한 동네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병들이 몰려 오니까 가족을 데리고 피한다는 것이 사세는 급하고 그때만 해도 어디(어디)피한다는 것이 깊은 산,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가지구 피난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권금성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아, 적병은 뒤에 뒤미쳐 따라 오구 이 성이 없으면 도저히 방어할 길이 없다. 그래 들어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는데, 그래 들어서 의논한 끝에,

“자, 이거 성을 쌓자.”

그런데 성을 쌓라니(쌓올라니)산에 성을 쌓만한 돌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래 대림천에 내려가 가지고 거, 대림천 돌을 주워서 올려 가지고 성을 쌓야 되는데 한 10리 길 되는데 그럼 등짐으로 저 나른다는 거는 며칠을 싸도(쌓아도) 성 하나 쌓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권장사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 김장사를 보고하는 얘기가,

“이렇게 합시다 이거 도저히 말이지 뭐, 돌을 저날라 가지고 성을 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만한 기간적 여유도 없다. 그러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개울(개울)에 내려가서 말이지 돌을 주서 던질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받아서 성을 쌓으시오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하룻밤 사이에 성이 다 쌓으겠소?” 말이야.

“좋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 권장사가 먼저 내려갔어요. 개울에 돌을 주서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김장사가 거 위에서 돌을 받아 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인제 한밤중까지 권장사가 하고, 그 다음에 인제 교대로 해서 김장사가 내려 가고 권장사가 위에서 돌을 받아 쌓고 이래서 에, 그 성을 쌓았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의 높이를 우리가 본다면 높이가 약 4척입니다. 돌레가 천 백 열두자 이렇게 그 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그)옆에 보면은 토왕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왕성하고 권금성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어느 문헌에서 보면은 이 억압지세에 순치지형이라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를 탁 다루는 것에서 탁 마치는 것 그러한 형국이다, 그러니까, 인제 토왕성과 권금성하고 연관을 해서 말하는 것이 고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억압지세에 순치지형이라 하는 말은 고, 저 권금성하고 토왕성하고 이것을 연관된 어떤 거 말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의 이 어떤 지형적 말이죠 말을 내포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완전히 저희들이 보는 바로서는 완전한 성 하나의 방어용으로서 축성이 됐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게 대한 기록이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이 고증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대개 고로한(그러한)방향에서 말이 나옵니다.

<중앙동 500-8, 장현영(남·54) 1981. 4. 27>

16) 계조암과 송강 정철

계조암 얘기가 인제 그기 유명한 애긴데, 계조암은 누가 창건했나 하든, 시기가 자장율사의 제자, 잘하는 사람은 도제를 낚요, 길도(道), 아우제(弟), 도사란 이말이요. 자장율사의 제자라 안하구 도제라 하지요. 자장율사가 가구 나서 두운조사가 계조암을 창건했지요. 창건했지가 1,200여년이 됐어요. 자장율사는 그 위에 뿐이니까, 들어와 처음 들어와서 향성사만 짓구 나 안졌어. 두운조사가 계조암을 창건하는데 계조암 특징이 뭐나 하니까 계조암에는 사람이 죽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절안에서 사람이 앓아서 죽을 무렵이 되면 자연히 그 사람이 저절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특징이구, 계조암은 남자바우 여자바우가 있어요.

계조암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게 여자바우여, 이렇게 이 바위 뒤로 문으로 들어가는

남쪽에 이렇게 짝 벌리고 있지 그기 수문바우여. 근데 남자바우가 어디 있냐면 옛날엔 흔들바우가 둘이라구, 둘인데 흔들바우 우쪽에 전나무가 하나가 있지, 고 밑에 뽕죽하게 나온게 그기 남자바우가 그 위에 있었는데 송강 정철이가 그걸 말짱 계조암을 파산을 맨들어야 해겠어서 그 왜 파산을 맨들올라 했냐면 이 명산을 그냥두면 인물영웅이 나서 인제 그러니까 여느 사람들은 일본사람들이 와서 그랬다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지 용바우 묻었다구 그러지만 나라에서 아마 이태조가 들어선 이후에 명승지를 찾아다 그래 인제 정철이가 아주 지리학사거든 지리학사니까 좋은 데 돌아다녀도 계조암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



계조암은 앞은 흔들바우가 소가 동쪽으로 누웠는데 입이 다 இரு 눈이 다 있어. 그계 흔들바위가 그 빨인데, 소, 계조암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가면 변소간 쪽으로 가서 터 딱은, 새로, 거기서 그 바우를 보면 쇠꼬장지가 딱 끊어졌어. 그거 쇠꽂지가 딱 끊어 자빠졌어. 소꽂지를 끊었어. 소 웅덩이에다 두 자나 되게 징으로 많이 팠어요. 핑 들레 징으로 쪼쿠는 하여간 정철이란 사람이 영웅이여. 어딜 쪼았는지 옛장사 옛게듯이 단번에 짝 깨서 나가 떨어졌어. 그건 누구 거기 다 보면 그냥봐도 아무것도 모르지,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아직 징자리라 남아 있으니까, 쇠꽂지를 끊구, 쇠뿔을 빼구 그랬어요. 계조암 전체 바우는 목탁바우라 부르지, 목탁바운데, 인제 중이 이상 더 부지런한 사람이 없거든, 중이 새벽에 잠을 자면 목탁바우가 운다는 거지, “딱딱”하고 중을 깨운다는 거지.

<노학동 2통5반, 박일호(남·78)1992. 4. 5>

17) 계조암 흔들바위

내원암으로 더 올라가면 그 계조암이라는 게 있어요. 계조암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도 관광지고, 미래도 좋고, 좋은데 계조암 앞에 가쁜 넓은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에 는 그 흔들 바위가 있는데, 높은 데서 내려다 보면 그 소가 누워있는 바위다 해서 와우암(臥牛岩, 식당바위)이라고 하지요. 그럼 와우암이라고 하면 소뿔이 두 개가 있어야지 왜 한 개가 있느냐. 소뿔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는 기운이 세고 짓궂은 사람이 하나 굴러 떨어 뜨렸습니다.

그래 현재 하나만 있는데 그 바위가 중량은 7만 천 근, 7만 천 근이라는 중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병대장이 자기 부하들을 데려 와서, 자로다가 높이와 둘레를 재서 환산하니까 공식적으로 71이 나온다, 7만 천 근이라고 합니다. 그 바위가 동석(動石)입니다. 동석이라서 한 사람의 힘이나 백 사람 힘으로도 흔들려요. 그래 흔들바위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조암이라고 하는 데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그 예전에서부터 승려가 그 굴에 들어 와서 그 전에는 암이 아니고 굴이죠. 그 굴에 와서 수도를 하고 나가고, 할아버지 조상에서부터 연이어서 대가 끊기지 않고 수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7>

18) 계조암 수음바위

이건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긴데 혹 스님들에게 폐가 안될까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그 설악산 계조암 앞에는 수음바위라는 바위가 있다 했는데 그 모양이 여자의 앉아서 방뇨를 하는 모습이다 그래요. 그 바위틈에서 샘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먹으면 장수가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암자에 있는 스님중에는 힘센 장수가 많았다고 하네요.

날이 가물어 물이 잘 만나오면 수음바위 건너편의 흔들바위를 수음바위쪽으로 밀면 물이 더 나왔다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흔들바위가 두 개여서 마치 남자의 낭심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이조 초기에 유교를 신봉하는 강원도 관찰사가 이곳을 지나다가 수음바위 물을 먹으면 장수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 반역하는 사람이 나오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바위를 하나 밑으로 떨어 뜨렸다고 하지요. 이렇게 하고 나니 바위틈에서 물이 나오지 않고 그 후는 장수가 설악산에서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찰사는 돌아댁기면서 절에 개금불사가 있으면 술가지 불로 이것을 검게 칠하는 등으로 불교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이 관찰사는 울진 방면으로 내려가다가 경치

를 읊으면서 시 한 수를 지을라구 붓을 입에다 물구 흥얼대다가 뱀줄기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붓대에 목이 찢려 죽었다 합니다. 불교를 박해한 탓이지요.

<동명동 469-36, 이견석(남·66) 1990. 11. 2>

19) 귀면암과 마고선

귀면암(鬼面岩)이라 하면, 귀신 귀, 낮 면, 바위 암자(字), 그 천불동 중 허리에 자리잡고 있는 데가 귀면암이죠.

귀면암이라 하면, 천불동(千佛洞)중허리인데, 이 밑에서 보통 따지자면 와선대(臥仙臺)라고 하는 데는 예전에 그 송림(松林)이 울창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데인데, 예전에 마고선(摩姑仙)이라는 선인이 많은 선인들과 같이 그곳에 와서 바둑과 거문고를 타며 산수의 경치와 아름다움을 누워서 감상하던 데라고 해서 그대로 누울 와, 신선 선, 집 대자(字), 와선대라고 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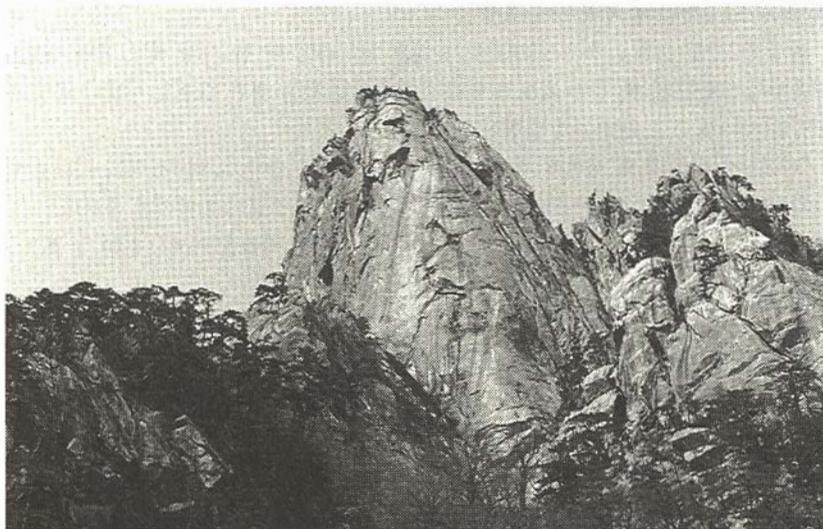
와선대로부터 한 300m 올라가면 마고선인이 하늘로 등천했다고 해서 날 비, 신선 선, 집 대자(字), 비선대(飛仙臺)라고 불리어 왔죠. 비선대는 예전에 시인의 발걸음이 끊어질 사이가 없이 시인이 들어 와서, 시도 짓고 이름도 새기고 나갔습니다. 예전에 어느 시인 한 분은 그곳에 와서 맑고 구슬같이 흐르는 물에다 발을 담그고, 반석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하늘을 찌를 듯한 장군봉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바우(바위)와 와 바우 사이에

는 자기 뼈마디 같이 살아나는 듯하여, 날개라도 있으면 하늘로 날아갈 기분이라고 했으니 비선대 장관이야 뭐라고 나무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7>

20) 금강굴 유래

전에 보니까 원효대사가 금강굴에서 수도했는데 금강경을 만들었다. 금강경 원문 속에 금강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굴을 금강굴이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계조암에도 와 계셨고 선정사에도 와 있었고 한계 기록에 신흥사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금강굴에 와 계셨다면 그걸 빼놓을리가 없습니다. 금강굴이란 것은 금강(金剛)이란 불교적으로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해 놓았는가 하니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짜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제석천(帝釋天)이란 부처님이 짚고 땡기는 지팡이를 금강이라 한다. 지팡이다 제석천은 누구냐? 관음보살이 변신한 것입니다. 관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기 응신술, 저쪽에서는 동자로 나타나고 저쪽 가서는 대장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이 서른 세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불교를 잘 모르지만 서른 세가지란 것은 엄연히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다. 결국은 관음보살이다. 그럼 왜 지팡이를 가지고 있냐? 그 지팡이를 가지면 모든 사악들이 범접을 못한다. 그런 무기다. 지금 금강굴 옆에 봉정암 쪽으로 가는데는 금강문이라고 있습니다. 또 금강산에도 금강문이 있습니



다. 그러면 금강산도 원효대사가 지나갔다고 해서 금강문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금강굴이라 하면 그와 같은 제석천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잡귀가 못 덤벼든다. 이련애깁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굴은 높고 험하고 아주 깎아진 곳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올 수 없다. 그겁니다.

진수중에 진수다. 누가 범접할 수 없다. 그래 금강 거기서 공부를 하면 도통이 잘된다. 득도가 쉽다, 그래서 이름을 금강이라 부쳤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굴이라 합니다. 원효대사가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원효대사가 금강경을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금강소란 것을 지었습니다.

<교동, 박익훈(남·77) 1992. 4. 21>

21) 금강굴 도승의 욕심

비선대에 올라가니까 옛날에 금강굴이라 해서 올라갔더니 거기서 스님이 역사라 해서 얘기해 주는 걸 들었어요. 어느 스님이 도를 닦느라고 그 굴속에 들어가 앉았드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간 건 없구 먹을 건 없구 이래서리 그러니 앉아서 기도만 드리고 앉았더라니까 하루 세 끼다 쌀하고 물이 툭툭 조금씩 떨어지는 걸 가지구 그 쌀을 씻어가지구 밥을 해먹구 밥만 먹구 거기서 기도 드렸노라고 역사를 얘기해 주는데, 그 스님이 가 도중에 이랬답니다.

“야,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삼시 세끼 기도 드릴라 밥해 먹고 삼시 세끼 기도 들일라니 힘이 드니 쌀을 좀 한꺼번에 주지”

왜 한번 기도 드리고 아침 새벽기도 드리고 일어나면 딱 한 사람 먹을 쌀만 나오고 굴속에서 그랬는데, 또 한번 기도 드릴라니 청수하고 먹는 쌀만 나오고 이래니 공양 지어먹다 보니까 기도 드리는기 영향이 있을까봐.

“한꺼번에 나오지 왜 세번에 꺾어 나오니까?”이랬더니 쌀이 그 이튿날부터 하나도 안 나와서 벌을 입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그 전설을 그 스님이가 얘기해 줍니다.

<설악동 2통3반 박삼손(여·63) 1992. 3. 26>

22) 울산바위 유래

울산바위가 왜 울산바우냐 하든 계조암에 대해서 울이여, 계조암에 대해서 울타리요, 계조암에 대해서 울과 같은 산이다. 울산(蔚山)에서 왔더니 말이 되나, 계조암의 소가 두리 누운 것 같은 바위를 절에서는 마당바우라 하는데 거기서 앉아서 보면 우정 내일이라도 가보라고 내가 그진말(거짓말)하나, 울산바우가 거 보면 목탁바우 위에서 보면 계조암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어간이 멀지만 울산바우가 띄키거든, 그냥 마당바우서 보

면, 허허, 그러니 계조암에서 보면 울타리가 틀림없지. 계조암에 대한 울, 즉 담이다. 울 같은 바우다 그래서 울산이요 그전에는 질방을 지고 와서 내려왔다는 기묘한 소리들 했지만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노학동 2통5반, 박일호(남·78) 1992. 4. 5>

23) 울산바위와 의덕장사

울산바위는 일명 천후산(天吼山)이라고도 합니다. 하늘 천자(天字), 사자 후자(吼字),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형으로 보인다고 해서 천후산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울산 바위는 사방이 절벽으로 나는 새도 면하기 어려운, 6개의 봉으로 이루어진 영동에서 으뜸가는 돌산입니다.

울산바위 중허리에 구름이 덮혔을 때는, 밑에서 이렇게 쳐다 보면 일견, 연못에 연이 막 피어오르는 듯하다 하여 연화반개산(蓮花半開山)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큰 대숲을 뒤엎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산 바위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유래고, 전설로는, 경상남도 울산군에 있던 바우지 여기 있던 바우가 아닙니다. 여기 바우가 없었을 적에는 평야 비슷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불교가 세계적으로 처음에 번성하기는 저 인도에서부터 번성해서 서양으로도 나가고, 중동으로도 나가고 동양으로도 오면서 당나라 동남산, 지상사, 온날 윤계사, 개국사를 거쳐서 금강산 산계사, 유점사, 장안사를 거쳐 금강산에도 들어 왔을 때 금

강산에는 승려들과 도승들이 많기로 유명했고, 금강산에는 우리나라도 유명해서 금강산에는 천애(천하)장사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금강산 천애장사인, 의덕장사라고 하는 장사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금강산 신령인데 너 금강산이 몇 봉우리인지 아니?”

“금강산은 11,999봉이로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강산이 한 봉이 없어 12,000봉이 되지 못했다는(못했다는)것은 분하기 한이 없으니 너는 이유를 막론하고, 어디서 한 봉우리를 저다가도 채워 놓도록 해라. 만약 너가 안 채워 놓으면 너의 신상에 해로울 것이다.”

깨보니 꿈입니다. 그래 의덕장사가 가만히 앉아 꿈을 생각해 보니 이 꿈을 보통 꿈이 아니예요. 앉아서, 누워서 세월을 보내다가, 산신령님께 벌을 받아 죽어도 죽을 꺼고, 그 저 힘이 천하장사니 어디가서 한 봉우리를 짊어지고 가다가 힘에 지쳐서 죽어도 죽을 꺼고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에라, 어디가서 한 봉우리를 짊어지고 가다가 힘에 지쳐 죽는 것이 우리 남아일 것이다.”

그러든 남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북쪽에는 산악지대가 많이 있으니 북으로 가면 마땅한 봉우리가 있겠지, 그래 북으로 가면서 살살이 더듬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듬으며 찾아 봐도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마땅한 봉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북에 없으니 어짜피 남으로 더듬어 보자. 남으로 내려 오면서 약 한 보름 동안 더듬어도 마땅한 데가 없어요, 마땅한 봉우리가.

그러니 마지막으로 경남 울산에 가 보겠다고 울산에 가니 저렇게 커다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 바위를 보니 바우는 명 바우예요. 그래 의덕장사가 울산에서 바위를 짊어지고 금강산에 한 봉을 채우러 짊어지고 가는데, 가다가 무거워서 쉬어 갈라고 생각해 보니 만약에 내려 놓았다가, 짊어지지 못할 우려성이 많으니깐 내려 놓지를 못하죠. 먹을 것은 없죠, 자지도 못하고 땀은 비오듯 흘러, 오줌 똥도 마려워도 오줌 똥도 걸어가면서 바지에다 싸야되고 땀에 젖어, 오줌 똥에 젖어 냄새는 나지만 냄새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때까지 금강산에 저다 놓겠다는 결심을 한 사나이 다.

그래 밤낮을 가리지 않고 15일 동안 거쳐서 짊어지고 오는데 양양 고을이라는 데를 지나오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금강산이 얼마 멀지 않으니 없는 힘을 더내서 지고 가야겠다고 결심을 먹고 지나가는데, 나그네가 어디서 험레벌떡하고 뛰어 오더니만 하는

말이,

“장사님, 그 큰 바우를 어디로 뭐 할라고 짚어지고 가십니까?”

“이 바우는 금강산에 한 봉을 채우러 짚어지고 간다.”

“금강산은 만 이천봉이 다 확보되었으니 그 바우는 필요없습니다. 여기다 놔 두십시오.”

“아 그래, 그럼 여기다 놔 두어야겠구나.”

15일동안 무거워서 쉬지도 못하던 바우는 갑자기 내려 놓는다는 것도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짚어지고 서성서성하다 그냥 내팽개치고 장수는 자기 갈 데로 갔죠. 그래 이 바우가 가만히 생각하니 아주 쾌짓하고 분해 죽겠어요. 왜 분하고 쾌짓하냐, 그래 인제 가만히 놔 두지도 않고 패댕겨쳤으니 어찌 분한지 통곡을 하고 앉아 울다 지쳤다, 울다 지쳤다, 나중에 울음이 안 나오니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 아주 쾌짓해 죽겠거든요. 차라리 경상남도 울산군에 그냥 놔뒀더라면 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주민들이 가끔 올라와 하는 말이,

“그참, 놀기 좋다, 명승지다.”

그 누차에 걸쳐 그런 소릴 많이 들어 대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금강산의 봉우리로 간다기에 더 좋은 바위가 금강산에 가지도 못하고 첩첩산중 두메산골 사람도 살지 않는 두메산골에다 가만히 놔 두지도 않고 패댕겨쳤으니 어찌 분한 지, 울산 바위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바람이 불어 올때면 심산에 후자가 우는 듯하게도 울려 오고 있습니다.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7>

24) 울산바위와 동자승

우리 전설에 보면 울산 바위는 울산 고을에서 올라 왔다, 아, 그래 가지고 그 전설이 계속 되어 가지고 저게 인제 울산 바위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아직 원명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원명을 좀 밝히려 합니다.

그래서 그 울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 천후산, 후자는 울 후(吼)자, 그러니까 공자라는 공(孔)자(字)옆에다가 입구 변입니다. 천은 하늘 천, 그래서 천후산(天吼山)입니다. 본명(本名)이 천후산인데 저게 인제 왜 울산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인제 준말이 되어 가지고 우는 산, 우는 산, 우는 산 하다가 나중에는 울산,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울산’하니까 듣는 사람이 아, 울산에서 왔구나, 그때 그 뭔가 저 이조 초엽에 한창 그 배불 승유 사상이 벌어질 때 그때 그 선비들이 그 유생들이 놀러 왔다가 그 울산바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 울산 고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때 그 울산 고을에서 원이 그 마침

풍류차 왔다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그 뵈가 배불 사상이 농후할때니까 중을 좀 곱탕을 먹이고 치부를 좀 할 생각으로 그 호통을 치면서 달려들어 가는 겁니다.

“이 무지한 놈들 같으니, 왜 우리 울산에서 이 거대한 바위를 갖다 놓고 세금을 물지 않느냐, 한 놈이라도 오나 하고 봤더니 오지도 않고 쾌썸한 놈들 같으니.”

하고 호통을 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 중들이 세력이 없으니까, 꼼짝 못 할 판이거든, 그래서 꼬박꼬박 몰다가 동자승이 그 가기로 해 가지고 그것을 면했다, 이래 가지고 그 울산에서 온 것같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래 인제 동자승이 말하기를 그 저, 주지가 맨날 세금을 뜯기다 보니 말입니다, 절의 살림살이 들통이 나는 판입니다. 그래 농사를 지어 놓으면 와 가지고 다 빼앗아 가고 싹 다 빼앗아 가고 그래서 하루는 인제 그 절을 폐해야 될 판인데, 주지가 그 걱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울산에서 살림 받으러 올 텐데.”

그래서 상당히 그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동자승이,

“스님, 그 무엇 때문 요즘 그렇게 근심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건 알 바도 아니고 또 니가 알아 봤자 해결할 문제도 못 된다. 그러니까 넌 알라고 하지도 말아라.”

“아, 그러지 말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면 같이 들어서 근심을 해 보면 뭐가 좋은 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동자승이 다구쳤단 말이요, 주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도 그럴듯한 말이야. 그래서 그 사유를 얘기 했던 말이요. 그러니까 동자승이,

“그걸 갖고 뭘 그리 근심하세요? 그건 나한테 맡겨 두라고 그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분명히 말이지 울산에서 바윗세 받으러 오거들랑 나한테 얘기를 해 주시오.”

그래서 인제 아닌게 아니라 가을에 받으러 왔다 이 말이야, 오니까 인제 그 동자승이 나갔어요, 접대하는 거로, 그래,

“어찌 왔느냐?”고 하니,

“바윗세를 받으러 왔다.”

“예, 저 바위가 우리 사찰에 와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는 지금 저 바위로 말미암아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거대한 놈이 차지하고 있으니 자, 풀 한 포기 안 나고 나무 한 그루 못 심고 거 되겠

습니까? 그러니 와 가지고 가시오, 우리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하거든, 대단히 분할 것 아닙니까? 그래 야단 났다 이 말이야.

“내 가지고 가는데, 내 가지고 가도록 니가 준비를 해 주겠느냐?”

“해 드리죠. 뭐 준비를 어떻게 해 드리죠?”

“끈 새끼를 가지고 저거를 저 바위를 다 얹어 놓아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올테니까, 요 아래 마을에 머물 테니까 다 해 놓고는 연락해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인제 그 동자승이 부락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새끼를 꼬는 거예요. 하, 뭐 맨날 며칠 새끼만 꼬고 있으니까 이 주지가 가만 생각해보니 저 놈이 뭘 할라고 새끼만 꼬고 있는가?

“야, 이놈아, 뭘 할라고 그러니까?”

“아, 주지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 새끼를 짝짝 꼬아 갖고는, 상당히 많이 꼬아 갖고는 소금에다 한번 푹 적서 소금물에다 푹 담가 가지고 그 놈을 가지고 인제 올라 가는겁니다. 울산 바위를 마, 칭칭 감고 새끼로 동이는 거지요.

다 동이 놓고 난 뒤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거죽은 마 시커멓게 타 빠리고 이 안에 말입니다. 소금물이 들어가 놓으니 안에 속속들이 다 타질 않거든요. 그 래 거죽에만 시커멓게 타는 겁니다. 그래봐 노니까 만약 이 지대로 다 타빠리면 바람에 다 날려가 빠리니까 안 되니까 속은 남아 있고 거죽만 타는 거지요.

그래 인제 불을 질러 잘 끄슬러 났다고 내려 가서 읊아매 났으니까 가지고 가시오. 그 이 사람들 생각에 설마 니가 그랬잖나. 아, 올라 가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해 났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이랬는데, 그래서 인제 이 울산 바위 전설이 바로 그런 데서 인제 약간에 비추어졌는데 인제 그 산을 갔다가 인제 천후산을 갔다가 인제 울산, 울산 하다 보니까 그만 저 울산 고을을 생각해 가지고 마, 하나의 해학적으로 인제 그 하나의 전설이 만들어진 것 인데, 그럼 저 울산에 대해서 저기 굉장히 뇌성이 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저 산에서 우는 소리가 짹짹 울려서 말입니다. 아주 그 사자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산이 덜 울창하니까 그런 면이 뭐 별로지만 옛날에는 아주 굉장했답니다.

25) 울산바위와 송강 정철

정철이가 관직에 있을 때 일화가 있죠, 송강 정철이 봉정(鳳頂)이라고 하는 저, 지금 현재 대청봉 산봉을 갔다가 봉정이라고 그러죠.

그래 그 당시에 그 정철이가 관에서 들을 때 이 설악산에서 역적이 난다는 말을 들었던 말이야. 그래서 이 봉정에 와서 혈을 찔러서 역적이 나지 못하도록 혈을 찔러 왔단 말이지요. 그 송강 정철이가 그런데 설악산 입구에 떡 와가지고서는 아, 이 봉정에 혈을 찔러려고 산을 올라가는 판이예요. 올라가는데 웬걸 산 입구에 탁 다다르니까 말이지 그, 마 여름철이었던 모양이죠.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뇌성 벽력이 들이 내리치는데 울산 저 우는 산에, 울러 가지고 말이죠. 찌릉찌릉하는데 인제 막 아주 몸이 오싹오싹할 정도로 대단한 소리가 나드라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 험한 길을 그 올라가느라고 무한한 애를 썼어요. 애를 써 갖고 그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 보니 아주 산이 말이며 성역하고 신선하고 말이지 이런 풍취 속에서 역적이 날 리가 없다. 이 명산인데 이 명산에서 어떻게 역적이 나느냐. 그래 가지고 예, 정철이가 그 당시에 그 올라가면서 아주 고생을 해서 답답한 마음으로서 내뱉은 말이 예, 설악이 아니라 배락(벼락)이구, 구경(求景)이 아니라 고통(苦境)이고, 봉정(鳳頂)이 아니라 난정(難頂)이라고, 어렵다 그렇게 일화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쉰 다음에 이러한 성역이고 명산에서 역적이 날 리가 없다. 그리고 정철이가 돌아가면서 그 예, 세번째 들어와서 고생을 해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서 내 뱉은 말이 바로 그건데 그래서 이제 천후산 그 천후산이 그 뇌성이 치고 하면 별신이 다른 산보다 많이 울리고 우는 것이 이 설악산 그래서 우는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앞으로 나가는 천후산 이 천후산은 그 원 고명(古名)을 그대로 인제 앞으로 밝혀 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동 500-8, 장헌영(남·54) 1981. 4. 27>

26) 울산바위 매미떼

이왕이면 까마귀(까마귀)도 내 땅 까마귀가 좋다고, 그 울산에서 왔는 바위가 있다고 하니 우리 여겨서(여기서)그만 아주 지내고 가자.

그래서 거겨서(거기서)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 설악산에 와가(와서가)있다 보면은 그 매미들이 참, 많이 울어요. 그래(그렇게)많이 울고 자주 울고 이렇게 읊니다.

그래서 인제 아주 요란하게 우는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매미가 유독 많이 우느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말은 매미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리(이렇게) 자주 우는 거는 울산에서 우리거(우리가)도망을 때아, 우리를 따라 오지 못하고 그 남아 있는 그 우리 동료들이 있다 말이야. 그 동료들은 지금 병어리가 돼 울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 동료들 못 우는 뭇까지 우리가 울어주느라고 우리가 자주 울고 많이 울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매미 중에서 우는 매미가 있고 못 우는 매미가 있다 할 때 그때 그 도사의 도술에 걸린 매미는 지금의 병어리 매미고, 그 당시에 그 도사의 도술에 걸리지 않고 이쪽에 그 설악산 왔는 그 조상에서 낫는(태어난)매미들은 지금도 잘 울고 있다는 하나의 그 설악산 그 매미 때 합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포동, 이명철(남·59) 1981. 4. 26>

27) 울산바위 매미떼 합창

지금 현재 설악산 울산 바위 밑에 매미들이 가장 많이 울고, 매미 떼가 우는 곳이 설악산 그 계조암, 계조암 골짜기 내려 오면서 매미가 많이 읊니다. 그래서 거개를 갔다가 일명 매미떼 합창(합창)이다 하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전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 얻었는데, 그 매미떼 대합창이다 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그 매미떼가 어떻게 해서 와서 많이 울고 많이 머물고 있느냐 하면은, 이걸 하나의 전설로서 울산 바위의 전설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해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울산 고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울산 고을에서 한 그 도사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일과가 먹고 잠 자는 것이 일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낮잠 자고, 밤에는 밤대로 자고, 그저 밥만 먹으면 자고, 그게 그 사람의 일과인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개구리가 여름에는 말이죠, 이 밤에는 말입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우는지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얘깁니다.

“이걸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나.”

해 가지고 그걸 다 잡아 죽인다면 살생을, 무모한 살생을 하는 거고, 저 놈을 갖다 입을 딱 봉해 가지고 울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 가지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 하나를 연구했는데 부적으로서 말이죠. 그 입을 봉하는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 인제 부적을 써서 공중에 날렸더니, 아, 이놈의 개구리들이 전부 입을 붙어 가지고 울지를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제 밤에 조용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이 여름에는 이 잘라고 하면 매미

가 말이지요, 어떻게 요란하게 우는지 그 낮에는 낮잠을 말이지 매미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는 얘깁죠. 그래서 이놈들도 울지 못하게 병어리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막 인제 부적을 써서 날릴라고 하는데, 그 일부 매미가 그 낚새를 알았어요. 낚새를 알고,

“여게 있다가는 전부 병어리가 될 테니, 자, 우리 전부 도망 가자.”

이래 가지고 매미떼가 전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아, 이놈이 날아 오다 보니 까, 설악산 있는 데까지 오게 되었어. 가만히 보니까 아, 산수가 참 대단히 좋은 데,

“여게서 머무면 좋긴 좋겠는데, 여게서 우리가 머물면 어데가 좋겠느냐?”

“그래 저 위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저 바위가 무슨 바위냐?”

“울산 바위다. 울산에서 온 바위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

“이왕이면 말이지 그 바위에서 쉬자.”

이래 가지고 그 울산 바위에 피신해서 머물렀다는 얘깁니다.

<금호동 13통2반, 김봉춘(남·54)1981. 4. 27>

28) 비룡폭포와 처녀제사

인제 비룡폭포 쪽으로 보면은 아주 폭포가 320m가 되는 폭포가 하나 있는데 그 폭포 뒤에는 칠성봉이라는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칠성봉 그 칠성봉에는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커다란 폭포가 그 전에는 신방폭포라고도 불러 왔는데 요 근년에 와서는 토왕성폭포(土旺城瀑布)라고도 하지요.

토왕성폭포는 지난 날에 이태백이가 중국 연산폭포를 연상케 하고 개성 박연폭포를 거쳐 금강산의 구룡폭포를 거쳐 가지고 이 토왕성폭포로 왔습니다. 토왕성폭포를 와 보니 과연 거대한 폭포다, 이 폭포에 시를 하나 지어 봐야 되겠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떨어지는 물은 삼 천 자.

‘의시은하낙구천’(疑是銀河落九天)

또한 떨어지는 물은 은하수에 비치어 구천에 떨어지고, 폭포의 장관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하늘에서 흰 비단을 걸쳐 놓은 것 같고 가까이서 볼 때는 꽃구슬을 석벽(石壁)에 박아 놓은 듯한, 사철 변함없이 쏟아져서 오고 가는 나그네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데가 바로 토왕성폭포입니다.

토왕성폭포에서 약 2km를 내려 오면 하폭으로서 비룡폭포(飛龍瀑布)라고 하는 관광 코스가 지금 되어 있는데, 폭포가 하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룡폭포의 전설을 보면

그전에는 비룡폭포라고 그 이름도 붙어 있지 않고 무명폭포로 이름도 없는데 행정 구역상 도면이라는 데가 양양군 도천면, 속초가 도천면이에요.



양양군 도천면 향성리(香城里) 또 때로는 도문이라고도 했지만 향성리라고 해요. 향성리로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 향성리에는 농사가 잘 되고 부촌들이 기와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기와집들을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살았는데 천불동 계곡물은 다 말라도 이 토왕성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은 마르지 않아 가지고 이 물루다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이 물루다 이용해서 농사를 풍년으로 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한 해는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서 밭에 곡식(곡식)이 타 죽어, 논에 벼 심어 놓은 것이 말라 죽어,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아우성이지요. 일거리가 없습니다. 가물면 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 모여 앉아서 웅성웅성 맨날 모여 앉아 아우성인데, 그래 부락 사람이,

“어디 그러면 우리 한 번, 그 계곡에 한 번 올라가 보자. 그 계곡이 어떻게 됐기에 거기 물이 안내려 오느냐 그 큰 개울물이 말라도 거기 물은 언제든지 끊어지지 않고 물이 흘러 내려 왔는데, 거기 물이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뭐지 어디 한 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니 쪽 올라 가니 물이라곤 구경할 수 없는데 지금 비룡폭포 꼭대기 그 선녀탕 그 사람이 많이 연연히 빠져 죽는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막아 놔서 들어 가지 않는데 그전엔 막기 전엔 많이 죽었어요. 사진도 찍다가 죽고……. 거기 그 웅텅이 밑은 물이 고여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물 떨어지는데 벽에 떨어지는 게 오웅텅이 마르지 않을 만큼만 물이 떨어지는데 고 올라 가면 뒤에서 내려 흐르는 물이 없고요 하두 이상해서,

“그래, 그 웅텅이에 괴물(怪物)이 있구나.”

그래 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조금 올라가 보니 개울물은 말라 있는데, 쪽욱 올라 가니 그 지금 폭포, 비룡폭포라고 하는 그 웅텅이만은 물이 고여 있어요. 딱 데는 물 구경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 그 꼭대기에서도 올라가 보니 그 꼭대기에서 흘러 내려 오는 것도 없고 한테 이상하게도 그 웅텅이 마르지 않을 만큼 거기서 폭포에서 물이 떨어져 그 웅텅이가 고여 있는데, 그래 그 꼭대기로 계속 폭포 꼭대기로 올라가 보니 물이라고 구경을 할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런줄 알고 인제 그 사람이 내려와서 부락 사람한테 와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 계곡에 올라가니 물이라고 구경을 할 수가 없는데 웅텅이 두개가 있고, 위에 있고 밑에 있고 하더라. 그 웅텅이 안에는 물이 마르지 않고 있더라. 이상하지요. 참, 물이 마르지 않게 떨어지거든 흘러 내려오는 물은 없고, 그런데 떨어지는 건 있고 거기 그러니 괴물이 있다고 해서,

“괴물의 조화르다가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이 부락에 돼지가 있으니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다가 꼭대기 웅텅이에다가 고사를 지내서 비가 많이 오게 해 줍소사 할 수밖에 없다.”

그래 부락 사람들이 앉아서 들어 보니 그럴듯 하거든요. 고사 지내가지고서라도 아, 풍년을 만나야지, 가물이 가지구서 타 죽고 흉년을 만나 굶어 죽게 되면은 굶어 죽는 것보담은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자 해 가지구서 부락 사람들이 전부 찬성을 해 가지고 큰 돼질, 300근 짜리를 거기 올라가서 잡아 가지고 거기서 그 상을 놓구서 거기서 삶아 가지고 상위에다 올려 놓고 고사를 부락 사람 전체 올라가서 고사를 지내구 거기다 고대로(그대로) 놔 두고 그냥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고사를 지낸 지가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사흘 열흘이 지나 결과적으로 비는 계속 안 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고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괴물이

고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 아우성이예요. 부락 사람들이 그러니 그 부락 사람 중에 가물어서 농사도 안 되고 하니 예라, 나들이나 간다. 지금은 차가 많아서 금방 빨리 갈 수가 있지만, 그전엔 나들이 간다면 개나리 붓짐을 먹을 것 싸 짊어지고 며칠 걸려 가지고 가다가 걸어 가다 어느 심심산중에서 그저 물 있는데서 자고 가고 그저 며칠 걸려서 나들이 가는데, 그래 나들이 가서 그 부락 마을 사람들이 노는데 가서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놀다 보니 그래 이 향성리라는 데는 가물어 가지고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제일 연장자되는 80대 영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향성리서 왔나?”

“네, 향성리서 왔습니다.”

“향성리 어떻게구?”

“향성리에는 가물이 와 가지고 우리가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런지 알 수가 없군요.”

“그래 향성리라는 데 지금부터 35년전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살았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다가 그 꼭대기 토왕성폭포라고 하는 꼭대기에 가른 거 웅덩이에 괴물이 있어 거기다 처녀 고사를 지내야 해. 처녀 고사를 지내야지 괴물이 받지. 탄 고사 지내선 괴물이 안 받아 그러니까 처녀 고사를 자네 가서 지내 보게.”

그래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네 영감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저녁)에 자고서 이튿날 집으로 돌아 와서 향성리에 와서 마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이 사람아, 처녀가 어딴어도 처녀 고사를 지내, 거 쓸데 없는 소리를 하지도 마라.”

아, 그러니 책임을 맡고 가만히 생각하니 그 부락 사람들이 생각하니 만약에 처녀 고사를 지내 가지구서 비가 온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든지 처녀 고사 지내야지, 그래 처녀 고사를 안 지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럼 왜 처녀 고살(고사를)안 지내긴 왜 처녀가 없으면 한 집이 돈 얼마씩 내놔. 내가 가서 처녀를 사 올 테니.”

그래 가지고 그제 함의 되어 가지고 돈을 한 집에서 얼마씩 내 놓으니 그걸 전부 모아 놓으니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어디 만침(만큼)두메 산골에 가니 처녀 5형제만 있는 집을 찾아 갔는데 거기 가서 처녀를 하나 파십시오. 처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금은 서루(서로)눈에 맞으면은 서루 결혼도 하고 청혼도 하고 그러지마는 그 전에는 돈을 가지고 사다가 장개(장가)들었습니다.

그래 처녀를 팔라고 하니까 지가 장개들라고 팔라고 하는 줄 알고 자기 만딸을 팔겠다고 했거든요. 만딸은 얼굴도 곱지 않은 곱보 딱지인데 그 곱보 딱지를 돈을 많이 주고 사다가, 지금은 화장품도 많지만 화장품이 어디 있나요. 그 화장품이 없으니 얼굴에 다 밀가루를 발라 가지구서 허영계 맨들어 가지고 목욕을 시켜가지고 그리고서 처녀 고사를 지내러 올라 갔어요. 부락 사람들이 전부 올라 갔어요. 올라 가서 처녀 고사를 지내니 처녀 고사를 지내고 내려 오니까 어찌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지 그 농사를 그 물로 다 지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년히 그때가 되면은 비가 안 와요, 그래 고 때만 되면 처녀 고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 처녀 고사를 지낼려니 부락에 처녀가 있는 거 쪼그만 아들을 인제 꼬마들을 갖다가 처녀 고사를 다 지냈지. 그래 다 지내고 보니 국민학교 다니는 처녀란 인제 씨가 말랐어요.

고만에(그만) 그러니 처녀 고사를 지낼 수가 없지. 그러니 또 가물고 그러니 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예라, 이걸 어떻게 해야 좋으나. 그래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한 집이 보따리를 싸는 겁니다.

“아니, 자네 어디로 가나?”

“에이, 나 딴 데 가서 살겠네.”

“왜?”

“아, 이거 뭐 처녀래는 거 다 갖다가 제사를 지내고 국민학교 댕기는 꼬마끼정 여자래는 건 전부 거기다 갖다 고사를 지내고 그 여자가 있어야 살지. 세상에 여자 없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나. 여자가 있어야 나도 장가 들고 아들도 장가 보내고 할 텐데 여자가 없어서 장가도 못 들고 이까짓 농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버리고 가서 딴 데 가 살지요.”

“이 사람이 자네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나도 너도 나도 다 같이 누구나 이 부락 사람들 다 그런데 자네만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부락 사람들 전부 다 가세.”

전부 그 부락이 죄다(모두) 딴 데로 살러 가고 그 부락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락이 전체 비어 가지고 있으니, 지나 가는 나그네가 한 번 거기를 지내다가 날이 저물어서 자고 갈라고 권(주인)을 찾아도 대답도 없고 이 집 찾아도 대답이 없고 저 집 찾아도 대답이 없고,

“에라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람이 없으니 에이, ‘개똥참외도 먼저 말는 게 임자’다. 이거 아주 욕심내서 내, 좋은 기와집, 옥답 전부 내 거로만 들어서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그래 농사를 지어 보니까 농사가 잘 지어져요. 그래 농사가 잘 지어져 가지고 농사를 지니, 딴 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너두 나두 들어와 가지고 부락이 유지 되었어요. 그

래 농사를 잘 짓는데 한 해는 또 가물이 와요. 가물(가뎀)이 와 가지고 이제 큰일났다고 말이야 굶어 죽겠다고 이려고 있는 찰나인데,

“에라 거 뭐 그전에 처녀 고사를 지내면 여기 뭐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예구 그 딸 갖다가 처녀 고사를 지내.”

그래 그 딸을 갖다가 처녀 고사를 딸하고 합의되어 가지고 아주 어여쁜 딸을 갖다가 목욕을 시켜 갖고 처녀 고사를 지냈더니 처녀 고사를 지내고서 이 괴물이 나와서 이 웅덩이에서 나와서 처녀를 데리고 들어가나 처녀가 걸어 들어 가나 어디 땅이나 본다고 앉아서 땅을 보니까 순식간에 그 안에 캄캄해지고 안개 모냥 자욱해지고 그만 그 옆에 있는 처녀도 보이지 않고 별안간 그냥 소나기가 쏟아내려 가지고 그냥 개울물이 부듯하게 내려 가거든.

“에라, 보이지 않는 처녀 불려고 애쓸 필요 없이 빨리 눈에 내려가서 눈에 물 들어 오는 거 막구 말 파놓고 속히 방지해야지, 여기서 괜히 보이지도 않는 처녀 불려고 할 게 아니다. 빨리 내려 가자.”

하고 내려 가다 보니 그 밑에 웅덩이에서 올라 오면서 이상한 거, 괴물이 올라 오거든, 그래 너두 나두 뭐 달리 봤지만 하두 바쁘니깐 수해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내려 가서 눈에 물 많은 것 따 놓고 물 들어 오는 것 막고 수해 방지 하자고 그날 저녁에 모여 앉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얘기 하니 그 방안에서는 제일 연장자인 영감님이,

“자네 오늘 본 거, 어디, 본 거 한 번 그려 보게, 뭘 봤나?”

“아주 이상한 거 봤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전엔 먹 아니면 없을 게 아니예요. 지금은 에누그도 있고 연필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없고 해 가지고 숯겨멍을 가지고 신문지에, 신문지도 아니야 문창호지에 다 이렇게 그리니까 뭐 대가리 같은 것도 그리고 몸통 꼬리 같은 것도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그러서) 이 영감님이 화가였던지, 그려 가지고 완전히 다 그린 것을 죄다 그려 가지고 맞춰 보니까 틀림 없는 용입니다. 이때 선녀탕에서 그 처녀를 여덟은 잡아 먹고 요 마지막으로 아홉을 잡아 먹으면 먹어야 용이 돼 올라 가는데 그 틀림없이 용인데 용이 이제 올라 가면서 웅덩이 그 꼭대기 웅덩이 올라 가서 술 또아리를 틀었다. 다시 용을 쓰면서 그 폭포의 물줄기를 타고 하늘로 비천했다고 해서 날 비자, 용 용자, 비룡폭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7>

29) 양폭(陽瀑)과 음폭(陰瀑)

양폭이 있고 음폭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분들 대부분 양폭이라고, 두 개가 떨어져서 똑같이 떨어져서. 양폭인 줄 알고 하는데, 그게,그래 인제 대청봉이라는데 인제 양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양폭이라는 데는 폭이 한 25m밖에 안 돼요, 길이가.

이 폭이야 뭐 얼마 안 돼고 한 2m정도 되고 길이가 25m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계곡이 두 갈래가 생겼는데, 그래 인제 우측 계곡에 양폭이 있고, 좌측 계곡에 음폭이 어요.

그래 인제 우측 계곡에는 양폭에서 한 50m올라 가면 천당폭포, 그 천불동 계곡에 인제 마지막 상간 폭포라 해서 하늘 천자, 무리 당자 해서 천당폭포라는 폭포가 하나 있고 천당폭포 위로 조그만 무명폭이 하나 있는데 좋지도 못한 폭포가 뭐 하나 있고, 그래서 인제 양쪽에 인제 계곡으로 올라 가면 양쪽으로 쭉 올라 가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와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렀는지 그전에는 그 백미폭, 백미폭, 건폭, 그 비가 와서 물이 흘러야 폭포가 흐리고 거 말라 왔다, 그래 마을 건자(乾字) 백미터 폭포. 백미터나 길이가 되는 폭포다 그것이 비가 오면 물이 많아서, 폭포가 좋으나 물이 없고 가물었을 때는 말라 있다. 그래 건폭(乾瀑)이라고 불리고 백미폭(百米瀑)이라고도 불리어요.

그리고 음폭이라고 하는 데는 양폭에 그 두 갈래로 계곡이 있는데, 그 좌측 계곡으로 올라 가면 그래 음폭인데, 음폭이라고 하는 것은 양폭에서 한 200m올라 가면 그래 음폭인데. 그래 좀 올라 가기가 바위(바위)절벽이래서 올라 가기가 좀 험상 곳인데 거기는 그 여자의 음모양 아주 흡사 그 여자의 음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 음폭이라고 이름을, 칭호를 붙이고, 그래 음폭, 음폭이 있으니 또 양폭이 있어야지, 남자가 있어야지,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음양이라는 뜻에 한해서 양폭이니 음폭이라고 불리어 오고 있습니다.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8>

30) 염주폭(念珠瀑)과 무내미 고개

그리고 음폭이라고 하는 데서 한 600m올라가면 염주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염주, 그 염주같이 생겨 가지고 그 좁게 흘러 떨어진다고 해서, 그 염주 폭포가 많고 계곡이 상당히 좁해요(협해요).

거기(거기에)올라 가면 보통 이 지방 사람들이 고 골짜구를 지명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 골짜구니가 안내피, 죽음의 골짜구를 안내피, 그렇게 되어있고.

거게 인제 죽음의 계곡 있는 데서 우측으로 올라 가면, 태백산맥의 능선이 있는데, 그 능선이 인제 지끔(지금)문애비(물내미)고개라고 하지만, 원래 그 희운각 대피소 있는 데는 계곡의 물이 그계 지금 내설악으로 흐르지만 그 외설악으로 그전에 넘어 왔습니다. 그 쪽으로 따 놓으면 그래 외설악으로 넘어 와서 그계 문매미 고개가 아니라. 물 넘어 간다고 물너미 고개지, 인제 물너미 고개데. 그걸 자꾸 오다 보니. 물너미니, 물너미니 하다 보니, 그계 물내미 고개다, 그래 인제 무내미 고개가 이루어진거고 물이 넘어 오고 그래 그 물이 물 때문에 내설악 외설악 사람들이 싸움을 다 한 때는 하고 그래 가물었을 때는 물 싸움 하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요 근래에는 그런 예가 없지요.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8>

31) 청봉(靑峯)유래

소청봉으로 올라 가자면. 소청봉 보통 시간은 보통 걸음걸이로 가지고서 두 시간 삼십분 이렇게 기어 오르게 되는데. 아주 올라 가다 보면 힘이 어떻게나 들고 숨이 가빠 가지고 아주 숨이 하늘에 닿은 거와 같이하고, 뭐 이전에 제비도 날라 가다 나는 제비도 올라 와서 하품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이라고 하면, 소청봉은 해발 1,660m, 아니 해발 1,638m, 중청봉 1,660m, 대청봉은 1,708m 그래 제일 높은 산이고 소청, 중청, 대청봉 그계 3형제 봉우리인데 그 전설이 있어요.

이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을 귀때기 청봉이라는 것하고, 작은 귀때기청봉, 귀때기 청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디선가는 이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 3형제가 인제 거기 와서 인제 대청봉이 어른이고, 고 담에 중청봉, 고 담에 소청봉이 막내고 이렇게 인제 하구선 다정하게 거기서 살을라고(살려고)하는데 어디선가 별안간 두 놈이 나타나서 냅따 공갈을 형인데다 대청봉 있는데다 공갈을 막 때려 가지고.

“뉘, 이까짓 게 뉘 성(형)이야, 내가 성이지.”

하고 냅다 후려 패네, 그래 둘이 대청봉을 후려 패니까 대청봉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 가만 보니 소청봉하고 중청봉하고 보니,

“안된다. 우리가 성이 이렇게 맞았을 적에는 우리가 합심해서 저 단결을 해 가지고 그걸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 소청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보다 죽은(적은)새끼가 와서 노릇을 하겠다고 하니 같잖으니까,

“이 안 되겠다. 우리 스이(셋이) 다 합심해 가지고 저걸 물리치자 후려 때리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중청봉이 그냥 용기를 내서 뱀다 그냥 귀땀기를 쳐 가지고 귀땀기를 치니까. 귀땀기가 한 쪽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거 가서 청봉이 하나 생겼는데, 큰귀땀기청봉, 작은귀땀기청봉, 그래 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보면 큰 귀땀기청봉은 흡사 올라가면 아주 좁아요.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8>

32) 신흥사 유래①

지금으로부터 1320년전에 신라의 왕족 소판 3품 벼슬을 가지고 있는 그 물인공의 아들이 인생(人生)의 속세를 떠나서 당나라 풍남사, 지상사, 은(元)나라 운제사, 개국사에 들어 가서, 20년간 도(道)를 통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오대산 갈래사를 창건하고, 부사리 150장을 보완해서 절 앞에는 9층 석탑을 세워서 보완하고 설악산에 들어 왔습니다. 설악산에 들어 와서 사찰을 창건하고 절 앞에는 부사리 33장을 보완해서 8층 석탑을 세워 보완하고 수도를 했는데, 그 창건한 지 223년만에 화재로 소실되었어요. 그래 화재 당시에 6층이 파손되고, 현재 3층만 남아 이 사찰의 추억을 외로이 말 없이 그리며 현재 역시 견고합니다, 3층 석탑이. 그 자리는 어딘가 하면, 지금 설악호텔 밑에 국민학교 분교 그 자리가 그 옛부터 자리입니다, 향성사.

그래 인제 화재로 소실되었고, 사찰이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 의상대사가, 태백산 부석사를 창건하고 영동으로 쭉욱 올라 오면서 보니, 그곳은 꼭 사찰이 있을 만한 곳이라 생각하고, 사찰을 창건했습니다. 사찰을 창건하고, 그 사찰이 전에는 사찰이라고 하지 않았고, 기원도장(祈願道場)이니 호국도장이니, 기원종신으로, 적군이 들어 오면 적군을 물리친다는 승려들의 정신을 길이 길러서 보존하기 때문에 호국 기원도장이라고 창건한 것이 지금 현재 낙산사(洛山寺)지요. 낙산사가 그 전에 낙하사라고 불렸었고, 그 낙하산 떨어진 거와 똑같아요. 그래 그 후에 낙산사라고 불렀지요. 그래 설악산에 들어와 보니 성인이 창건한 사찰도 223년만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곳은 가장 사찰이 하나 있을 만한 곳이라고 단정하고 쭉욱 올라 와서 사찰을 창건했습니다. 그래 사찰을 창건하고 사명(寺名)을, 선정사(禪定寺)라고 사명을 붙였습니다.

그 선정사를 창건하고, 봉안할 불상이 없어서 밤낮 7일간 수도를 하고보니 한 날 밤 꿈에는 어느 도승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저쪽에 가면 산 불상이 있으니, 산 불상을 갖다가 봉안하고 수도해라.”

깨 보니 꿈이었습시다. 그래 하도 신기해서 그 이튿날 가서, 꿈과 마찬가지로 가 보니, 산 불상이 있어서, 그 산 불상을 갖다가 절에다 봉안(봉안)하고 수도하고 있었는데, 의상대사가 선정사를 창건하고, 수도한 지도 150여년만에 역시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화재로 소실되어서 그 옛터를 비워 두기가 너무 애석하다 해서 암자를 창건했는데, 능인암(能仁庵)이라는 암자를 창건해서 수도를 했는데, 금강산에도 수도하던 비구니 김수영씨가 자기 선조들이 수도하던 정지인 줄 알고 와 보니, 사찰은 화재로 소실되고, 암자에서 승려들이 수도를 하고 있는데 공양을 잇기가 곤란해서 자기 토지 50프락을 헌납하고, 공양을 이어 가면서 거기서 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지금 어디냐 하면 계조암 밑에 내원암(內院庵)입니다. 내원암이라고 불리어 오고 있지만, 그 능인암에서 수도하던 한 날 밤 꿈에는 어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저 밑에 내려 가서 사찰을 창건하고 수도해라. 그러면 너 3재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3재라는 것은 뭐냐, 사찰의 3재라는 것은 요 근년에 와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전, 예전으로 말하자면 아주 적당하고 그때 3재라고 들어 왔으면 꼭 3재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3재라는 것은 첫째 화재, 둘째 호랭이가 수도하면 와서 물어 가요. 그래 호환이라고 하는데, 세번째는 빈대가 많아서 쫓겨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개 3재고, 그래 하루는 승려가 꿈에서 깨어나서 하도 신기하다고 해서 세 승려가 앉아서 꿈 얘기를 하고 보니, 세 승려가 역시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신기해서 그 이튿날 내려 가서 보니 넓고 좋은 공지(空地)가 있어 게다가(거기다가)사찰을 창건하고 사명을 신의 계시로 이루어진 사찰이라 해서 귀신 신자(神字), 일 흥자(興字), 신흥사라고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신흥사에 들어 가면 지금 그 원통 보존의 3불상이 있는데 3불상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의상대사가 선정사에서 그 3불상을 봉안하고 있던 불상이예요. 그게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그 3불상만은 남아가지고 그 3불상은 현재 신흥사 원통보존에다 봉안하고 수도합니다.

복판에 있는 것. 크고 양 가생이(가장자리)가 적지요. 복판에 있는 것은 아미타불, 우측이 있는 것은 세지보살, 좌측에 있는 것은 관음보살이예요. 그래 3불상입니다.

낙산사는 원통보존이고 그건 관음보살상입니다. 원통보살상(圓通菩薩像)이지요. 그래 원통보전(圓通寶殿)이라는 것은 관음보살이다, 관음보살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고, 극락보존의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라, 그렇게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8>

33) 신흥사 유래②

신흥사는 처음에는 향성사입니다.신라 선덕왕때지요. 자장율사가 저 양양 상원이란 데가 있습니다. 상원이라는 데는 역 중에서 우두머리인 찰방이 주재하던 곳입니다. 그러니 상원리에서 이 부근 고성, 양양을 관장했지요. 자장율사가 그 상원리에 와 보니까 지금 신흥사 있는 쪽에서 서운(瑞雲)이 서기(瑞氣)가 비치더랍니다. 그래서 “야, 저기가 부처님이 계시만한 곳이구나.” 그래서 모든 들레가 향기로 싸여 있다고 해서 뭔가 반드시 서기가 어렸으니 부처님이 계시 만한 곳이구나. 그래서 모든 들레가 향기로 싸여 있다고 하여 중향사(衆香寺)라 하지요. 뭔가 계시만 한 곳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지금 뉴설악호텔 앞 그 자리에 절을 짓고 향성사라 했지요. 바로 거기에 3층탑이 남아 있지요. 그거가 향성사 처음 지었을 때 탑입니다. 탑인데 처음에는 그것이 5층이라 했는데 임진왜란 때 없어지고 지금 3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향성사라 이름 지었는데 화재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다시 짓게 되었는데 지금 내원암에 의상대사가 옮겨지었습니다. 그래 이름을 선정사(禪定寺), 선을 아주 중심해서 이루어진 절이라해서 그래 지었는데 거기서 다시 화제가 나니 터가 나빠서 이렇다 해가지구 정보 원년 인조22년(1644)에 영서 연옥 두선사 꿈에 신선에 나타나서 지금있는 신흥사 그 쪽에 절을 지으면 번창하고 잘될 것이다 해서, 그래서 지어서 신이 나타나서 절을 이룩했다 해서 신흥사라 이름을 지었답니다.

<교동, 박익훈(남·77) 1992. 4. 21>

34) 도문과 신흥사

도문옹기마을은 도문이란 데가 유래는 자장율사가 낙산사 의상대에서 쉬구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설악산쪽으로 들어오는데 길을 물었는데요, 그래 가지구 하도문(下道門) 입구에서 맨 먼저 길을 물었다 이거구, 이 사람이 올라오다가 중도문 상도문 이렇게 세 개로 되었어요. 그담에 요밑에가 장항리 노루 장(獐)자하고 목항(項)자 그건 그때 노루 속세의 말로 하면 노루의 목을 베고 거기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 정확치는 않고 그래서 노루목이라고, 이렇게 됐구, 자장율사가 쉬어 가지구 이제 여기 들어왔다. 들어와 가지구 여기다가 맨처음에 향성사라구 짓고, 그걸 지었는데 화재가 자꾸 발생해 가지구 어느날 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이 꼭대기를 더 올라가면 서북방쪽으로 더 가면 싸리나무가 큰 게 있으니 그 싸리나무가 있는데 절을 지으면 이제 좋다.”

그래서 꿈대로 절을 지었드니, 에, 아주 절이 번성하고 잘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신이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신이 꿈에 가르쳐 주어서 이제 지었다 해서 신흥사(神興寺)라구 했다 그래요.

<설악동 145-1, 정형민(남·60) 1992. 4. 5>

35) 도문 벼락바위와 처녀 효심

그러니까 고려때의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 파계승들이 상당히 많고 또 불교가 원체 그 당시에 세도가 있어 가지고 그 귀족들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 출가해서 승려로서 수도해서 뭐, 당기는(다니는)사람이 많았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마, 파계승도 많이 나왔고 인제 이랬는데, 그래 요것은 지금 현재 도문동 쓰음 위치가 됩니다. 도문동, 도문동에 위치가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전설의 줄거리는 벼락 바위의 전설이다 해 가지구선 지금 현재 중도문에서 저 양양군 강현면 상북리로 건너 간 다리 가에 지금도 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린 채 중간에 갈라져 입이 돌린 채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쌍천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문헌에서 얻은 바에 의하면 쌍천이 아니고 에, 쌍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쌍천이 아니고 대림천(待臨川), 기대릴 대, 임할 립자 그래 대림천이 그 원 본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는 앞으로는 그 대림천이라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르는 걸 보면 쌍천, 쌍천 하는데 그래 그 당시에 도문동에 그때는 도문동이라는 동명이 없고, 한 그 설악산 그 아래 산 옆의 한 마을이 되겠지요. 그 마을에 그 모 거사(牟

居士)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러니깐 그 성은 모씨인데 거사(居士)다. 자기가 거사다하는 이름인데 그래 이 사람이 거사다 하는 뜻은 자기가 그 출가를 해 가지고 머리를 깎고 수도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하나의 그 불교의 도를 터득했다, 이래가지고 그 상당히 자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칭 거사다 그래서,

“나는 모 거사다.”

하구선 아주 그 뽑내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인제 뭐가, 정식적인 수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 행세는 상당히 그 승려들이 하는 그 모든 일과 같이 행세를 하고, 살생을 금하고 그야말로 그 육식을 하지 않고 그 채식을 주로 해서 이렇게 그 생활을 했는데, 그래 열 한 대여섯 살 먹었는데, 딸 아이를 하나 다리고(데리고)살았더랍니다.

그래 인제 이 사람이 하는 소일을 매일 그 대림천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 놓고 고기를 낚았다고 낚은 고기는 도로 물에다 여어(넣어)주고 또 낚시를 드러 놔다 낚이면 도로 또 그 놈을 여어 주고 예, 그래 앉아서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는 그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은 따라서 아버지 옆에서 시중을 드는 거지요. 예, 여러 가지 심부름도 잔심부름도 해 주고 그래는데, 그 하루는 예, 이 모 거사가 낚시를 던져 놔 놓고 잠이 들었어요.

막 자우는데(조는데)그 딸이 보니까, 그 고기가 낚시대를 물어서 막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니까 아버지를 깨웠어요. 그래 인제 이놈을 떠억 잡아 갖고 놔 주고 이런 장난을 하는데 한 승려가 왔다는 거지요. 왔는데, 이 사람도 그 들어올 적에, 마을에 들어올 적에 그 모 거사가 사는데 딸이 하나 함께 살고 있다 하는 이 얘기는 듣고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과계승인데, 장난을 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와서 인제 모 거사를 보고,

“내가 인제 길이 저물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댁에서 하룻밤을 쉬어서 갈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편리를 봐주겠느냐?”

그러니까 모 거사가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들은 체 만 체 하고, 낚시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니 이 승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화가 버쩍 나거든요.

아, 꽤 씩한 생각도 들고 말이야.

“아, 아무리 내가 들을때 거사라는 말을 들었지만 너가 거만할 수가 있냐?”

하고는 그 인제 일거 일동을 살피고 있는데 끝내 그 뭐, 말 한 마디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승려도 꽤 씩해 가지고 버티고 서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해가 커무르 할 무렵에 낚시를 거둬 갖고 인제 들어 가더란 말이야. 그래 이 사람도 무조건 따라 들어간거야. 집에 떠억 가서, 무조건 따라 들어가니까, 그래도 거사는 뭐, 왜 오느냐 뭐, 가라든가 이런 얘기도 한 마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 인제 따라 가서 방에 떠억 앉아 있으니까 그 처녀가 저녁상을 가져 왔는데 보니까 예, 이 산나물에다가 감자를 넣고 죽을 쑤었어요. 그래서 그 죽 두 그릇을 가지고 저녁상이다 하고 들어 왔는데, 그래 인제 그 상이 들어 오자마자 모 거사는 그 말도 없이 그 뭐, 죽 먹는데 정신이 없어서 옆 사람한테 먹어 보라는 말 한 마디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 이 중이 갈수록 꽤 씩하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가 있느냐, 이놈을 갖다가 어떻게 꿀탕을 좀 맥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놈을 갖다가 꿀탕을 맥어서 복수를 하겠는가?”

허구선 그 꼼꼼히 생각해 본 결과에 한 가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중이 하는 말이,

“거사.”

하고 불렀단 말이야. 거사가 눈을 지긋이 감고 앉았다가서는,

“왜 그러는가?”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떠돌이 중이외다. 그런데 내가 여계까지 온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무슨 목적이 있어 왔느냐?”

“내가 사실은 부처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이야 씨를 갖고 있던 말야 씨앗.

“갖고 있는데 예, 나에게 그 밭을 하나 시주하십시오.”

그런단 얘기가, 그래니까 모 거사가 생각해 보니 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나는 밭이라고 해 봐야, 그저 감자 조금 붙여 먹을 밭 한 뼘밖에 없다.”

말이야, 그래니 그걸 갖고 시주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에이.”

중이 하는 말이,

“에이, 그게 아니라, 훌륭한 밭이 있다.”

“그래 무슨 소리냐? 내한테 그 밭이 없다. 무슨 훌륭한 밭이 있냐?”

고 하니.

“아, 밭이 있지 않느냐?”

아, 이 모 거사가 듣고 생각하니 아주 껄뽀하단 말야. 그래,

“그럼 너, 파계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중이 하는 얘기가,

“파계라니요, 당치도 않은 소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서 이 보따리 안에서 슬글슬글 하더니 이 상자를 하나 꺼내거든요. 그래 상자를 탁 꺼내더니 상자를 펼쳐 놓고는,

“보시다시피 여계는 은금 보화가 한 상자 가득 들었습니다.”

이 말이야.

“이 보화는 내가 부처 씨를 그 밭에다 심어서, 거계서 얻은 이 종자를 얻어서 큰 절을 지어서 말이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서, 내 이 재산을 가지고 방방곡곡 찾아다니는 도중에 여계를 계시받고 왔다. 그래니까 집의 딸을 내한테 시주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 기가 막히니,

“거 쓸데 없는 소릴 하지 말라.”

고 말이야 그래니까.

“그럼 좋습니다. 나하고 하나의 약속을 하자 이 말이야. 만약에 내가 여계서 밭을 못 얻으면 이 보화도 필요 없소. 그러니 이 내한테는 무용지물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조건을 하나 걸자.

내가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100장 이내에다가 이 집을 숨겨 놓을 테니, 내 숨겨 놓고 가서 100일 후에 다시 돌아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사가 거, 지금까지 도를 닦았으니 그 선도를 가지고서 이 보화상자를 찾게 되면, 나는 거사의 도에 눌리고 지는 사람

이니까, 이 보화고 뭐이고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중간에 거사가 이 보화상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필히 그 딸을 내한테 시주해야겠습니다.”

거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마장, 100마장이라 하면 발을 일궈도 일궈 줄 것 같거든요. 그래,

“좋다”

꽤히 승락을 했어요. 그래니 인제 그 중이 상자를 숨겨 놓고 갔단 말이죠. 그래 그날부터 낚시질이고 뭐이고 인제 다 집어 치우고, 인제 그 보화 상자를 찾기 위해서 땅을 인제 뒤지는 거예요. 아, 99일이 다 되었는데도 보화상자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내가 경솔했구나. 아, 그야말로 이게 내가 아니할 응락을 해 가지고 딸을 저 중놈한테 뺏기고 마는구나.”

아, 억울하기 짝이 없거든, 그래서 인제 또 한가지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도를 닦았는데 이 내 도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도냐.”

인제 여기서, 상당히 자기 혼자서 인제 한탄을 하는 거지요. 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도저히 인제 99일 동안 찾기도 못 찾은 것을 하루 더 찾는대도 찾을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완전히 인제 포기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딸보고,

“내가 경솔했다. 그래니 내 도가 너무나 보잘 것 없는 도고 하니까 내가 앞으로 내 도를 더 훌륭하니 닦아 와야 되겠다.”

하면서 아, 딸 혼자를 두고서는 자기는 설악산쪽으로 도를 닦으러 들어갔단 얘깁니다. 그래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딸이 말이지 그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 자리서 붙들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인제 그때부터 기도를 한다는 얘가지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날 참, 상당히 일기가 좋지 않애 가지고 비바람이 치고 막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아주 사나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딸이 그러한 날이 굿고 그 비바람이 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가는데 너무나 서운해서, 앉아서 손 합장을 하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비가 비바람이 쳐서 말이지 그 뼈속까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냉기를 느끼면서도 그대로 앉아서 참,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 뇌리에 뭔가 번쩍 스쳐 나가는 것이 그 즈이 아버지가 앉아서 거 매일 낚시 하던 바위, 그 바위가 뇌리에 스쳐 나가는 순간에 말이지, ‘쿵’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락이 쳤는데, 그 바위가 깜짝 놀래서 짹 갈라져 입을 벌렸는데 보니까 말이지, 그 밑에 그 안에 보화상자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인제 그 보화상자를 찾으니까 이 중은 말이지, 파계승은 그 멀리도 안 가고 그 인근에서 거동을 살펴 보는 거야. 그래

니까 한 방 때려서 벌어진니까 그 들통이 났단 말이죠. 그래니 그 증은 나타나지도 안했고, 그래 인제 그 보화상자를 찾았으니까 증은 아무 그 나타날 그개 없단 말이지, 나타나봐야 헛거니까. 그 질로 그 자기는 파계승은 갈 데로 가 버리고, 그 담에 그 딸은 그 아버지를 찾아서 설악산에 들어 갔는데, 후세에서 말하기를 그 효녀, 효심에 의해 가지고 그 딸의 효심에 의해서 그 벼락 바위를, 벼락을 쳐서 말이야 그 파계승의 장난을 모면하게 됐다, 그래서 그 바위를 지금도 벼락바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그 바위의 둘레가 상당히 큼니다. 한 높이가 한 6m정도 되고 둘레를 따져 보면 거의 60m나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큰 바위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 가운데가 딱 벌어진 거지고 버티고 있는데 보면 그 옛날의 전설을 뒷받침하는 걸로 봐 주지요.

<금호동 13통2반, 김봉춘(남·54) 1981. 4. 27>

36) 옹기점마을과 천주교

옹기점마을은 상·중·하도문이 있었는데 상도문 2구지요. 거기가 하도문이 하나고, 중도문은 1리, 그리 이렇게 되었고 상도문도 1리, 2리 이렇게 되었지요. 2리인데 대원군 시대에 천주교를 박해할 때 천주교 신자들은 실향민과 같이 피신을 땡기다 보니까 일정한 농토가 없고 옛날에는 농지를 가지구 있는 사람이 부자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논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가난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피신을 해서 살아야 하니까 살 길이 없으니 진흙을 파서 점토흙 그걸 파가지구 옹기를 빚어서 농촌에 가지구 땡기면서 곡식과 바꿔서 먹었지요.

우리 할아버지는 충청도 충주에서 오셨는데 명주 연곡 행정리에서 부락이름은 자세 치 않지만 쪼그만 부락에서 피신을 해서 고조할아버지가 사시다가 증조할아버지를 낳고 고담에 이쪽으로 도문으로 오셨지요. 도문 들어온 연대는 150년전에 들어 왔지요. 그 당시는 도문에 천주교 신자로 양씨네가 있었지요. 양씨권씨의 아버지쯤 되요. 천주교 신자끼리 연계가 되서 왔어요. 충청도 쪽에서부터 쫓겨 땡기다 보니까 그쪽도 천주교 신자가 많은데 옹기마을에 가면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들 한테서 배워서 내내 그걸 했어요. 옹기 만드는 건 각자 집에서 만들지만 굽는 것, 가마 만드는 건 공동작업이지요. 서로 이집에서 열 개 만들었다 하면 순서대로 구워주구 품아서 하는 식으로 했지요. 그런데 옹기하는 사람들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천민으로 취급해서 가난하다보니까 이걸 만들어 갖고 팔과 하나하나 바꾸는데도 사정사정해서 그 집에서 피치못해 바꾸어 주고 했지요.

정부에서 박해를 하니까 어디가서 마음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 참 보면 기술이 좋았는데 그 양반들이 경제관계가 안되니까 그담에는 얼른 만들어서 바꾸어

야 하니까 절그릇 같은 거, 뚜가리 같은 것을 만드는 게 많았지요. 진흙은 하도문가서 파오고 남의 눈에 가서 파오고, 왜냐면 그 동네로 볼때 농토도 적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되니까, 내 땅이 없구 하니까 거기서 살게 되었지요.

강원도 영동지구로서는 제일 먼저 천주교회가 도문동에 정착했어요. 신자들이 정착한 것이 150년 가까이 되었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차차 모이니까 부락이 형성되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지어 맨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기도 드리다가 차츰 숫자가 많아지니까 성당을 지었지요. 그러다가 당시 양양군 속초읍 상도문리가 양양군이 커지고 천주교 박해가 없어지니까 양양으로 옮겨나가구 도문있는 건 강당으로 옮겨 나가구 도문있는 건 강당으로 변했지요. 내가 아는 건, 옛날에는 신부님이 귀했어. 그 당시에는 이 신부님이에요.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이지요. 도문에 이 양반 전에도 신부님이 계셨지요. 근데 이분은 6·25때 돌아가셨어요. 도문 이 부락은 몽땅 천주교 신자로 30가구가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다른 데 가서 살데가 없었으니 협동해서 살다보니 웅기점마을이 된겁니다. 완전히 공동체 생활을 해서 협동정신이 투철했지요. 천주교회가 도문에서 양양으로 나갔다가 6·25가 나니까 이광재 신부님이 성당을 지키고 피난을 가지 않아 공산당에 납치되어서 돌아가셨어요. 도문이 영동지구 원산까지가 중심지가 되었지요.

<설악동 145-1, 정형민(남·60) 1992. 4. 5>

2. 민담

1) 집안에서 나는 세가지 소리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예,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긴데 집안에는 세가지 소리가 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번째는 애우는 소리가 나야 하고, 두번째는 글 읽는 소리가 나고 세번째는 베짜는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가 하면 애우는 소리는 집안에 자손들이 흥하게 되서, 예 잘된 다는 얘기고, 그 답에 글읽는 소리는 자손들이 글읽는 학문을 연구해서 출세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답에 베짜는 소리는 경제를 튼튼하게 맨다는 그런 뜻에서 세 가지 소리가 집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는 한가지 더 첨가해서 비오는 소리가 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문, 농사가 잘 될려면은 비가 마침 잘 와서 그래야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서 현대에 와서는 네 가지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는 뜻입니다.

<동명동 14통2반, 김용구(남·68) 1992. 3. 27>

2) 고려장과 부모마음

우리가 옛날부터 고려장 고려장 하지 않습니까? ‘인간칠십고래회’라고 해서 고려장 했는데 옛날부터 고려장 할때는 부모님이 칠십만 되면 병이 없어도 산에 갔다가 생매장했다는 뜻인데 예,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선 짚은(짚은)산중에다 갔다 파문을라고 지고 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엔 토끼길만한 그런 질(길)인데 그래 첩첩산중에 고려장 할라고 지게다 어머니를 지구선 갖는데, 어머니가 가면서 지게 꼭대기서 낭구까치(나무가지)를 대구(자꾸) 꺾구선 가더란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 이상하다 하구선 그 담에 물을 장소에 가서 어머니를 벌쿠 놓구선,

“왜 그렇게 했습니까?”그러니까나,

“나는 이왕 죽는데 니가 지금 걸어온 길을 니가 집에 찾아 갈라면 못 찾아 갈까다. 그러니 내가 낭구까치 꺾은 고깃만 찾아가면 집에 갈터이니까 그래서 니가 집에 못찾아 갈까봐 짚을 찾으라고 낭구까치를 꺾구서 왔다.”

그거 한가지로 부모는 당장 땅속에 자식이 묻을라구 가는데도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애처러워서 집에 잘 돌아가라고 일일이 낭구까치를 꺾어서 방향을 제시해 줬다는 얘깁니다.

<동명동 14통2반, 김용구(남·68) 1992. 3. 27>

3) 섯조골 김부자의 구렁이

거게 그 섯조골(영랑동)에 옛날에 그 김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데, 예, 그 사람이 그 상당한 돈이 많았어요. 그 돈을 옛날에 그 어떻게 계산할 도리가 없어서 그 사람 돈을 보관하는 방법은 저 시골에 가면 노죽가리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통나무를 이래 둥그렇게 마당에 놓고 그안에다가 옛날에 그 엽전이겠지요 그걸 차곡 차곡 쌓아 놓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 그런 참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거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부가 된 동기는 옛날에 그 업이라 그러지요 그 구렁이, 그래서 그 업 그 하나로 살았다 그래서 그 김부자야 구렁이에 얽힌 전설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나오는데.

그럼 그 업 그 항상 그 김부자가 거상을 했는데 장사를 나갈 때마다 꼭 따라 나간답니다. 그 업이가 꼭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해 주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저 김부자가 장사 나갈라고 물건을 잔뜩 싣고서는 배를 탈라고 하는데 그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잘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제 물건은 잔뜩 실어 놔고, 바람은 불고, 나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인제 며칠간 머무는 동안에 원체 바람이 세게 부니까 나중에는 뭐 아, 배가 닻줄이 끊어져 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도 없고, 그 배가 파손되고 인제 뭐 살림은 그로서 끝날 위기에 그 도산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 닻줄이 끊어지면서 그게 한 가닥 두 가닥 커져 나가는 과정인데, 그래도 바람은 계속해서 강풍이 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젠 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는 데서 아주 포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이 닻줄이 끊어지지 않고 닻줄이 분명히 터졌을 텐데 끊어져 나가지 않고 그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 참, 기이한 사실이다.”

그러나 뭐 바람이 원체 부니까 가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다 바람이 잦단 얘기가.

자서 인제 떡 보니까 그 같이 다니던 업이가 말입니다. 그 뚝대에다가 몸을 감고 그 밧줄에다가 끈지를 달아 가지고 버틴단 말입니다. 그래니까 이 줄은 끊어졌지요, 끊어졌는데, 그 업이 버티고 있는 그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배가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고 그 바람이 잦다 얘깁니다. 그래서 그 업이 힘을 다 쏟고서는 그 위기를 모면해 주고 업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김부자도 실은 그 장사를 나가다가 풍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업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그 살림이 파산이 돼 가지고서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그 가족들까지도 거처서 못 살고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었다는데 그 집이 그 당시에 그 얼마나 그 호화스럽게 살았는지 옛날 그 집을 뜯어다가 다른 데다 옮겨서 보통 집을 세 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뜯어 보니까 그 선반에다 옷칠을 하고 살았다고 하니까, 요즘 뭐 자개 놓고 호마이가 올린 것 보담도 그 당시에 옷칠을 하면 화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화려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 업의 영향으로서 큰 부자로서 살았는데 업이 죽는 바람에 그 재산도 파산됐다, 그래서 거 지금도 그 구렁이와 김부자에 얽힌 얘기가 전하는데, 우리가 들어볼 때는 상당히 막연한 얘기고 한테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금호동 13통2반, 김봉춘(남·54) 1981. 4. 27>

4) 설악산 다부골 청년

젊은 사람이 하나가 매일 어려서부터 죽만 먹고 그러니까 밥 먹은 거하고 죽 먹은 거하고 기운이 들(덜)날기 아깝니까.

배만 부르고 이래 인제 금방 또 소화가 잘 되고 이러니까 금방 또 배가 꺼지고 이러

니까 그래서 그 다부골에 사는 청년이,

“야, 이렇게 죽만 먹고 살면 뭐 하느냐 남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에이, 아주 높은 산꼭대기 올라 가서 어낭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 떨어져서 투신자살해서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낭이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말입니다. 올라가서 죽을라고 인제 그 어낭을 향해서 내려 쫓아질라고 그러니까 뭐이 뒤에서 큰 힘으로 잡아 낙꾸는 기 있더라 이기래요. 그래서 뒤 돌아 보니까 아주 희안한 장부가 목덜미를 툅 잡고,

“젊은 사람이 왜 여기 낭떠러지서 떨어져 죽을라고 그러느냐?”

그래,

“내 죽 먹기 싫어서 죽을라고 그러다.”

그러니까,

“니 타고난 팔자에 죽 삼만 그릇만 먹으면 그 다음에 아주 잘 사는데 고매를 못 참아서 순간적으로 죽을라고 그러느냐? 죽 삼만 그릇을 먹는 고매에 만나자(만나자).”

그래고 고만 헤졌어요(그만 헤이졌어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기분에 약간 돌리기만 하면은 되루(도로)사니까 그래 이제 와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이제 죽을 삼만 그릇을 먹으면은,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고 다음에 인제 마침 죽을라고 그러던 때 목덜미 잡아 주던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니가 부자가 될라고 그러면은 산신령 있는데 가서 치성을 백일 동안 디려라(드려라). 매일 한 번씩 치성디려라(치성드려라) 갈 때 마등(마다) 소대가리(소머리)하나씩 가지고 올라 가서 치성을 디려라.”

근데 이제 그 미천이라는 것이 죽 먹으면서 한 손가락씩 저축해 둔기 있었는데 그걸 파(모아) 가지고 팔아 보니까 삼십 냥이 되드라 이기래요. 그래서 인제 시장에 가서 소대가리하고 이제 제수 뭐 산신제 지내는데 제물 준비 하느라고 삼십냥을 가주 가서 준비해 가지고 가주 와서 산신령 있는데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퇴물을 먹지 않고 그냥 가주 와 가지고 시장에 가서 되 팔아 가지고 또 쪼끔 더 보태 가주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또 산신제 지내고 구십 구 그러니까 아흔 아홉 번을 끝냈는데, 그 다음에 인제 백 번째 가서 소를 바꾸려고 하니가 소대가리 파는데 가기만 하면은 아주 외뿔이 달랜 귀신 두 뿔이 달랜 귀신, 아주 뭐 이런 귀신들이 지키고 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드라 이기예요. 그러니까 고깃간에 가서 고기는 사지 못하겠고 요번 한 번만 가면 다 하겠는데 그런 귀신들이 자꾸 지키면서 못 들어 가게 하니가 방법이 없어서,

“에라, 할 수 없다. 그냥 산신님 있는데 가서 돈 삼십 냥 갖다 놓고, 당신이 소를 뭐,

대가리 어떠 구해 가지고 잡숫던지 그러구 나는 돈 삼십 냥 갖다 놓고 기도디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산신기도 드리느라고 백번째는 돈 삼십 냥 갖드거 놓고 산신 앞에 갖다 놓고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절을 하고,

“잘 살게 해 달라.”

그래 인제 치성을 드렸더니까, 조금 있더니까 치성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 산돼지가 하나가 나타나더라 이기래요 아, 멧돼지가 그래서,

“저놈어 멧돼지를 잡아 가지구 인제 산신 제사 지내도 되겠다.”

그래서 멧돼지를 잡으라고 쫓아가는데 멧돼지가 아주 높은 산꼭대기 올라가고 자기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데 올라갔는데 그 산돼지가 얘기했는지 어데 산신이 얘기했는지 몰러도

“니가(내가)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 주는 건 좋은데 아흔 아홉 마리 그 고기를 자꾸 사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었다. 어, 그러니까 마지막 백 번째 돈 갖다 주고 치성드리는 거는 그 돈 삼십 냥 가주고 너 보더 더 가난한 사람있는데 내가 갖다 줬으니까 그 정성이 가륙하다. 그러니까 너 어땡든 간에 기도를 지성으로 들이고 백일을 채웠으니까, 이 멧돼지 따라서 니가 가면 아주 잘 사는 동네로 인도해 줄 까다.

그래서 고 다음에는 멧돼지 죽일 생각도 안하고 멧돼지 가는대로 따라서 몇 날 몇 일 이룩 따라서 멧돼지 따라서 갔다 이겁니다. 그래더니가 어떤 오막살이집 몇 채 있는 동네루(동네로) 딱 들어 갔는데 그 멧돼지 따라 다니느라고 잘사는 동네 가르쳐 준다고 그래 배 줄은 창지(창자)를 가지구 그 동네 앞에 가서 쓰러졌어요. 그러자 이제 그,

물동이 이고 나오든 처녀가 거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 거 보고 그래 집에 어른들 있는데 얘기해 그 집으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래 그 집에 들어가 간호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별루 그렇게 배 굶는 동네두 아니구 잘 사는 동네라 이기래요.

집은 비록 뭐 오막살이 집을 쓰고 있지만 잘 살더라 그래 그 집에서 이제 그렇잖아도 노동력이 없어 가지구 그 사람보고 또 어데루 갈데도 없구 이래,

“여기가 어데냐?”

이러니까,

“설악산 다부골이다.”

이래요. 그래서 설악산 다부골에서 데릴사위 비젯(비슷)하게, 그래 가지구 거게서 죽 삼만 그릇을 먹고 그래 고 다음 이밥만 먹게 됐다, 이런 전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데, 그래서 인제 죽 먹으면 말이죠.

“아이 죽먹기 싫다.”
 어려서 그러면 말이죠,
 “야, 이놈아. 니(너) 이 다음에 커서 다부골에 가 가주고 이쁜색시 얻고 살지 누가 아
 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앙동, 홍덕유(남·54) 1981. 4. 27>

5) 식충이 장사(壯士)

그전에 어느 가정에서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그래 두 내외 사는데 임신을 해 가지고
 인제 태아가 하나 들어 가지고 낳았는데 보니 이 아기가 즈 아버지 어머니는 약질(弱
 質)인데 아주 튼튼하게 그냥 눈이 튀 정말 뚱그란게 무슨 큰 저 후렛쉬 모냥 이렇게 생
 겨 가지고 대갈통이 크다략게 아주 이렇게 생겨 가지고 몸뚱이가 아주. 아들이, 다리깡
 이 뭐 아주 튼튼하게 생겼거든, 두 내외 하는 얘기가

“아하, 저게 아주 우리 집안에 장사가 나는 모양이다.”

장사가 나니까 조거(저것)를 인제 아주 잘 멕여서(먹여서) 그 참 한 번 성공을 시켜
 가지고 기대를 걸어 본다고, 그래 밥을 먹기 시작해 젓도 모자라서 젓 반, 밥 반, 이렇게
 먹고 젓도 많이 나오는데 모자라 가지고 그래 야중에(나중에)밥을 먹기 시작하네. 밥을
 처음에 으른(어른)밥 먹더니 점점 커 가며 점점 먹기 시작해서 야중(나중)엔 한되, 두
 되로 한 되 해 지(자기)가 먹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먹더니 나이가 한 여덟 살 쯤
 음 되니까 반 말, 반 말을 해 먹고 그래 열 댓 살, 이십 살 가까이 되니까 안되미 꼭 한
 말을 해야 지가 먹는 단 말야. 안되미 고거(그것)한 말이라면 다라로 하나야, 밥이 그래
 그 다라로 하나를 먹어야지, 반찬도 이런 큰 그릇에다 한 개씩 해서 전부 싹싹 돌이 하
 는 거야. 아주 그냥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안되미래는 건 고봉 한 말을 갖다 안되미라
 고 하지. 소복하게 지금은 깎아서 주지만 그전엔 아주 소복하게 담아서 안되미 한 말이
 라고 아주, 안되미 한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인제 그러니 고봉 안되미 한 말을 먹으니 하루 밥 세 끼 먹으면 하루 스 말(세
 말)인데 그 내외 것 해서 아마 스 말 닷 되는 먹어야 된단 말이야. 스 말 스 되 내지 닷
 되를 먹어야 되니 그러니 빈곤한 가정에서 자꾸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데 애가 스무 살
 이 넘어서 되니, 눈깔이 자동차 헤드라이트 모냥 같고, 아주 기골이 장대해 가지고 콧날
 이 넓다 선 게 심(힘)은 하나도 없고. 기운은 하나도 없는 게 그기 잘 하는 것은 뭐가
 하면 소리 한 번, 입이 크니까 원래 목청이 굵어 가지고 소리 한 번 질르면 골(谷)이 아
 주 쨍쨍 울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는 잘 친다 그거여.

그래 소리 한 가지 밖에 치는 것 그 이상 더 없는데 그러니 자꾸 그렇게 먹으니 조 아버지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 영감님이 인제 돌아 가시고 지가 혼자서 천상 있는 거는 논마지기 있는 것 다 해서 팔아서 쌀 사다 먹고 집까지 팔아 먹고 나중에 인제 오도 가도 없이 갈 데 없이 홀몸이 되어 버렸네. 그래니 인제 부락에서 밥 많이 먹는데 얻어 먹을 수도 없고

“에라, 어디 떠나자.”

어딘가는 정처 없이 개나리 붓짐을 싸 짚어 지고 바람 부는 데로, 물결치는 데로 떠나가는데, 어딘가는 가니 그 구리당(고래당, 고래등)같은 기와집 그 기와집들이 한 100여호 되는 아주 그 부자집을, 부자집 동네를 들어 가게 되는데 아주 삼태 한 모양으로 동그랗게 둘러 싸인 산이 둘러 싸이고 오복한 데 요렇게 아담하게 모여 있는 부락인데 삼태라는 건 이렇게 동그란 걸 얘기 하는데 한 쪽이 지울고(기울고) 한 쪽이 동그란 걸 말하는데 그래 그 부락에 떠억 들어 가니 그 위에 산으로는 사람이 하얗게 기어 올라가며 ‘여’소리를 지르며 기어 올라 가는 걸 많이 보고 그리구선 그 중에서 꼭대기 제일 큰 집을 찾아 가면 큰 집은 제일 부자고 그 부락에서 대감집이 틀림 없다. 그러니 대감집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 그 집에 가서,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니 그 집에서는 그 집의 대감이 이렇게 내다 보니 모습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눈이 햇드라이트 모양 생겼겠다 아주 깡뚫동같이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그러니깐 아주 장사가 온 줄 알고 천하 장사가 온 줄 알고

“네, 지가 대감입니다.”

맨발로 마루를 나오면서 얘기하거든. 그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시장끼가 있어 그래 찾아 들어 왔습니다.”

“아이고 이리 들어 오십시오.”

그래 방에 모셔 가지고 인제 대감이 들여 모셔 가지고 사람을,

“그대 대관절 산에는 왜 사람이 저렇게 기어 올랐소?”

“네, 그러잖아도 지금으로부터 몇 백년쯤 묵은 호랭이가 대낮에 와서 이 부락에 사람 하나씩 잡아다가 먹습니다. 그래 인제 매일 한 명씩 잡아다 먹는데 오늘 역시도 그래 가지고 그래 각지에서 인제 명포수들을 주문을 하다가 저 몰잇군이 올시다.”

“아, 그러시오?”

그런 얘기를 주고 받는데 대감이 있다 하는 말이 ‘여봐라’하니까 그 몸종이,

“네.”

“그 밥 한 상 와라.”

“네.”

하고 간단 말이야. 이 식충이가 있다가

“저는 밥을 안되미 고봉 쌀 한 말을 내가 한 끼에 다 먹는 사람ियो.”

그러니까 대감이 다시,

“여봐라.”

하고 부르니,

“네.”

하고 몸종이 와요.

“그 쌀 안되미 한 말 퍼다가 밥 한 상 해 와라.”

“네.”

하고, 그래 가 가지고 안대미 고봉 한 말을 해다가 밥 한 상 하고 큰 다라로 하나지, 안대미 고봉 한 말이면.

거기다 인제 또 바가지가 입에 다 들어가. 이게 순갈 떠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걱이 인제 순갈이고 바가지가 그래 인제 국 한 뎅이(동이), 밥 한 다라, 그 안에 딸리는 반찬 많은 것, 이렇게 한꺼번에 청소하듯이 배고프고 시장하던 찰나에 다 먹고 그리구선 인제, 저는 대감이 생각하기에는 장사로 생각했는데, 지가 힘은 하나도 없는데 밥 만 많이 먹는 식충이 새끼네. 그러니 지가 한 번 덩치 값을 할라고 우쭐해 불려고,

“대감, 여보시오.”

“네.”

그러잖아,

“저, 호랭이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지요, 여봐라!”

하니까, 몸종이,

“이분 저 호랭이 목 좀 가르쳐 드려라.”

“네, 저를 따라 오시지요.”

“채를 따라 가십시오.”

대감이 인제 따라 보냈거든, 따라 보내고 인제 얼마침 이 몸종이라는 사람이 산 비탈을 올라 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첩파속을 그냥 헤치면서 그냥 그 높은 봉우리를, 아직 뭐 점심때니 해는 많지, 그냥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를 쓰고 따라 올라가서 그 식충이가 따라 올라가서 보니 큰 산에, 큰 영에 올라가서 보니 하도 무서워서 사람들이 안가서 솔대는 아주 왕성하고 그냥 송림이 울창한데, 딱 요렇게 잘뜨목이라. 이렇게 생겨 양쪽 봉우리가 아주 이렇게 있고 아주 잘뜨목이 있는데,

“여기가, 저게 저 대호(大虎)목입니다.”

밑에서는 ‘우우’몰려 오느라고 야단인데 그래 인제 고길 가르쳐 주니 고기 풀이 그렇게 왕성하니까 이렇게 섰다가 인제 옆에 이래 보니 대호목이라고 질이 아주 반질 반질 해 호랭이가, 몇 백년 묵은 대호가 황소만한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인제 그리고 내려 갔어, 몸종은 그러니 앉았다가 풀썩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 가 지고, 풀에 팍 파묻히지, 암만 커도 풀이 이렇게 왕성하니깐, 그 가만 들으니까 가까이 오는지 호랭이 올라 오는 소리가 나는데,

“흥 흥 흥.”

그러면서 소리가 나거든. 그래 나중에 곁에 와서 뽕뽕 하니까 깜짝 놀랬어. 아주, 깜짝 놀래서 식충이가 까물어치느라고 드러 누울 때 가만히 드러 누워 까무리치면 좋은데, 이게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냅다,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까무리쳤단 말이야. 그래 인제 밑에 사람들은 인제 그 대감은,

“저놈의 새끼 인제 저거 돼지느라고(죽느라고)저 소리 냈어. 에이, 부락에 저 따위 새끼들 들어 오면 귀찮아서 저거 잘 돼졌어.”

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쯤 이 사람이 까무리쳤다가 나중에 일어나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호랭이가 넘어와서 정신을 잃고 까무리쳤었구나. 그 호랭이가 갔겠는데 어디 넘겨다 보자.”

가서 넘겨다 보니 이게 능선이 칼등같은 좁은 능선인데 그래 거기서 인제 호랭이가 올라 오면서 어흥, 하니까 별안간 그냥 깎짓동 같은 게 어디 풀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게 별안간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니 호랭이도 또 까무리치다시피 놀래 가지고 말야 그냥 공중으로 칼등같은 능선으로 넘겨 쳐서 내려 떨어뜨린다는 게 바로 가서 떨어지는 게 잘못 떨어져서 이 나무 새간 굶다란 나무 새간에 척 끼어 가지고 이 가는 허리가 끼어서 꼼짝을 못하고 거기 끼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으렁 으렁’하고 나무에 끼어져서 그리고 있으니까 그제서 아주 그냥 천지가 지 세상모양으로 천하장사 역할을 하고 지가 우쭐해 가지구서 내려 오는 거야.

대감님 집에 와서, 그전에는,

“대감님 계십니까?”

하고 주인을 찾았지만,

“여봐라, 거 아무도 없느냐?”

거 대감이 보니까 아, 저, 돼진(죽은)줄 알았는데 소리를 뽕뽕 지르고,

“아, 네, 네, 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응, 거, 몇 백년 묵었는지 모르겠다. 아주 여러 백년 묵었드라.”

그래 닥 훑여치니까 아주 어금이 벌어 가지고,

“그래, 죽이긴 뭐 하고, 그래 나무 새간에다 끼워 났으니 그 포수들하고 몰잇꾼들 10여명 데리고 올라가서 그 잡아 가지고 내려 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네.”

아, 대감이 오히려 종노릇을 하고 아주 굴복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 대감이 다시 명을 내려.

“여봐라. 거, 포수 5명하고 몰잇꾼 한 10명하고 데리고 올라 가서 이 장사님이 거, 붙잡아 가지고 나무 새간에다 끼워 놓고 오셨데, 그러니 잡아 가지고 내려 오도록 해라.”

“네.”

하고 말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니 이건 뭐, 정말 아니, 이건 정말 천재지변으로 이건 이렇게 되었지, 원 붙잡아서 저렇게 끼워서 저렇게 났다는 게 그래 정말 아주 어이가 없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만약에 그랬다면 천해(천하)장사라고, 그런 장사 건드렸다간 팔세를 아주 많이 받을 것 같으니, 아주 천해장사라고 그 사람들이 판정을 내렸지.

그 포수들, 그 사람들도. 그래 내려 와 가지고 잡아 와 가지고 내려 왔어. 그러니 대감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분 천해장삼니다. 그분은 뭐 천지조화를 막 그냥, 산을 막 그냥 주름을 누릴 수가 있고 아,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장사니까 절대 여기서 우리 부락에서 팔세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감이 있다 하는 말이,

“그 가족을 잘 벗겨(벗겨)가지고 그 호피하고 고기하고 가져다 팔아서 그 팔은 돈은 얼마가 되던지 간에 가져 오너라. 내가 보관하겠다. 어느땐가는 장사님이 가실 때 여비를 보태 주는 거다. 그러니 일전도 소비하지 말고 가져 와야.”

그래 가지고 전부 팔아 가지고 종들이 그 밑에는 전부 대기하자니 전부 종들이야. 대감이 이게 원 대감이고 그 밑에 사람들은 전부 종이야. 그래 그사람들이 가져 가서 어디 가서 팔아 가고 돈을 갖다가 그래 500냥 정도, 그래 500냥이면 지금 5,000만원정도 되지. 그런 돈이었어.

해 가지고 인제 갖다 주니까 보관하고 있고 그러니 하루에 안되미 고봉 쌀 한 말인데 한끼에 한 말씩 먹으니 하루 세끼 먹으니 스 말(세말)이니 그 열흘이면 얼마야? 세가마지, 그래 석달인가 먹었으니 90가마야나? 그러니 대감네도 식량이 딸리고 하니 대감

이 이 종들한테 회의를 해 가지구선.

“인젠 어쩔 수 없다. 우째됐든(어찌 되었든) 한 서 너 달 장사님이 파잡셨는데 우리 식량이 대롱 대롱한다.”

우리 먹을 것도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 회의를 열어 가지고 토막돌림, 1번, 2번 해가지구선 100번까지 번호수를 뵈여 가지고 처음에는, 오늘 저녁은 우리가 먹이구서 재운다. 재우면 내일은 1번이 데려다가 조반을 메기고 조반 점심, 저녁 뵈이고 재우면 그 이튿날은 2번이 데려다가 조반 뵈이고 점심 저녁 뵈이고 재우고 그제 ‘토막돌림’이라는 거야.

그래, 그래 가지구 100집을 먹으면 그것도 석 달 열흘이네, 석 달 열흘이지. 그래서 인제 그렇게 토막돌림으로다가 이렇게 장사를, 식충이를 먹이는 거야. 먹여 가지고 그래 석 달 열흘이 또 다 떨어지네, 다 떨어지니까네 결과적으로 그 대감네 집에 또 찾아오는 거지. 대감네 집에 찾아오니 자기도 염치가 없던지,

“대감 저는 가야 되겠소.”

“아휴, 장사님 가실래니까? 아휴, 왜 가세요?”

속으로는 ‘어서 갔으면, 이놈의 새끼야’했지만 겉으로야 어디 내막을 할 수 있습니까?

“아휴, 더 계시지, 묵으시지요. 몇 달 동안.”

“아니야, 가야 되겠다.”

“그럼, 가시겠습니까?”

“아, 가야지.”

“그러면 이거 몇 푼 변변치 못하나마 이 여비나 가져 가십시오.”

그 호랭이 판 돈을 인제 여비를 해서 쥐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역시 개나리 붓짐을 짚어지고 어디 만치 가는데, 가다 보니 또 그런 부락이 또 생기거든. 그 살 때가 되어서 그런 거지.

그래 거기 가서 그런 부락이 생겼으니, 나타나니까 한 100여호 되는 부락에 들어섰는데 그 중에서 제일 꼭대기 높은, 높고 큰 집을 찾아 가는 기라.

그 집이 물론 대감집이지. 그래 그 집이, 큰 집을 찾아가서,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니 대답이 없거든,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니 그 집의 여인이 이렇게 내다 보고,

“지나 가는 객인데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루 저녁 쉬어 갈라고 찾습니다.”

“아휴, 네, 들어 오십시오.”

하며 어여쁜 여인이 반색하거든. 그래 들어 왔어.

“내가 하루 저녁 쉬어 갈라고 찾아 왔습니다.”

근데 쉬어 가는 것은 좋은데 뵈(본)즉 천하장사거든, 천하장사니 맞아들였지. 장사 아니면 맞아 들이지도 않지, 그 여인은.

그래 인제 저녁을 해다 준다고 그래 그 안방으로 모셨어. 그 집은 또 여인 혼자밖에 없고 그래 인제 안방에다 모셔 놓고 나는 밥을 먹는게, 저녁을 해다 줄라 하니, 밥을 인제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느라고,

“난 안되미 고봉 쌀 한 말을 해야 한 끼 먹는 사람ियो.”

한다.

“아휴, 해다 드리지요.”

그래 바깥에 나가서 그냥 쌀을 한 말 퍼다가 큰 솥에다 해야지. 한 말이면 큰 솥에다 하는 거야. 해 가지고 거기다 인제 또 국을 가마솥에 한가마 끓여 가지고 해서 거, 뭐, 김치도 큰, 큰 그릇에다 이렇게 하나, 장도 하나씩 장도 잔뜩 잔뜩 놔 가지고선 아주 반찬만 큰 두리반(등근 상)이 찌그러져라 하게 이렇게 가져 오고 밥은 밥대로 가져 오고 국은 국대로 그냥 큰 동이에다 한 동이 퍼 오고 이래 갖다 주니까 앉아서 그걸 다 먹거든, 다 먹고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보아한 즉, 천해장사님 같에서 모셔 드렸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생김 생김만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게 생겼지.

“근데 우리 소원을 하나 들어주세요.”

“그래 소원은 인제 뭘 소원이냐고 얘기를 해 보라.”

그래,

“꼭 들어 주시겠냐?”고

“아니, 들어 주고 아니 들어 주고는 우선 얘기를 해 보시오. 들어 드릴만 하면 들어 드리고 정 불가능하다면 내가 못하는 거지. 우선 소원을 얘기해 보라.”

고 하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 밑에 100여호 되는 부락 사람들이 전부 우리 종놈들입니다. 그래 우리 대감님댁 식구 수저를 보세요. 수저통이 이렇게 큰데 여기 하나 가득 있어요. 이게 식구가 이렇게 많던 식구인데 이 종놈의 새끼들이 종노릇을 하기 싫어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하루 저녁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큰 아버지, 우리 아버지, 뭐 식구를 하루 저녁에 한 명씩 잡아가서 지금은 다 잡아 가고 오늘 저녁에 마져 잡아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그거를 안해준다고 할 수 없고 제 힘으로는 힘에 벅차지, 못하는 거지, 그래.
 그래 제 힘으로는 벅차지마는 그러나 덩치 값을 할라고 한 번 우쭐해 불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대감 있던 방과 그 시설이 다 있느냐?”하니,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언제쯤 와서 잡아가겠느냐.”
 “밤 열 두 시면 잡아간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피곤해서 가서 잘 테니 하여튼 촛불을 이 처매 밑으로 뺩들러 케(켜)놓고
 그리구는 대감 그 하루(화로)쓰는 데다. 화루불을 이글이글하게 담아 놓고 대감 피서던
 담배와 대감 장죽, 그것하고 갖다 놓고. 거게다가 저 테이블을 하나 놓은 것 갖다 놓고
 거게다 자부동(방석)을 하나 깔아 놓고 높이 이렇게 준비를 다 해 놓고, 내가 잘 테니
 12시에 오거든 11시경에 깨워라.”

그 여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이 식충이는 피곤하고, 밥을 잔뜩 먹고 하니까 둔너
 서(드러 누워서)자는 겐피나.

그래 어느 땐가는 깨우길래 일어나서 안내를 인제 여자가 해 주니까 대감방에 가니
 대감방에서 이렇게 내다 보면 쌍바라지 문에다 거게 대청마루가 있고 그 대청 마루 앞
 에는, 밑에는 큰 100명이 이렇게 집합할 수 있는 연병장 모양 큰 마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는 마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거게다 그 문, 쌍바라지
 문을 확 열어 놓고, 그 화릿불(화룻불)에다가 장죽, 장죽이 한 발이 넘어 저게 있는 화
 룻불에다 담배 피우고 그래 인제 책상위 높은 테이블에다 꼭대기다 자부동(방석)을 깔
 아 놓고 이게 워낙 덩치가 큰 게 참 그렇게 높으게 앉았으니까 뭐 천장에 닿을 듯하게
 참 거창하게 앉아 있는데. 그러니 그 얼마쯤 있으니까 동 동 동, 소리가 나드니만,

“하, 이놈의 집안 오늘중으로 마지막 가는 날, 집안이래 그래는지, 야 좋긴 좋다. 화려
 하다.”

그래 인제 안으로 들어 가는 소리가 나거든, 그래 안에서 소리가 나는게.

“이놈의 새끼들아, 천하 고약한 놈의 새끼들!”

여인이 인제 반응을 하느라고 그래겠지.

“이놈의 새끼들, 우리 오라버니가 오셨는데, 오라버니한테 물어보구선 잡아 가던지 해
 라. 이놈의 새끼들!”

하고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응, 느이 오라버니가 오셨어?”

“그 느 오라버니 어디 계시냐, 느이 오라버니 잡아가고, 내일 저녁에 너 잡아 가마. 그

게 잘 됐다.”

그래 와서 마당에 와서,

“어디 계시냐?”

“저 대감방에 거 계시다.”

그래 마당에 와서 대청마루에서 방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깐 아니 뭐가 산더미 같은 게 앉았는데. 저게 사람인가, 참 그럴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거든.

그래 눈깔이 이래 헤드라이트 모냥 꺾꺾꺾하는 게, 담배 장죽도 기단 것 갖고 벽벽 피우고 그러니 100명이 다 덤벼서 확 덤빈대도 저걸 당할, 당하지 못하겠고,

“저걸 어떻게 때려 잡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 한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가,

“아하, 저걸 잡는 수가 있다. 저걸 잡으려면 몇 백년 묵은 산호랭이 한웅큼으로 움켜 쥐어서 잡은 천애장사님이 계시대, 그래니깐 아무 소리 말고 우리 집에 말이 있어, 말이 있으니까, 또 어디 또 말이 있고, 그게 천리말이다 그거야. 그 천리를 하루 간다 그거지, 하루 가는데. 빨리 치면은 순식간에 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타고 가서 하나는 거기 가서 그 장사님을 모셔 오는데 그 말을 태워 가지고 이렇게 말 하나 끌고 가서 그 장사님을 모셔 오도록 해라.”

“그래, 하겠다.”

인제 그게 곁이 나서 밤에, 밤에 그냥 신속하게 가서 그 말을 타고서 하나 비상용으로 끌고서 그 부락을 들이 달려 들어 가니 그 뭐 자기가 순식간에 들어 가지, 천리말인데, 그래 뭐 예를 들어 40분만에, 불과 한시간만에 들어가든가 그랬지.

거기 들어가 보니, 벌써 열 두시가 넘어서 조용한데 그 부락에. 그러나 어느 어느 집의 어느 사랑방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나서 가서 거개가 내려 가지고 내려서 말을 인제 매 놓고 들어 가서,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고 찾으니 그 놀러 온 사람들이 인제 거개 많이 있으니,

“다름이 아니고 여기 저 산호랭이 잡은 천애장사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하니깐 그 부락에서 까부는 사람이 있었던지 간에,

“여보시오, 밤에 그 천애장사님은 왜 찾으시오?”

“아, 글세 돈은 얼마든지. 달래는 대로 드릴 테니까, 뭐든지 달래는 대로 드릴 테니까 어디 기시면(계시면)좀 아르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까부는 사람이 있던지 뚱뚱한 사람이,

“나요, 나.”

하고 나서거든, 그래 나타나니,

“장사님 그럼 이 말을 좀 타시지요. 우리 부락에 무슨일이 있어 그래는데, 뭐든지 돈 이든지 뭐든지, 달래는 대로 서슴치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인제 그 사람이 말을 탔어. 돈 욕심이 나서 말을 탔어. 말을 타고 도로 여기들이 달려 그 마당에서 대청마루가 그방을 들이다 보면,

“저기 저 놈이라.”

고 하니까, 딱 보니,

“아, 우리부락에서 산 호랭이 잡은 천애장사님이 오셨다.”

풍지가 빠져라고 도망쳐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100명은 100명의 종이 더군다나 그냥 아주 기절하다, 기절초풍할 정도로 그렇게 떨게 되는 거지.

그래니 그제서부터. 이놈이 인제 그 소리 이 소리 다 듣고 앉았거든. 그래서 인제 소리를 치는 거야.

“이 천애 고약한 놈들 내가 삼천리 밖에서 느, 행동을 나쁘게 한대서 느 버릇 좀 고치려고 내가 왔구나, 내가 왔는데 느 이놈의 새끼는, 느 내가 아주 손 하나 까딱 안하고 느 씨를 멸종시킬 수 있어.”

그래,

“고안 놈들.”

하고 소릴 지르니,

“아휴,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그 100여명은 그 마당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그냥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제발 살려 달라.”

그냥 전부 앉아서 엎드려서 빌고 비는데,

“내, 느가 그렇게 성의껏 빈다 하면 인정상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 너 요번 한 번은 내 용서를 해 주겠다. 그런데 용서에 약속이 있다. 약속은 여계서부터 몇 백리 안에는 침범을 하면 느는 침범하는 가족은 일절 멸살시키겠다. 그러니 그걸 느 명심해서 알고 내 용서를 해 줄 테니까 느이들 돌아 가거라.”

아주 뭐 죽은 듯이 사라지고 말았어. 그래서 깨끗하게 인제 그 일을 해결 봤어.

그러구선 날이 인제 밝아서 인제 또 인제 밥을 해 여인이 밥을 해 줘서 먹고, 그래니 대우가 참 특대우지. 특대우야. 특대우를 받게끔 되었어. 또 이 식충이가. 그러니까 대우를 받고, 있다가 보니 지가 사흘만에 전 가기 싫지마는 어디 한 번 그래 불라고.

“아이, 가겠다.”

고 하니까, 아, 여자가. 안 보내 줘, 보내면 인제 죽을 판인데. 그래 안 보내고 있으니 자꾸 대우하니 결과적으로 그 여자는 그 남자하고 같이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것은 매듭을 마치고….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8>

6) 장사가 되어 다시 찾은 부인

옛날 기적 깃날, 깃적 귀뚜라미(귀뚜라미)소실 적에, 아이 적에, 다윗적에, 띠꺼머리 총각 적에, 그 어느 디딜방앗간을 지나 가드니까 어여쁜 아가씨가 방앗간 안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깐 얼른 들어 가서 그 아가씨는 어떻게 이쁜지 똑 떨어진 제 체비 같구, 기어가는 핑 같구, 까치 뱃바닥 같구 구렁이(구렁이)아래 턱냉이 같어요. 아래 턱냉이 같은데, 그래서 들어 가서 손목을 꼭 잡았더니,

“이 새끼야, 너 왜 남의 손목을 잡아? 니가 엇저녁부터 내 손목을 잡고 바들 바들 떨더라. 나는 하늘이고 너는 땅이야.”

그리고 꼭 손을 붙잡고 그랬는데, 그 부락에는 한 가장이 살았는데 그 가장이, 그 가장은 그 옆 웅달집이고 이집은 웅달집이고 양지집 웅달집 양쪽에 부락들이 살았어요. 그래 양지쪽 사람하고 웅달쪽 사람하고 같은 친구고 또 그 친구의 아들들이 똑 같이 결혼을 했구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모여 앉아서,

“자네 아들이 아기를 낳으면 손자 아닌가?”

“손자지.”

“손자든 자네네가 딸을 낳고 우리가 우리가 아들을 낳고, 우리가 딸을 낳고 자네가 아들을 낳든가 우리 혼인을 하세.”

이래 가지구 그 구두(口頭)혼인을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 웅달집이어서 아들을 낳고 양지집이서는, 아니 바꾸어졌구나, 양지집이서 아들을 낳고 웅달집이서 딸을 낳구 그랬는데 딸은 얼굴이 참 돌아 오는 보름달 모양으로 얼굴이 둥스름하고 아들은 초생달(초생달)모양으로 반달 모양으로 얼굴이 됐어요, 얼굴이 반쪼가리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그러니 저 할아버지가 구두 결혼 언약을 헨 걸 애들은 모르고 서루 무럭 무럭 자라 가지구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차 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러니 신랑 녀석은 못 생기고 신부는 잘 생겼어.

그래 신부가 어떻게 이쁜지 신랑 녀석이 신부한테 떨어질려고 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 계속 같이 한문 공부를 하구 이렇게 있는데, 근데 밤에 화장실에를 간다구 그래두 신랑 녀석이 꼭 따라 가구, 신랑이 가도 부인이 따라 가구, 그래서 그렇게 같이 냉겼는데 한 날 저녁에 그 신부가 화장실을 가는데 신랑이 따라가질 못하게 됐어요.

그래 따라가질 안했는데 그래 금방 갔다 올 텐데 30분이 지나도, 한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거든. 하두 이상해서 신랑이 나가 보니 화장실에도 사람이 없고 어딜가나 사람이 없어요. 그래 찾아 보니, 밤새도록 자기 처가집까지 죄 뛰어 대기면서 죄 그 부락을 싹 뒤져두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 날이 샐는데 신랑이 인제 어딘가는 낮에 보따리 싸 짚어 지구 어딘가는 가 가지구 돌아대기면서(돌아다니면서)문탐을 해 봐두 어디 누구든지 모른대요. 어느 부락에가서 해두 모른데구(모른다고). 그래 딱 부락에 가서 물어 보니 다 모른데는데 어느 쪼그만 귀동자가 하나 나타나더니 자기가 봤다 그거야. 자기가 봤는데,

“권해 장사가 우측 옆구리에 끼구선 산을 주름을 잡아 동쪽을 향해 나갔다. 동쪽을 향해 갔으니 동을 향해서 찾아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는데 당신이 가서 만날래면은 밤, 밤, 생률(生栗)계사때 쓰는 거 같이 깎아 가지고 깎은 밤 서 말, 계피떡, 계피떡을 세 개. 깎은 밤 서말은 그 밤이 떨어질 때까지 하루 한 개씩만 먹으면서 그 밤이 떨어질 때 꺼정 하루 한개씩만 먹으면서 떨어질 때꺼정 가야 한다. 가야 그 집을 당도한다. 그렇게 멀지. 그리고 계피떡 세 개, 명주 세 필, 계피떡은 그 집에 가면 대문이 세 개 있는데 대문 하나에 호박개 한 마리씩 매 있던 말이야. 호박개가 낫선 사람이 오면 물어 죽인데. 호박개라구 아주 큰 게 호개라구. 그전에 아주 말만한 개가 호박개라구 호개라구 있어. 그러니 낫선 사람이 들어 오면 물어 죽이기 때문에 얼른 던져서 그걸 뿔 던졌나 하고 돌아서는 사이에 대문을 통과하라구 해서 세 개, 대문이 세 개니까 호박개도 세 개고 세 개를 가져가라구 그래서 가져가는 거고. 명주 세 필은 가다가 강이 나타나는데 그다 지 깊지도 않구 아니 그 깊은 데는 한 길 넘구, 그래 가지구 그 명주 세 필을 가지구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명주 세 필을 가져가는거라구, 그래야 당신 부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찾아 가라.”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 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 계피떡 그거 해주 양쪽에서 그냥 밤을 깎아 가지구 서 말을 해서 주구, 명야 세 필 명 질썸하는 거니까 명주 세 필해서 전부 해서 싸서 쥐서 짚어지구 가는데 하루 가다 밤 한 톨 먹구 하루 가다 한 톨 먹구 저문 때문(저문 때면)밤 한 톨씩 먹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래두 얼굴에 살이 붙었던 게 말라 가지고 젓갈짜(젓가락)모냥(모양) 뺨따구(뺨다귀)만 앙상하게 남구 이래니 그저 목숨만 붙어 가지구 가는데 물이라도 가다, 어디가다 물이라도 먹구 그러는데 그래 밤이 한 반 없어지다 보니까 강이 있어서 명주 세 필을 가지구서, 명주 세 필을 던져 가지고 강을 건너 갔어. 그래 명주 젓었으니까 거게다가 내 던지고 거 동쪽을 향해 가다 하루 가다 한 개 먹구 하루 가다 한 개 먹구 매일 그렇게 아주 누

차에 걸쳐서 몇 달이 걸렸는지 간에 그러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밤이 인제 몇 알 안 남았어. 한 서너 톨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거의 다 왔나 보다.”

가다, 하루 종일가다 저녁 때 밤 한 톨 먹구, 또 그 이튿날 또 진종일가다 저녁에 밤 한 톨 먹구, 또 그 이튿날 진종일가다 저녁 때 밤 한 톨 먹구 그래 백다구만 남아 눈깔만 남아 눈깔만 텅해 가지구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몰라 볼 정도로 그렇게 말라 있는데 그래 인제 밤이 한톨 남았는데 이젠 거진 왔나보다 하구 가다 점심때가 되어서 어느 능선에서 영(고개)에서 밤을 먹구. 그러니 어딘가는 지금 저렇게 떠드는거 모양으로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 같거든. 그래 이거 어떻게 되어서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 같거든. 그래 이거 어떻게 되어서 떠드는 소리가 이상하다 하고 넘겨다 보니까 그 안에는 거 참 아주 벌판인데 앞에는 모래 사장이구 헌데 거기 큰 개울이 흐르는데 아, 개울가에는 어느 아낙네들이 그냥 잔뜩 앉아서 빨래 하느라고 히히덕 거리고 앉아 웃고 떠들고 빨래를 하고 앉았거든요. 아하, 그래 인제 바짝 넘겨다(넘겨다)보니까 저기는 기와집이 아주 엄청 큰 게 두부모 같이 네모 반듯한 게 그런 구당 같은 기와집이 있어. 아하, 여긴가 보다 하구 찾아 내려갔어. 내려가 가지고 떡 대문에 가니까 호박개라고 하는데 멍멍 하구 하니가 개피떡을 끄내 가지고 획 던지니까, 획 던지니까 물을려구 획 돌아서는 사이에 그 대문을 들어 가구, 또 그 다음 대문도 마찬가지로, 고 다음, 고 다음 이렇게 세 대문을 그런식으로 해서 그 대문을 다 들어 갔더니 자기 부인이 섰거든. 자기 부인이 섰는데 자기 남편인지 모르지, 말라서.

그러니까 인제 이 신랑 녀석이 자기 부인을 알아 본 거지. 눈을 가죽이 모잘라 뚫어 놓은게 아니니까, 보래는 거니까. 눈은 정신이 있으면 보는 거니까 암만 몸은 말랐거니와 눈이야 보이지. 그래 참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

“아, 여보!”

그러니까,

“아, 누구냐?”

고, 자기 부인이 하는 소리가.

“아, 나 사실 이만 저만 나라구.”

“아, 그러냐?”

“그러면 이리 오라.”

그래 뒤에 뒤로 돌아 가더니만 그 전에는 어느 바우(바위)에서 어느 장수들만 먹는 장수물이 있어, 장사물이 있어 가지고 그걸 먹으면 장사가 된데. 힘이 세어지구 그래 그 물을 먹으라구 하는데 보니 그냥 뭐 정말 엄청난 집채만한 돌맹이루다 뚜껑을 막아놨는

데 그걸 열어야 먹는데 그걸 어떻게 도저히 열 수가 없습니다. 뭘,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유 빨대모양으로 그냥 빨대를 해 가지구선 이렇게 빨아 먹으라고 주니까 그래서 얼마쯤 들이 빨아 먹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점점 정신이 나 가지고 아주 정신이 나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얼마를 빨아 먹구 며칠 동안 빨아 먹었어. 빨아 먹구 있으니 정신이 나니 나중에 물 뚜껑을 퓌 여너 번쩍 들리거든. 그래 열구서는 가 가지구 물을 막 들어 올려서 떠 먹고 실컷 먹고 이 사람이 아주 똥똥하게 천하 장사되었어요. 그러니 이 집 장사는 인제 삼천리 도둑을 나갔는데 삼천리 도둑을 나가고 집이 비어 있는 찰나인데 이 인제 자기 신랑은 완전히 장사가 되었으니까 저 햇간(햇간 광)으로 들어 가라고 들이 몰아서, 햇간이 아주 큰 햇간이 있는데, 밑에는 마루가 방갈이 깔려 가지구 아주 두껍게 이다가 깔려서 바깥에 스프링장치가 돼 가지구 이걸 숙 잡아 당기면 이 안에 있는 물건(물건)이 떨어져 이 안으로 이건 아주 캄캄한 난간이야. 이 안은 이 무루 밑에는 그런 장치를 해서 나쁜 사람은 그 안에다 떨어 뜨려 죽이고 이 장사가 그랬는데 그리루 들어 가라구 자기 부인이 그래서 인제 가만히 보니 뚜껑을 갖다가 이 장사두 좀 영리하지 못하지 이 집 장사보다야 기술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기운이야 세지.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집 장사는 거기 집 덩어리만한 거기 공 모양 볼 모양 이렇게 동그란 돌이 거기 있는데 거기 뒤에 있는데 아주 그 뒤가 넓어 가지구 집채만한 게 있는데 이걸 한 손으로 해 가지구 획 던지면 모래 아침에 떨어진데. 하늘로 던지면 모래 아침에 떨어진데. 하늘루 던지면. 그러니까,

“당신 던져 보라.”

그러니까 아주 자기 신랑이 이렇게 이렇게 던졌는데 내일 아침에 떨어져. 아직 멀었다구 몰 더 먹으라고, 그래 물을 더 먹어. 얼마 더 먹구 나서부텀,

“이제 던져 보라”

이렇게 해서 들구서 획 던져 보니 글피 아침에 떨어져, 글피 아침에 떨어지니까 이 집 장사는 모래 아침에 떨어지는데 하루 더 있다 떨어지니 더 씨게(세게) 더 멀리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해 가지구서 인제 농구 그 햇간으로 들어 가라구 하나까 물통을 갖다 깔구선 이 장사가 햇간에 들어 가서 앉아 있을 거야. 그러니 얼마쯤 두 내외가 있을 때니까 아주 땅이 찌르르 하더니 땅이 ‘쿵’하거든. 그러니 천리 들어왔다 이거야. ‘쿵’하는데 천리 들어 오는 거야. 그러니 조금 있더니 또 찌르르 하더니 쿵하구 그래 이 천리 들어 왔다고. 조금 있으면 인제 마루와 툭 떨어지는 거야.

인제 삼천리까지(까지)오는 거로 그래서 자기 부인이 빨리 나갔어. 나가니까. 나가 가지구 원래 저 먼저 그 여자들을 다 훑쳐다가 빨래하는 여자들인데 이 장사가 다 훑쳐와어. 훑쳐 오고 그 집은 뭐 창고에 가보면 고기 그냥 통소가 있고 돼지 고긴 뭐 술이니

친창 아주 도둑놈이 죄 훔쳐다가 여자 두 이쁜 여자들 죄 훔쳐다 한 50명두 죄훔쳐다
농구 전부터 그런 도둑질 하는 장순데 그래 가지구 여자가 주인을 잡으려고 여자들끼리
서루 짜 가지구,

“요번에 인제 우리 도둑 나갔다 들어 오시면 우리 특대우로다 술도 많이 드리고 하
자.”

이렇게 짜구 하구 있었는데 얼마쯤 있더니 ‘쿵’하구선 마루가 툭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얼른 나가 가지고 있다가,

“아 영감님, 이제 오시나?”

그래서 맞아 들어 가지고 아, 딱 떨어지더니,

“아, 누가 왔어?”

그러거든.

“아, 누가 오긴?”

“아, 누가 왔어? 왜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이년이 누구 앞에서 거짓말이야?”

“아, 우리 오라버님이 왔어요.”

“아, 오라버니가 왔으믄 왔다고 해야지, 온 걸 아는데 왜 그래, 어딴, 창고에 있지?”

“창고에 있어요?”

“그놈 새끼 잡아 죽여 농구서 올라 가야겠다.”

바깥에서 스프링을 잡아 댕기면 쪽 밀려 가서 여기 빠져서 죽게 돼 있거든. 그렇게
돼 있는데 잡아 댕기는 거, 벌써 댕기는(당기니)걸 알거든. 와서 잡아 댕길 줄 알고 이
사람두 그래서 어디 턱 올라 붙으면서 얼른 올라 서니까 쪽 잡아 당기니까 안 잡아 댕
겨지다가 얼른 올라스니까 확 댕겨져서 마당에 와서 얼마쯤 있다 쿵 소리가 나거든.

“응, 인제 저 새끼 죽었구나.”

돌맹이 떨어지는 소리지 사람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거든. 그래 가지구 완전히 인제
죽은 지 알고 이 사람은 들어 가니 그 부인들이 아주 서방님 오셨다구 그냥 술, 이 소다
리, 소 뒷다리 하나가 안주 한 짓갈이야. 한 짓갈이구 술이 다라로 하나가 한 잔이구 그
저 막 막걸리 뭘, 그냥 별 술다 많지. 그전엔 막걸리두 농주 진짜지. 어디 지금 막걸리와
같은가, 독하지. 그래 한 자리에 몇 잔을 한 이십 잔두 더 먹었어. 그래 가지고 인제 골
아 떨어졌는데 자기 부인이 언젠가는 나오더니 나오라구 그러니 어디서 칼을 큰 비수를
갖다 쥐 가지구서,

“이저 가지구 가서 목을 치라고. 골아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눈을 뚱그렇게 뜨고 있거든. 아, 그래, 골아 떨어졌다는데 눈을 뜨고 장
사는 눈을 뜨고 자거든. 아, 저거 자니까 겁이 나서 못찌르고 있는데.

“아, 지금 자는 거라구, 정신 없이 끌어 떨어져 있는데 왜 가만 있느냐구 들어가라구, 내 부엌에 들어 가서 재를 싸 가지구 들어 갈 테니까. 빨리 들어 가서 목을 치라.”

그러다가 들어 가서, 에이, 들어 가서 자빠져 있는 것을 목을 넓다 쳤어. 목을 치니까 목은 천장에 떡 올라 붙고. 몸뚱이가 들어 누웠든 게 벌떡 일어 나서 웅웅하고 돌아 댕기구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재를 부엌에서 싸 가지구 와서 그냥 몸뚱이, 목 떨어진 자리에 피 나오는 데다 딱 재를 끼 얹어 가지구 허니까, 목이 도로 와서 붙을래니까 붙지 못하지. 그러니까 몸뚱이는 그냥 슬슬슬 돌아 댕기는데 대가리는 공중에서 천둥치듯, 호령하듯,

“이년, 천하 고약한 년들 같으니라구. 니가 어쩐지 오늘만은 더 이상하더라. 씨비스가 이상하더라. 이년들 아니나 다른가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 천하 고약한 년들.”

하면서 또 와서 붙을래다 못 붙구 역시 얼마쯤 떠들다가 또 와서 붙을래다 못 붙구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말두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와서 푹 떨어졌어. 이 모가지를 던지구 몸뚱이도 던져 가지구 지금까지도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거구, 결과적으로 인제 보물을 전부 여자들을 전부 모다 놓고 이 장사가,

“너 이 집에서 금은 너 가져 가고 싶은 보물 얼마든지 싸 가지구 가져 갈래면 가져 가고 이 집에서 사(살)를 여자는 우측으로 앉고 나갈 여자는 좌측으로 앉아라.”

그래 우좌를 가려 가지구 집합 시켜놓구. 그래 나간다는 여자는 저 고향으루 찾아간대는 여자는 저 가져 가고 싶은대루 이 집에 있는 거 뭐든지 가져 가라구 해 놓구선, 있는대는 여자는 일정하게 이렇게 놓구 칼을 가져 가지고 목을 쳐 가지고 일정하게 죽이고 나간대는 여자는 다 보내구. 그러구서는 저 두 내외의 나와 가지구 그 집에다 불을 싸 놓고 두 내외 나와 가지구 자기 부인 옆구리에 차구 산을 주름 잡아 자기집으로 와서 잘 살다 죽더라요.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7>

7) 제일 힘 센 막내동이 장사

어느 두메 산골에 두 부부가 살다 보니, 아들을, 첫 아들을 낳았는데 고 다음에도 또 아들, 고 다음에도 2년 차이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이래서 아들만 아홉을 낳았어요. 9형제를 낳아 가지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즈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들만은 장사더란 그 말이야.

장산데, 한 날은, 밥을 먹는 밥상에 앉아 즈 아버지 보고 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부 장사 아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싸움을 하고 이기고 오면 좋지 않습니까?”

“아, 물론 싸워 이기고 온대면야 좋구 말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장수끼리 싸움을 하는게 흔히 많았습니다. 그래 인제 아무날,

“아무날은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래, 가서 성공하고 와라”

즈 아버지한테 결재를 맡고서 그 날이 돌아올 때는 고대, 고대 기다려 가지고 날이 돌아 오니까 아들 9형제가 떠났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아무 데나 가고 싶은 데로, 내키는 대로 걸어가는데 어딘가는 가니 설악산 보다, 더 깊은 산중 심심계곡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들어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 오는데 어딘가는 대문이 하나 보여서,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고 찾으니, 대답이 없어, 그래 대문을 들어서며,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니 대답이 없고, 그래 대문을 자꾸 들어서면서 주인 양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자꾸 들어가 보니, 마지막으로 들어가니, 문을 열 두 대문을 들어가서 주인 양반을 찾으니까 어여쁜 아가씨가 하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다름이 아니고 지나가는 객인데 하룻저녁 쉬어 갈 수 없겠습니까?”

“여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됩니까? 자고 갑시다.”

그래 자고 가자고 하니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는 위험한 데라서 당신네들을 못 재우겠습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우리가 전부 천애(천하)장산데 위험한 게 있대면(있다면) 우리가 해치면 될 게 아니요?”

“아이, 당신네들이 해치지 못합니다. 여기는 아주 깽뚱동만하고, 몸이 아주 여덟자나 되는 큰 사람이 뿔이 아주 이렇게 크게 굽다란 게 양쪽에 나고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 모양 큰 게 아주 천애장사가 왔다 갔다 하는 집입니다. 당신네들은 그 장사에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신네들을 위해서 잠은 안 재웁니다.”

하니,

“우리가 천애장사니, 그까짓 우리가 잡아 버릴 테니 우리 우선 시장하니까 밥이나 우

선 해 주시오.”

그러니 밥은 해 주겠다고 그래, 밥을 먹구선 피곤하니까 자겠다고 그러면서 그 장사가 언제쯤 오느냐 하니까, 밤 열 두 시면 들어온대요. 그래 밤 열 두 시만 되면 들어오는데, 여자보고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열 두 시 되기 전 11시경에 우릴 좀 깨워 주시오.”

“깨워 드리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래 인제 드러 누워 아홉이 전부 다 잤지요. 자고 있는데 어느 땐가는 여자가 와서 깨워서 일어나니,

“인제 일어나 가지고는 배치하는 겁니다.”

열 두 대문에서 제일 만형이 앞에서부터 고 다음, 고 다음, 막내가 맨 앞을 서고 열 두 대문의 아홉을 차지하면 세 대문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있는데, 거의 열 두 시가 되었는데, 어디서인지, 걸음 걷는 소리가 쿵쿵쿵 하며 땅이 쿵쿵 울려오거든. 그래 겁이 나서 만형이 앞에 대문 하나를 걸었는데 쿵쿵쿵하면서 들어 오더니만,

“문 따거라.”

“문 못 따 놓겠다.”

“문 못 따 놓겠느냐? 이 열 두 대문을 집어 던진다.”

그러면서 휘휘 잡아 당기니 들먹들먹 합니다. 대문에 한 사람씩 꼭 앉았는데 들먹들먹해요. 그래 문 틈으로 이렇게 내다 보니, 아주 엄청나게 큰 사람이, 아주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생기고, 눈썹과 코가 이렇게 크고 입이 두 자나 되는 큰 사람인데, 못 따 놓겠으면 이 대문을 전부 부순다.

“이 자식들, 내가 누군지 아니? 이 자식들아, 못 따 놓겠니?”

“그래 따 놓을께.”

“그럼 따 놓아라.”

그래 문을 떠억 따 놓으니까는 이 천애장사가,

“너 이거 한 대 받아라.”

떡, 입에서 불이 썩악 나와 가지고, 이 통만한 게 그냥 나와 가지고, 그 아주 타서, 불에 타서 고 아주 타서 죽었죠, 첫째가. 첫째 성(형)이. 큰 성이 인제 죽었죠. 고 다음에 고, 아주, 둘째 아들인데,

“너 이거 한 대 받아라.”

또 셋째 아들 세번째에게,

“이거 한 대 받아라.”

혁, 죽고, 넷 죽고, 다섯째 가서 다섯째 보고,

“너 이거 한 대 받아라.”
헉, 해서 죽고, 여섯번째 들어가서,
“너 이거 한 대 받아라.”
헉, 여섯 죽고, 일곱번째 들어가서,
“너 이거 한 대 받아라.”
헉, 일곱 죽고, 여덟번째 들어가면서,
“너 이거 한 대 받아라.”
헉, 여덟 죽고, 아홉번째 들어가면서,
“너 이거 한 대...”

너 이거 한대... 말 떨어지기 전에 모가지를 반 이상 찢았습니다. 막내가 그래니까 획 하는게 아주 그냥 뜨거운 김이 획 나오거든요.

“너 이놈의 새끼, 우리 형님들 다 죽이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아주 그냥 빠른 동작으로 모가지를 찢았더니, 모가지가 뚝, 공중으로 천상에 올라가 붙고 몸뚱이(몸)만 서서 돌아 다니는 것을 흠을 파서 몸뚱이 나오는 데다 모가 지 떨어진 데다 얼른 붙이고 흠을 끼얹어 놓고 그러더니 천상에서 호령을 하더니만 흠이 붙어 가지고 흠으로 피가 나오는 곳을 막아 놔오니 거 붙지는 못하죠. 그전에 장사들은 목이 떨어지면은, 목에 피가 있으면 거게 척하고 가서 도로 붙었습니다. 그래 붙지는 못하고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하면서, 힘이 없으니 툭 떨어지니, 대가리가 이제 뭐가 됐나 하면 바깥에다 냅다 내던지니 어디 떨어질런지도 모르죠.

그래 지금도 5형제가 되던지, 몇 형제가 되던지 간에 막내둥이를 으뜸으로 세지요.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7>

8) ‘꼭’한 이야기

예전에 그, 저, 나이 육십 먹은 노총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아뵤튼 장개(장가)들기를, 아주 최고 원하는 게 장개 드는 것이 소원이예요. 그리고 좀 모자래요.

사람이 만날 그냥 떼, 떼, 떼하고 ‘더풀 더풀 똥더풀’이라고 부락에서 인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부락이 그 부락이 어떻게 됐나 하믄(하면)부락이 이쪽에 하나 있다고 하면 저쪽 저쪽 한 3km밖에 안 되지만 똑바로 보이지 않고 가다가 산이 이렇게 돼 가지고 산모퉁이 이리해서 착 기역자 모양 꺾어져서 고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쪽 부락에 한 100여 호 살고, 저쪽 부락에 한 80호 살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부락에도 왔다 저쪽 부락에도 갔다 저 부락에도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똥더풀이라고. 근데 이거 그전에는, 지금은 신발들이 많지만 그전에는 와라지라고 짚세

기를 삼아 가지고 신고 땡기는데 이렇게 보니 질(길)이 곧장 이렇게 나 가지고, 카부선에는 서당 나무가 하나 있고 서당 나무 지나 가지고 곧장 이렇게 부락이 들어 보이고 곧장 질이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 먼데서 보니 아주 서낭 낭그 있는데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아주 알름 알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짚세기를 벗어 들고 살살 아주 이리 핵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가니 그 서낭 나무 커브가 이렇게 기억자 처럼 꺾어졌으니깐 꼭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거기서 어여쁜 아가씨가 오줌을 누고 있었는데 바로 그 카브가 박하고 보니 오줌누는 그 뒤에 바짝 가서 스계(서계)됐어요.

그래 여자가 오줌 누고 있으니깐 환장해 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깐 ‘콧’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쳐다 보니까 총각이거든요. 백살 먹었어도 총각은, 열 살 먹은 아가씨가 시집을 갔어도 총각은 무조건 반말을 해고 총각한테 반말을 해야 해요. 그리고 총각은 언제든지 어른한테는 쪼그마한 나이가 적어도 존대를 하고 이렇게 되는 세월인데, 그러니 총각, 아가씨가 둘러다 보니까 총각이거든, 총각이니 만만하거든.

“당신, 왜 나 오줌 누는데 ‘콧’했소?”

“내가 언제 당신 오줌 누는데 ‘콧’했소?”

“당신, 내 오줌 누는데 ‘콧’ 안 했소?”

“내가 언제 당신 오줌 누는데 ‘콧’했소?”

이랬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거기서 콧콧, 콧콧하고 서로 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새닥은 시집온지 삼일 밖에 안 됐는데, 자기 신랑이 금방 갔다 온다고 왔는데 안 오거든요. 한 시간, 두 시간 되어두. 아, 그래 왜 안 오나 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가며 들으니깐,

“당신, 내가 오줌 누는데 ‘콧’안했소?”

“내가 언제 당신 오줌 누는데 ‘콧’했소?”

“당신 내가 오줌 누는데 ‘콧’안했소?”

“내가 언제 ‘콧’했소?”

그러거든 그러니 신랑이 갔으니깐 아, 총각놈이 만만하거든.

“이거봐, 당신 왜 우리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했소?”

“내가 언제 당신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했소?”

“당신이 우리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했다는데?”

“내가 언제 당신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했소?”

거기서 또 둘이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만날(매일)싸워 봐야 어디 해결도 안 되는 거고…….

그래 이제 신랑 녀석이,

“이리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지요. 그전엔 포도청이라고 했는데.

“이리와.”

그래구선 그 총각은 60먹은 총각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그래 인제 경찰서에 들어 가니까 경찰관들도 많고 인제 숙직도 하고 많이 있었는데 인제 데리고 들어갔어요.

“당신들 왜 오셨습니까?”

하구 경찰관이 하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 마누라 오줌 싸는데 와서 ‘콧’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했소?”

“당신 우리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안했소?”

“내가 언제 당신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했소?”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암만 수사 기관이구 죄인이 들어서 그러는 데도 아,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빨리 빨리 나가. 누가 오줌 싸는데 ‘콧’했소, 지랄하고 자빠졌어 들, 빨리 빨리 나가라.”

그래 내쫓았습니다.

그래 총각은 처녀 오줌 싸는데 콧콧해도 괜찮데요.

<설악동 170, 유만석(남·50) 1981. 4. 17>

9) 박문수 어사와 초동

옛날 박문수, 박어사가 하루는 그 팔도강산을 순회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어딜(어디로)가다 산 계곡에서 개가 여우를 쫓아 가는 걸 봤다 이겁니다. 그 개가 여우를 쫓아갔는데 그 여우가 어느 동네에 가서 울안으로 나무 울타리 속으로 해서 울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러자 그 집 개가 나와 가지고 그 뭇니까, 그 여우를 잡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쫓아가던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가서 그 주인을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네 집 개가 내가 몰고 오던 여우를 잡았는데 여우를 날 주시요.”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말이에요.

그런즉 그 집 주인 얘기가,

“여보시오, 몰기는 당신이 10리 밖에서 몰았든, 100리 밖에서 몰았던지 좋은데, 잡기는 우리 개가 잡았으니 우리 여우지 당신네 여우요?”

그래 시비가 붙었던 말입니다. 그래 박문수, 박어사가 가만히 결과를 보고 있노라니까 나중에는 그 지나가는 행객에게,

“당신이 좀 알아 해 주시오.”

그랬는데, 그 어떤 초동이 말이죠. 쪼꼬만 그 서당에 다니는 그 학생이,

“거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판단하기를,

“개가 여우를 잡을 적에는 무엇 때문에 잡았겠습니까? 그 가죽에 탐이 났겠습니까? 고기에 탐이 났겠습니까? 개는 분명히 고기에 탐이 났을거란 말입니다. 근데 당신이 여우를 몰고 왔을 때는 무엇이 탐이 났나?”

그건 가죽에 탐이 났습니다. 그럼 간단하잖소. 고기는 개를 주고, 가죽은 당신이 가지 십시오.”

그래서 인제 시비가 마무리 되고 보니까 하도 신기해서 박문수, 박어사가 도대체 가(그 아이)의 거처가 어딘지를 따라가 보았던 말이예요. 따라가 보니까. 그 서당에 떡 들어가는데 그 옛날에 박문수, 박어사가 너무도 참, 그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 민정을 살피고 그 당시에 그 세종대왕인가 하영든 그 상당히 그 정치를 잘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사가 출동을 해 가지고 그 어사 놀이를 하더란 얘깁니다. 그 서당엘 가니까 그 래서 그 어사가 출동을 해 가지고 그 어사놀이를 하더란 얘깁니다.

아이가 떡하는 얘기도 하도 그 어사 놀이가 하는 게 재미 있어 가지고 박문수, 박어사가 떡억 바깥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 그 어사는 늘 그 걸인 행세를 하는게 아닙니까? 그 쪼꼬만 아이가,

“바깥에 있는 걸인 붙들어 오라.”

하니 그 박문수, 박어사가 그 어린아이들한테 붙들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그 어사가 출두해 가지고 어린 몸이지만 어사가 그 어사 노릇을 하는데 지나가는 걸인이 말이지 감히 뻥히 들여다 볼 수 있느냐 물어 앉아 보지 않고.”

그래면서 인제 그 볼기를 치더란 얘깁니다. 그래 박문수, 박어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맞았다는 얘기가. 그래 맞는 동안에 그 보파리에서 뭐이가 나왔는가 하면 아, 그 마패가 나왔단 말이야. 마패가 쭈르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마패다 마패다 하니까, 마패고 뭐이고 처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맞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아이가 떡억 하는 얘기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철부지한 것들이 놀다 보니까 어사님께 그 송구스럽게 되었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 실컷 두들겨 주고 실컷 때려 주고 잘못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

야. 그래 너무도 자랑스러워 가지고,

“너 도대체 너의 집이 어디냐?”

하나 하나를 전부가 아주 감탄할 정도다. 거동이 그래서 가(그애)의 집을 딱 찾아 가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슬하에 있었는데 생활이 너무도 궁핍하더라란 말입니다. 그래 야가(이 애가)들어가면서,

“어머니 저 서울에서 손님 오셨습니다.”

하고 한 마디 하니까 어머니는 그 뜻을 알아 먹고,

“방안으로 모셔라.”

그래서 그 종자 할라고 놔 두었던 베(벼)를 그 옛날에 농촌에 가면은 방아가 있어요 혼자 짙는 밭 방아가 있어요, 그 종자를 가지고 어머니가 방앗간으로 가더라는 말이야. 그래 방아를 혼자 짙으면서,

“아가야, 그 빗자루 좀 가져 오너라.”

한단 말이야. 그 쓸어 넣는 빗자루를 그래 가져 오니까 이 아이가 즈 집에 있는 강아지를 부르더니 강아지애다 빗자루로 땀어요. 그래,

“어머니, 나를 부르지 말고 그 강아지를 부르시오.”

그래 강아지가 그 방앗간으로 가니까 그 빗자루가 따라갈 수밖에 그래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니까 도대체가 이 뭐 기이한 얘기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 누구냐 그래 그 아이가 장차 그 박문수 박어사가 장차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중에 자기 그 후세, 후세가 아니고 하여간 그 명문대가의 그 사위(사위)를 맨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 좌의정인가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옛날에도 그렇게 그 참 그 아주 그 재주가 비상한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동 500-8, 장현영(남·54) 1981. 4. 27>

10) 영랑호에서 다시 만난 친구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아득한 옛날 일이라 합니다.

한 동리에 그 다정한 두 친구가 서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우연히 이별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다정히 지내던 그 친구와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된 것이 서러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병나의 병나의 그러니까 그 의복을 적셨지요 적시면서 이별하고 통 그 소식을 모르고 한 10년이 지나도록 서로 종무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하루는 이별하던 그때 그곳에 당시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그때에는 청운에 돌아갈 것이며 나는 청유산을 바라보고 돌아 간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중의 한 사람의 이름은 만수 만취 오옥령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서로 헤어진 지 1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오옥령은 관동당류이 되어 해상을 순회할 제에 10년 전에 이별했던 친구를 영랑호에서 작은 배를 타고서 즐기고 있는 것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그때 그 오공이 말하기를,

“군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하고 묻은즉 나는 미실령 아래 화엄사 동굴에서,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고 또는 그 회령군에도 있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 하루는 그곳을 한 번 찾아서 친구가 말하던 굴에 들어가 본즉은 일월이 명랑하고 주택이 화려하며 또 춤추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공은 참으로 기이히 여겨서 다시 그 친구를 보고,

“군은 어떻게 하여 이곳을 알고 찾아왔는가?”

하고 물어본즉,

“이런 곳이 수십여 처가 있다고 말하므로 그후 재차 찾아 갔으나 알 길이 없었다.”

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알 길이 없고 심천봉이 돈봉 학산 잡록에 상세히 찾아 보아도 그곳이 어디인지 전연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설에 의하면 그곳은 잠시 본 무릉도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앙동 500-8, 장현영(남·54) 1981. 4. 27>

제 3 장 속초 민속연구 및 조사자료

제 1 절 설악산 심메마니 연구

장 정 롱

차 례

- I. 머 리 말
- II. 설악산 심메마니 습속
 - 1. 입산습속
 - 가. 채삼단 편성 나. 입산시기와 종사자 다. 휴대품
 - 2. 채취습속
 - 가. 출발 나. 집단생활 다. 산신제와 고사 라. 채취활동
 - 3. 금기와 예조
 - 4. 설 화
- III. 설악산 심메마니 은어
 - 1. 산삼 관련 호칭
 - 2. 은어 용례
- IV. 맺 음 말

I. 머 리 말

‘심메마니’는 산삼채취자, 採蔘者를 일컫는 말이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아직까지 이들 심메마니가 殘存하고 있는 곳이므로 본고는 산악 기층문화의 탐색이라는 과제하에 논의를 전개코자 한다. 그동안 강원도 심메마니에 대한 습속, 언어, 설화등의 연구가 산

발적이고 부분적인 상태로 진행되어 밀도있는 연구성과가 요망되어 왔다. 차체에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강원채삼인들의 실태와 습속, 은어등을 총체적으로 집약하고 분석 정리하려는 의도의 一端으로 설악산 지역을 먼저 다루기로 하겠다.

山蓼은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野生人蓼으로서 靈草니, 神藥이니 하여 흔치않는 약재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삼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대량채배되고 있음에 반해 산삼은 그 양에 있어서 극히 적고 귀하여 이에 따른 신앙, 금기, 은어 등이 심메꾼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전문채삼인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들이 지닌 민간습속과 口碑傳承物도 소멸될 시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산간문화의 체계화 작업이라는 시급한 일거리를 우선하여 조사정리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심메마니에 대한 종전의 연구는 그들이 사용한 언어연구에서 先鞭을 잡았던 바 최근 들어 민속학적 접근을 통해 업적을 이루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채삼자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으나 무엇보다 채삼자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다음은 언어나 습속의 유기적 고찰이 미약했음이 지적될 수 있다. 언어나 습속의 어느 일방만을 전문연구자가 각자의 시각에서 분석할 때 그것은 충실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두 방면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행할 때 보다 완벽한 연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고 역시 안고 있으므로 언어학적 연구자를 위한 자료제시의 충실함에 만족하고자 한다. 설악산 심메마니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는 1957년 李崇寧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隱語가 중심적으로 다루어 졌으며 1980년에 재론하면서 쇠멸일로에 있는 은어연구의 시급함을 강조하였다.¹⁾

다음은 1975년 李吉鹿에 의해서 설악산과 오대산 채삼인 隱語와 習俗이 함께 다루어졌으나 은어가 중심되었다.²⁾ 거의 비슷한 시기에 崔承洵에 의해서 이루어진 五台山 중심의 심메마니 습속연구는 이 방면의 연구가 부족한 형편에서 갈증해소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³⁾ 설악산 심메마니에 대한 계속된 은어연구는 1980년 申教均에 의해 다시 논해졌으나⁴⁾ 조사대상자나 조사개관이 밝혀지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져서 아쉬움이 남는 채

1) 李崇寧, '隱語考'—雪嶽山 山蓼採取人의 隱語를 中心으로 하여—「一石 李熙昇先生 頌壽紀念論叢」1957.

李崇寧,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嶽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하여'「方言」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 李吉鹿, '採蓼人의 隱語와 習俗'—설악산, 오대산을 中心으로—「江原語文」제3집, 강원대 국어학회, 1975.

3) 崔承洵, '江原道地方 採蓼人習俗'「韓國民俗學」제8집, 민속학회, 1975.

4) 申教均, '山蓼採取人의 隱語研究'「國語國文學」論文集, 제9집, 서울대 사범대 국문학연구회, 1980

로 오늘에 이르렀다. 필자는 198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비문학 공동조사위원으로 설악산 심폐마니의 1차조사에 착수한 후 강원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10년만에 다시 심폐마니 연구에 집중적으로 몰입하게 되었다. 10년간의 조사결과가 오늘의 본 보고서에서 1차로 발표되는 내용이며 계속하여 다른지역 것을 연계하여 논할 예정이다.

본고는 선학들의 탁견에 미치지 못할 것이나 나름의 의의를 추구하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설악산지역 3차에 걸친 필자의 조사연구 시기와 장소, 제보자, 개관은 다음과 같다.

〈제 1차 조사〉

- 시 기: 1981년 4월 17일
- 장 소: 양양군 강현면 상복 2리
- 제보자: 전달재(남, 당시 72세)

- 시 기: 1981년 4월 18일
- 장 소: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제보자: 유만석(남, 당시 50세)

〈제 2차 조사〉

- 시 기: 1990년 11월 2일
- 장 소: 속초시 도문동 4통 2반 반장택
- 제보자: 문광록(남, 당시 64세)

〈제 3차 조사〉

- 시 기: 1991년 5월 4일
- 장 소: 속초시 도문동 4통 2반
- 제보자: 문광록(남, 당시 65세)

〈조사개관〉

제1차 조사의 제보자들은 현재 타계한 것으로 안다. 필자는 당시 김선풍 교수와 함께 한국구비문학대계, 속초, 양양면 집필을 위한 공동조사위원으로 이들을 만났다.⁵⁾ 전달재

5) 金善豊, 「韓國口碑文學大系 2-4 속초시 양양군(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 106-120.

씨는 부업체 삼인이었으며 유만석씨는 3년전 설악산계곡에서 폭우로 갇힌 학생들을 구출하고 자신은 지쳐서 목숨을 버린 殺身成仁의 인물이다. 설악산 귀면암에는 그의 공적을 기린 비문이 새겨져 있다. 당시 유만석 제보자는 필자의 유년시절 같은 동리에 살았던 인연으로 반갑게 여러 산악지명설화를 들려 주었으며 산삼에 대한 내용도 구연하였다. 필자는 양폭산장 입구에서 움막을 짓고 살며 관광객을 안내하고 당귀차를 끓여서, 지친 등반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를 찾아서 설악동 여관에서 밤을 새워 조사한 바 있다. 그는 전문 산악인으로 구조대를 만들었으며, 혼자서 살았는데 자신은 설악과 결혼했으며 설악을 지키겠다고 말하곤 하였다. 축지법을 쓰며 산삼을 찾아낸다는 불가사의한 인물이기도 했다.

제2차, 3차조사는 「속초시지」집필위원으로 민속부분 연구를 위해 도문동 일대를 탐색하던 중 문광록 제보자를 만나게 되어 조사한 것이다. 2차에는 민현식 교수와 함께 반장대에서 녹음하였으며, 3차에는 본교 국문과 3년생인 민속반의 박선미, 박정수, 박영선, 이교우, 홍서경과 함께 속초 무속을 조사하고 설악산으로 들어가서 집중 조사하였다. 문광록 제보자는 전문채삼인은 아니었으나 약20년정도 산삼을 찾으러 다녔으며 비교적 습속과 은어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이제는 소위 “변을 쓴다”고 하는 은어 사용의 심메마니는 자신이 마지막 일 것으로 보고 있어 중요한 제보자로 평가된다.

본고는 이상의 외설악 지역에서 3차에 걸친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하며 또 다른 제보자를 찾게 된다면 여기에 더 보완하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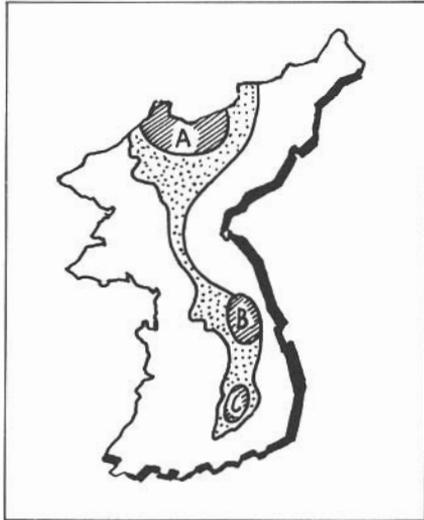
Ⅱ. 설악산 심메마니 습속

강원도의 채삼인들은 설악산 뿐만 아니라 오대산, 인제, 홍천, 정선, 평창, 태백 등지를 두루 돌아다니는 관개로 습속이 상호 전파되거나 같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유사한 측면이 있게 된다.

설악산 심메마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산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나서게 되므로 사실상 지역별로 특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다만 그들의 거주 역사, 성장과정, 채삼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지역별로 보면 함경·평안도 지역, 설악·오대산지역, 소백산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들 세 지역은 은어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1. 입산습속

심메마니가 입산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단체를 편성하는 것이라든지 입산시기 결정, 금기, 휴대품 등으로 정착 채삼시 보다 복잡하다. 그것은 일단 입산기로 작정하고 집을 떠나면 그때부터 여러 시련과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言行의 禁忌 뿐만 아니라 不淨을 꺼리고 擇一을 하는 등의 세심한 준비와 실제로 採蔘時 필요한 도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포함되며, 신에 바쳐질 供物이 준비된다. 설악산 지역의 사례를 문광록 심메마니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가. 채삼단 편성

채삼단의 편성은 대부분 혼자 가는 경우가 드물고 3·5·7 내지 10여명의 홀수로 한다. 이는 寄數를 선호한 관념으로 보이는데 여성의 참가는 허락치 않는다. 문광록 제보자와 함께 편성된 설악산 심메마니 편성은 지금 고인이 된 전학원, 윤택림, 안임실, 박소권씨가 있었으며, 최명도, 전상섭, 정복덕씨는 생존하고 있다. 고인된 이들과 10여차례 산행을 하였는데 문마니의 경우는 보통 3~5명이 한 단체가 되었다고 한다.

이들 단체의 통솔자를 ‘어이마니’라고 하는데 연령도 많고 다년간 입산한 경험과 많은 채삼능력, 능숙함이 ‘어이마니’라고 불릴수 있는 자격이 된다. 동반한 심메마니들은 이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는데 지시나 통제를 거역하면 하산시키게 된다. ‘어이마니’다음에는 ‘둘째마니’라고도 부르고 다음은 대개 姓에 ‘마니’를 붙여 ‘차마니’ ‘금마니’라 부르는데 나이가 어리고 처음 따라 나선 사람은 ‘천둥마니’라 불러 칠없이 마구 돌아다니는 天童이라는 뜻이라 한다.

채삼단 편성은 ‘어이마니’의 주관에 따르는데 그가 통지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께 산에 오르게 된다. 젊은 채삼인들 경우는 먼저 ‘어이마니’에게 찾아와서 언제쯤 산을 재러 가는지를 묻게 된다. 그렇게 하여 시기, 날씨, 不淨관계, 몽사(꿈), 장소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편성케 된다. 혹 喪家에 다녀온 자나 부정한 것을 겪거나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함께 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산에 갔을 경우 금기를 어긴 사람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라 한다.

나. 입산시기와 종사자

입산하는 시기는 대체로 處暑(음력 7월 25일) 지나고 부터 날을 잡는데 이때쯤 되어야 앞에 있던 자양분들이 뿌리고 내려와서 단단해진다고 한다. 산삼잎은 가을에 단풍이 들 때 다른 잎보다 먼저 노랗게 변하므로 다른 풀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처서부터 본격 시작된 채삼은 寒露 지나 입동무렵이면 마감을 하게 되는데 약 2달여 동안에 가장 많은 수확을 올린다. 첫서리가 내리는 한로가 지나면 기온이 떨어져 산삼의 약효가 떨어지므로 ‘한로는 산삼 환갑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또한 봄철에 입산하는 경우는 小滿(음력 4월 19일)에 나가게 되는데 이때 캐는 것을 ‘춘채’라고 한다.

삼삼채취를 시기별로 나눈 것에 의하면 1년을 3기로 분류하여 봄은 苗節, 여름은 丹節, 가을 黃節이라고 했는데⁶⁾ 요즘은 농사일의 바쁜 시기를 피해 가을 黃節에 다니게 된다. 黃節은 잎의 색깔이 누렇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시기가 식별이 용이하고 약효가 우수하므로 입산시기를 택하게 되는 때이다.

입산시기는 택일을 하거나, 맑고 쾌청한 일기가 지속될 때, 손이 없는 날, 吉日을 천기 대요를 보고 고르기도 하는데 寅日이나, 白虎 大殺日은 꼭 피하는데 호환을 막고자 하는 뜻이라 한다. 택일이 되면 금하는 일이 많은데 어이마니집은 금줄을 치기도 하며 대문을 굳게 닫아 外間人의 출입을 통제한다. 채삼인들은 약 일주일 전부터 매일 목욕재계를 하게 된다. 부부관계를 피하고 나돌아 다니지 않는다. 喪家는 물론 결혼식, 백일집, 돌집에도 가지 않는다. 보신탕은 물론 닭고기나 삶은 계란도 먹지 않을 만큼 입산시기에 이르러서는 극도의 금기와 신경을 써서 준비에 철저히 대비한다.

6) 금촌병, 『山人蓼採 風習』 『靑丘學叢』 제6호, 1931.

산삼을 꽃중의 꽃, 풀중의 帝王이라고 문마니는 말을 했는데, 키가 크고 빨간 열매가 선명하며 잎이 정확하게 우산살처럼 돌려 붙어 있어서 다른 잡풀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대산의 어이마니였던 고 최돈호씨는 100m정도 떨어진 삼꽃을 쭈그리고 앉아서 찾아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가을철은 다른 풀과 구분이 되고 찾기 쉬워 ‘불림삼’이라고 부른다. 입동이후는 낙엽이므로 판별이 어려우며 눈이 오면 산행을 할 수 없으므로 그치게 된다.

‘어이마니’를 ‘어인마니’라고도 하며 ‘선채마니’라고도 부른다. ‘선채마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산삼을 먼저 캐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산삼을 일행중 5명이든 10명이든 발견하게 되면 모두 산삼주변에 ‘안침이’를 하고 주저 않는다. ‘어이마니’가 숙련된 솜씨로 먼저 캐는데 이때 돌꾼(캐는 뜻)산삼은 처음 발견자의 소득이 된다. 최초의 산삼발견자가 모두 캐고 나면 “나는 다 보았으니 보시오”라는 말이 떨어져야 같이 동행한 채삼인들이 주위에서 나머지 산삼을 캐게 된다. 이러한 不問律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하산을 해야 하며 다시는 채삼단체에 편성될 수 없기에 엄격히 지켜진다. 그것은 산삼이 高價로 금전에 눈이 어두우면 서로 다투어 캐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도 제대로 산삼을 캘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분쟁은 산삼을 점지한 산신령에게 크게 불경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욕심을 냈던 오대산의 한 심메마니는 지금 불구의 몸으로 지내고 있음을 다른 제보자의 말을 통하여 필자가 확인한 바 있다.

채삼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장 우두머리가 ‘어이마니’이고 ‘둘째마니’ ‘셋째마니’라고도 부르며 ‘어이마니’외에는 성만 붙여 ‘박마니’등으로 부른다. 강계지방에서 처럼 ‘정재’라는 취사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취사하며, 대체로 굶은 일이나 심부름은 으레 ‘천둥마니’의 차지가 된다.

강계지방의 ‘삼외군’은 일삼외군, 등삼외군, 만삼외군으로 세 분류하는데⁷⁾ 입산시기에 따라 처서부터 입산하는 자, 추분, 춘분이후로 구분하기도 했다.

설악산의 경우는 산이 험하므로 평지는 젊은이들이 앞서 가게 되나 깊은 계곡에서는 ‘어이마니’가 앞장을 서서 산삼밭으로 이끌게 된다. 오대산은 고령자가 뒤에 서는데 풀잎의 이슬을 연소자가 털어주는 노인존경의 윤리관과 시력이 좋은 연소자가 不淨物을 빨리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⁸⁾

7)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朝鮮民俗』 제2호, 1934, p. 14.

8) 崔承洵, 『江原道地方 採蔘人 習俗』 『韓國民俗學』 제8호, 1975, p. 51.

다. 휴대품

심메마니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게 되므로 산중에서 길게는 한달, 짧게는 3일 정도 지내게 되므로 휴대품목은 여러가지가 된다. 설악산의 경우 산에 있다가 나오는 날을 짝수로는 하지 않고 홀수로 하는데, 문광록씨는 13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한번 산에 들어 갔다가 나오는 것을 ‘한 탕’ 또는 ‘한 삼’이라고 부른다. 13일 동안에 사용된 양식은 백미 한 말 두 되를 지고 갔는데 밥이 주식이고 다른 찬거리가 없으므로 쌀을 많이 가져간다.

등에 지고 가는 ‘주루먹’에는 각자가 산제당에 가서 제사 지낼때 쓸 주과포와 된장, 고추장, 파 마늘, 소금 등이 있으며 수저와 새옹, 바가지, 낫, 장갑, 성냥, 옷, 포대가, 술 한 병, 소지종이, 양초 등도 들었다. 제물로 쓸 때는 3색실과를 필히 가져가나 대추는 빠지지 않도록 유념한다. 새옹은 놋쇠로 만든 뚜껑달린 그릇인데 취사시에도 쓰지만 산신제를 지낼때는 이곳에 반드시 메를 지어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 바친다. 이것을 ‘새옹메’라 부른다.

휴대품에는 비린 것을 일체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생선류는 쉽게 변하고 산신령이 싫어한다고 믿는다. 이밖에 ‘마대’라는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 서로가 신호를 할때 나무를 쳐서 소리를 낸다. 대체로 모자를 신고 신발은 등산화를 신는다.

문마니의 경우 자신은 휴대품을 가능한 줄였고 대신 제물로 쓸것은 따로 담아서 정성껏 챙겼으며, 시장에서 제물을 구입시에도 직접 값을 깎지 않고 다만 “정성드릴 것이니 성한 것을 달라”고 간단히 말을 한다. 값은 부르는 대로 지불하되 가능한 큰 것이나 흠집없는 것을 고른다. 일단 산신에게 산삼을 점지 받아야 한다는一念으로 잠을 자도 夢事를 얻고자 하여, 먹는 것도 특별히 드러나지 않게 ‘어이마니’의 지시에 따른다. 제사시에는 향불을 피우지 않고 성냥불은 절대 나누어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설악산은 여산신령님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몸이 부정한 것을 가장 꺼린다고 한다.

2 채취습속

가. 출발

어이마니로 부터 출발 날짜를 통지받으면 그날 아침 일찍이 몸을 씻고 별다른 말없이

집을 챙겨가지고 휴대품을 지고 모임 장소로 나간다. 대체로 마을 입구에서 모이는데 혹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출발한다. 그것은 혹 부정 때문에 못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출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이면 번거롭고 좋지 않은 일에 봉착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다. 가는 도중 여성이 앞길을 가로질러 건너게 되면 불길하게 여긴다. 떠나기 전에 마을의 서낭당 나무에 간단하게 절만 하고 입산을 고한다. 오대산의 박동인마니와 같은 사고 방식이다.⁹⁾

출발할때 타지역은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 못본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설악산의 문마니는 간단히 몇 마디 주고 받는다. 다른 집 부인과는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 입산한 심메마니의 가정에서도 출발한 날부터 험한 것, 부정한 일을 꺼리고 근신을 하며, 부인이 오히려 출발전에 동사를 얻어서 이번에는 산삼을 캐는 소망을 이룰 것으로 먼저 알게 되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 집단생활

산에 들어가면 ‘모듬’이라 하여 집단생활을 한다. ‘모듬’은 山幕의 심메마니 은어로 이곳에서 起居하게 된다. 요즘에는 천막을 이용하나 종전에는 바위밑을 이용하거나 나뭇가지를 잘라서 간단하게 기둥을 세우고 앞으로 지붕을 씌웠다. 모듬의 종류에는 공동모듬과 개별모듬이 있는데 개별모듬이 많았다고 한다. 큰 바위 밑에서 모듬을 이룰때는 공동으로 사용하나 나무 움막은 개인용으로 주로 만든다. 만드는 방법은 우선 서있는 나무의 거리가 약1m 정도 되는 두 나무 사이에 가지를 쳐서 기둥을 만들고 가지를 치고 남은 가지 밑동에 길이 2m정도의 나무를 횡막대로 걸친다. 이 횡막대에 2m~3m 정도의 길이로 자른 나무를 걸친다. 전면은 트이고 후면은 막히도록 경사지게 걸치는데 앞이 보여야 맹수로 부터 피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뒷면은 방어가 곤란하므로 막는다. 또한 지붕은 단풍나무나 갈참나무잎으로 겹쳐 엮어 이슬이 내려옴을 막는다. 지붕을 만들고 나면 좌우 역시 나무로 막는데 앞이 붙은 쪽이 위로 가게 세우고 바닥은 부드러운 풀을 뜯어서 깬다.

취사는 모듬 앞에 넓고 큰 돌을 몇 개 놓고 하는데 불을 각자 피워서 지장쌀이라는 것으로 메를 짓는다. 지은 메는 모듬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먹기전에 새옹메로 지은 메를 ‘노구메 정성’이라하며 산신께 올린 다음 먹게 된다.

설악산 심메마니들은 입산하여 모듬을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빈절’이라 하여 제물을

9) 拙稿, ‘오대산 심메마니의 山神祭」『月刊 太白』1990. 9. p. 141.

놓지 않고 정화수만으로 ‘모듬제’를 지내게 된다. 산에 오르면 산삼을 캐고 난 옛자린인 ‘구광자리’가 있게 되는데 그곳은 돌을 쌓아 놓았거나 너와같은 것을 올려놓은 것이 있으므로 간단히 수리하여 산제당을 만든다.

이 제당에서 입산하여 모듬을 이룩하기 전에 산신에게 그곳의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을터이니 놀라지 말고 허락해 달라는 뜻으로 절을 한다. 이 ‘빈절’은 산에 들어왔다는 뜻을 포함한 수인사로서 세번 반 절을 하고 곧이어 모듬을 만들게 된다.

모듬에서의 생활 역시 위계질서가 뚜렷하여 어이마니의 지시에 따른다. 각자가 따로 취사하고 잠을 자게 되어 특별한 말이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말을 삼가는 慎言主義가 원칙이다. 모듬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해질 무렵에 돌아오는 곳이므로 踏山하는 곳의 중간정도 산의 중심부에 설치하여 계곡물이 흐르는 남향을 고른다. 짓는 것을 이곳의 심메마니들은 “이룩한다”고 하는데 모듬을 이룩할 때에도 별다른 말을 쓰지 않는다. 데 낮(감괘이)은 각자의 것을 이용하며 서로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산에 들어가면 서로의 말대신 지팡이(마대)로 나무를 ‘딱딱’쳐서 신호를 한다.

이들의 말은 “변을 쓴다”고 하는데 문광록씨의 경우 초동마니 시절 뱀을 보고서 놀라 “뱀파라”고 외쳤다가 어이마니의 명령대로 다음날 아침에 산에 쫓겨 내려온 적이 있다고 할 만큼 말에 대한 금기가 대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隱語 사용은 입산시 부터 하게 되는데 일단 채삼단의 일원으로 편성되면 변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알았다. 초기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나 차츰 익숙해 지고 변을 쓰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고 한다. 간혹 마을에서 심메마니들끼리 모이면 弄談삼아 변을 쓰기도 하나 일단 입산하여 채삼할 경우가 아니면 사용치 않는다.

모듬의 앞에는 모닥불을 피워 한기를 가시게 하고 동물의 피해를 막으며 조명작용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동불’이라 한다. ‘우동불’은 공동의 불인데 각자가 취사시에는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는 부집게로 불을 붙여서 쓴다. 각자의 담배불이나 취사불, 성냥 같은 것은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자고도 하지 않는 규율이 있다. 이곳에서는 불을 ‘딸’이라고 하는데 산삼의 씨 역시 ‘딸’이라 부름으로 혹 불을 빌려주는 것은 산삼을 타인에게 내주는 격이 되어서 기피하는것 같다.

모듬에는 꿈(몽사)을 얻기 위해 대낮에도 잠을 청하는 일이 있는데 길·흉몽에 대해서는 아무도 먼저 발설을 하지 않는다. 어이마니가 “아무게 마니 몽사를 말해 보시오”해 야 비로소 발설케 되는데 해몽 역시 전적으로 어이마니의 의견에 따른다. 해몽에 따라서 下山할 것인지, 산을 쥔 것인지, 轉山할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한다. 몽사의 경우는 흉악한 것이 오히려 좋은 꿈 즉 ‘달몽’이라고 한다. 豫兆부분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겠다.

다. 산신제와 고사

산에 올라가는 심메마니는 처음 산삼을 찾게 되는 ‘생자리’보다는 예전에 심을 캐었던 ‘구광자리’를 찾는데 구광자리에서 주위를 정돈하고 모듬을 설치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주 산에 오르는 심메마니들은 으레 기도를 드리는 산제당이 바위밑에 설치된 곳이 있어서 그곳에 한지를 깔고 초불을 켜고 정성을 드리게 된다. 산제시는 향을 쓰지 않으나 3색의 과실과 술잔을 올린다.

제당을 수리하여 깨끗하게 되면 각자가 지고 온 제물을 따로따로 제당앞에 놓고 심메마니 전원이 어이마니의 지시에 따라 절을 한다. 절을 합동하고 나면 어이마니가 혼자서 告辭를 한다. 고사문은 따로 적어 오지않고 기억하였다가 口誦한다. 구송이 끝나면 각자가 燒紙를 올리는데 소지가 타오르는 것을 보고서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한다.

제물로는 새옹메, 주과포, 삼색실과, 정화수, 대추, 소주, 간 등을 올리며 ‘올림대’라 하여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젓가락은 나무가지를 잘라 다듬어서 놓는다. 술잔을 올리며 절을 마음에 흡족할 때 까지 특별히 정해놓은 횃수가 없이 자주 하게 되는데, 제물보다는 마음에서 감명이 되어야 산신령이 점지해 준다고 믿는다. 심메마니들은 산삼이 오로지 산신령의 점지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물로 생각하는데 설악산 산신령은 여신이므로 특히 부정을 꺼린다고 한다.

산신제는 모듬을 만들때 행하는 빈절 제사와 일단 이것이 끝나면 다시 산제당에 가서 제물을 갖추어 3배반을 정성껏 절하고 빈다. 오대산의 경우는 향불을 피우고 여기에 수저를 쪼이고 나서 4拜를 하는 것이 설악산과 다르다. 또한 산삼을 캐고 나서는 하산하여 3색친과 소머리를 갖추어 다시 감사의 제사를 지낸다.

처음 절을 일동 하고 나면 어이마니가 고축을 엮드려서 한다. 이때 같이 간 심메마니들은 엮드려서 기원하거나 절을 계속하기도 한다. 조사된 고사문은 다음과 같다.

(입산초 산신제 告辭文)

해동 조선국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상도문리 박모 김모 문모 최모 몇 사람 심마니가 여기 왔는데 노구메 정성을 드리니 설악산, 산신님, 태백산 신령님……열두 대왕님, 제물을 변변히 못차리고 이렇게 노구메 정성을 드리니 소례를 대례로 받고 온갖 부정을 씻은 듯이 잊으시구 재수 소망 이루게 해주십시오¹⁰⁾

10) 필자조사, 1999. 5. 4. 문광록(남, 65), 속초시 도문동 4통 2번.

대산소산 산왕대신, 대각소각 산왕대신 외양명산 산왕대신, 명단토산 산왕대신, 금기다득 산왕대신, 현모주작 산왕대신, 대축소축 산왕대신, 사하피발 산왕대신, 금기대덕 산왕대신, 원상길상, 산왕대신……¹¹⁾

유세차 ○년 ○월 ○일에 ○마니들이 이 산천에 입산하여 산신령전에 정성발원 올리오니 내로 희망하시옵시고 빛으로 감홍하옵소서. 이 마니들이 입산할 때 부정하고 영정한 일이 많습니다. 부정하고 영정한 일은 수하로 소멸하시옵시고, 그릇되고 잘못된 일은 풀어 해탈하시고 小禮로 드린 정성 大禮로 희망하시옵시고, 大禮로 드린 정성 반가이 희망하옵소서. 산신령전에 축원하올 일은 산삼을 캐러 왔으니 이 마니들을 어엿비 생각하고 기뻐이 생각하셔서, 산에 산삼을 캐러 나갈 적에 산신님께서 마니들을 직성을 높여 주고 의기를 돋우어서 산삼밭에 인도할 적에 마대를 이끌고 아쟁이(脚)를 걸려서, 육구만달 사구 오구 육구 삼구밭에 들어 가서 억수 만금 산삼을 점지하여 주옵시고, 산에 다닐적에 험한산천 고분성(높은 頂上)배운성(골짜기) 찌기(岩)틈틈이 다닐 적에 손톱 발톱 다치지 않고, 층층이 산에 오르고 내릴 적에 받들어 올리고, 받들어 내려 몸수 곱게 점지하옵시고 기천만금 산삼을 점지하여 주십소서(설악산).¹²⁾

이상의 告辭文은 口碑傳承物로서 유교식 축문처럼 따로 규정된 양식은 없으나 어이 마니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구연된다. 공통의 고축이 끝나면 각자 입속에서 중얼거리며 소원을 간절히 다시 빌고 소지를 올린다. 대부분 내용은 산삼을 캐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등이다.

고축은 2~3분 내로 간략하게 행하나 입속함을 최상으로 하고 마치 산신령과 대화하듯이 구연된다. 한 일화로 설악산의 심메마니가 고인이 된 자신의 부친 목소리를 녹음하여 심캐러 갈때 산제당에 틀어 놓고 자신은 꿏어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고축이 끝나고 일어 서려고 했으나 몸이 마비되어 얼마간 꼼짝을 못한 일도 있었다고 문광록씨는 증언하였다. 산신령은 신식이 아니고 또 그와 같은 불경한 자세는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고축은 정성 그 자체이며 내용이 유창하거나 번지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11) 필자조사, 1981. 4. 17. 전달제(남, 72), 양양군 강현면 상복 2리 「한국구비문학대계」2-4, 강원편 속초시 양양군(1), 1983, p. 118.

12) 申教均, 「山蔘採取人の 隱語研究」 「國語國文學」論文集, 제9집 서울대 사범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80, pp. 20-21.

라. 채취활동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본격적인 채취활동에 나서게 되는데 어이마니가 앞장을 서서 구광자리를 찾거나 떼심이 있는 삼밭을 찾는다. ‘구광자리’의 경우는 ‘표적’이라 하여 돌로써 표시를 한 곳이 있는데 ‘삼구’를 캔 곳이면 돌을 세 개, ‘오구’면 다섯 개를 층층이 쌓고, ‘육구’면 돌을 무더기로 쌓아 올려 놓는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기도 하는데 남이 잘 알지 못하도록 표시해 놓는다. 구광자리는 전에 산삼을 캔 곳이므로 얼마후에 땅 속에 숨어 있던 산삼이 다시 돌아날 수 있는 확률이 많게 된다.

능숙한 심메마니들은 까마귀가 우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까마귀가 산삼씨를 좋아하므로 까마귀가 있는 곳에는 산삼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 길조로 여긴다. 그러나 뱀, 노루, 담비를 보면 재수가 없다 하는데 특히 담비를 보면 가던 길을 되돌아 나온다.

일정한 지점에 도달하면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져 산삼을 찾는데 이것을 “젠다”고 한다. 산을 재는 곳은 정상이 아니고 8부 능선을 재게 된다. 산을 재면서 마대로 쳐서 신호를 하거나 “목네미하세”라든가 “등네미하세”하면 산언덕을 넘어 다른 위치로 가자는 뜻이고 “전산하세”하면 아예 모듬까지 떠서 옮겨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라 한다. 산에서는 혹 실종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대곰’이라해서 가지고 간 지팡이 막대로 나무를 두드려 신호를 보낸다. 마대는 산행의 필수품으로 산삼을 찾기 위해 풀을 헤치거나 신호를 보내는 일을 할 뿐더러 힘든 길에 보조 역할을 하기에 黃栌나무나 박달나무와 같이 단단한 것으로 만든다.

설악산 심메마니들 경우 마대소리를 한 번 내면 “말하지 말라”는 뜻이고 두 번 치면 “모이지”, 세 번 치면 “안침(휴식)하자”는 뜻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일정하지는 않으나 심산 계곡에서 “딱딱”치는 ‘마대곰’은 서로 위안을 줄뿐 아니라 암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일행 중 누군가가 산삼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심봤다”고 외치는데 그 주변에서 함께 수색하던 일행은 모두 그 자리에 풀썩 앉는다. 일행이 몇명이든 이 규칙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서로 指呼之間이면 이에 해당하고 다른 산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면 찾아도 무방하다. 최초 발견자는 마대를 발견한 산삼곁에 꿏고서 주위의 나머지 산삼을 찾는데 찾은 것은 표시를 하고 찾을 것이 없으면 그때 “나는 다 보았으니 보시오”한다. 그러면 “안침”을 하고 있던 일행들도 찾게 되는데 “나도 봤다”고 하면 그것은 후에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처럼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큰 권한을 주는것을 先取得權이

라 하는데¹³⁾산삼을 캐는 것은 어이마니가 도와 준다.

산삼을 캐는 것을 “돌군다”고 하는데 산삼의 윗부분을 잡아 뽑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손을 넣어 밑에서 부터 들어올린다는 뜻이다. 돌구는 방법은 산삼 주위를 약 1m 정도로 돌려서 나무삽 같은 것으로 대충파고 서서히 안쪽으로 좁혀 가는데 이때 부터 손으로 살살 파낸다. 산삼은 곳곳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누워 있으므로 깊게 묻히지 않아 파내기 쉬우며 토양도 半陰半陽의 진흙 자갈돌이 섞인 북향쪽의 폭신한 땅이 대부분이다. 산삼에는 쇠붙이가 닿게 되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하여 쟁이나 낫, 칼 같은 것은 일체 쓰지 않는다. 이때 물론 말을 하지 않으며 뿌리 하나라도 다칠세라 호호불며 캐게 된다. 뿌리 하나라도 절단되면 산삼의 등급에 큰 차이가 나므로 능숙한 어이마니의 도움을 청한다. 어이마니를 ‘先採마니’라고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다 돌군 산삼은 피나무나 잣나무를 30cm 정도 상하로 잘라서 ‘바위웃’이라는 돌이끼로 싸고 파낸 흙과 함께 칩줄이나 넝쿨같은 것으로 동여매어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해야 한 뿌리도 상하지 않게되며 그대로 집에 와서 땅속에 묻어 놓으면 1년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햇색이 나와 좋지 않다고 한다.

산삼을 캔 사람이 있으면 그날로 하산하는데 다음날 아침 산삼 캔 사람은 소머리나 돼지머리, 삼색실과, 흰시루떡을 준비하여 처음 산제를 지냈던 제당에 가는데 특별히 빨·노·파·도 삼색친을 한 마씩 끊어 종이대신 제당에 걸어 놓고 감사의 제를 올린다.

설악산의 경우 산삼을 캔 산삼이 팔아도 금액 전부를 차지하게 되는데 후에 일행들에게 사례를 한다. 산삼을 캐서 만든 돈은 땅이나 부동산을 사야 오래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산삼을 캐려면 큰 재수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산삼은 그저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재복만을 준다고 한다.

설악산의 문광록씨의 경우는 20년 동안 삼구 하나, 네피, 오행정도의 재산한 것 밖에 둔구지 못했는데, 산삼은 주로 저항령 좌측계곡, 화채봉 계곡, 복고골에서 많이 나며 비선대 위의 마등령 좌측 심골, 휘문각 올라가는 찰떡고갱이, 죽음의 계곡 등에서 난다고 한다. 마등령의 심골은 그곳에서 산삼을 캐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3. 금기와 예조

심매마니의 경우 禁忌가 철저하다. 금하고 꺼리는 것은 山神信仰에서 기인하는데, 산삼은 그 산의 주인격인 산신의 소유물이므로 산신이 싫어하는 바를 피하고자 하는 심리

13) 李崇寧 ‘隱語考’ 「一石 李熙昇선생 頌壽紀念 論叢」1957, p. 25.

작용이다. 산신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산삼은 사람의 눈에 뜨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不淨을 꺼리는 것은 일반 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히 비린 것을 금하고 있다. 목욕재계는 물론이며 마당너구리(개)나 마당평(닭)고기도 먹는 것을 금한다. 초상집 출입, 해산한 집에는 친척이라도 가지 않으며 부부생활도 피한다. 혹 경도가 있는 여자가 지은 밥을 먹어도 부정이 끼며 가는 길을 여성이 가로 질러 가면 되돌아 오고, 담비를 보아도 가지 않는다. 이외에도 뱀을 보면 재수가 없고, 뱀이 길을 건너 질러가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 밤에 호랑이 울음소리나 불빛같은 것이 보이면 일행 중에 부정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산삼은 꿈으로 예시된다고 하는데 설악산 산신님은 여성이므로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무우밭에 있는 무우를 뽑아가라고 지시하던가 여자가 동침하는 꿈도 좋고 초상난 것을 꿈에 보아도 좋다고 믿는다. 그러나 豫兆의 경우 그 판단은 어이머니에게 일임하므로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도 좋은 꿈으로 해몽되기도 한다. 산삼과 얽힌 지명유래로 설악산 휘운각 계곡의 무네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산삼을 캐러 간 심메마니의 꿈에 자신의 망태기로 개를 흘려서 거의 죽게 된 꿈을 꾸었다고 한다. 개가 꿈에 뵈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지고 간 망태기속에 개가 목만 내놓고 있으므로 해몽하기를 “이 목(언덕)만 넘으면 산삼이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 무네미를 넘어서 봉정암을 가다가 십자리가 나왔으므로 후에 무네미를 목네미로 바꿔 부른다고 한다.

4. 설화

설악산 심메마니 설화 두 편을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설화는 ‘항아리심’이라는 내용으로 산삼의 종류를 이야기로 꾸민 것이다. 산삼의 약통 모양이 항아리 처럼 생긴 것으로 꿈과 채삼과의 관계를 말해 주는데 심메마니들의 희망이 담긴 話素이기도 하다. 둘째 설화는 ‘파계승과 산삼’이라는 주제로 집약 될 수 있는데 개과천선한 파계승이 산삼을 캐서 사찰을 세우는데 도와준 이야기다.

〈설화 1〉 항아리 심

옛날 한 늙은이가 죽게 된 모양 다 죽게 되었으니 산에 가서 몽사를 한 번 깨서(꾸어서)심이나 한 번 얻어 봐야겠다. 심 구경도 못해 본 늙은이야. 아, 그래서 정성을 들여설

라무네 뭐라고 정성을 들이느냐 하면 그저 산신님 빌 줄도 모르고 이제 달라고 하니 그저 할 말이 없더라.

“산왕대신이 그저 향아리 심을 내 주십사, 향아리 그러나 독심을 내 주소사”고 며칠을 빌었더니, “너 재물이 뒤에 있으니 올라가 봐라.”

그래 올라 갔대. 심이 있어. 심이 있어서 캬어. 캐서 심을 너레반석 있는데 저게 와설 라무네 내려 보니 속이 궁글(비)었다단 말이야. 이 놈 내줄려거든 바로 내 주지. 속이 궁 굴어서 향아리 심이 썩은 심을 차니 심이 깨졌단 말야, 바위에 깨졌단 말야. 산신님이 늘그막(늙을 무렵)에 향아리 심을 내 달라고 그랬더니 썩은 심을 내 주니 이런 도리가 어디 있느냐고 부화가 나서 거기에 획 집어 내 던지고 집에 왔단 말야. 와보니 삼 살 사람이 살 사람에게 몽사를 해 갖고 얻어 가지고,

“노인이 간 밤에 며칠 전에 향아리심 하나 얻은 게 있잖느냐?”

“하나 심 캐 본 것도 없고, 본 것도 업소.”하니, “왜 심을 캐고도 안 캬다고 하느냐.”고 다구치니

“응, 나 심을 캐긴 캬소. 캐긴 캬는데, 내 부화가 나서 돌맹이에 미때렸는데 어떻게 된 지 몰라. 가 보자.”

그래 심 살 사람하구 거기 떡 가보니 심 쪼가리에다 굽어 만큼하게 해서 따깡을 이어 맞춰서.

“여기 구녕을 들여다 보시오.”

해서 들여다 보니 동자 아이 스이(셋이)있더라. 동자 아이 스이 있더라. 스이 들어 앉았으니 이런 재물을 여기에 미때리고 이래 있는단 말요. 이래 꼭 싸매 가지고 설라무네 내 아무때 당신 집에 갈테니 어여 걱정하지 말라고. 하 그래 놓고 심 값도 안 주고 그냥 달아났지.

도둑놈한테 심 값을 놓쳤나 우쨌나 이리고 있더니 메칠(며칠)있으니 당나귀에 돈을 자꾸 실어 보낸단 말야. 아, 그래 왜 그래 돈을 받아 가지고 아주 불신 가난인데 눈 발대기 자꾸 사네. 맨 마지막 바리에 그놈의 돈이 오니 그 사람이 왔더라. 이만하면 노인 잘 먹고 지낼 끼요. 그래 한번 크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지 음, 옛날 얘기지. 큰 향아리 심을 그대로 속이 비었으니 향아리심은 향아리심인데 향아리 심은 속은 비었는데 아, 그 놈은 향아리를 보내달라고 했으니 속이 폭 썩은 놈을 내어주니 돌맹이다가 미때려 캬단 말이야. 깨구서 심산다는 사람에게는 몽사가 나 가지구서 아무래도 니 물건이 있으니 가 사가라구 말야. 쫓아 와 보니 심을 캐다가 어떻게 됐느냐. 아, 산에다가 지다 내 팽겨치고 왔단 말이야. 좋아 가 보자구 가서 이렇게 보니 돌맹이 심물이 쏟아져 노란게 있단 말야. 그만큼 향아리 심이 빈 향아리에 요길 틀어 막구서 요 안을 들여 보

라 말이야. 들여다 보니 동자 아이 스이가 들어 앉았더라. 그거 심이야. 약효란 말이야. 그래 그 심 시간 사람도 크게 되고 심 캔 영감도 크게 됐단 얘기가¹⁴⁾

〈설화 2〉 파계승과 산삼

여기 저항령에 올라가면 취봉당 기도터란 데가 있어요. 거기메를 지금 우리가 그전에 많이 다녔는데 산삼캐다하고... 신홍사에 취봉당이란 스님이 있었던 모양이래요. 그래 취봉당이란게 승명이겠지요. 근데 그 양반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아주 뭐, 이 너머 갈골이라고 하는데 지금 노학동, 척산 여기를 옛날 목우재로 걸어넘어 땡기면서, 중이 부녀자를 막 이저 농락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 못되게 하니까 주지 스님이 내쫓아 버렸어요. “어디가서 죽든지” 하라고.

그래 낙산사를 가니까 낙산사 주지 스님이 그걸 알구서 “이 못된 놈” 이라구 쫓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갈데 올데 없고 하니까 그 배낭에 쌀을 짊어 인제 저항령을 넘어서 백담사로 간다고 가다가 날은 저물고 이래니 그만 길을 잃어가지구 헤매고 이러다가 산중턱에 가니까 굴이 있어서 거기서 잔모양이에요. 거기 보니까 굴이 있고 물이 있구 좋거든요. 그래 “에이 여기서 기도나 드린다” 하고 “내 못된 짓 한거 속죄하고 기도나 드린다”고 기도를 드린 모양이에요. 그래 기도를 착실히 드렸던지 하루 저녁에는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구,

“너 이눔아 여기서 자빠져 자지만 말구 서리가 내일 모래 올텐데 저 무우를 뽑지 않고 어떡할라나.”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꿈이 거든요. 그래 저 앞마당이라고 그래터래요. 그래 취봉당 기도드리는데 바위 바로 옆에 팬팬한 데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거기 나와 보니까 모르는 풀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 파보니까 산삼이더래요. 그래 많이 캔 모양이에요. 그래 거기서 캐놓고 잤는데 꿈에 그 할머니가 또 와가지구,

“너 이눔의 자식 욕심도 없다. 이 단지무는 내가 가지고 간다. 단지무는 내가 가지구 가니 내일 당장 나가라.”

그래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자기가 심캔 위에 아주 진짜 무우 뽑은 자리 같은 게 쑥 빠진게 있는데, 거기 막상 새끼심이 많더래요. 그래 많이 캐 가지구서는 이래 가지구는 갖다 팔아 가지구는 어느 절에 내고 다시는 나쁜짓을 안했다고. 그래서 취봉당 기도터 기도터하는데, 그런데가 저항령 가다보면 있습니다. 단지무는 모양이 단지처럼 크구 그건 옮겨다닌답니다. 그 산삼은...¹⁵⁾

14) 필자조사, 1981. 4. 17 양양군 강현면 상북 2리, 전달재(남, 72).

15) 필자조사, 1991. 5. 4 속초시 도문동 4통 2반, 문광록(남, 65).

Ⅲ. 설악산 심메마니 은어

심메마니의 隱語는 ‘심메마니’란 어휘가 이미 은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만큼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시대추이에 따라 상당수 은어는 死藏되거나 소멸의 길로 들어선 것 같다. 일찍이 李崇寧은 산삼 채취인의 언어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¹⁶⁾ 그 하나는 산맥을 타고서 광역에 분포되었다는 言語地理學的 事實과 또 하나는 信仰起源說의 發達이었다.

심메마니 은어가 결국 산삼채취인이 의식하고 있는 山神과 산악숭배의 一端이며 신앙적 또는 원시종교적 생활에서 발달된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용례를 살피기로 한다.

1. 산삼 관련 호칭

- (1) 산삼 : 심
- (2) 산삼채취인 : 심메마니, 심메꾼
- (3) 삼산 밭 : 폐심밭
- (4) 옛날 산삼자리 : 구광자리
- (5) 새로운 산삼자리 : 생자리
- (6) 산삼종류¹⁷⁾
 - 천종 : 자연적으로 산에 나서 씨가 떨어져 생긴 것
 - 지종 : 까막까치들이 인삼씨를 먹고 산중에 배설하여 생긴 것
 - 인종 : 사람이 인삼씨를 산에다 심어서 생긴 것
 - 산양산삼 : 이미 자란 인삼을 산에다 심은 것
 - 가삼 : 산삼이 아닌 장뇌, 인삼의 총칭
 - 가을산삼 : 불림산, 황메

16) 李崇寧, 上揭書 p. 21.

17) 필자조사, 1981. 4. 18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유만석(남, 50)

190 제 3 장 속초 민속연구 및 조사자료

- 항아리삼: 약통모양이 항아리 처럼 생긴 산삼
- 동자삼: 연수를 알 수 없이 오래 된 산삼으로 아이처럼 생긴 것

(7) 산삼 각부 호칭

- 산삼몸체: 약통
- 뿌리: 미
- 씨: 딸
- 원줄기: 종대
- 꼭지: 뇌두

(8) 산삼 年數 호칭

- 초년생: 씨달이(씨가 붙어 있음)
- 씨가 없으나 2년생 이상: 내피
- 잎이 하나인 一葉生: 외잎부치, 내피
- 二葉生: 두잎부치
- 三葉生: 세잎부치
- 四葉生: 네잎부치
- 五葉生: 오행
- 二枝十葉生: 가구
- 三枝十五葉生: 삼구
- 四枝二十葉生: 사구
- 五枝: 오구
- 五枝에 씨가 붙은 것: 오구 만달이
- 六枝: 육구
- 六枝에 씨가 붙은 것: 육구 두루부치

2 은어 용례

용례에서는 필자조사A, 이승녕조사B, 이길록조사C, 신교균조사 D로 표기하여 상호 대조해 보기로 한다.

분류는 12가지인데 天文, 地理, 人倫, 衣服, 身體, 動物, 飲食, 器具, 草木, 雜名詞, 動詞의 순이다. 이밖에도 文章으로 표현된 것도 추려서 서술하고자 한다.

가. 天 文

조사자 표준어	A	B	C	D
1. 안개	더퍼리	더뎡이	더뎡이	더뎡이 덤뎡이
2. 바람	더퍼리 아재비	건들개	풍이	풍이
3. 비	센다	줄뎡이	줄메	줄메 줄멩이
4. 불(火)	꽃, 딸	달	달	딸
5. 태양	.	노래기	.	노래기
6. 달(月)	.	뎡과리	.	.
7. 눈(雪)	.	히기 히드기	희제비	희제비
8. 황덕불	우동불	.	.	자래불

나. 地 理

9. 바위	쩍	찌기	찌기	찌기
10. 길(道)	.	도술개	도술개	도술
11. 웅덩이	상탕 하탕	술개	.	.
12. 산봉우리	.	.	.	고분성
13. 산비탈	.	.	.	배운성
14. 변소	칙간	.	진갯간	진갯간 진대간
15. 옛심자리	구광자리	.	구관자	구광자리

다. 人 倫

16. 사람	마니	마니	마니	마니
17. 우두머리	어이	어이마니 어이님	어인선생 어인마니	어인선생 어이마님

192 제 3 장 속초 민속연구 및 조사자료

18. 중간계급	둘째마니	·	·	삼메마니
19. 취사 담당자	·	·	·	무름메마니
20. 소년 채취자	애기마니 천동마니	소장마니	소동마니	소동마니 천동마니
21. 동행인	·	·	원앙내	원앙내
22. 여자 채취자	·	개장마니	·	개장마니
23. 김선생	김마니	김마니	김마니	김마니

라. 衣 服

24. 상의	걸치미	더구레	·	구지비
25. 하의	·	추제비	·	·
26. 발감기	감발	·	·	·
27. 신발	·	디대	·	디디미 드디미

마. 身 體

28. 손(手)	·	쥐아미	·	·
29. 눈(眼)	·	부루치	·	·
30. 피(血)	·	논다리	·	논다리
31. 발(足)	·	설피	·	·
32. 다리(脚)	·	·	·	아쟁이

바. 動 物

33. 호랑이	말	산개	산개	눈큰마니
34. 곰	·	넙대 넙대기 넙대마니	·	늑대마니
35. 산돼지	·	쿨쿨이	산재, 산적	쿨쿨마니

36. 뱀	진대	진대마니	진짐승 진대마리	진가지
37. 까마귀	흑조	흑저구	흑저구	흑저구
38. 소(牛)	·	·	·	우거우
39. 쥐(鼠)	·	서산 서산이	·	·
40. 다람쥐	·	둘제비	다리미	다리미
41개(犬)	마당너구리	마당너구리	·	마당너구리
42. 닭(鷄)	마당쟁	·	·	·
43. 쌀(米)	모래	모래미	모래미	모래미
44. 술(酒)	곡차	홀림	·	홀리미
45. 밥(飯)	고양	무림 무림이	메, 무림 무림	무름이
46. 제사밥	노구메	노구메	누구메 무리메	제사무름이
47. 소금	·	백사	·	백사
48. 담배	연초	연초	연초	연초
49. 국수	·	·	면	면
50. 고기(肉)	·	·	부치	육
51. 돼지고기	·	·	·	쿨쿨이육
52. 쇠고기	·	·	·	우거육
53. 간장	흑물	지-르	·	지렁, 진수
54. 물(水)	숨	홀림 수-口	숨 ·	숨
55. 점심	참	·	·	낮무름이
56. 꿀	·	·	·	벌앵아리
57. 고추장 (된장)	·	·	·	질
58. 떡(餅)	·	편	·	·

아. 器 具

59. 산막	모돔	모돔	모디口 모돔	모딤
60. 도끼	.	잘메	밤눈이	잘맹이
61. 낫	감재비	감재비	잠재비	감잡이
62. 바가지	.	넉추리 논추리	너추리	너추리
63. 담뱃대	연초	.	.	연초대
64. 솔	새용	정자	정자	우렁기
65. 숟가락	올림대	올림대	올림대	올림대
66. 젓가락	올림대	산재 산재까치	올림대	올림대
67. 깔개	안침	.	.	.
68. 지팡이	마대	마대	마대	마대
69. 돈(錢)	.	떨랭이	.	.
70. 성냥	당황	.	.	진가지
71. 불집게	심부름꾼	.	.	날집게
72. 종이	소지	.	.	소지지
73. 인가 (人家)	막	.	.	평모돔

자. 草 木

74. 멜나무	부치미	자래	달낭구	딸자래
75. 큰 나무 쓰러진 것	.	진때	진더리낭구	진더리낭구
76. 나무	들미 고목	.	자대	자대
77. 낙엽	.	초산이 낙진잎	허집	초산이
78. 덩불	췌기	.	.	덤팽이
79. 햇불	.	.	달	.
80. 관솔	광솔	.	.	진가지
81. 풀	.	.	.	초산이

차. 雜名詞

82. 꿈	몽사	·	·	몽
83. 한번 감	한탕	·	한삼	·
84. 두드림	마대곰	·	곰	곰
85. 휴식	안치미	안침	안침	안침
86. 소리침	외장	·	·	·
87. 대변	·	·	·	진대

카. 動詞

88. 담배피다	그실는다	실른다 슬른다	싹는다 올린다	실은다
89. 자다	찌그리다	찌그린다	찌그린다	찌그리다
90. 쉬다	안치미하다	안침하다	안침하다	안침하다
91. 간다	젠다	젠다	젠다	젠다
92. 깨다	돌군다	젠다	돌군다	돌군다
93. 밥먹다	올림대로 먹세	다부린다	다부린다	다부다 다부리다
94. 앉다	안침하다	·	주침	주침하다
95. 죽다	·	·	·	구실르다
96. 다른 산 에 가다	목네미하다	·	전산	전산
97. 산삼 켄 후 소나 돼지잡음	·	·	켄다	우거우 쿨쿨이 정성
98. 행방불명 되다	·	구싹는다 구실렀다	·	·
99. 비가 온다	하늘이 쟈다	·	곤는다 고친다	·
100. 은어쓰다	변쓴다	변말쓴다	변쓴다	변쓴다

타. 文章

1. 산신제 메를 올린다	노구메 정성 올린다	무림이 올린다	무림이 올린다	무림이 올린다
2. 피 흘린다	·	논다리 흘린다	논다리 친다	논다리 치다
3. 어른님 밥 드시오	어이마니 공양드시오	어이님 무림 다부리쇼	어이님 무림 다부리쇼	어른님 무림 다부리쇼
4. 밥 먹읍시다	공양합시다	·	·	무림이다부립시다
5. 담배 피웁시다	연초 그슬리자	연초한대그슬루까	연초 올린다	연초 실읍세
6. 길로 잡시다	·	·	·	도술로 쟁시다
7. 산삼 캐러 잡시다	재러잡시다	·	·	산으로 쟁시다
8. 안개 끼었다.	더퍼리가 내린다	더팽이가 끼었다	더팽이가 끼었다	더팽이가 끼었다
9. 배고프다	출출일세	·	·	헛배가쪼그라든다
10. 배가온다	하늘이 센다	·	·	줄맹이 드리네
11. 돌아가자	하산합시다	·	·	평모듬으로 내리쟁시다
12. 쉽시다	안침일세	안침하세	안침하세	안침하세
13. 뭍나무	우동나무 쓴다	·	·	자래를 하다
14. 까마귀운다	흑조 짓는다	흑저구가 고한다	흑저구가 고한다	흑저구가 고한다
15. 내려가자	갈때일세	·	·	모듬으로 내리쟁시다
16. 말하지마라	'막대로 딱딱때립'	·	·	고무말아라
17. 전나무로 지붕하다	·	·	누와뜬다	누와뜬다
18. 산삼캐는 기간	한탕일세	·	한삼보러 간다	한삼보러 간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설악산지역에서 산삼을 채취하는 심메마니의 습속과 은어를 정리하여 보았다. 본고는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겸한 논고이므로 산간기층문화의 면모를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날로 쇠퇴하고 있는 산악민 풍속의 하나로서 심메마니연구는 새롭게 접근해야 할 과제이며 강원도 전역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해야 보다 선명한 지역간 대조가 이루어 질 것이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논의한 설악산 심메마니 습속과 은어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악산은 심메마니의 주활동무대이며 산삼의 寶庫였으나 지금은 그 자취를 찾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이지역 채삼인 습속연구의 마지막 작업일 수 있으며 강원도 전역 심메마니 본격고찰의 시발적 의의를 지닌다.

둘째, 설악산 심메마니 습속은 산악신앙, 산신신앙에 의존하여 토착성이 강하며 오대산 지역과도 부분적 차이가 나고 있다.

셋째, 금기와 예조, 봉사 등에 의존한 채삼풍속이 전통적인 관습으로 내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奇數觀念과 慎言主義가 강하여 입산부터 하산까지 우두머리의 일관된 지휘체계에 따른다.

다섯째, 隱語使用에 있어 독자성이 엿보이고 佛敎的 色彩가 설화와 은어에 내포되어 있다. 끝으로 언어학적 고찰은 적당한 연구자에 미룰 수 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심메마니用語集과 같은 전반적인 조사자료집 출간이 학계공통과제로 제기되기를 희망한다.

제 2 절 속초 북청사자놀이 전승실태조사

본 조사는 북청사자놀음의 속초지역 연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자와 제보자, 연희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조사일시 : 1991년 7월 16일 오후1시~6시

②조사지 : 속초시 영랑동 151, 8통5반

③제보자 : 속초시 영랑동 8통5반

김수석(1907년 7월19일생)

속초시 금호동 10통1반

김하륜(조사당시 76세)

④조사자 : 장정룡(강릉대교수), 최재도(속초문화원 사무국장), 정인숙(강릉대 국문과4), 이교우(국문과3), 홍서경(국문과3)

⑤조사개관

본 조사는 1991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상기 조사자들이 속초지역 민속극으로 연희되고 있는 북청사자놀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이 자료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84호로 지정된 김수석옹과의 면담, 북청도청회장인 김하륜옹과의 면담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현장론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958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사자탈의 원형사진과 함께 1959년 속초지역 북청동향친목계 계획개요와 계원명단을 공개하여 당시 속초지역의 사자탈과 북청사자탈놀이 공연단 결성의 계기가 되는 동향인들의 움직임을 살펴코자 한다.

⑥제보자 지정자료

제84호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본적 : 함경남도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구18반

주민등록번호 : 140404-107507

성명 : 김수석 1907. 7. 19生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사자앞머리)보유자로 인정함

1971. 2. 9

문화공보부장관 신 범 식

⑦北靑同鄉親睦契 契則 및 契員名單
(檀紀 四二九二年(1959)五月二日)

상기 표지의 계칙 및 계원명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계칙은 전체 8장 23조로 되었는데 바 제1장 총칙에서는 北靑都廳을 만들어 사무실로 쓰고 계원간의 우의와 친애협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장 조직에서 계원자격은 당시 속초읍내에 거주하는 북청군민으로 하고 계원수는 36명으로 정했다. 뒤에서 명단을 밝힌다. 3장은 권리와 의무로서 매월 20일에 월례회의를 갖는다고 하였다. 4장의 役員에서 계장1, 부계장1, 총무1, 재무1, 서기1, 간사1, 의식부2, 연예부2, 장의부2, 고문 약간명인데 연예부에서 북청사자놀음에 관한 공연 계획을 주무로 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장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3월20일, 월례회는 매월 20일로 정해 고령자순위로 자택에서 소집했다. 6장은 부조사업, 7장은 자금 및 운영, 8장은 상벌,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있다. 당시 계원명단의 나이 주소는 다음과 같다. 李貞基(63세·북청읍 외서리), 吳景昌(59·내리), 金南龍(54·남리), 金壽石(52·죽평리), 李昌熙(52·거산면 평리), 李浩永(51·북청읍 외서리), 全三默(49), 方鶴福(48·북청읍 서리), 朴鎭漢(48·신북청년 신상리), 李在燮(47·신포면 육구), 崔舜在(47·하차서면 상신리), 李秘泳(48·북청읍 상동리), 李完燮(46·남리), 朴成哲(46·서리), 方錫洪(45·서리), 梁桂乾(45·덕성면 동압내리), 金河俞(45·신북청면 양가리), 魯允武(45·덕성면 동압내리), 朴庚亨(43·상차서면 방촌리), 劉弘烈(43·덕성면 주의동리), 李鍾旭(43·상차서면 엄동리), 方錫在(43·북청읍 서리), 李鍾俊(42·상동리), 魚重龍(42·날미), 馬房燮(41·가회면 봉의리), 金洪川(40·가회면 봉의리), 李鍾浩(40·북청읍 서리), 閔丙國(39·거산면 하입석리), 崔乘潤(39·건자포), 金孝煥(38·신포면 신포리), 金先川(38·북청읍 상동리), 李奧燮(38·서리), 吳東述(36·죽평리), 申謙(36·죽평리), 馬裕得(34·가회면 봉중리), 林龍泉(33·북청읍 북삼리)

이상의 개요로 볼 때 상당수 북청주민들이 속초에 정착하여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4년 통계로 당시 북청군민 총 28만 4천여명중 14만명 정도가 월남했으며 속초에는 300~400가구정도가 모여 살았다고 한다.

⑧북청사자놀음 전승조사

앞서 북청동향친목계에서도 나타났듯이 속초에는 함경도 피난민들이 정착함으로써 북청사자놀음이 자연적으로 재현될 수 밖에 없었던 여건이 조성되었다. 195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북청사자놀음이 참가하는데, 13세때부터 사자춤을 추었고 19세에 애

원성을 사람들 앞에서 잘 불렀던 죽평리의 김수석옹이 속초에 살고 있었으므로 서울의 북청군민회에서는 김옹을 중심으로 출연단을 구성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북청사자놀음이 남쪽에서 재현되었으며, 속초에서도 북청사자놀음을 이곳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생기게 되었다. 구체적인 작업을 위해 우선 북청도청이라는 집회소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는데 친목계 36인이 당시의 사업에 참여하였다.

기금마련을 위해 1957년 정월대보름, 김수석옹이 속초에 정착한 다음해 북청사자놀음이 속초에 모습을 나타냈다. 사자탈과 통소, 복식등을 새로 만들어서 사자춤을 추며 가가호호를 방문하였다. 당시 친목계원 중에서 김수석 오동술 김하륜 이재섭 등이 중심이 되었는데 계원중 재주가 있는 사람을 골라 다시 연습에 들어갔다. 북청사자놀음의 중심은 사자에 있으므로 앞채 사자에 김수석, 통소에는 김하륜이 중심이 되었으며 다른 배역들은 이들의 고향에서 추었거나 본 적이 있어서 재현에 성공하였다. 약10일동안의 걸립에는 북청군민지역 독지가로부터 거둔 기금으로 1958년 속초오장 전성우씨로부터 금호동소재 읍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북청도청을 건립하였다.

이 도청이 건립되기까지는 계원 36명이 손수 산허리를 깎는 작업을 해서 세운것으로서 북청군민회지회 보다도 북청도청이라는 공동집회를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룬 성과에 의해 결집력이 강화되었다. 도청에서는 고향의 전통재현을 위해 북청사자놀음을 매년 정월보름에 망향제를 지내고 실시하였는데 북청현지와 다름없이 재현되었으며 북청인들 뿐만 아니라 타지역 실향민과 속초의 주민들도 함께 공연을 감상하고 흥이 나면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와같이 속초에서 북청도청을 중심으로 사자놀음이 재현되자 이북5도청에서도 1960년 서울에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발족, 1964년부터 전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66년 10월 덕수궁에서 개최된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속초의 김수석 오동술 이재섭등이 일원으로 참가하여 김수석옹이 개인상을 받았으며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받았다. 그리하여 1970년 4월에 북청민속예술 보존회가 인가되고 김수석옹이 인간문화재 제84호로 지정받게 되었다.

1966년 당시 개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장〉 개인상(민속놀이)김수석

우는 공보부와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공동주최로 개최한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중앙결선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함.

1966. 10. 24

공보부장관 홍 종 철

1957년 초창기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에 연희자로 참가했던 사람은 다음과 같다.

사 자 : 김수석(앞채, 애원성)·(뒷채·오동술)

양 반 : 이종욱

꼭 쇠 : 양계건

사당춤 : 박씨

의 원 : 장남우

승 무 : 김봉수

총 각 : 김원사

굽 추 : 마유득

도깨비 : 김효환

중국인 : 이종호

악 사 : 변무성(통소), 박진환(통소), 이재섭(통소), 김하륜(통소), 마방섭(북),

이종준(징), 신겸(장구)

이외에도 길잡이 놀이패 수 명 참가

이들은 1963년 속초가 양양읍 속초리에서 시로 승격되자 설악제등에 참가했으며 6대 김경산 시장이 적극 후원하여 활발하게 연희되었다. 그러나 1967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71년 김수석옹이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북청군민회하의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서 각종 대외 행사를 치르게 되고 속초에서 서울 등지로 공연출장을 나가게 됨에 따라 속초에서의 북청사자놀음은 70년대 중반에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으나 속초거주의 연희자들이 대부분 보유자로 지정이 되지 못했으며, 노령화되어 공연자체가 어렵고 후계자를 육성하지 못한 데서 주로 기인된다.

북청출신의 자녀들은 대부분 외지에 나가 있으므로 1982년에는 전문대학 학생들을 김수석 보유자가 지도하여 대학축제에 공연하였으나 북청도청에서 주관하여 공연한 것은 1981년 9월 가을맞이 새마을대예술제 참가를 끝으로 전승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 당시 연희자로, 사자에는 김수석(앞채), 김덕용(뒷채), 양반에 범경일, 꼭쇠 황남극, 총각 김원삼, 사당 박씨(여성), 의원 장남우, 승무 김봉수, 중국인 이종호, 악사로는 통소에 이재섭 김하륜, 북은 백하규, 징은 유춘산 등이 담당하였다. 1991년 설악제 민속제시에는 가장행렬로 북청사자놀음이 나왔으며, 그외에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이 공연될 때는 서울의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서 와서 공연하고 김수석옹이 애원성을 불렀다.

김수석옹과 김하륜옹의 조사녹음 자료를 그대로 옮겨 내용 등을 살피기로 한다.

제보자는 (제), 조사자는(조)로 표기하기로 한다.

(조)사자놀음중에 무동춤, 사당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이라 부르는지 아니면 첫째마당 둘째마당 그렇습니까?

(제)그러니까는 사당춤 뭐 칼춤, 뭐 꼽새춤 그 다음에 애원성춤 그 다음에 거기 사자 놀이마당...

(조)다 함께 추는 춤도 있겠죠?

(제)에, 그건 맨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맨 마지막 사자춤이 끝나고 그때 사자가 놀 때는 다른 사람은 안들어 가거든. 그러구 승무하고 그러니 세 사람이 들어가 놀거든, 마지막에 이제 끝날 무렵에 한 이 십분 놔두고 다 들어간다. 인원이 다 들어가서 한마당에 사자도 놓고 그 다음에 칼춤하나, 칼춤추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들어 가는게 아니라 그러니 몸뚱이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저기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꼭쇠, 양반 뒤편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그래 그때는 한마당에 들어가서 전부 어울리게 복잡하게 놀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와서, 나올적에도 막 그리 쉽게서 순서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한바퀴 돌아요. 외줄 서서 말이요. 한 줄로 서서 빙 돌거든요. 그래 이제 돌고서, 거기 이제 존위라는 게 있어요.

(조)존위요?

(제)존위라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말이요, 옛날에 동네 부락에서 제일 나(나이)먹은 사람을 존위라고 하거든요. 존위, 그래 그 존위가 맨 마지막에 무슨 잡병 쫓구 있지요. 그래고 있지요.

(조)놀이가 끝나고 나서 마을의 어른인 분이 나와서 축문을 한다든지 해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게 없습니까?

(제)그러니까 마지막엔 그렇지만 이북에 거기 놀적에 거기 좀 안직(아직)있었어요. 이북에서 할 적에 말이요. 이제 사자가 이북에서 정월대보름날 놀지 아니요? 대보름날 달이 밝아 이제 노는데, 그때는 이제 그 부락에 스무집, 집이 스물하고, 다 들어가요. 사자가 집안을 한바퀴 돌고 나온다.

그 돌고 나오는 뜻을 무슨 뜻이나 하든, 사자가 한바퀴 돌고 나오면 그 일년은 집안이 아주 재수있고, 아주 뭐 참 무사히 난다. 그래서 사자가 돌고 나온다. 돌고 나오면 그집에서 어떡허는고 허면 이제 쌀을 한 말 정도 주는 집이 있고, 그때는 술 대병을 서너되 받아서 주는 집도 있고 말이요. 그래 그놈의 것을 며칠을 다녀서 그 부락을 다 마치고 나서 결산을 하지, 결산을 하게 되면 “돈이 몇 만원이다”, “쌀이 몇 섬이다”하게 되면 말이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은 말이요, 쌀도 그때 몇 섬 두어 섬씩 주고 말이요 또 저기 가게집에 팔아 가지고 그때는 고학생이 많았어요. 일본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말이야, 이랬지 뭐. 그리고 또 원래 북청알지만은 북청물지계가 유명하잖아요. 이북이 교육열이 참 세지요. 이북에 들어가면 말이요. 이북에 하여튼 들어가문 어떤 여자든 편지 못쓰는 여자가 없고 편지 못 보는 여자가 없다이.

(조)그 마을에서 행해질 때는 그곳에서도 북청마을, 북청도청에서 모여가지고 놀았겠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돌고 와서요? 그때는 사자만 집집마다 들어갈게 아니예요?

(제)아. 사자만 돌고 나오지요. 그다음에...

(조)그리고 마당에서 놀겠지요?

(제)아, 그렇지.

(조)정월 대보름날, 그러니까 15일날 밤에만 노는 거예요?

(제)아니여, 그때는 한 이 삼일씩 한다이.

(조)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제)그렇지, 한 이 삼일씩 한다이.

(조)그러니까 14일도 하고 16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언제부터 북청사자놀음을 하셨어요. 북청현지에서는 언제부터 행해졌는지?

(제)현재 북청에는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요. 아까 내가 그랬지요. 하여튼 내가 열두살때 부터 열두살에 서당에서 서당마당에서 사자놀음 한다 그래서 내려가니까 노는 것 보니까 아무게 아무사람이 놀드라 그랬지요. 언제부터인가 그건 잘 모르지.

(조)등장인물이 여럿 있겠습니까?

(제)악사가 신이 들려 악사가 치는 게 말이요, 사자가 저기 뭐야 초장, 중장, 말장이라 그러지요. 초장이 치는 게 다르고 중장이 치는 게 다르고, 말장이 치는 게 다른거든. 그러니 악사는 꼭 치던 사람이 나와야 되요.

(조)아까 통소를 부셨는데요 그게 애원성 춤의 반주악기로 들어가죠. 통소악기가?

(제)아 그렇지요.

(조)그거 애원성에 맞추는 가락이랑 사자춤에서 맞추는 가락이랑 틀리겠죠?

(제)그럼, 다 틀리지요. 칼춤 추는 것도 다 틀리고, 무동춤도 다 틀리고, 다 제가락 쓴다이.

(조)연풍대라는 게 뭐죠?

(제)연풍대는 우리 고향에서 말이요. 하여튼 명절에 말이요, 한 삼백호나 이백호씩 사는데 한 부락에 말이요. 명절이면 하여간 서당이라는데 그 저 한글을 배워주는데 그 서당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명절이면 오늘이 설날이다 하든 오늘 저녁(저녁)에 저녁 먹고서 짝 건너와서 서당에 모이거든. 서당에 모여 가지고 서당 마당이 여간 너르지 않지.

여간 너르지 않다이. 거기선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지, 사자가 그 마당에서 놓고 이제 그 사자가 끝나게 되면 전부 그 방안에 들어가서 방안을 싹 메운다이. 방안에 양쪽 이리 갈라 앉아 말이며, 한쪽에서 악사들이 징을 치미(치며), 통소를 불미, 북을 치면서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술먹이면서 내다 춤을 추킨다이.

(조)혹 지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때 추던 사자 앞머리 하시던 동작을 취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그러지, 무동, 무동있다이 아니 뒷사자하는 여기 이 무동한다이 거길, 앞을 든단 말이며. 나를 들거든, 뒷사자가 말이며.

(조)가장 기본되는 반주는 통소가락에서 모든 춤이 이루어 지는 겁니까?

(제)그렇죠, 통소, 그러니까 북, 팽과리, 장구, 장구 고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고개 맞아야 사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쓰고선 아무것도 안 보는데서 그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거 장단이 조금 틀려도 말이며, 사자가 지 멋대로 못 논다이.

(조)저기 모두 탈을 쓰고 춥니까?

(제)뽑추가 탈이 있고, 양반이 탈이 있고, 그 다음에 꼭쇠, 꼽추,...

(조)나머지는 맨 얼굴입니까?

(제)그 나머지는 그냥 맨 얼굴, 수건쓰는 것도 있고, 고깔 쓰고,

(음악에 맞추어 앞사자춤을 추었다.)

(조)초장, 중장, 말장의 춤동작이 다 틀립니까?

(제)다 틀리지요.

(조)사자탈을 만들때 예를 들면 여자들은 못 만진다는 그런 애긴 없습니까?

(제)그런 것들은 없고 옛날 옛날에 자손이 귀한 집 애들은 이제 사자를 태우거든. 태우면 장수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자탈이, 사자탈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애기 기저귀에 다 채우면 명이 길다 그래서 그런건 많지요.

(조)사자탈의 색깔이 여러가지인데 뭐뭐 쓰입니까?

(제)빨간 것, 흰 것, 노른 것, 밤색, 검정색 다섯가지지 여섯가지지 그래요.

(제보자는 계속하여 이북에서 북청의 공립 보통학교를 나왔으며 혼자 14후퇴때 월남하였다고 함. 그는 7대 독자로서 이북에서는 14세에 장가를 갔으며 네 명의 자식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말함.)

(조)지금 후계자로 누굴 꼽고 있습니까?

(제)여기 속초에서 없지요.

(조)서울은 누구입니까?

(제)서울엔 지금 뭐 애들이 여럿이 있지요.

(조)저 이런걸 가르쳐 주어야 할텐데 속초에도...

(제)그러게 말이오, 애들만 나오는 게 있으면 말야, 내가 지금 나이를 먹었지만 나가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나올 애들이 없다이, 여기 전문대 애들은 몇해 전에 일주일씩 가르쳐 봤는데 잘해요. 잘하는데 애들이 말요 졸업하고 다 집으로 가버리니 소용이 없어요. 여기 속초에 있는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조)그러니까 사자놀이를 이제 속초에서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한다면 가르치실 수 있겠습니까?

(제)여기가 원래 사자놀이 본부인데 여기서 하여튼 서울 사람들한테 뺏겼단말이야. 그 다음에 일단은 자본도 있어야지만 자본도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허자면 돈을 만들어 나서야 되는데 그때는 또 여기서 알기를 우수이(우습게)알았단 말이야. 그때는 문화계를 아주 우수이 여겼단 말야. 그런데 서울사람들은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조)앞사자 할 경우에 춤사위 모양이 어떤 춤이다 어떤 춤이다 하는 명칭이 있습니까?

(제)명칭은 없어요.

(조)손은 앞에 입을 잡으시겠지만요. 탈은 이제 어떤 형태가 있겠지요, 움직이는?

(제)그러니까 이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요.

(조)사자가 앉아 있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던데요?

(제)앉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래 타지 않소. 그 안에서 서는 것도 있고 앉아서 골을 흔들 때도 있고 서서 흔들때도 있고 이렇다이. 두 마리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마리가 나올 때도 있지요.

(조)두 마리가 나오면 서로 싸우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제)싸우지는 않지만은 서로 놀고 관람자들을 아주 좋게 할려고 말ियो.

(조)보통 전체놀이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제)놀이시간요? 오래 못놀지요. 사자는 한 십분 하는 때도 있고 한 이십분 하는 때도 있고.

(조)전체는요?

(제)전체는 한 사십분 오십분, 자연적으로 음악에 따라서 하는 거이 인간문화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초장, 중장 말장까지 있재이. 그러니까 삼장이지, 사자는, 사자는 삼장에서 이제 노는 거지. 그거 에원성춤이다, 품새춤이다, 칼춤이다, 그게 다.

(조)저 재미난 얘기 좀 해주세요. 탈놀음 잘하여서 뭐 대접을 잘 받으셨다는지?

(제)아이,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대접을 잘 받았었는데 뭐 실물이나 아니냐 확인을

하고 막 싸워가지고 여기 들어와 확인을 다 해 보시고 그랬어요.

(조)그 춤마당 있죠, 지금 아홉마당으로 나뉘지고 있잖습니까?

(제)그기 두 마당 아홉 거리라 그랬지요.

(조)두 마당 아홉 거리가 확실한가요?

(제)그렇지. 다른 춤은 안 들어가요. 두 마당 아홉 거리라는 게 두 마당인데 아홉가지가 나오는 기지.

(조)크게 마당으로 나뉘지는 것은 뭐니까?

(제)에원성 마당, 사자춤 마당.

(조)선생님이 만든 사자탈과 지금은 다릅니까? 사자 머리 모양이...

(제)원래 여기서 만든 사자가 서울 올라가서, 서울서 올라오라 그래서 여기서 만든 사자를 올려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사자 그 꼴을 모방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자기네찌리 망글어 가지고 지금 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찌리 꼴을, 탈을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이야. 여기서 망근(만든)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친목회 김하륜이라고, 우리 회장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사자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아주 대가리가 참 보기도 좋아요.

(조)옛날걸 만든 거예요?

(제)예, 제가 망근 기요 거기 있습니다.

(조)사자탈은 피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제)아니 종이로, 종이를 붙인 거예요.

(조)꼭 해주시고 싶은 얘기좀 해주세요?

(제)내가 지금 애원하는 거는 내가 하여튼 여생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고, 하여튼 나는 언제든지 속초에다가 이 사자를 좀 후배를 망글어 놓자하는 이런 기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나오는 학생들만 모조리 해주면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말이요, 아즉까지는 건드려지지 않으니까 매일 매일 가르칠 수 있다이.

(제보자는 그동안 혼자서 지내다가 불과 몇년전에 통일될 희망이 멀어지고 나이도 자꾸 먹어서 할머니 한 분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분은 박금주 할머니로 칠십세라고 함. 이어서 김하륜 북청도청 회장택으로 김수석 인간문화재와 함께 찾았다.)

이하의 제보자는 김하륜옹을 말함.

(조)회장 맡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올해 야튼 뭐 십오년 한 십오년 계속...뭐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맞게 되니까,

(조)함경도에서 고향은 어디셨습니까?

(제)북청읍 신천면이러는데 있어요. 14후퇴때 나왔어요.

(조)북청동향친목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제)북청동향친목회는 36명이야. 그때나 이따나 이 형님(김수석씨를 지칭)이 제일 고령자시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고 하니 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요. 그래 가지고 사자를 저기 선조로 내려오는 공연문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거든. 저 바닷가에 가면 고기 그물을 썩어서 내버리는 것을 골라 가지고 씻어 가지고 바다에 씻어 가지고 삶아 가지고 물을 들여 사자를 만든겁니다. 그때 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나 이 형님이 사자를 만들고 그래서 사자 노는 걸 연습했지. 그래서 그 활동으로 모인 돈을 가지고 운영했지요. 우리는 정월 대보름날 야튼 음력설부터 보름날까지 계속 땡겨요. 그래 몇날을 해가지고 우리 고향의 선조들은 정월 대보름날이라 정초에 사자놀이를 하게 되면 그 잡신들이 다 쫓겨나고 만수무강하라고 빌고 다 그래서 집집마다 쌀도 노파주고 돈도 노누는 집이 있고, 그때 돈으로 삼백원, 제일 잘사는 사람은 한천원내고 그럼 그걸 함께 모아 재산을 만들었어요.

(조)그럼 그게 몇년도 입니까?

(제)그러니까 그게 햇수로서 33년 됐지.

(조)선생님은 언제부터 북청사자놀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우린 고향서 고향민속이 그러니까 제일 우리 북청이, 북청군이 3개읍이거든. 북청이 큼니다. 3개읍 17개면이거든. 그럼 각 면면이 달라요. 제일 저~저 무식한 말로 억세게 사자놀이 하는데는 이 큰골이라는데 대골, 북청읍 죽평리, 거기서 제일 잘 놀고 우리 양가라는데 양가는 신북청에서 북청을 넘는 중간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제일 싸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와서 그때 그걸 몰랐지. 하야튼 왜정때 그 일본 놈의 새끼들 하튼 개지랄 하는 것도 기어코 시내에서 보름에 밤새도록 놀았던 말이요.

(조)왜 못 놀게 했습니까? 일본사람들이?

(제)그러니까 그 첫째 기초가 그 돈돌라리니까. 그 의미가 어떻게 나는가 하니 저 삼월 한식날 각 저 다리밧으로 가거든. 모래사장 거기서 처음에는 달래캐러 간다. 한식때니까, 그래서 집에서 바가지 꺼내 달래캐러 간다 그래서 그 비밀이지. 그래가지고 어느 다리밧 어느 강가 모래장 거 까지..., 친구다리밧으로 이제 돈돌라리 부르면서 달래캐러 간다 하지. 그 돈돌라리 부리는 의미가 거기서 우리 조선 조선이니까. 돈돌라리로 서로 암호로 연락하는 기야.

“이 강산 철산에 해가 떨어진다”그래해요.

(조)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제)그때는 날 거기서 별루 무슨 역할을 아니, 난 어릴때니까 가담을 못했지.

(조)여기 나오셔서 가담하신 역할이 있으신지요?

(제)여기 와 주로 사자놀이 애쓰고 이 형님과 둘이 애쓰고 노력하고 밤낮 앉으면 통소불고 그래서 전문대학 학생들을 몇해 길러 봤어요. 그래서 문화원장 김종록씨 할 적에, 그 분이 계속하셨으면 어느정도 발전이 됐을 거요. 내 지금도 통소 하루에 한번씩 불어요. 난 아직 문화제는 못됐소.

(조)통소는 선생님이 만드신 겁니까?

(제)이게 다 우리 손으로 만든거요. 지금도 망글어요. 만들기 힘이 들어요. 이게 질이 세가지고 구멍을 뚫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거 우리 여기선 무스할까 서울서 본부에서 만든 거.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삼 년 삼 십년전 일이야. 한 삼 년 놀았거든. 가서 저 사자 가지고 가서 그래서 서울가서 한 삼 년 대렸어요. 그런데 서울서 가뜩 바쁜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좀 섭섭한 건 가을 10월에 오징어가 날때거든. 바쁠때 우릴 와서 모셔 올라가야지 가면 또 여관비 줘야지, 돈을 농가(나누어)줘야지, 그래 귀찮으니까 한 삼년 다니고 등록 난 다음 자기네, 지금 노는 사자야. 틀이 지틀이 맞지 싶어 칠한 거야. 이게 본 사자 거채입니다. 그렇담 지금 서울 학생들이 지금 말하는 기 저 영감들이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기야. 지금 현재 영감들이, 그래도 우리 사자 저기 진짜지, 거 내 하도 무숙해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 그 원형도 변한 단 말ियो. 몸통이 새빨강지. 그리고 털이 질구(길고)털이 암만 질구 그 다음 음악도 판이 다릅니다. 지금.

(조)지금 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내 불긴 부는데 가시는 한 가지지. 내용은 한 가진데 음악은 저 옴프(음표)는 틀려요.

(제보자는 5~6년전 설악제때 녹음한 것이라며 들려 주었다. 1985년 10월2일 설악제시에 입장곡, 애원성 타령, 사자놀이, 연풍대, 사자 춤 등을 녹음한 음악을 틀었다.)

(제)통소를 녹음하는데 입장곡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애원성타령, 이 김하륵하고 그리고 인간문화재 등록 난 할아버지가 변영호라, 지금 통소 못불어요. 이게 김수석 할아버지가 애원성 타령 한거요.

“에~헤, 에~헤 우수경칩에 대동강이 풀리고 정든 님 말씀에 요내 가슴 풀린다. 에~헤, 해는 오늘 보면 내일 보는 것 임자는 오늘 보면 언제나 보는가. 에~헤 태산에 붙은 불은 만백성이 끄고 요내 가슴에 붙은 불은 어느 누가 끌까 에~헤...”

이 가사가 의미가 있는기야. 그리구 사자놀이 “예구 내딸 봉섬이”란게 있어요. 그 봉섬이란 아가씨가 그 아가씨가 예뻐던 모양이지.

(조)이 통소소리는 무엇입니까?(녹음된 통소소리를 들으며)

(제)처음에 입장곡, 그 다음에 애원성타령 부르고 예구 내 딸 봉섬아 불렀거든, 그 다

음에 이제 붙던 게 연풍대라는 기요. 이번에는 칼춤 나와요. 칼춤 잘춰요.

(조)예구 내 딸 봉섬아, 그게 사당춤니까?

(제)그게 사당춤이요.

(조)연풍대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제)그 춤 가락을 다르게 하는데 입장곡이 다르고, 모르는 사람은 다 한가지로 부르는 것 같애도 입장곡이 다르고, 애원성음악이 다르고 연풍대 음악이 다르고, 그 다음이 예구 내 딸, 아까 칼춤도 했잖소.

(조)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처음에는 입장곡하고 그 다음에 애원성타령, 그 다음에 예구 내 딸 봉섬아, 그때 사당춤 추거든, 그거 하면서 폼새춤 추고 칼춤은 맨 마지막에 하는기야. 그 다음에 또 연풍대 할 적에 그때두 추는데 여기도 춤추는 사람 서넛 있소. 우리 고향사람들이 옛날 할머이들이 이 옛날 머리 쓰게 머리 수건을 이렇게 쓰고 옛날 할머이들이 추는 겁니다.

(조)칼춤이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제)마지막 이 제 칼춤이 끝났소, 이제 사자놀이 하는데 초장, 중장, 말장이 있어요.

(조)초장, 중장, 말장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달라요. 이게 다 소리가 달라요. 음악이 달라요. 초장이 제일 늘지요. 뜨지요. 중장은 조금 더 빠르구, 그 다음 말장에 가선 아주 빠르다이.

(조)그러니까 빠르기에 따라서 초장, 중장, 말장이 다릅니까?

(제)그렇지.

(김하륜옹이 통소를 불고 김수석옹이 사자 앞채춤을 춤.)

(제)사자놀이는 아홉곡이야.

(조) 두 마당 아홉거리아닙니까?

(제) 두 마당 아홉거리요? 아니여. 아홉거리 열 두 마당이야. 열 두 가지 했거든. 열 두 마당, 여태까지 논게 폼새춤이고 뭐구 아홉 거리 열 두 마당, 그거 알아야 돼. 음악은 아홉가지구 그 다음에 노는 건 열 두 가지로 노는 거란 말이지.

(조)그러니까 처음 등장해 가지고 인사하는 것 까지 다 들어갑니까?

(제)그게 다 들어가서 그것까지 열 두 마당이야. 열 두 가지야.

(조)춤추는 순서는 늘 똑같이 합니까?

(제)다 다르지. 열 두 마당 다르지. 칼춤이 다르고, 폼새춤이 다르고, 사당춤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한마당 춤이 다르고.

(〈제보자는 서울에서 녹음해 온 돈돌리리 민요를 고향 민요라며 들려 주었다.〉)

(조)그럼 북청사자놀음에 악기는 뭐뭐가 등장됩니까?

(제)통소는 서이(3)일때도 있고 너이(4)일때도 있고, 북이 있고, 큰 북 둘, 작은 북 두 개요. 그리고 장고 하나, 징, 팽파리 하나.

(조)그럼 통소가 제일 많군요?

(제)그전엔 둘이 붙었지만 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이 들어가고 부는 사람이 적으면 둘 들어가고, 어떡허든 둘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맞지, 둘이 들어가야 소리를 맞추거든. 하난 들어가면 소리가 상당히 약하고….

(조)양반은 보니까 정자관 비슷하게 점잖은 탈을 쓰고 있던데요?

(제)손에는 담뱃대하고 부채를 들고 옷은 도포 관복이지요.

(조)탈은 나무탈입니까? 종이탈입니까?

(제)아, 종이로 한거예요.

(조)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꼭쇠지요? 꼭쇠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그게 양반의 하인이지요. 양반이 꼭쇠를 잡고 뭘 시킨다든지 붙들어 매놓고는 뭐해라 뭐해라 뭐,

(조)양반은 수염이 긴데요?

(제)수염이 근사해요. 수염이 길쭉하게 나오고요. 머리에는 흰색 관을 쓰고요.

(조)꼭쇠옷은 어떻게 입니까?

(제)꼭쇠옷은 일색으로 하는 게 아이라 여기 저 무당옷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 쪽엔 줄을 이렇게 매고 바지도 한쪽 가다리, 반팔을 빨건거나 검은 거 하고, 팔이때기 절반은 빨건거 하고, 이렇게 했던 말이여. 얼굴에는 탈을 써야된다. 신발은 짚신, 행전치고…머리에 꼬깔쓰고.

(조)승무도 나오고 사당춤은 들이지요?

(제)사당춤 둘이 나오고 스님이 나오지요. 사자가 거꾸러졌을때 스님 나오고 그전에는 의사가 나왔는데 안 나오고 직접 형님(김수석옹)이 나오는 기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고 허니 사자가 허기증이 났다, 병이 났다, 그 다음에 토끼를 잡아 먹인다. 사슴을 잡아 먹인다 했는데 그걸 없애고 지금은 염불합니다.

(김수석씨가 이 부분을 수정하여 대답함.)

(제)아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왜그래? 사자가 거꾸러지면 한창 놀다 거꾸러지면 이제 토끼를 하나 가져다가 만든 토끼를 갖다 거 허기증이 있으니 거꾸러졌다 하면 이제 의원을 찾는다 말이요. 꼭쇠 양반이 의원을 찾아 모셔 오라고 말이요. 그래 의원이 와서 진맥하게 되면 이제 의원이 “뭘 먹였는가?”하면 그럼 양반이 있다가서 “사자가 허기증이 나서 토끼를 먹였는데요”하면 의원이 “아 그럼 언쳤는데요”그러거든, 그러면 “의원을 가 데려오라”한다. 말이여. 요 간맥하면 “언쳤다, 이거 침을 놔야 하겠다”그 다음에

침을 논다 말야. 맨 마지막에 스님이 들어가서 염불하는기야.

(조)그러면 사자가 되살아 납니까?

(제)그렇지요. 그럼 살아나거든.

(조)무동춤에 남녀가 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요즘엔 안나와요. 본래 원숭이도 있었는데, 몇해 전엔 있었습니다. 요즘엔 그거 없다이. 그게 있으면 아주 희극도 많이 되구 이런데 요즘은 안해.

(조)그 이 장사 설화가 있겠습니까? 범을 잡은 삼사리 마을의 이 장사 이야기 있겠습니까?

〈다시 김하륜옹의 대답이다.〉

(제)어 그걸 형님이 아시겠나? 사자 색깔이 왜 호랑이 색깔과 같냐면 내가 말하면 알아 들을 기요. 사자 색깔이 왜 범 색깔이나? 어느 옛날에 장군이가 이 장사가 부인이 예뻐뻐. 그러니까 일본아들이 뺏어 갈라구 해서 그래 산중인가 어디로 도피를 해서 갔데. 도망을 해서 갔는데 그 어떡허다 걸렸단 말야. 그래 그 일본아들 한테 부인을 뺏기고서 그 다음에 일본 아들이 굴안에 집어 넣거든. 굴 안에. 그래 원래 장군이니까 굴안에 들어가면 죽을까 하고 무방심하고 있었지. 그런데 거기 살아 나갔단 말야. 그래 몇해 이거 자기 부인을 빼내와야 하는데 할 새가 없어. 이웃 노인이가, 그래 이놈들은 남의 부인을 갖다 훔쳐 놓구선 앞에 사자를 먹이거든.(조사자: 호랑이 새끼를 잘못 구연한 듯 함.)사자를 길러. 사자새끼는 뭐가 들어오든 사람을 접근을 못하게 해. 사자의 이 앞다리가 대문안에 놓이는데 아무 사람이 접근을 못하거든. 그때 이웃 노인이가 이 장사를 보고 “야 니가 거길 늘어갈려면 니 사자 형용을 해 들어가야 한다.”거 사자새끼 있거든 사람만 접근을 하자면 막 소리를 치고 물을라고 덤벼들거든. 그래 가만 물어서 그래서 사자색깔처럼 망근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사자 색깔을 범처럼 하느냐 하니가 그래서 하는기라. 이 장군이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호랑이 색깔을 해가지고 호랑이처럼 망글어, 그래서 사자색깔이 호랑이, 범색깔이랑 똑같아. 내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

〈참고로,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의 “범잡은 삼사리 마을 이 장사”전설을 옮긴다. 상기 제보자와 차이점을 보이기 위함에서 삽입함.〉

누라치라는 되놈대장이 삼사리마을 성주를 거느리고 대덕골로 사냥을 갔다가 갓난 호랑이새끼를 잡아가지고 와서 관사 대문옆에 우리를 만들고 키웠는데 호랑이새끼는 누라치한테는 강아지마냥 고분 고분하면서 다른 사람이 대문안에 들어서면 으르렁대곤 해서 도무지 접근하지를 못했다.

누라치는 가진 행패를 다 했는데 가끔 거리에 나갈 때는 쇠굴래로 씌운 호랑이새끼를 끌고 다니면서 “내 영을 거슬리면 호랑이밥이 된다”고 백성들을 위협했다.

어느날 누라치는 백여명을 거느리고 검덕재로 사냥을 나갔다가 인가촌에서 백리나 떨어진 외딴 곳에서 단둥이 외로이 살고 있는 젊은 부부를 발견했는데 젊은 아낙네는 천하절색이었다.

그래서 누라치는 젊은부부의 애절한 호소와 목숨을 건 반항도 뿌리치고 여인을 억지로 끌고 돌아와서 단꿈을 꾸고 있었다.

뒤를 쫓아온 젊은이는 관사 주위에서 사흘동안이나 맴돌다가 누라치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담을 뛰어넘어 관사 뜰에 들어섰다. 그때 호랑이새끼가 으르렁대는 소리를 듣고 왈각 몰려온 창검을 든 수십명의 병정들에게 젊은이는 결국 잡히고야 말았다.

젊은이의 목을 칠려고 칼을 빼내든 누라치앞에 잡혀가 있는 여인네는 무릎을 꿇고 “제발 남편의 목숨만은 살려주라”고 애걸복걸했다. 그래서 누라치는 곤장 삼백대를 때려서 반죽음이 된 것을 본 다음에야 병정을 시켜 개천가에 매어다 버리게 했다. 원래 그 젊은이는 키가 아홉자나 되고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그 혹독한 매질에도 목숨이 붙어났다. 정신을 잃었던 젊은이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그 다음날 점심때 였는데 머리맡에는 백발이 성성한 품체좋은 노인네가 자기를 시중해 주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 노인집에서 며칠동안 따뜻한 치료를 받고 다시 원기를 회복한 젊은이는 복수심에 불타서 “할아버지, 첫째로 호랑이 새끼부터 죽이고 누라치놈도 죽이고 아내를 거어이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참을 수 없습니다”고 울부짖으며 칼을 갈고 있었다.

어떤 만류도 듣지 않을 것을 짐작한 노인은 젊은이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젊은이의 앞에 얼룩덜룩한 큰 짐승의 가죽을 내어놓았다. 그래서 세상구경이란 한번도 해본 일이 없는 젊은이는 “할아버지 저는 산속에서 나서 지금까지 산속에서 자라왔는데 이렇게 큰 호랑이도 세상에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노인은 낄낄 웃으면서 “이건 호랑이 가죽이 아니다 호랑이 까지도 잡아먹는 짐승의 가죽이며 그것도 진짜 가죽은 아니고 사람손으로 만든 사자놀이에 쓰는 가죽이다”라고 가르쳐주었다. 젊은이에게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노인은 말을 계속한다. “내가 천하장사인 누라치를 죽이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설사 죽일 수 있다해도 그러다간 우리백성에게 큰 화가 미친다. 그러니 누라치를 죽일 생각은 하지말고 누라치가 사냥나가 외박하는 날 밤을 택해서 이걸 뒤집어 쓰고 담을 뛰어넘으면 호랑이 새끼가 겁을 집어먹고 쪽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때 호랑이 새끼를 찢어 죽이고 침실에 뛰어들어 네 아내를 둘러매고 도망쳐 나오면 설사 병정들에게 발각된다해도 잠결에 어뜩뜩해서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손살같이 도망쳐서 내 집으로 오나라, 그러면 너희 부부의 은신처를 내가 마련해 주마.”

젊은이는 그렇게 해서 아내와 죽은 호랑이까지 둘러매고 도망치는데 성공했고 그날밤으로 노인을 따라 심산중에 도망을 쳤는데 젊은 아낙네는 “내가 되놈한테 몸을 더럽히고도 그때 죽지 못한 것을 그놈을 내 손으로 죽인 다음에 자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뜻을 이루지 못한채 오늘밤 서방님한테 구출되고 말았으니 무슨 면목으로 서방님을 뒤흔이 대하겠느냐”고 목을 놓아 통곡하는 것이었다. 노인은 “그것은 부인 허물이 아니다. 약한 우리민족의 서름이니 부인을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젊은이에게 타일렀다. 젊은이도 아내를 찾은 것만으로도 더없이 기쁘다며 부인을 위로했다. 그러나 젊은부인은 남편이 기다리는 침실에 들어가지 않고 이리 저리 핑계 끝에 소나무에 목을 매고 자결했다.

단꿈을 꾸던 여인과 호랑이 새끼까지 잃어버린 누라치는 이리 저리 화풀이만 하다가 얼마후에 쌍성으로 가버렸고 인가촌으로 내려온 젊은이는 원수같은 호랑이 새끼를 죽이고 되놈을 쫓아버린 장사하고 해서 삼사리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범 잡는 이장수"로 불리어 졌다.

그 후부터 사자가죽을 쓰고 춤추는 마을놀이가 더욱 성행하게 되었는데 삼사리 마을 사람들은 벗짚과 검은 천으로 만든 누라치의 인형과 호랑이 새끼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한참 사자춤을 신나게 추다가는 그것을 차례로 갈기 갈기 찢으며 잡아먹는 시늉을 하며 늠름 때까지 홀로 살고 있는 이장사를 위로하고 그 아내의 영혼을 위안했다고 한다.

(조)사자놀음에 대한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제)내 아까 할 적에 고향서 집에서 선조들이 하던 대로 했거든. 정월 대보름날 집집마다 탕기무서 이 사자놀이하든 약도 때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귀한 자식을 사자 등에 태워요. 그러면 그 얘기가 귀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어떤 집은 오란 집도 있어요. 대부분 요청하지요. 사자놀이 나왔다 하면 "우리 집 와라"요청하지요. 그래서 그거하든 쓸래놓고 또 축원해요. 우리네 가족 건강하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게 해달라고 그런...

(제보자는 북청물장수 이야기를 하며 함경도민의 교육열을 말했다.)

(조)도청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제)도청(都廳)이라 하는 기 모두 도(都)자 도청이 있고 서댓방(서당방)이라는 게 있어요. 한 동네 열 집이 살아도 그거는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여기는 배를 꿇고 먹을 것 못 먹고 그래도 산을 허물어서 도청을 지었던 말이에요. 그래 사자놀이할 도청을 지으니 여기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먹을 것도 못 먹고 도청은 짓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공회당이라 그러거든. 거 무슨 회관이라 하지. 그래서 거기 있는데 이데 서댓방, 여기 도청방, 그리고 노인들이 앉는 곳은 칸을 막아요. 미단을 해가지고, 그때 이 시내에 학교 땡기는 사람들이 서댓방에서 공부를 하거든. 그 한문, 그럼 거기 특수한기 명절날 같은 때 놀거든. 그럼 이 서댓방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앞으로 명절을 며칠 남겨두고 미리 휴가를 주면 거 노는데는 이런 걸 한단말야. 사자놀이를 하는데 더 억세게 해야 이 동네 뉘 집 처녀나 며느리들이 우리 동네가 잘 못 놀고 남의 동네가면 회야거시 받게 되거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아주 잘하거든. 그때는 이 아래위에 문을 탁 터요. 거기서 씨름하는 식으로 특수해요. 거기서 뭐 서리(서로)승압적으로 어느 동네가 불리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자놀이가 더 억센 것 같아요.

(조)사자놀이에 여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그럼 여자도 춤추지. 승무출 때 들어가고 사당춤 출 때 두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또 지금은 할머니들이 뭐 서이고 너이고 옛날 머리쓰개를 두르고 그렇게 해서 춤을 춰요. 지금도 사자놀이해도 할머니들이 춤을 춰요.

(조)옛날에도 패랭이쓰고 통소를 부셨습니까?(김수석씨가 대답함.)

(제)그렇지. 옛날에도 다 패랭이 썼지. 고깔쓰고 패랭이 쓴 것도 있구. 지금은 저 대부분이 옛날 고깔쓰고 했거든. 우리 여기서 할 때 다 고깔 그랬어요. 색은 흰색에 양쪽에 다 꽃을 달지요 근데 지금 달라졌어. 그게 고깔을 쓴 사람이 있고 또 악사들은 이제 저기 맹견쓰고 고 위에다 수건을 딱 매고, 지금은 쉬어졌어요.

(조사자 : 이상에서 구연된 내용과 사자탈의 크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연회시기 : 정월 대보름 전후 2~3일간

(ㄴ)연회장소 : 도청마당(각 가가호호 방문후)

(ㄷ)등장인물 : 악사, 양반, 꼭쇠, 애원성춤2인, 거사춤2, 사당춤2, 칼춤2, 무동춤4, 폼새춤2

(ㄹ)가면 : 양반, 꼭쇠, 사자탈(모두 종이탈)

(ㄹ)악기 : 통소 3~4개, 쟁과리, 장고, 북, 징

(ㅂ)소요시간 : 40~50분(전체), 사자춤은 5~10분정도

(ㅅ)연회내용 : 벽사진경

(ㅇ)연회마당 : 아홉굿거리 열 두 마당

아홉굿거리에는 ①입장곡 ②애원성곡 ③에구 내 딸 봉섬이 ④연풍대 ⑤칼춤 ⑥사자춤 초장 ⑦중장 ⑧말장 ⑨자유곡이다. 열 두 마당에는 ①양반 꼭쇠의 해학 마당정리 ②애원성노래 ③사당춤 ④무동춤 ⑤폼새춤 ⑥칼춤 ⑦사자춤 초장 ⑧중장 ⑨말장 ⑩승무 ⑪풍자 ⑫군무이다.

북청사자놀음 대본(확정판, 1979년 9월3일)에는 2마당 9거리로 되어 있는데 첫째 마당은 애원성 마당-①해학 ②애원성(노래와 춤) ③사당춤 ④칼춤 ⑤무동춤 ⑥폼새춤이 들어가고, 둘째마당은 사자놀이마당- ⑦사자춤과 승무 ⑧풍자 ⑨군무(넙두리춤)로 되어 있어 상호간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ㅈ)사자탈의 크기 : 1958년에 남한에서 최초로 만든 사자탈은 크기가 사자전면 가로 70cm 세로 62cm이다. 이마에서 눈썹까지 15cm, 눈썹의 길이 20cm, 한쪽 눈의 크기 14cm, 코 길이 22cm, 입의 길이 21cm, 입 높이가 3cm이다. 원래는 피나무로 깎고 색칠을 했으나 종이로 만들었으며 사자탈은 페그물을 석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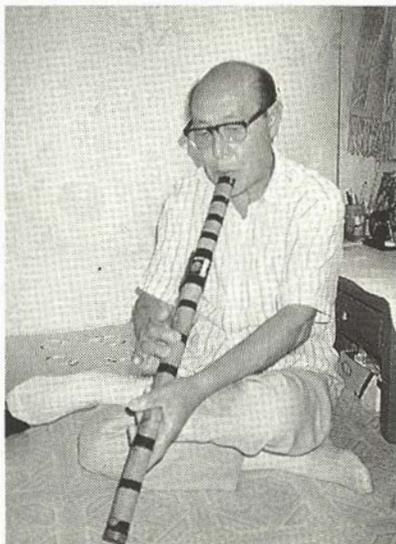
〈1958년에 김수석옹이 만든 북청사자탈〉



〈1958년 당시 연희 장면〉



〈필자와 김수석 기능보유자〉



〈통소부는 김하륜옹〉



〈사지탈을 든 김수석 옹〉

제 3 절 속초 무가(巫歌)자료

제 보 자 : 탁순동(여·57)
 조 사 자 : 장정룡
 조사일시 : 1991년 5월4일 오후3시~6시
 조 사 지 :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4통2반
 무가종류 : 베리데기 오구굿

1. 베리데기 오구굿

[말]오귀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 탄생해서 백 살을 먹고 죽으면은 원이 없지만은 내가 내 명대로 내 한대로 참 살다가 죽은 사람은 원한이 없지만은 산 동안에 강풍도 많고 나이 많아 돌아가세도 자손도 없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죽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청춘에 아주 외동 초목에 못살고 못입고 한이 많아서 청춘에 외동해 간 사람들 넋을 달래주고 한을 풀어 주는 곳이 거든요. 이 곳이 그러니 오귀라는 것은 인제 왕생극락을 보내는데 오귀의 대왕님은 우리 산사람으로 말한다면 임금님이세요. 산사람의... 그러구 오귀 대왕국의 문은 열두대왕문을 열어야 왕생극락하는데 또 길대영감님이라는 분은 인도에서 살다가 석가여래를 모시고 대한 삼국 건너와서 참 수사제를 지내고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살면서 수제를 닦어야만은 살다 운명하시면은 극락으로 보내시는 그런 참 석가여래를 모시고 있는 길대영감님의 딸은 길대딸로 길대부인이예요.

오구대왕님은 나이 27세이고 길대영감님의 딸은 저 참 인도국에서 석가여래 모시고 아버님 모시고 오고 이래서 천상연분을 맺어서 두 분이 이렇게 맺어서 18세고 하나는 27세 부부를 맺어서 사는데, 참 먹고살고 입는 거는 수많은 거는 다 많으나 자식이 그렇게 귀하데요.

일곱째 임금님이거든요. 그 위에 육낭고 요사람이 일곱째 임금님이예요. 후에 인제 임금님을 물려 받아 일곱째 임금님이라구요. 불나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일곱째 임금님이신데 그래 두 부부는 참 일년이 가고 이년이 가고 부부를 맺어 살아도 일자혈육이 무라고... 그래서 참 자식을 불라고 공도 많이 들이고, 인제, 두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자식

이 없어서 주야창창 노탄을 하시고 있었어요. 사는데 하루는 춘삼월 봄이라, 참 이 임금님이요. 바둑판미고 징 장구메고 산천을 가서 놀다보니 천상백학이라는 새가 알 새끼를 품고 그렇게 좋다구 암늬도 디다보고 좋다하구 솟늬도 디다보구 좋다하구 하는데 말못하는 짐승도 새끼를 보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허물며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여태 자식이 없으니 그때 자식 생각이 난거래요.

그전에는 시화연풍같이 모두 참 나라일만 보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인제 자식을 불라고 부인을 모셔다 놓고, “부인요, 부인요, 길대부인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 벼슬은 누구에게 전향하며 대궐같은 이 집은 어느 누구에게 전향하며 이 수많은 재산을 누구를 물려주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 조상을 무슨 면목으로 보며 우리 조상을 누가 봉사를 하나”노탄을 하시는데 그때 마침 난데없는 스님이 와야 목탁을 치며 시주달라고 염불을 허네요.

[창]시주달라고 염불한다. 길대부인은 “아들아 하인들아 어서 바빠 저 스님을 모셔오너라. 우리 궁전안에는 날짐승 새짐승도 못들어 오는데 난데없는 법도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구 염불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오구 목탁 때리는 소리는 대궐을 울리니 어찌 보면은 신선이 아니시더냐, 어찌 보면은 도승이 아니시더냐. 저 스님 모세 오너라.”

저 스님을 모세다 노니,

“스님네요, 스님네요, 시주는 얼마든지 드릴테니 우리 불나국의 오구대왕님은 나이가 사십이 훌쩍 넘어도 일자 혈육이 무혈육이니 무엇을 해야지만은 자식을 봅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시니 스님은 하시는 말씀이,

“부인요, 부인요, 자식을 보실라거든, 심오산하 팔봉대 절에다가 백일기도를 드리면서 딸도 보고 아들도 보니이다.”

아고 공을 들이는데는 쌀도 수 천가마니 실어 올리고 돈도 수 천금이요 향도 수 천갑이요, 소지종이도 수 천근이고, 초도 수 천갑, 바리바리 실어올래 백일 기도를 드리며는 자식을 봅니다. 길대부인은 그 말씀을 듣고 임금님전에,

“아고 대왕님요, 우리가 자식을 불라하면은 심오산하 팔봉대 절에다가 백일기도를 드려야지만은 자식을 본다 하십니다.”

모두 말을 당하시니 대왕님은 하인을 부르시는구나.

“하인들아, 하인들아 소도 수 천마리를 내세워라, 말도 수 천필을 내세워라, 쌀도 수 천가마니 실어 올리고 돈도 수 천금이고, 초도 수 천갑이요, 향도 수 천갑이요, 소지종이도 수 천근, 바리바리 실어올리라”

그래야 하인들은 바리바리 신구이 심오산으로 팔봉대 절로 올라 가신다. 우리 대왕님에 거동보시오. 한삼 도포를 들추입고 양통갓을 들추쓰고, 중립끈을 내리달고 석가산

으로 올라가, 하탕에다가 수족씻고, 중탕에다가는 목욕을 하구 상탕에다가는 매를 찢어 백일기도를 들이시는구나. 백일기도를 드리는데 세월도 부유같이 어느덧 흘러여 석달 하고도 아흐레가 되니 꿈에 선몽한다. 선몽하는구나. 이 문전벽에 선몽한다.

천상의 팔선녀들이 활옷을 입고 대감님품에 안기는구나. 대감님은 깜짝 놀라야 눈을 번쩍뜨니 꿈이로구나 몽사로구나. 남가의 일몽이로구나.

“아고 부인요, 부인요, 꿈도 희안한 꿈이요. 꿈도 꿈도 삼신의 꿈이 분명하고 아들 태자 꿈이 분명하오.”

그때부터는 백일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야 그때부터 태기가 들어서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달 열날이 아기가 차니 뒷남산은 잦아지고 앞남산은 불러오니 산모는 애기를 낳을라고 빙글빙글 돌아간다. 우리 대왕님은 진담뱃대를 손에다가 들고 뒷짐을 지고 아귀 푸지를 못한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야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응애, 응애, 응애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니 대왕님은 거동보시오.

“하인들아 하인들아 아들을 낳노 딸을 낳노. 어서바빠 알려다오.”

하인들은,

“대왕님요, 대왕님요 딸을 낳았습니다. 공주를 낳았습니다.”

대왕님은,

“딸이면은 어떻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식이라, 딸이라도 많이만 나면 나는 좋네.”

그때부터 일곱공주를 낳아 금이야 마른자리는 어머니 높고 진자리아 어머니 높고 마른자리아 자식을 높히고 알뜰히 살뜰히 유모를 두고 길러낸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여 일년이 가고 이년이 가고 삼년이 흐르니 또 애기는 세 살이 되니 먹던 젖이 떨어지니 또 삼신이 드는구나. 또 삼신이 들어서 열 달을 배를 빌어야 난 것이야 또 딸을 낳지요. 이공주를 낳지요. 그래야 그 자식도 알뜰히 살뜰히 길러놓고 또 어느덧 삼 년이 흘러여 서 애기는 세 살을 먹으니 먹던 젖이 떨어지니 또 삼신이 들어서 애기를 난 것이야 또 삼공주를 낳았지요. 그래 고마 내가 고마 육공주를 일른 고마 낳고요. 그래야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세 살을 먹으니 또 삼신이 들어서 또 사공주를 낳았지요. 아버지지는 얼마나 섭하신지 모른신다. 이왕이면은 태자를 낳지, 그래야 그때부터 대왕님은 얼마나 섭하시고 노탄을 하시며, 어느덧 세월이 부유같이 흘러여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흐르고 애기나이 세 살을 먹고 나니 젖이 떨어지니 또 삼신이 들어여 애기를 낳은 것이야 5공주를 낳았지요.

우리 대왕님으는, “아고 내 팔자야, 내 팔자에 무슨 아들이 있겠누.”

얼마나 섭하고 노탄을 하시며, 세월은 흘러흘러 흐르는데 어느덧 3년이 흘러여 또 애기가 세 살을 먹고나니 또 삼신이 들어여 열 달을 배를 빌어서 낳은 딸이 또 육공주를

났지요. 아버지도 노탄을 하시고 섭하고, 어머니도 언제나 야속하고 섭하고, “집안에 모두 우리는 인제 어느 누가 조상을 봉사를 하나?”

얼마나 노탄을 하시는데 얘기를 길렀는데 또 3년이 흘렀지요. 3년이 흐르니 또 꿈에 임금님 전에 현몽한다. 천상의 팔선녀들이 나리 와서 뒤에는 금봉채고 앞에는 반학쥐고 쪽두리 옥쪽같은 녹초롱 은초롱 천상백학은 춤을 추고 남상풍악은 축신을 물고 오도풍악을 넘나들며 대왕님 품에 안기는구나. 대왕님 깜짝 놀라며,

“부인요, 부인요, 꿈도 꿈도 희안한 꿈이요. 인제는 우리도 태기가 있을란가 보요.”

그때부터 삼신이 들어서는데 칠성님전에는 명을 걸고 산신님전에 복을 타고 아버님 전에 뼈를 빌고 어머님전에는 살을 빌려 한 두 달에는 해를 먹고, 삼석달에 피를 먹으니 입덧 나기가 시작이로구나. 밥을 먹으니 생쌀내가 나고 물을 먹으니 해금내가 나고, 국을 먹으니 날장내가 나니 먹고 싶은 거는 시금털털한 개살구 말말이 섬섬이 먹고 싶네.

“앞문에 옥단춘아 뒷문에 하인들아 뒷동산에 올라가여 얘기복상도 따오너라, 까투리복상도 따오너라. 없거들랑 뿌리조차 캐어다가 폭삶아 나를 다오.”

애들은 복상 참 얘기복상, 까투리복상 다 따와서 이제는 따올게 없어야. 뿌리조차 참 캐어다가 폭 삶아 물이라도 길대부인 드리니 얼마만침 먹고나니 다섯달에는 반짐걸고, 여섯달에는 육성걸고 일곱달에는 칠성걸고, 여덟달에는 팔성걸고, 아홉달에는 구성걸고, 열달이가 아구가 차니 뒷남산은 잣아지고 앞남산은 불러오니 길대부인은 아고 삼월에 얘기를 낱을라고 궁전으로 빙글빙글돌아, 그래야 길대부인은 곧 얘기를 낱을라고 빙글빙글돌니 우리 대왕님은 태자를 낱으면 시를 적을라고 높은 옥상에 백지를 펴놓고 버릇 돌에다가는 먹을 갈어 놓구 오른손에는 붓을 들고 얘기 울음소리만을 기다리고 앉았네. 얘기울음소리가 응애 응애 응애난다. 얘기울음소리 난지 2분이나 넘어도 어느 누구가 알려주지 않는구나. 대왕님으는 얼마나 화가나셨는지,

“하인들아, 하인들아, 아들을 낱노 딸을 낱노, 어서 바빠 알려다오, 태자를 낱았다면 내가 시를 적어야지 어서 바빠 알려달라”하니 하인들은 이 하인은요 하인을 쳐다보고 저 하인은 이 하인을 쳐다보며 알려주지를 않는구나. 대왕님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들아, 어서 바빠 알려다오. 아들을 낱았느냐 딸을 낱았느냐? 아들을 낱으면 내가 시를 적어야지.”

호령을 서리같이 나리니 어느 명령이라고 아니 알려드리며 어느 분부라고 아니 가르쳐 드릴까요.

“대왕님 대왕님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은 요번에도 칠공주 또 딸을 낱습니다.”

대왕님은 시를 적을라고 붓을 들고 앉았다가 높은 옥상에서 뚝 떨어져 기절했네, 하

대인들은 “대왕님요, 왜 이리십니까? 정신차리세요.”

이리 저리 주물르고 만지니 대왕님은 눈을 번쩍 떠 하는 말이,

“야들아, 하인들아, 요번 칠공주는 애기 울음소리 듣기도 싫고 애기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바빠 내다 버려라”하는구나. 아구 어서 어느 명령이라고 아니 전해다 주며 어느 분부라고 부인전에 아니 전할까요.

“부인요, 부인요, 대왕님전에서 어서 바빠 칠공주를 어서 바빠 내다 버려라 합니다.”

부인은 어머니는 거동보시오. 자식의 사랑은 안부모 밖에 더 있나? 애기를 보다 안고 어머니는 눈물을 밤새도록 울며 애기를 버릴라고 웃도 해입히고 밤새도록 울며 포데기도 마련하는구나.

“아가 우리 칠공주야. 차라리 차라리 니가 태어나지 말던지, 내가 너를 낳지 말지, 죽은 애기를 산천에다 묻어도 부모 가슴 다 무너져 타는데 고물고물하는 아가 너를 어디다 버리잔 말이고, 차라리 대추씨 만한 거를 달고 나와도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를...”

얼매나 밤새도록 울며 웃음을 마련하는데, 홍공단 포데기, 홍공단야, 양단 금단 하비단야 모공단 포데기도 마련하고 홍공단야 비단야 짝주거리 걸을 비단으로 안을 받쳐 저고리도 마련하고 일공단야 치마에다가 월광단으로 안을 받쳐 나부처럼 무릇 살풀갈고 무지개랑 말을 달고 실안개랑 끈을 달아 맵시 좋게도 만들어 놓고 배넛저고리도 만들어 놓고 애기를 입히며 실로 돌띠를 묶으며 어머니는 울음을 짓는다.

어머니 내새끼를 어디다 내다 버릴까 어머니 은가락지 짝가락지, 가락지를 빼어 허리춤에 달아주고 어머니는 밤새도록 우는데 난데없는 암탉이 운다. 어머니는, “닭아 닭아 울지마라, 니가 울며는 날이 샌다. 날이 새면은 우리 칠공주는 베리데기 어서 바빠 내다 버리랍니다.”

어느 명령이라고 아니 내다 버릴까 부인은 밤새도록 만들은 옷을 개나리 보따리 팽팡싸 포데기에다 애기를 푹푹 말아서

“야들아 소나 밧아서 죽이게 소마굿간에다가 데려놔라.”

애기를 소마굿간에다가 데려놓으니 소는 눈딱감고 새금질을 하며 애기를 뿔로 밀어친다.

“아이구 부인요 부인요, 소도 칠공주를 베리데기를 마다 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말이라도 밧아 죽이게 마굿간에다 디밀어 부라.”

마굿간에 갔다 디밀어 놓으니 말도 이속을 찡으며 뿔로 내미는구나.

“부인요 부인요, 말도 칠공주 베리데기를 싫다고 합니다. 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애들아 냇물에 갔다 떠내려 보내라.”

냇물에 갔다가 애기를 떠내려 보내니 용왕님이 달랑 들어서 강변에 갔다가 내는다.

“부인요 부인요, 용왕님도 얘기는 마다고 합니다. 칠공주를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서 바빠 데리고 오너라.”

어머니는 얘기를 버리려 정처없이 가는데 “야들아 가메를 모아라, 가메를 타고 정처없이 버리러 가자”하지요.

가메를 모으는데는 가메 앞채는 목장나무, 가메 뒷채는 흑장나무, 가메 둘레는 흑절레라, 가메 꼭지는 주르륵, 가메 문은 약영수고 가메 방석은 꽃방석인데 어머니는 얘기를 보담고 가메 안에 안고, 하인들은 앞채 메고 뒷채 메고 얘기를 버리려 정처없이 떠나는구나. 간다 간다 정처없이 얘기를 버리러 가는데 얼마만치 얘기를 버리러 가다가 가다가 보니 모래 백사장이 나오는데, 그 백사장에다 버릴라 하니 개미밥이 될까봐 못버리겠네.

얼매만침 가다가 가다가 보니 시퍼런 강물이 나타나는데 저 강물에다가 버릴라고 하니 고기밥이 될까봐 못버리겠네. 얼마만치 가다가 가다가 보니 청청 소나무 발이 우거졌는데 그 소나무 발에 버릴라고 하니 까마구 밥이 될까봐 못버리겠네. 얼마만치 올라간다. 첩첩산중으로 올라가는구나. 얼마만치 올라가다보니 너럭바우도 있고 감태밭도 우거지고 애룻밭 우거졌는데 큰 너럭바우도 있고 억센바우도 많다. 어머니는 거기 주저앉아서 얘기를 보담고,

“아가 아가 젓이나 많이 먹어라.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얘기를 거기다가 버리고 올라고 어머니는 얘기를 젓을 맥이며 울음 울부짖는다. 오른손으로 어머니 젓을 팍팍 째 입에다 넣어주며

“아가 아가 우리 아가 칠공주 베리떡야, 세상에 너를 여기 두고 내 어찌 가잔말고, 차라리 니가 배지 말던지 내가 너를 낳지 말지, 으히 으히 아이구 불쌍하고 처량한 내 새끼를 여기 두구 어이가나.”

울며 불며 젓을 먹이는데 얘기는 배가 부르니 잠이 썩씩 드는구나. 어머니는 은가락지 한 짝을 빼어 얘기 옷자락에다가 채워주고 어머니 노리개표 뜯어서 얘기 옷자락에다가 뜯어 주어 채워주고 어머니는 니가 죽더라도 이름 석 자나 냉기라고 칠공주 베리떡기라고 어머니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혈서로 베리떡기라고 써놓고 붙들고 울고 지고, “내 새끼야 너를 두고 어이가나”우는데 난데나 없는 울음소리 들래어 어머니는 고개를 번쩍들고 쳐다보니 난데없는 여대 호사가 나리워서 소리를 으릉으릉 치는구나. 어머니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얘기 정도 다 떨어지고

“가자, 어서가자, 하인들이 어서가자.”내려오다가 어머니는 뒤를 돌아다보니 여대 호사는 나리와여 등에다 미고, 아이구 어머니는

“이눔의 짐승아, 이눔의 짐승아, 그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을 잡아 먹을라고 그

것을 등에 미고 가나. 차라리 이 애미를 잡아먹지.”

그래야 애지를 등에다 미고 가고 어머니는 눈물을 지며

“하인들 모두 야들아 모두 어서들 가자.”

그때 딸과 이별을 하고 어머니는 울며 불며 나리운다.

“이별이야 이별이야, 널과 날과 이별이야. 이별의 별자를 누가 냈노, 이별 별자를 누가 냈노. 이별 별자를 내신 사람은 날과 백년이 원수로다. 이별 점괘가 싫다고 해도 모녀간에 이별이 더 싫구나. 자식의 이별이 더 싫구나. 한발 절고 눈물을 적구, 두 발을 절고 눈물짓네. 눈물이가 앞을 가려서 이구 지구 못내려 오겠네, 산천초목도 울음을 울고, 물소리조차도 잘나는데 기적도 부르르 울고 한 발 절고 눈물짓고 두 발을 절고 눈물짓네.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봤나, 내 새끼 있는 곳이니 뒤돌아 봤지.”

어머니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붓고 오십앞이 안보인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니 오귀대왕님은 그때부터 얻은 병이가 좋다는 약은 다 써도 약 효과조차도 아니 나고 침 잘놓는 의술을 데려다가 침을 놔도 침의 효과도 아니난다. 그래야 우리 참 산신할아버지가 애기를 참 어깨에다 미고 가야 그때 너래 바우가 도술을 해야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마련해 놓고 한 날개는 깎아 키우고 한 날개는 덮어 키우고 천상유모는 와서 산후구완을 하고 부왕새는 나무열매를 파다 물을 짜서 맥이면서 키우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여 삼 년이 흘렀지요. 그래야 애기는 나이가 세 살을 먹으니 자작 자작 걸음마를 타는구나. 산천마다 땡기며 어머니 찾는 소리 부르며 우는 소리 산천초목이 울고 날짐승도 따라 땡기며 나무 열매도 주워먹고 살고 새짐승도 따라 땡기며 나무 열매도 따먹고 살며 겨울이 돌아오면은 양지쪽으로 돌아 땡기며 크고 하시절이 돌아오면 그늘 밑으로 돌아 땡기며 크는구나.

세월이 흘러흘러 어느덧 십 년이 흐르고 십 오 년이 흘러도 오귀대왕님은 좋다는 약은 다 써도 약효과도 아니나고 침덕도 아니니고 복술일 데려다가 경을 읽어도 경덕도 아니나고 무녀 데려다 굿해도 굿덕도 아니난다. 십 오 년이 흘렀네. 그래야 또 길대 우리 부인은 거동보시오.

우리 대왕님은 이제는 십오 년을 앓으니 인제는 살을 저서 해골이 만발하고, 오늘 널, 오늘 널 인제는 갈 날밖에 안 남았네. 그래야 길대부인은 눈물을 짓고 눈물을 짓고, 울음우는데, 또 난데없는 스님이 또 염불로 또 시주 받으러 왔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탁을 치며 염불을 외우시니 길대부인은,

“야들아 하인들아, 저 스님을 모셔오너라.”

스님을 모셔다 보니 “스님요 스님요 스님요, 시주는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다 드리이

다. 쌀을 달라면 쌀을 드리리다. 돈을 달라면 돈을 드리리다. 복덕으로 달라면 복덕으로 드리리다. 시주는 열매든지 드릴테니 우리 불라국의 오구 대왕님이 병난지 십오년이 되도 좋다는 약은 다 써도 약 효과도 아니나고 살 길이 없으니 무엇을 잡셔야지 병이 낫는지 가르쳐 주시오. 대사님.”

스님은 “오구대왕님이 잡시고 나오실 약은 우리 불라국에는 없습니다. 서천서역국의 약수물을 잡수어야만 오구의 대왕님 병이 낫습니다.”

하지요. 그래야 시주를 드리니 스님은 시주를 받아 가지고 장삼 자락에 피담아 가든 만든 온데간데가 전혀 없구나. 그러나 우리 모두 지금은 아들이고 딸이고 차별이 없고 유별이 없고 돈만 많으면 딸자식이라도 대학교 갈키고(가르치고), 유학도 갈키고 외국도 보내지만 옛날에는 옛날옛적 간날갓적 오백년 시절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머슴아는 서당을 갈키지만은 여자는 공부를 갈키면 기생이 된다고 공부를 아니 갈켰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딸을 나면 여자도 돈을 쥐서 글자풀이로 이름도 아름답게 부르기도 좋고 참 잘짓지요. 화자야, 이자야, 미자야, 경자야, 숙자야, 명자야, 옥자야 잘 짓지만은 옛날 옛적에는 딸을 나도 이름조차도 아니 지었답니다. 하고 부르다는 것이 간난이야, 언넌이야, 젓떨어지야, 햇꼬매야, 큰꼬매야, 작은꼬매야, 모두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나 우리 불라국의 오구의 대왕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식이라 딸을 하나 날때마다 이름을 짓고 일곱을 불렀답니다.

큰 딸을 천상금이라 짓고, 둘째 딸은 자하금아, 셋째는 해금아, 달금아, 별금아, 옥금아, 토금아, 석금아 이렇게 딸을 여섯으로 이름을 지어놓고 어머니는 그 딸을 “일금아 일공주야, 이리 오너라 너 아버지 병은 서천서역국의 약수물을 잡쉬야지만 너 아버지 병이 난단데, 서천 서역국에 가서 약수물 길어다가 너 아버지 살리려”하니, 그 딸은,

“어머니요 어머니요, 내가 서천서역국에 가면 우리 자식들은 어느 누가 수발을 하며 서천서역국으로 가니이까, 나는 그리구 서천서역국이 어디가 붙었는지 몰라서 못가니다.”

그 딸도 문을 꼭 닫고 나가지요. 그래야 둘째 불려다 놓고 “니 서천서역국 가서 약수물 길어다 살려라”하니 그 딸도 하는 말이, “어머니요, 제가 서천서역국을 가면 우리 남편은 누가 공경을 하고 서천서역국을 가리까, 서천서역국이 어디가 붙었는지 몰라도 못가니다.”

그래야 또 셋째를 불려다 놓고, “야들야 셋째야 부디 니 서천서역국가서 아버지 약수물 길어다가 아버지 살려라”하니 그 딸도 “어머니 어머니요 우리 시어머님이 내일 환갑인데 어쩔들 내가 서천서역국에 가리까? 나는 시어머니 환갑에 참여를 못하면 나는 이시집 못살고 떨려 옵니다. 그리고 서천서역국이 어디가 붙었는지 몰라서 못갑니다.”

또 문을 꼭 닫고 나가지. 냇짜를 불러다 하니 세상 또 내일모레 시동생 잔치라 하니 또 못간다 하네. 시동생 잔치에 참여 못하면 그 시집은 영영 못살고 떨어온다 하네. 또 나는 서천지역이 어디가 붙었는지 몰라서도 못간다고 또 문을 닫고 나가지요. 그래야 다섯째 불러다 서천지역 가서 약수물 길어다 아버지 살리라고 하니 그딸은 “어머니 어머니요 아버지 숨 떨어지기 전에 이 많은 재산을 어느 딸을 어느 논자리 주고 어느 딸은 어느 논자리 주며 어느 사우 어느 밭자리 주는지 아버지 숨 떨어지기전에 이 많은 재산을 분배나 해놓고 돌아 가시게 하오. 그리고 나는 서천지역국이 어디가 붙었는지 몰라서 못가니다.”

문을 꼭 닫고 나가지요. 딸을 또 여섯째 딸을 불러다 놓고 서천지역국 가서 약수물 길러다가 아버지 살리라 하니 그 딸은 하는 소리가 “나는 딸 여섯에 막내로 태어나야 얼마나 설움을 받고 옷도 언니들 입던 옷만 입고 좋은 것 한번 못 입고 이리다 인제 나를 어디로 가라 하오. 나는 서천지역국이 어디가 붙었는지 몰라서 못간다.”하고 문을 꼭 닫고 나가지요.

그러니 어머니는 눈물을 지며 “야들아 이 자손들아 느 아버지 한 분은 자식 여섯을 알뜰히 살뜰히 잘 기르고 잘 별어서 잘 길러서 살려 왔거든 자식 여섯이 아버지 한 분을 못 살린다 말이더냐 으흐흐”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울음준다. 효자 자식이 아무리 아무리 잘한다 하면 무었하겠노, 지지고 볶고 편편이 무너지고 아산이 깨지도록 싸워도 부부밖에 좋은게 어디있노. 어머니는 울다가 지쳐 잠이 잠깐 들었는데 꿈에 선몽하는구나.

산신할아버지 내려와서 “부인요 부인요, 무슨 잠을 이렇게도 깊이 잠니까? 어서 바빠 일어나서 십 오 년전에 버렸든 베리데기를 찾아가오.”

어머니는 깜짝놀라 눈을 번쩍 뜨고 보니 꿈이로구나, 몽사로구나, 남가의 일몽이로구나, 꿈도 꿈도 희안한 꿈이다. 그 이튿날도 어머니는 울다가 울다가 지쳐 잠이 드는지 마는지 하는데 또 할아버지가 나타나야 “부인요 부인요, 무슨 잠을 이렇게 잠니까, 어서 바빠 일어나서 십 오 년전에 버렸든 베리데기를 찾아가오.”

깜짝놀라 잠을 깨고 나니 꿈이지요 어머니는 꿈도 꿈도 희안한 꿈이요. 고향떠난지 십년이 되면은 강산조차도 변한다는데 고물고물하는 핏덩이를 내다 버린지 십 오년이 되었는데 이것이 죽었지 이것이 살았겠노.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을 찾을 욕구로 아침에 일어나야

“야들아 오늘은 날도 좋고 일기좋은데 경치 좋은데로 산책이나 가자무나, 아침 조반 먹고.”

어머니는 아침 조반 잡숫고 하인들을 데리고 산천초목으로 올라간다. 팔선녀들을 앞

을 세우고, 삼천궁녀는 뒤를 세우고 산천마다 딸을 찾아 올라간다. 이때 마침 어느때고 친산조래도 호시절에 나는 나비들 우는 새들이 중간중서로 자라나고 마른 나무는 물오르고 물오른 나무는 잎이 되고 잎이는 피어 청산이 되고 꽃은 피어서도 화산됐네. 노고지리 신질열고 문산 아지랑이도 살살간다. 날아가는 산새들도 이리 날려 저리 가고 저리 날려 이리 간다. 늙으시는 장송들도 푸른 옷을 들쳐 입고 모진 강풍으로 못이기에 우쭐우쭐 우르르르 춤을 춘다. 시내 유수는 청산을 돌고 열골짜기 정문의 물은 한군데 합수가 되어 이골짜기도 주르르 주렁 저 골짜기도 파광파광, 청산이 떠나간다.

한 고개를 넘어가며 어머니는 딸을 딸을 찾아 올라간다. 우편은 청산이고 좌편은 녹수라, 청산은 화평이고 녹수는 연대러라.

“딸아 딸아 내 새끼야. 니 어디에 들어있나.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거든 대답을 말고 살았거든 너 대답해라. 니 애미가 여기왔다.” 울며불며 딸을 찾으러 올라간다. 베리데기는 할아버지가 등에다 미고 가야 그때부터 알뜰히 살뜰히 바위밑에 단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도술을 부려야 얻고 얘기를 길러내고 공부도 가르키는데 삼강오륜제도 가르치고 천자도 갈키고, 한문도 갈키고, 영어도 갈키고, 수학도 갈키고, 옥편도 갈키고, 영문도 갈키고, 언제나 공부를 많이나 갈킨지 모른다.

산신 할아버지는 그 날은 베리데기를 불러다 놓고 “베리텍아 베리텍아, 오늘은 느 어머니가 너를 찾아야 올라오니 느 어머니 따라 집으로 가거라.”

“할아버지요 할아버지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으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산천이 우리집이고 이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인데...” 하며 못가겠다고 울음 우는 구나.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어서 바빠 가거라”니 부모 상봉하여 내 새끼가 아니라 하거든 어머니가 옷을 입혀서 애기째 내다 버린 거를 고냥 할아버지가 배껴서 보따리에 퐁퐁 싸놓은 거야, 그 옷을 싸서 그 보따리를 내어 주면서 “베리텍아 니 어머니 상봉하여 내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라 하거든 이 보따리를 풀어주면 알 것이다” 하였어. 그래야 할아버지가 보따리를 내어 주며 온데 간데가 전혀 없구나. 할아버지는 도술을 부려 어디로 간 곳이 없지요. 할아버지가 떠나고 나니 고래당 같은 기와집으로 크단한 바우밑이 분명히 구나.

베리데기는 바우밑에 보따리를 들고 서서 언제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때부터 개나리 보따리를 옆에다 쥐고 어머니를 찾으며 울며불며 나리온다. 열매만치 골짜기 골짜기 흐릿고 나무를 잡고 나리온는데 어머니는 딸을 불러며 울며 올라오고 베리데기는 어떤 부인이 딸을 찾으며 오니 그 부인을 후려잡고 손으로 젓가슴을 더듬더듬 만지며,

“어머니요 어머니요, 이 젓을 뒀다가 누구를 줄려고 나를 아니주고 나를 이 산천에다가 버렸소.”

올며 어머니라고 부르니 어머니는 베리테기를 바라보니 베리테기는 익은 화식은 안 먹고 십오년을 산천에서 커서 머리는 얼마나 질었는지 덕거머리 찰랑찰랑하고 터래기는 얼마나 온몸에 터래기가 많이 났는지 사람의 새끼지 짐승의 새끼지 어머니는 분간을 못하겠구나. 아무리 봐도 짐승의 새끼가 분명하다. “내 새끼가 아니다”고 어머니는 막 밀어 치는구나. 짐승의 새끼라고….

내 새끼가 아니라고 밀어치니 베리테기는 산신 할아버지가 주던 보따리를 풀어서 그 부인을 뵈키니 부인은 그 보따리를 바라보니 십 오 년전에 애기를 내다 버릴 적에 어머니 가락지 짝가락지 은가락지 하나를 빼준 게 어머니에게 분명하고 어머니 노리개도 똑 떨어져서 허리춤에 달아준 게 분명하고 애기 배냇저고리 돌띠 묶는 것도 분명하고 어머니 손가락 깨물어서 칠공주 베리테기라 쓴 것도 분명하구나.

어머니는 “내 딸이가 분명하구나, 내 새끼가 분명하구나 분명하다”어머니는 그 딸을 후려잡고, “니 어디서 살았나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어머니와 딸은 입도 맞춰보고 볼도 맞추고 웃다가 울다가 땡굴다가 안고 땡굴다가 나굴다 어머니는 딸을 땡고 집으로 돌아와여 딸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노니 얼마나 잘난지 모르겠네. “천하일색 양귀비가 돌아오는 반달이여, 몸찬 제비와 같고 천지현황 일월동이 같구이, 만첩첩산에 보배도 이 같노라. 깎은 밤은 모나져서 곱지, 풀밑에 웅해세는 청태나 돈어서 곱지, 가시밑에 덩불개는 가시나 총총 돈아서 곱기나 하지, 우리 베리테기는 모도 기도 안나고 얼마나 잘난지 모르겠네.”

어머니는 딸의 모습 둘러보니 어머니 모습 분명하고 앉으나 서나 둘러봐도 양반의 새끼가 분명하고 말씨말씨 둘러봐도 양반의 자식이 분명하네. 걸음걸이를 뜯어봐도 양반의 자식이 분명하다. 그래야, “내 새끼가 분명하구나”어머니는 어루만져 씨담고 하는데 베리테기는 “어머니요 아버지는 어찌됐소. 아버지 상봉가겠습니다.”하니 “오냐, 느 아버지는 너를 낳아 내가 너를 딸을 일곱째 너를 낳았는데 니가 아들이라고 태자 놓는다고 시를 적을라고 놓은 옥상에 벼루돌에다가 먹을 갈아놓고 백지 퍼놓고 붓을 들고 앉았다가 칠공주 베리테기 딸을 낳던 소리듣고 그때부터 머리 돌은 것이 좋다는 약은 다 써도 아버지 병 못고치고, 느 아버지 약은 서천서역국의 약을 잡쉬야 약수물 잡쉬야 만은 불로초를 잡쉬야 느 아버지 병인 난단다.”하지요.

“갈 사람이 전혀 없구나”하니 “어머니요 어머니요, 제가 가리다”하지요. 어머니는 “못간가 못간다. 고물고물하는 핏맹이를 산천에다가 내다 버려서 십 오 년을 산에서 커서 집이라고 돌아왔는데 어찌 너를 또 버리겠나. 못간다. 못간다”하니 “어머니요 어머니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얻은 병으로 제가 안고치면 어느 누가 아버지 병을 고치오리까? 제가 서천서역국에 가야 아버지 약을 길어다가 아버지 병을 고쳐드리리다.”

가는 데는 “내가 어찌 여자뻘시를 하고 가리까? 내가 남북을 하고 가리다, 남북 두 벌 지어주고 여복 한 벌을 지어 주시오.” 여복 한 벌과 남북 두 벌을 지어주니 베리데기 거동봐라. 남북을 지니기를 시작을 하는데 삼단같은 처절머리 동백기름으로 광을 내고 반달같은 열개빔으로 양갈래를 딱 갈래서 이리 슬슬슬 빗겨 내리어 오를 박박 따외로 돌아 올리고, 외를 박박 따서는 오르 돌아 올리고 땀기 숙원숙취로는 여기다 부우듯 동강매고 남북으로 오곡을 차리긴 옛기 선배 총각이 분명하다.

덜머리 총각이 분명하네, 개나리 보파리 남북 한 벌과 여복 한 벌을 개나리 보파리 싸여지고 짚세기 세 켄레를 담아 달구 간다간다 떠나간다. 서천서역국으로 떠나간다.

이럴적에 이기 오구새남이라는것이 초단 오귀, 이단 청근, 삼단 세남으로 돌아 오시오. 사람이 죽으면 호단 오귀, 청근, 삼단 세남 이기 새남굿이요, 이기 오귀새남굿이요.

이럴적에 죽은 사람 영가가 떠나여 인제, 효녀 베리데기 설법 받아야, 요기 요참에 불쌍한 영가가 인제 떠나간다. 불쌍한 베리데기는 아버지 살릴라고 서천서역국으로 떠나가고 한많은 금일 영가는 효녀 베리데기 설법 받아 좋은 극락왕생 극락 떠나간다. 이제 가면은 언제오나, 오늘밤 천리길에 하직하고 떠나간다. 머나먼 황천길 영영 청청 떠나가네. “인제 가면 언제오나, 일자병풍에 그린 닭이 화를 치면 오실라나. 가매술에 삶은 팔이 썩이 들으면 오마던가, 조그만 조약돌이 크게 왕바우되면 오실라나. 대천지 저 한다바 육지가 되면 오실라나. 가매술에 삶은 개가 코공공 짚으면 오실라나.”

전부 요러며 간단 말이요. 그 답에는 “저승길이 멀다고 해도 대문밖이 저승길이고 황천수가 멀다해도 저 건너 저 산이 북망이로구나. 불쌍하고 애참한 영가 이제 가면은 언제오나. 사는 길과 죽음의 길이 지척이 분배없건만 자는 듯이 누우니 일어날 줄을 왜 모르나.”

그래 인제 황천을 떠나가고 베리데기는 서천서역국으로 가네. 얼마만침 가다보니 날이 저물면 눈독 발독에도 자고 가고 얼마나 만침 가다가다가 날이 저물면 산천에서도 잠을 자는데, 하루는 가다가 가다가 날이 저물어 산천에서 잠을 자는데 난데나 없는 불빛이 보킨다. 불빛을 보고도 깜짝 놀랐네. 사람의 불인가 짐승의 불인가? 옛날 노인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불은 새빨강고 먼데 까지도 화기가 비친다던데 귀신의 불과 짐승의 불은 새파랑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하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의 불이가 분명하다. 그 불을 따라서 올라가며 신세타령도 만만히 한다. 우리 베리데기, “에구 지구 내 팔자야,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낳으면 요런 고생이나 아니할걸, 야경 삼경 깊은 밤에 슬피우는 두견새야, 니 아무리 슬피울어도 우리 심정에 당하겠나.”

올며 불며 불을 따라서 올라 가는데 크단한 출입문이 있구나. 크단한 출입문아 대응전이라 하야 대응전 보이니 그 절을 디다 보니 스님네는 각성반이 육성반이 집집마다

문전마다 탁발을 하여다가 각성반이 자손들의 불공을 올리다가 얼마나 더웠던지 삼복 지경이라, 얼마나 더웠던지 새로 두 시 세 시가 되니 법복을 벗어놓고 승복도 벗어놓고 여기도 쓰러져 자고 저기도 쓰러져 잔다. 우리 베리데기와 한많은 영가는 잠잠한 그름 밤에 왔다가 표적이나 주고 간다고 다듬다듬 종말에가 더듬으니 종대가 잡힌다. 종대로 그 종을 파광파광치니 그것이 바로 에밀레종이 분명하다.

에밀레 에밀레종이 울리니 스님네는 야경 삼경 깊은 밤 첩첩산중에 종이 울리니 얼마나 놀랐던지, 어떤 스님은 법복을 못찾아서 “니 법복두가, 내 법복두가”. 어떤 스님은 바지를 적삼이라고 끼고, 어떤 스님은 적삼을 바지 가다랭이에 끼입는구나. 그래야 우리 베리데기가 하도 우스워서 고마 “하하하”웃었지만, 웃으니 스님네 거동봐라. 삼경 깊은 밤에 사람 웃음소리가 나니 이거는 분명히 귀신이지 사람은 아니다. 스님네는 벗었던 옷으로 승복을 입고 법복을 입고 목탁을 들고 염주걸고 담주걸고, 대문밖에 썩 나서며 “귀신이거든 멀리멀리 사라지고, 사람이거든 이리 오너라. 사람이기는 사람이지만은 불라국의 오구대왕님전의 막내 일곱째 아들이 올시다. 그리고 불쌍한 한많은 아무게 집 영가가 극락가는 길이 올시다. 어데로 가면 서천서역국을 가고 어데로 가면 극락을 잡니까? 극락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오.”

“어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래 들어가 보니 부처님 공양 한 그릇 내어 주면서 “이거를 잡수시오. 이거를 잡수시면 열매 열매를 가면 출지도 덤지도 않고 배도 안고프니다”그래 이걸 먹어야 극락길을 가르쳐 준다네. 그 밥을 먹고 나니 열매열매 가는 데는 양갈래 길이 나타나리라. 양갈래 길 나타나니 넓은 길과 좁은 길인데, 좁은 길은 극락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지옥 가는 길ियो. 지옥가는 사람은 많이 봐도 극락가는 사람은 열매 못봤소. 간다 간다 떠나를 가는구나. 정처없이 서천극락을 찾아간다. 열매만침 당도하니 양갈래길이 나타난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가 나타나는데 좁은 길로 들어서 간다. 얼마나 만침 당도하니 어떠한 농부님이 논을 가는구나.

“농부님은 농부님요, 어데로 가면은 극락을 가고 어데로 가면 서천서역을 잡니까? 서천극락을 가르쳐 주요.”

“이 양반아 이 양반아 이 논을 언제 다 갈고 서천서역국을 가르쳐 줄까, 이 논을 다 갈아주면 서천서역국을 가르쳐 드리리다.”

그 논을 갈아주기를 시작하려 간다. 사흘들이 모두를 다 갈아준다. 이때 또 농부가를 불러,

“아나 농부님 말들으시오. 아나 농부님 말들으라. 높은데 밭을 두고 큰데다가 논을 두니 장부는 밭을 갈고 아내는 씨를 뿌리니 저 논뻐에다가 무우를 삼아 송기…”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을 다 갈아주니 “저기 저기 저 길로 곧장 가면은 극락 서천서역국이 다가옵니다.”

그 길로 곧장 가는구나. 얼마나 만침 당도하니 어떤 부인이 빨래를 씻는구나.

“부인님네요, 어데로 가면은 서천서역국으로 갑니까? 가르쳐 주오.”

“아니 이 빨래는 언제 다 씻고 서천서역국을 가르쳐 줘니까? 이 빨래를 다 써주면 서천서역국을 가르쳐 주리.”

그 빨래를 씻어 주는데 동지선달 설한풍에 얼음을 깨며 빨래를 써니 허연건 시커멓게 씻어달라 하네요. 시커먼건 허영게 씻어 달라 하네요. 그 빨래를 허영게 꺼렇게 다 써주니,

“저 길로 저 길로 곧장가면 서천서역국이 나옵니다.”

얼마나 만침 가다 가다가 당도하니 어떤 부인들이 방아를 찧고 있는구나.

“방아찧는 부인님요, 어데로 가면은 서천서역국을 갑니까.”

서천서역국을 가르켜 달라하니 그 방아를 다 찧 달래 하네요. 방아를 다 찧달래 하네요. 방아를 찧으기를 시작하러 간다.

“혼자찧는 절구방아, 둘이 찧는 디딜방아 물로 찧는 물방아야, 뱅뱅뱅글 돌아서는 연자방아, 똑딱방아, 저 나가는 흥해방아, 우리나라 신성방애, 기계방애기, 강태공 조각방아, 이 방아는 누방안고, 나라님 옥방아로다. 한 섬 두 섬 잘도 찧네, 백옥같이도 찧어 주니 “저 길로 곧장 가면은 서천서역국 극락이 나옵니다.”그래야 가는구나, 정처없이 떠나간다.

그래야 얼마만치 가다가 가다가 보니 마구 할매가 이를 잡고 있는구나.

“마구 할매요, 어데로 가면 극락을 가고 서천서역국을 갑니까, 극락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오.”마구 할매가,

“이는 언제 다 잡고 극락세계 서천서역국을 가르쳐 줄까. 이를 다 잡아주면 서천서역국을 가르쳐 주리다.”

얼마나 이가 많았는지 한번씩 벗기면 한 말 씩 이가 나온다.

“저기 저기 저길로 가면은 서천서역국이 나옵니다.”

그래야 그 길로 정처없이 간다. 얼마만치 당도하니 어떤 아가씨들이가 베를 짜는구나.

“베짜는 아가씨요 아가씨요, 어데로 가면은 극락을 가고 어데로 가면은 서천서역국을 갑니까? 서천서역국을 가르쳐 주시오”하니 베짜는 아가씨 그들봐라 “이 베는 언제 다 짜고 서천서역국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 베를 다 짜면은 서천서역국을 가르쳐 드리리다.”

베를 짜주기를 시작을 하는데, “베틀농세 베틀을 노세, 동남간에다 베틀을 노세, 낮에 짜면은 일광단이고 밤에 짜면은 월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짜여놓고 당신에 서방님네 옷이나 지으시오.”

이렇게 베를 다 짜주니 “저 길로 저 길로 곧장 가면은 극락세계가 나옵니다.”얼매만 치 가다가 가다가 보니 수많은 산도 많구나. 이 산 저 산 고개를 넘어간다. 꽃이 핏네 화산고개, 잎이 핏네 청산고개, 돌이 많은 석산고개, 물이 많구나 수산고개, 비가 왔구나 우주고개, 수많은 산을 넘어가니 수많은 고개도 많구나, 수많은 고개를 넘어가는데, 시아버이 죽은데 호랑고개, 시어머니 죽었네 쟈소리고개, 시누가 죽었네 여수고개, 총각이 죽었네 몽달고개, 처녀가 죽었네 사귀고개, 홀에비 죽었네 한탄고개, 과부가 죽었네 눈물고개, 며느리가 죽었네 조심고개, 언나죽었네 억지고개, 급하게도 죽었네라 급살고개, 무녀가 죽었네 부채고개, 복술이 죽어서 지옥고개, 다랭이가 죽어서 연채고개, 수많은 고개를 넘어간다. 얼매나 만치 만치 가다보니 어떤 사람이 큰 말을 뒤집어 쓰고 작은 말을 깔고 앉아 방성통곡으로 울음운다.

“여보시오, 저기 저기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큰 말을 쓰고 작은 말을 깔고 앉아 방성통곡으로 울음우나요.”

“저기 저기 저 사람은 생전에 살적에 욕심많은 부자 장자로 살았는데 봄에 장례쌀을 내줄적에 쪼그만 말로 패어주고 가을게 받아 들일적에는 큰 말로 받아들였으니 그것이 죄가 아닌가.”

얼매나 만치 가다가 가다가 보니 어떤 사람 혀는 개가 물고, 개 혀는 사람이 물고 방성통곡으로 울음을 운다.

“저기 저 사람은 생전에 잘 살적에 부모님 상을 입고 개고길 먹었으니 그것이 죄가 아닌가?”

얼매나 만침 가다가 보니 위는 사람이고 밑에는 독사되어 우네.

“아이구 여보시오, 몰랐네, 저기 저 사람은 생전에 살 적에 음식을 남을 쥐도 못먹는 음식만 남을 주고 먹는 음식을 줄 적에는 일을 실컷 부러먹고 남을 주고, 오늘월에도 구렁이가 간장단지애 빠진 거를 자기는 먹자니 무서워서 못먹고 내버릴라니 아깝고 모도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모도 퍼줬으니 그것이 죄가 아닌가.”

그래 인제 한많은 영가 베리테기 독사 지옥으를 면해가요. 얼매나 만치 가다가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혀를 빼놓고 꺾재에 끼여운다.

“저기 저기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혀를 꺾재에 끼어 울음우나.”

“저기 저 사람은 생전위에 살적에 남의 삼대 독자 외아들을 혼인도 파혼을 하고 그것 부리도 많이 하고 이간질도 많이 했으니 그것이 죄가 아닌가?”

그래야 얼마만치 또간다. 얼마만침 가다보니 어떤 사람이 눈을 저울에다 끼어서 방성통곡으로 울어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눈을 저울에다 끼고 방성통곡으로 우나?”

“에고 망자님, 저기 저기 저사람은 생전우에 살적에 장사를 했는데 물건을 팔적에 저울눈을 속였으니 그것이 죄가 아니냐, 그래야 눈을 저울에다 끼고 방성통곡한다.”

얼마만치 가다보니 어떤사람의 손발을 묶어놓고 방성통곡으로 울음운다.

“여보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묶어놓고 우시오?”

“저 사람은 생전우에 살적에 제 농사를 잔뜩 지어 놓고 남의 농사가 탐이 나서 남의 농사를 도둑질하였으니 그것이 죄가 아닌가?”

한많은 영가 지옥을 면해 가오. 인제 서천서역에 따라 가는데 얼마만치 가다보니 어떤 사람을 지름가메(기름가마)에다 막 집어넣을라고 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름가메에 들어간다고 안들어갈라고 우나요?”

“아구~저 사람은 생전우에 살적에 자기 남편두고 남의 서방두구 자기 집을 두고 남의 첩을 많이 얻었으니 그것이 죄가 아닌가.”지름가메에다 첩을 넣는구나. 그래야 얼마만치 가는구나. 얼마만치 가다보니 시퍼런 강물이 나타난다. 강물이 나타나니 두 다리를 째뻐고 방성통곡으로 울음을 운다.

“이 강을 어찌어찌 건네나 울음을 운다. 고생은 잔고생이고 낙은 장락이라고 산은 들어갈수록 골이 깊고 물은 건널 수록 수심이 깊다는데 어찌 저 강을 건네나.”

울음우니 난데없는 배 삼 척이 떠나온다. 앞에 오는 배는 너울이고 뒤에 오는 배는 거북선이고, 세번째 오는 배는 유수강 백만중 극락세계 보내는 배로다. 그래야 그 배로 그 강을 건네는데 용신이 떠나오니 용신가를 인제 배를 쥐며 부른다.

유수강남 저 잔바다 배 삼 척이 떠나온다. 저 배 이름은 무엇이고, 선계용신이 아니신가? 그것대를 살펴보니 구백대를 세구 놓고 잉물에다가 딱줄걸고 심모에다가는 용천걸고, 공물에도 잉물은 석가열에 물으시고, 우편에도 우리님을 관세음보살 울으시고, 좌편에 울은 님은 지장보살님이 고르시오, 나반존자도 고르셨디, 목련존자도 고르셨디, 오방난전도 고르시고, 하장여차도 고르시고, 안양산 녹용부차 팔봉

아미타불도 고르시고, 한많은 영가도 고르시고, 불쌍한 우리 베리데기도 그 육신이 울으시고, 살아생전에 하신 공로 생년말을 꺾어들고 칠보궁전으로 왕래하며 오르시며 염불하고, 내리시며 염불을 하여 구비구비 집떠나 구름으로 떠나 시왕바람 건들바람에 딱줄메어 던져놓고 “여보시오 보살님네요. 어디까지 가시나이까?” “나도 서천극락으로 나는 가나이다.” “잘 간다고 가지말고 못간다고 서지마오. 흘러가는 냉수처럼 쉬엄쉬엄 잘

가시오.”

연화대 상상봉이 극락인가 연풍선의 대가 극락인가 나무대부주 정기극락 나무실로 차나두 대접가 극락나무 석가여래 극락나무 나무약사 극락유리 서방동상 극락나무 그러니 서방동상 극락나무 삼천불자 극락나무 우바사시미 동동 십구 극락서천 넘나드는 선계 용신이 아니신가? 인경수 천경수 애기옥동 두견마옹 용가 등가등가 관재보살 왕대 보살….

그래야 그 강을 다 건네야 우리 애기 베리데기 약수물 길르러 서천서역국으로 가는데 천상에 동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수자는 옥황님의 아들로서 심부름 보낸 돈을 떨근 죄악으로 옥황님전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돈 떨근 죄악으로 참 서천으로 귀양을 내려왔어요. 귀양을 내려와야 아들 삼형제를 나야지만 도로 천상으로 올라가게 귀양을 내려와 있는구나. 약수물 밑에, 그래야 동수자는 약수물을 지키고 잠을 자는데 산신할아버지가 나리와서

“아이고 동수자님. 오늘은 불라국이라는 나라에서 칠공주 베리데기가 약수물을 길러 아버지 살릴라고 천상연분이 오니 어서 바빠 일어나야 천상연분의 마중 배웅을 하러 가시오”하지요.

깜짝놀라 일어나니 꿈이지요. 꿈도 희안한 꿈이야. 이 산천에 첩첩산중에 탄 짐승도 없고 새짐승밖에 없는데 남자도 아니고 어찌 여자가 운단 말이야. 그러나 조반을 먹고 배웅하러 산천을 내려간다. 골짜기 골짜기 휘잡고 내려가는데 난데없는 털머리 총각이 올라오지요. 털머리 총각이 오는가? 고만 낙심천만하네. 고만 뒷걸을질 했지요. 여자가 온다더니 남자가 오니 기분이 좀 잡혔네. 그러나 이 산천에 사람구경을 못하다가 사람을 보니 반갑기는 한이 없구나.

“총각님요, 당신은 어디서 오는 총각입니까? 행인입니까?”

“나는 불라국이라는 나라의 오구대왕님의 일곱째 막내아들인데 울 아버지 살리는 약수물 길르러 오는 총각이 올시다.”

“그러면은 어서 갑시다. 우리집으로 갑시다.”

동수자님은 앞에 서고 총각은 뒤에 섰는데,

“총각, 우리집에 가면 모든 것이 하나밖에 없소. 술단지도 하나이고, 밥그릇도 하나이고 젓가락도 하나이고 숟가락도 하나이고 이불도 한매기 밖에 없소.”

그래야 집을 와보니 초가 오두막살이 오두막집인데 모든 것이 들던 소리와 똑같다. 숟가락도 하나이고 밥그릇도 하나이고 술단지도 하나이고 포테기도 하나이다. 그래야 동수자님은,

“총각님 머나먼 길을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단하시고 다리아프고 시장하십니까? 여기

잠깐 누우시오. 내가 밥을 지어 오겠습니다.”

동수자는 밥을 짓는데 상은 귀떨어진 상에 멧들어지게 채려 왔는데 둘러보니 얼마나 나물도 잘했는지 모른다. 온갖 나물이 다 올랐네.

“올러간다. 올고사리아, 내려껴어 늦고사리, 뱅뱅돌아라 도라지 채소야, 천방지축 호박 나물, 드럽드럽 무선아, 허리도 잘숙 콩나물에, 자주비단의 가지나물, 한푼두푼에 돈나물, 줄기종다 참나물에, 너울너울 미역나물, 미나리 나물에 시금치 나물에 월동추 나물에 근데 나물에, 풋고치 나물에, 쇠털같은 동초로에 온갖 양념으로 참기름 뽕생이, 오물락 조물락 무쳐서 그릇 모아놓고 외씨같은 미알씨 쌀밥에 귀떨어진 상에 멧드리지게 채려왔지요.

그래야 그 밥을 먹고나니 해는 무럭무럭지구 땅거미는 으스르 으스르 하는데 동수자님은 두대기 만한 이불을 짝 펴놓고 “총각님 총각님 고단한데 우리 그만 잡시다”한다. 동수자는 옷을 훌훌 벗어여 두대기 밑에 쪽 들어가며 “총각님 어서어서 와 자시오”하지요. 그러나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어찌 내가 옷을 벗고 자나. 머리맡에 우두커니 앉으니 동수자는 얼마만치 자다가 일어나 보니 상구도 웅크리고 앉았거든.

“총각님 총각님 어서 어서 와 자시오. 옷을 훌훌 벗고 와 자시오.”

”예, 잡니다.”

얼매있다 동수자가 눈을 떠보면 상구도 웅크리고 앉았거든. 그러나 새벽 두 시 세 시가 되니 아무리 잠없는 사람도 한 잠은 다 있다. 잠은 와 죽겠지, 다리는 아프지 정말, 그래야 철공주 베리테기는 옷을 푹푹 입은 체로 이불밑으로 고만 쪽 들어갔지요. 그래 동수자가 보니 옆에 와서 입은 체로 와 자거든, “총각님 총각님 옷을 벗고 주무십시오. 이렇게 푹푹 입고 잡니까?”

“동수자님, 동수자님요, 나는 울어머니 열달동안 배를 빌어서 내가 거둬 딸이 툅 툅 떨어져서 내가 철 알고 부터는 한번도 옷벗고 잔적이 업소. 옷을 벗으면 나는 잠이 생전에 안 오니다.”

고말 한마디 하고는 세상 그만 죽은기라. 막 끌어가도 모를 정도라. 그래야 동수자는 말씨말씨를 들어봐도 여자같고 맵씨맵씨, 손맵씨를 봐도 여자다. 그래야 여자나 남자나 진맥을 하는데 아무리 남자나 여자나 진맥해 보니 여자는 젓이 있을 것이다 하고 뒤져 보니 세상천상 도술로 젓이 하나도 없다. 그래야 또 불알이 있는가 하고 만져보니 세상에 천상에 참 부처님 도술로 불알이 하나도 안 잡힌다. 이 사람네 “아이고 남자가 분명하구나. 남자가 분명하다.” 동수자는 또 그 옆에서 자구, 또 동방화촉 밝아야 대명천지 밝은 날에 보면 또 여자거든, 보면은 모든 모습 모습이 여자라. 그래야 “여보시오. 당신은 오늘로 마침 조반 잡숫고 당신과 나와 바둑내기를 합시다. 당신이 지면은 내 앞에서 옷

벗고, 내가 지면은 당신 앞에서 옷벗으리라.”

동수자가 또 이러지, 그래야 또 바둑을 갖다 놓고 두는데, 우리 칠공주는 바둑두는 동네도 안 갔다 왔지요. 그래야 동수자는 바둑을 두나 우리 칠공주는 아이구 당황하고 정신이 혼동이다. 난데없는 쉬파리 하나 날아와서 앉는 데마다 무조건 갖다 노니까 고만 우리 칠공주가 이겼지요. 동수자님이 옷을 벗는다. 거기서 보기 좋다는 마냥 옷을 떡 벗지요. 아가씨 옷을 벗길라고 벗지요.

“여보시오 아가씨요 오늘은 우리가 밤에 자는데”또 봐도 또 분명히 낮에는 여자거든, 밤에 와 더듬어 보면 분명히 또 남자고, 그 이튿날은 “여보시오 당신과 나 오늘은 밥먹고 오줌내기를 합시다. 당신이 담장안에서 오줌이 바깥에 저 바깥에 못 넘으면 당신이 내 앞에서 옷을 벗고, 내가 오줌이 담장안에서 못 넘어가면 내가 옷을 벗읍시다.

하나는 담 안에 서고 하나는 담밖에 서고 인제 이놈의 동수자는 오줌을 누니, 담 바깥에 죄우 넘어가는기라. 이제 남자니까 죄우 넘어가는데 덜머리 총각 칠공주는 오줌을 누니 다리 가랭이로 술술 다 세더라. 그래서 통곡을 하고 엉엉 우니까 난데없는 대줄기가 탁 받아가지고서 혼드니까 그 천상에서 물이 내려와서 담 넘어로 훌훌 넘어가서 그 동수자 얼굴에 가서 풍덩 짹

“푸 고만 싸시오, 푸 고만 싸시오. 푸푸 고만 싸시오.”

그리고는 또 우리 공주가 또 이겼지요. 그래서 또 그 날은 자고 또 하는 소리가 “여보시오. 인제 당신과 나와 아버지 인제 살릴라고 약속물 길러 가면은 불라국에서 온데는 부정도 많고 염병도 많으니 서천서역 약속물 기르는데는 부정을 잘타니까 목욕 깨끗이 하고 가야된다”하네 “이제 목욕을 하러 가자”그래 가서 목욕을 하는데 동수자님은 가서 목욕을 하는데 이 아가씨는 목욕을 안하고 웅크리고 앉았으니 빨리 들어 오라고 “풍덩 풍덩”하니 “예, 들어갑시다”빨리 들어오라고 하니 난데없는 무슨 운해가 다 끼거든. 운해가 얼마나 낀지 옆에 사람도 못볼 정도래서, 그 담안에서 벗고 이놈의 아버지 살릴라고 약속물로..., 물에 가서 풍덩 가 들어 앉으니 동수자가 풍덩 소리듣고 가보니 여탕에 가서 앉았거든. 여탕에 가서 동수자님이 빨리 나가서 옷을 주어 입고 쫓아가서 아가씨 옷 벗어 놓은 거를 한아름 탁지고 막 들이 달리는 거야. 막 들이 달리니 우리 칠공주는 옷을 벗은 채로 자기 옷 움켜지고 뒤를 막 따라 오는 거야.

“동수자님요 동수자님요, 내가 여잡니다. 내 옷을 거기 놓고 가시오. 나는 아버지 살릴라고 서천서역국에 여자 몸으로서 남복을 하고 왔으니 나는 여잡니다. 옷을 놓고 가시오.”

동수자는 돌아다 보며, “그러면 그렇지 진작 항복을 할 것이지, 나를 이렇게 애를 말리나.”

그때 돌아와야 어머니가 개나리 보파리에 남북 한 벌, 여복 한 벌 싸주던 거를 풀어서 동수자는 남북을 입히고 지는 여복을 입고 청수 한그릇 떠다놓고 그때부터 천생연분 배필을 맺는구나. 동수자님은 천생연분 배필을 맺어서 그때부터 사는 것이 1년이 되니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또 1년을 사니 또 아들을 하나 낳고, 1년에 하나씩 낳는데 또 삼년이 되니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그래야 베리데기는,

“동수자님요 동수자님요. 나는 아버지 살릴라고 서천서역국에 약수물 떠서 아버지 살리러 왔다가 이렇게 아들을 삼형제를 낳았는데 어디로 가면은 약수물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오.”

동수자는 셋대를 내어주며 “요 셋대를 따고 들어가면 온갖 화초도 많고 약초도 있으니 약물도 받아오고 화초도 가져오시오. 가는 데는 들어가는 사람은 많이 많이 봐도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봤소.”

약수물 뜨러 가는 사람은 많이 봐도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봤다 하네. 그러나 위험한 고비가 많으니 서책을 하나 주며 “목숨이 위험할 때는 이 서책을 내놓으시오. 풍경을 내놓으시오. 그러면은 목숨을 보존할 것입니다”하지요. 그래야 우리 베리데기는 셋대를 들고 서천서역국 큰 바우밑에 그 셋대를 따고 들어가니 온갖 꽃도 많고 온갖 화초도 많다. 온갖 화초가 다 피었네. 온갖 화초가 다 피었네, 봉선화 꽃도 피어있고, 무궁화 꽃도 피어있고, 목단화 꽃도 피어있네. 살살이 꽃도 피어있고, 숭살이 꽃도 피어있고, 배살이 꽃도 피어있고, 숨드레 꽃도 피어있네. 살살이 꽃하나를 꺾어들고 숨드레 꽃도 하나를 꺾어들고, 배살이 꽃도 하나 꺾어들고, 그 옆에는 거북이 입에서 오분에 한방울씩 약물이 떨어지네. 약물을 떠서 품에다가 품고 살살이 꽃도 꺾어 숨드레꽃도 꺾어, 배살이 꽃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니 동수자님은 애가 삼형제를 버리고 하늘로 등천하여 올라간다. 베리데기는 애기 삼형제가 발바닥 치구 우는걸 보구 “아버지는 어데 갔나?”하니 “우리를 두구 아버지는 천상으로 꽃꺾으러 갔소”한다. 그래야 베리데기는 “입아 입아 우리 입아 나를 버리고 어데로 갔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가야 발병이 나네. 입아 입아 우리 입아, 꽃과 같이 고운 입아, 가지가지 뻗은 정을 열매같이 맺어 놓고 수심같이 깊은 정을 뿌리 같이 묻어 놓고 나를 버리고 어데로 갔소. 차라리 차라리 가실라거든 아들 삼형제나 데리고 가지지요.”

올다가 올다가 뒷동산에 올라가야 칠평쿨을 건너다가 애기 입을 떠를 만들어야. 애기 간난애기는 등애다가 입을 떠를 칠평쿨로 묶어여 업고 오른손에 큰 아들 걸리고 작은 아들 왼손에 걸리구 약수물 품에 안고, “가자 가자 외할아버지 찾아서 살리러 가자”올며 올며 오는데 산천초목도 운다. 열매만치 열매만치 울며올며 오는데 이 산 저 산 수많은 산을 넘으니 옷은 가다가다 다 찢어지구 열매만치 오다보니 어떤 농부님이 논을

간다. 눈을 갈며 노래를 하는데,

“아나 농부야 이 논 모 다 심어놓고 오구대왕님이 죽어서 3년을 토롱을 해왔다가 오늘로 망종가시는데 평초제 술이나 얻어 먹으러 가자, 평토제 떡이나 얻어 먹으러 가자, 베리데기란 년은 아버지 살릴라고 서천서역국에 약수물 길러 가더니만은 어느 잡음을 붙였는지 아버지가 죽어야 저렇게 망종가시는 것도 모르고 안오는구나.”

베리데기는 그 말을 들으니 지말인 것도 같구 아닌 것두 같구 똑바로 못들어여, “아나 농부님요 농부님요, 그 노래가 듣기도 좋네요. 그 노래 한 마디만 더 불러 보세요. 그 노래가 똑 맞네요.” 하니 농부님네는 “아나 농부야 내말 들어야, 아나 농부님네 말 들으시오. 저 논배미는 얼른 심구, 이 논배미는 뒀다가 내일 심구, 오구의 대왕님이 죽어서 3년을 토롱해왔다가 오늘 망종 가는데 평초제 술이나 얻어 먹으러 가자. 평토제 떡이나 얻어 먹으러 가자. 오구의 베리데기란 년은 아버지 살린다고 서천서역국에 약수물 길러 가더니만은 어느 잡음을 붙였는지 아버지가 죽어서 3년을 토롱을 해왔다가 오늘로 망종가도 모르구 아니오네.”

베리데기는 그해보니 딱 맞거든. 그래야, 우리 얘기 베리데기는 얘기를 거기두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산을 넘고 들을 건너 집으로 돌아와야 높은 동산 뒷동산에 올라 앉아보니 마당에는 아버지 행상을 꾸리는데, 그래야 아버지를 칠성판에 놓구 아버지 행상이 오는데, 참 서른 네댓군 행여꾼 발 맞춰라, 초롱불을 불밝혀라, 앞에는 소리쟁이 요령을 흔들고 나오고, 백담에는 어머니가 타고 하나 나오고, 백용등 여섯에는 언니들이 타고 나오고 백말 한 채는 사위 여섯이 타고 행상 뒤따라 나오는구나. 소리쟁은 요령을 흔들며 나오며,

“얼러러러 얼러러 얼러리 넘차 얼러러 인제 가면은 언제오나 인제 가면은 언제오나
 불쌍하구 불쌍하신 오국의 대왕님은 극락을 가네
 앞이 짚아서도 어이가며 뒤가 짚아서도 어이가나
 둥아 둥아 해동아야 꺾어진다고 설위마라
 너는 졌다가도 내년 3·4월이면은 꽃도 피고 잎도 피지만
 우리 인생은 한번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나
 저승길이 멀고 멀고 하건만은 대문밖이 저승이구
 황천수가 멀고 멀다 해도 저 건너 냇물이 화천수구
 북망산천이 멀고 멀다해도 저 건너 저 봉이 북망이야
 산 길과 죽음의 길은 지척이 분배없지만은
 자는 듯이 누은 님은 일어날 줄을 왜 모르나
 인제 가면은 언제 오시나 일자병풍 그린 닭이 꼬끼우등 꿩을 치면은 오실라나

부부유별도 허무하고 부자유친도 무정하다
 남풍이 불면은 서로 가구 서풍이 불면은 북으로 가는데
 북풍바람 찬바람에 눈물이 앞을 가려 못가겠네
 불쌍하는 금일영가 불쌍한 처자식권속도 다 버리고
 대궐같은 집도 다 버리고 어느 누구에다가 저당하고 가잔말고
 당신들도 죽어지면은 이 길로 가구 나도 죽어지면 이 길인데
 죽음의 길과 변소길은 대신 가는 길이 없대지요
 대신가는 길만 있다면 백발노인 돈 많이 주고 사다가
 삼대독자 가는 길도 막아주구 청춘죽음의 가던 길도 막건마는
 변소길과 죽음의 길은 대신 가는 길이 없으니 너무도 무정하구 야속하구나 우리 인생
 들….”

그러니 베리데기는 앞에 나타나서 “스물네댓군 행려꾼요. 아버지 행상을 거기놔야 주시요. 아버지 시체를 놔야 주시요”하니 아이구 원래 나라의 국상이 나면 회광이가 꼭 따라 간테요. 나라의 국사가 나면 회광이가 칼들은 회광이가 따라 가는데 회광이가 따라가고, 그래야 딸 여섯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 사시다가 망종후 세상으로 가는데 어느 요망한 년이 우리 아버지 가는 길을 막느냐” 회광이에게 시켜 목을 쳐서 죽일라고 하니 베리데기는 안죽을라고 이리저리 몸을 피하다가 서책이 땅에 툭 떨어지며 퍼졌지요. 그 서책이 퍼지니 회광이는 칼춤을 추다가 어깨부터 안 떨어지고 스물 네댓군은 행려꾼은 발이 덜꺼 붙었고 말도 여섯 사우 여섯이 타고 나오다가 말굽이가 다 붙었지요. 만장드는 사람도 다 붙었지요. 그래야 세상 아들 사우 여섯으는 빨리 가자고 빨리 북망산천으로 가자하니 족족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지. 참말로 도술은 도술인 게 라고 베리데기 보고 “그러면은 집으로 돌려줄테니 발을 떨귀 주시요”하니 그때서 모두 발이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구 행상도 떨어지구 다 떨어져야.

집으로 돌아와서 마당 북판에다가 행상을 놓구 행상이 모두 각을 놓구 칠성판에 아버지 질 눕혀놓구 베리데기는 마당 북판에다가 청수 한 동이 떠다 놓구 약초 내놓구 약물을 내놓구 천지신명께 빈다.

“천지신명님네, 일월성관님네 북천상계 또 칠원 성주님 불초 자식은 이제 왔습니다. 전날까지 지은 죄악 다 사죄하여 주시구 아버지를 살려 주시요. 약덕주구 진덕주구 죽은 아버지 살려주시요. 비나이다.”빌어놓구 아버지, 칠성판에 누운 아버지 배살이 꽃으로 이리 슬슬 저리 슬슬 문지르니 빠가 우드득 뿌드득 다 붙는구나. 그래야 심줄꽃으로

이리저리 문지르니 심줄이 빨긷빨긷 돌아나고 피살이 살살이 꽃으로 이리저리 휘두리니 살이 토담토담 쩐다. 피살이 꽃으로 이리저리 문지르니 피가 빨긷빨긷 혈액이 된다. 약병에 거북이 입에서 오분에 한방울씩 약물 받아온 거를 뚜껑을 따고 아 입을 벌리고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구니 아버지 숨터지는 소리, 아버지는 기지개를 부득부득 쓰니 대천지 저 한바다 폭탄소리 같이 파광팡팡 들린다. 아버지는 기지개를 부득부득 쓰더니 눈을 번쩍 뜨며,

“아이구 오늘이 무슨 날이나, 경사가 났다. 왜 만조백관이 이렇게 다 모였나. 무슨 일이 있나.”

하니 자기 죽은 줄 모르구 그래야, 어머니는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이 죽어서 삼년을 토롱을 해냈다가 우리 십 오 년전에 버렸던 배리데기가 약수물을 서천서역국에 가서 길어와야 당신을 살렸소.”하니 그제서야 가즌 그 대궐안에는 경사가 났지요.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났네”하니 딸이 하는 소리가 “아이구 어머니요, 경사가 나구 죽은 아버지는 살래도 내가 아들을 삼형제를 낳습니다”그러니 어머니가 “딸의 얘기를 어디다가 났느냐” “아무데 아무데 아무데 굴에 거기다가 났소”하니 하인을 보내서 얘기를 실으러 가니 얘기들은 얼마나 땅을 파고 울었는지 똥구녕 콧구녕에는 흙이 들어가서 범벅이 되고 얘기를 가서 가매에다 태워다가 참 목욕을 시키고 입히고 얼마나 좋았던지, 할머니가 손주님도 연구 대궐안에는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났네 대궐안에는 경사가 났네
 베린 자식이 효도를 하구 죽은 아버지를 살렸구나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났네 대궐안에는 경사가 났네
 왕대밭에는 왕대가 나구 시리대 밭에는 시리대가 나구
 효자속에서는 효자가 나구 불효속에서는 불효가 난다
 얼씨구나 좋네 내 딸이야
 저절시구 내 딸이야
 내 딸을 가셔도 보고나니
 손자놈 서이가 보기도 좋네
 두리둥둥둥 두리둥둥둥
 어화 둥둥 내 손자야
 어디를 갔다가 인제 왔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땅에서 불끈 니 솟았나
두리둥둥둥 두리둥둥둥
어화 둥둥둥 내 손자야
아들이 없으면 외손 봉사는 못하느냐
얼씨구 좋네 내 손자야
내 손자 치장은 하여 본다
내 손자 치장을 하여 본다
노랑 수저고리 노랑 주 조개

그래야 그 손자들은 모두 어여쁘게 모두 아들이 없으니 외손주 봉사하고 사는데 그래야 오래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건우적녀가 되구 딸 일곱이는 북두칠성이 되구 아들 삼형제는 북두칠성 뒤에 조롱새라고 서이가 따라 가는데 그 조롱새 되구 사위 여섯이는 욕심많은 신들영감이 되어서 모두들 하늘에서 모두 높은 존신님이 됐답니다. 그래야 모두 밤이 되면 초롱별이 내려다 보고 그렇게 그렇게 됐답니다.

제 보 자 : 이명례(여·52)

조 사 자 : 장정룡

조사일시 : 1992년 4월5일 오후5시~7시, 1992년 4월20일 오후4시

조 사 지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8통4반

무가종류 : 부정굿, 골매기 성황굿, 조상굿, 시준굿, 용신굿

2 부정굿

영정아 부정아

영정부정님네를 모시자

○○명당 터전안에

건구안에 영정아 건구밖에 영정아

대문안에도 영정아 대문밖에도 영정아

부정님네 난대본은 뒷동산 치치 올라

청솔앞이 난대본이요

영정님네 난대본은 대천지 저 한바다

절로 솟는 물거품이 난대본이요

감어드는 영정아 숨어드는 부정아

죽음에 영정은 초삼일 영정이고

산에야 영정은 칠칠이 사십구로

마흔 아흐레로 해워 내던

영정님네를 모시자

이 동네 대동안에 어린애 낳던

해산 부정 사람 죽어 상문이라

닭을 잡아 영산 부정이라

동구 안에 영정 동구 밖에 영정

울음소리 들던 영정

말소리 들던 영정

청솔 앞에 물어들고

남자 갓지실에 따라들고

여자 치마자락에 물어들던 부정아

누린내나고 비린내나는 영정아

누추하고 더럽고 구린내나는 부정을
 용천수 흐르는 물로 벽계수 솟는물로
 씻어내고 가서냅시다
 동에는 청제영정 남에는 백제영정
 서에는 흑제영정 북에는 적제영정
 중앙에는 황제영정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신미 갑술 을해 술해
 방으로 들어오는 영정부정을 가서내자
 하루 이틀 동의 영정
 사흘 나흘 남의 영정
 닷새 엿새 서의 영정
 이레 여드레 북의 영정이라
 영정부정을 대다리니경으로 막아내자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득청령
 삼세서방 구정토 사세북방 연안강
 도량청정 강차지 아로지소 묘진안
 운사자비 밀가오 계유무진 담진친
 종신구에 진소생 일채아금 참애진언
 음사바타

3. 골매기 성황굿

남산은 본이요 주산은 국이라
 사두각남은 쓰러지고 안가는 간이요
 갑산은 제자라 여산이 동업이요
 중님이 행차로다 스물여섯 중도가 남은
 강남서 나거시든 모시서책에
 날을 끌라 일상생기 이중천아
 삼아절계 사중듀언 오생황하
 육언복덕 칠하절명 팔중귀언 난생기
 여복덕을 같이야 받아

상탕에 목욕하고 중탕에 머리감고
 하탕에 수족씻고 씻은 옷 개복하고
 진주단발 곱게하고 여덟폭 채일이라
 스발장대 고질대 밑에 상당을 돋으으고
 중당을 내다매고 하당을 높이매여
 꽃비단이라 잎비단이라
 만단지수 차려놓고 촛불화단 이룩하여
 지석국에 바치듯이 오늘같이 좋은날을
 택출하여 드는 신사는 ○○일이요
 중재파재일은 ○○일이라
 나라국비무녀 집사 세워
 어지신 성황님네를 모시는데
 자리잡고 터전 잡으시든 성황님네
 정월이라 대보름날이면 글문지어
 제문받고 제문지어 글문을 받으시고
 시무삼녀드리로 우도신 좌도신
 거리별신 내별신 산머리 도꾸치고
 양지머리 칼을 꽃아 앞다리 선각
 뒷다리 후각이라
 온마리 지성으로 받으시던 성황님네
 우청룡 우백호 좌청룡 좌백호라
 옷당 남성황님 아랫당 여성황님네
 이골애기 성황님네 매기매기 성황님네
 한림학사 성황님네 나라국사 성황님네
 부근당사 성황님네 사망지등 성황님네
 붉은 갓에 붉은 말을 타고
 흰 깃대를 높이 들었으니
 천황님이 분명하다
 나이 많아 점추달라 나이적어 동지달라
 일좌사 이공수요 사마사 도원수
 한림학사 만호병장 주자에 송가로다
 동은갑을 삼팔목아 진장천왕 청용대기를

드리잡고 사만약사 여래불이 팔천보살
 거나리고 동방청유리 화장세계
 상주설법 하옵시고 남은병정 주작인대
 청용대기를 드리잡고 칠천보살을
 거느리고 남방백유리 화장세계
 상주설법 하옵시고
 삼천불주 오십삼불은
 육천보살을 거느리고
 서방흑유리 화장세계 상주설법 하옵시고
 단목한 천황은 흑신흑용
 대기를 드리잡고 삼단 재대불은
 오천보살을 거느리고
 북방적유리 화장세계
 상주설법 하옵시고
 오만십대세지 문수보살은
 사천보살을 거느리고
 중앙황유리 화장세계
 상주설법 하옵시고
 동은 청계 옥장문 열고
 남은 금수 화단문 열고
 서는 백호 금강문 열고
 북은 현무 흑장문 열고
 중앙은 황천지옥문 열고
 천지천 자시천 광관천 도설천
 무량광천 사방기지 대법천 토시안에
 제석천 일월급양 제천 비상천
 우뢰중천 우사바 삼십삼천 이십팔수
 제왕천 천지현황 생긴후에
 일월명천 되었구나
 만물이 번성하니 산천이 계택하여
 곤룡산 제일봉이 산악지 조화로다
 낙양은 천하중에 영서는 동남이요

영주는 서북이라
 팔도강산을 역역히 굽어보니
 평안도 대성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함경도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황해도 구월산은 세류강이 둘러있고
 강원도 금강산은 소양강이 둘러있고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이 둘러있고
 충청도 계룡산은 백마강이 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금강이 둘러있고
 경상도 태백산은 상주낙동강이 둘러있고
 매기매기 성황님네 봉봉이 성황님네
 구비구비 성황님네 아버님은 사모쓰고
 어머니는 각띠띠고 아들에게 투구쓰고
 며늘아이 족두리 쓰고
 한녀산이 남산이요
 인왕산이 놀랐으니 약사마다 과객이라
 황하수 양자강은 계천수가 되어있고
 남경은 영천부여 북경은 수청부라
 서천지 흑천지 억만지천 세시동감
 이골매기 돌아들어 앞낭산은 느낌잡고
 뒷낭산은 내림잡어 일좌사 이공수요
 사마사 도원수 하인막사 만호병장
 주자가 송자로다
 우두봉은 우두치고 좌두봉은 좌두친다
 소상강 물소리인가 동중에 북소리인가
 연지당 분지당 좌팔용 수팔용
 벽안이 낭적하여 포아지던 소릴런가
 키크다 저귀신은 상깃대로 상에 보고
 키작다 저귀신은 명금소리 상에 듣고
 너도가자 나도가자 고리жат게 길이 좁게
 중당상당 마실로 꽃마실
 앞마실로 좌장하시어

성황님 뒤따라 선후차례
 조상님 독백석에 좌정하시고
 어지신 성황님네 빌고 비나이다
 (축원문)...

4. 조상굿

남산은 본이요 주산은 국이라
 사두강남은 쓰러지고
 안가는 간이요 갑산은 제자라
 여산이 동업이요 중님이 행차로다
 옛날이라 저갈적 갓날이라 서갈적에
 아장구 설법시절 송덕시 말문시절에
 조상은 열대조상 봉창은 사대봉창
 조상님네 가마국 강마실로 나그네
 송마실로 먼저가신 설망조상님네
 후에 가신 후망조상님네
 부주철명 조상님네 외주절래 조상님네
 마실마실 부지잡고 나그네 손마실로
 사천에 재마실로 허우허우 돌아오소
 어딩딩 땡로소리 갱겨듣고
 삼사춘아 오육춘아 썩은 손목을 마주잡고
 백두산 지모른 가지 고래중 지실안에
 시름없이 누워 계시다가
 이 곳 중단 말씀듣고 썩은 도포 챙겨 입으시고
 썩은 갓을 눌러쓰고 억주청산 기밀제
 조리같이 수미산 저고개를 넘듯이 넘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서어서 돌아오소
 구슬같은 지청안으로 뉘이라도 돌아오고
 혼이라도 돌아오소
 상당마실로 돌아오고
 중당마실로 돌아오소

아침에 먹던 밥과 저녁에 입던 옷을
 일중에 다 이별하고 어드메로 가잔 말인가
 저하늘이 높다해도 초경이작에 이슬오고
 꽃꺾어 머리 꺾고 잎뜬어 초경불고
 가지꺾어 이슬치고 손꺾어 작지짚고
 풀이 갖게 돌아오고 질이 갖게 돌아오소
 원이 많아 원당짓고 한이 많아 한당짓고
 좌우산천을 두루 돌아 산천초목을 바라보니
 꽃이 피여 화산이요 잎이 피여 청산이라
 청금산 내 자손들 만금산 내 자손들
 형제일신 일가문중 솜씨받고 인정받아
 화목받아 내아이 돌아오겠오
 설산이 다기봉하니 봉이 높아 못오시나
 화병에 인사식하니 병이 들어 못오시나
 옷이 없어 못오시면 상주재옥 돌아오소
 밥이 없어 못오시면 시우식상으로 돌아오소
 신이 없어 못오시면 상주짚신으로 돌아오소
 말이 모자라 못오시면 무당각시 입을 빌려 돌아오소
 혼이 모자라 못오시면 초벽지한장에
 냇을 실어 허우허우 돌아오소
 백호는 유지난다 좌우청산 배웅간다
 만사 사람이 죽어지니
 벼이 없는 저 곳으로 누굴따라 가잔말고
 여이라 저 은공에 부유같이 나온 사람아
 한갓 공명을 못이루고 초목같이 쓰러졌네
 공산영은 강산월이요
 이내 일신은 반두갱이라
 막수삼남 고지정에 망막망막 유유망막
 유유 맥노가 해책이라 불쌍타
 백년추야 무상함을 한탄말아 춘만건곤이
 복만가요 인간부득 경시년이라
 강남이 멀다해도 삼월이라 삼짓날에

연자제비 날아와 백옥남강에 비켜앉아
 내왔노라 현신하건만
 어이 그리도 모르시나
 불쌍타 조상님네요 가신 날은 알건마는
 오신 날이가 막연하네
 설땅도 없는 무주공산에
 누굴따라 가잔말고 운무는 자욱한데
 청산구가 짓는 듯이 간수는 늘어지고
 늘어지는 양유버들은
 서양수를 부르는구나
 한강에 뜬 기러기는 동유화로 날아들고
 멀구 먼 황천길은 한번 가시면
 왜 못오시나
 마두각 하시거든 오실런가
 오둑에 가시거든 오실런가
 안영실로 돌아오소 반영실로 돌아오소
 꽃마실로 앞마실로 연당안으로
 좌정하시고 독백석에 좌정하실적에
 만단지수 차려놓고 촛불향합에
 지주정성 드리오니 짐으로 웅강재감
 하시여 언제 자시던 밥이며
 언제 자시던 술이라고
 밴들 아거 고프면 목인들 안말으시겠오
 불쌍하고 애침한 조상님네
 낮차레 짓차레 연차레로
 천금산 내자손들 명도주고
 복도 점지하세... (축원계속)

5. 시준곳

석가삼아 세준님을 모시는데
 말도 선후가 있고 글도 선후가 있고

첫째로 두로신 선관님을
 영정 부정을 가읍시고
 둘째로 두로신 선관님은
 이 골 당산 성황님을 사천 황애문을 열으시고
 만조상님을 모시옵고 어느 가정마다
 시준님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시준님 모시는데 시준님을 모시자니
 어디메 계시는가
 아부랑고개 계시다가 대한민국을
 나오실적에 높은 절을 지우시고
 시준님네 나오실적에 흑배를 모아
 탈려니 푸러질까봐 못 나오고
 나무배를 모아 타려니
 밀이 썰까봐 못 나오고
 무쇠배를 모아 타려니
 대천지 저 한바다에
 지남철이 무서워 못 나오고
 돌배를 타고 나올려니
 성앞 모진앞에 태풍을 만나
 모진앞에 먼저놓고 사공님은
 어떻게 모셔놓고 오십삼불이가
 극락산으로 올라간다
 산금만금 안저구나 돌금만금 안저구나
 절을 짓기를 원합니다
 개골산에다 나무를 비어
 극락산에다 시를 올려 놓은 데다
 범당짓고 낮은 데다 중당짓고
 중당 밑에다 일충문 달고
 그 절 짓는 삼일만에
 여러 중생이 몰려든다
 기마지를 올리는데 앞춘주 고양미 올려
 배미쌀이 모자라서 서천나 서역국을

시준아가씨 집에 시주동냥 가나이다
 한자 한치 호꼬깔에다
 두자 두치 접꼬깔에다
 열대자 홀장삼에다
 십대자 접장삼에다
 백발 염줄 목에 걸고
 신에 담줄 팔에 걸고
 패넴 갠과 천과살에 구름넴개 홍가살아
 일천에다가 금단가사로
 고이 들어 올개입고 육감장을
 터진길로 사십팔론 경기창우이가
 석가산아 좁은길로 낙영산 비탈길로
 흔들흔들 날려가셨네
 서천아 서약국을 까막까치도
 못 날아가고 새짐승도 못 가는 곳을
 그 곳으로 동냥간다
 단장도 열두단장 대문도 열 두 대문
 대문밖에 썩 들어서서 깡쇠소리로
 광광광 치며 나무아미타불
 시주동냥 왔습나이다
 그 때에 시준 아가씨가 후명안
 별당 안에서 공비단에 수를 놓다가
 난데없는 대문 밖에서 운도소리가
 들려오고 법도소리가 들려온다
 앞문에 옥단춘아 뒷문에 명산군아
 대문밖을 내다봐라 운도소리 들려온다
 옥단춘이가 내다보니
 난데없는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하네
 중이란 게 어찌 생겼나
 중말을 들어봐라 중구경을 못해 봤네
 놓은 수를 제쳐 놓고 중구경을 나가려고
 치레치장을 둘러친다

신수주를 질고리다 운세소리 정리하고
 감탕같은 채진머리 동박지름에
 광을 치며 느진느진 곱게 따아서
 갑사댕기 서당올려 송금비단에
 잡조소리다 거칠 비단으로
 광을 비치고 흥당을 천마다
 나비주름을 곱게 잡아서
 굿태말을 슬이 달고 서란개더 그늘다리
 맵시있게 차려입고 물명치 단속곳에다
 누비바지를 받쳐입고 상석 버선에
 가족 꽃신 신고 줄베를 건너타고
 마당방을 건너본다
 남문을 건너와서 문틈을 내다본다
 중의 눈과 아가씨 눈과
 한군데 마주쳤네
 스님이 하는 말씀이
 아가씨요 문틈으로 내다 보지말고
 대명천지 밝은 날에 문밖에
 썩 나와서 이 스님을 보시오
 문틈으로 보신다면 나중에 죽어서도
 나쁜 지옥으로 간답니다
 그 소리를 하니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돌아오는 반달이요
 넘어가는 미월이다
 아가씨요 우리 절에 공양 올리려니
 백피살이 두 말 두 흡이 모자라서
 아가씨댁에 시주하러 왔습니다
 시주나 좀 주시요하니
 아버님은 천하공사 가시고 없고
 어머니는 지하공사 가시고 없고
 아홉상재 오라버니 마을공사
 글공사 가시고 없는데

아홉방 고방문이 첩첩히 잠겼는데
 어찌하여 시주를 줍니까
 아가씨요 문열어는데 계문명 건개
 북미력 개문경 석가삼삼 예문상
 유희법왕가 일보정부동 내한수운간
 기도 아련나 입실에 금선
 이른지는 늘친다
 잠졌던 문이 다 열린다
 아가씨요 당금막이 아가씨요
 강원도로 오면 당금막이라 하고
 부산을 내려가면 시주아가씨라 한다
 당금막이 아가씨요
 문을 열어 났으니 동냥이나 좀 주소
 앞문에 옥단춘아 아버지 잠수던
 쌀독에 쌀 한바가지 떠드려라
 옥단춘이 쌀 뜨러가니 눈에 뵈기로
 청룡이 구비를 치고
 어머니 쌀독에 쌀 한바가지 떠드려라
 황룡이 구비를 치고
 아홉상제 오라버니 쌀독에
 청학 백학이 알을 품고 있으니
 어찌 쌀을 뜨겠습니까
 스님이 도술을 부리니
 스님이 한다는 말씀이
 아가씨요 아가씨 잠수던 쌀독에
 쌀 한바가지 떠주시오
 납작거미 줄을 쳤으니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한 바가지
 떠주시오 소생은 돌아갑니다
 어찌 할 수 없이 옥단춘이를 앞세우고
 당금막이 아가씨가 쌀 뜨러간다
 쌀 뜨러가는데 스님이 가만 생각해보니

후면 별당 안이라 아가씨 혼자 있고
 어머님도 없고 아버님도 없고
 아홉상제 오라버니도 없으니
 오늘 다 시주를 퇴려왔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있나
 어찌하면 오늘 해를 지울꼬
 차마 돌아서니 자리 밑을 터져놓고
 위는 받은 채로 밑으로는
 대명천하 다 흘렀다
 당금막이 아가씨가 스님을 보고
 하는 말이 스님요 스님요
 동냥을 하려면 자리나 샅을 가지고
 다니시지 밀빠진 자리를
 어찌 동냥을 하려 다닙니까
 앞문에 옥단춘아 비 가져 오너라
 쓸어 넣자 채이가져 모으라
 까부러 넣어드리자
 스님이 한다는 말이
 우리 절에 공양 올릴 백미쌀은
 비가주(지고) 쓸어넣으면 수숫내가 나서
 못 받고 채이가주 까불면
 버들내가 나서 못 받습니다
 그럼 어찌 할까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개똥나무 꺾어다가
 절로 하여 인무로 곤물로 집어넣읍시다
 그 소릴들 듣고 아가씨가
 당금막이 아가씨와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개똥나무 꺾어와야
 절로 하여서 집어넣고
 옥단춘도 집어넣고
 당금막이도 집어넣고
 얼마만큼 집어넣다가 하니

동해 동산 돋은 해가
 일락서산을 다 넘어가네
 아이고 당금막이 하는 말이
 아이고 스님요 내가 죽으니
 어떡하시오 스님이 하는말이
 아가씨요 집을 두고서 어딜 가라고
 유수같이 흐르는 밤에
 하룻밤만 유해 갑시다
 그때 시준 아가씨가 스님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옥단춘아
 스님이 유해 간다니
 아버님 자시던 방안에 데려가서
 자리보전을 해드려라
 아버님 자는 방안에는 놀레가 나서
 못 자겠어요
 어머님 자는 방에가서 자리보전
 해 드려야
 녹키때문에 빌레가 나서 못 자겠어요
 그러면 어찌할까요
 아흠상재 오라버님 자는 방에
 자리보전 해드려라
 땀내가 나서 못 자겠어요
 봉당에 가서 자고 가세요
 마리방에 자고 가세요
 도장방 안에 자고 가세요
 골방에 자고 가세요
 이리저리 말씀을 해도
 스님이 하는 말씀 좀 보소
 당금막이 아가씨요 아가씨 자는 방에
 하룻밤만 유해 갑시다
 인물병풍 둘러치고
 복판에다 물 세 그릇 떠다

판에 받혀놓고 병풍을 둘러치고
 아가씨는 병풍안에 자고
 이 스님은 병풍밖에 자고
 하룻밤만 유해갑시다
 그 소리로 하니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잔다 하니
 인물병풍 둘러치고
 복판에다 물 세 그릇 떠나놓고
 아가씨는 병풍안에 자고
 스님은 병풍밖에 자고
 절 한참 잘려고 바랑벗고 고깔벗고
 장삼벗고 착착 개서 머리말에 놓고
 자려고 하니 꽃을 보니
 잠이 올 수가 있나
 병풍너머 넘겨다 보니
 아가씨 자는 것이
 그때는 죽겠는기라
 그래 두번째 또 넘겨다 본다
 세번째에는 장부일언중천금인데
 일시에 무같은 맘이 변할 수 있나
 아가씨 네 활개 뺨치고 자는 거 보니
 그때는 빼는 칼을 꽃을 수 있나
 병풍을 걷어치고 넘어간다
 아가씨가 자다가 보니
 숨이 답답해 눈을 떠서 본다
 병풍밖에 스님이 두라서
 스님팔은 아가씨 어깨가 되고
 스님 다리는 아가씨 허리에 얹어있다
 당금막이 아가씨가 일어나더니마는
 스님보고 호령을 하는구나
 에이 고약한 이중아
 중이라는 게 만첩청산에 올라가

불도나 닦지 속아에 와서
 무리한 행세가 어디 있습니까
 스님이 말하는 것이
 절에 올라서 중이지 ~~찾~~실래서도
 중이겠소 저위에 고깔이 중이지
 부알조차 중이겠소
 중을 보고 호령을 말고
 양반에 집 딸이 대드니
 아들로 아홉을 놓고
 딸을 낳기를 완하다가
 딸을 하나 낳으니
 평상 사주책을 꺼내서니
 사주책을 보시오
 중의 가족이 불명하지
 사주책을 내놓고 보니 평상에
 중가족이 분명하게 뚜렷이 나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님 더러
 울적마는 평상에 부배를 삼아가지고
 잠을 자기로 시작한다
 상단이불에 새단오다가
 호랑삿비개를 돌려 비고
 인물병풍을 돌려치고
 잠을 자기로 시작한다
 초경에 잠이 들어 이경에 꿈을 꾸었네
 삼경에는 꿈 얘기를 하는구나
 한쪽 어깨는 해가 뜨고
 한쪽 어깨는 달이 뜨고
 하늘에 별 서넛은 내 입에 들어비고
 붉은 구슬 서넛은 내 치마 앞에
 떨어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스님은 하는 말이
 아가씨요 내 꿈과 같습니다

나도 간밤에 꿈을 꾸니
 내 입었던 장삼이 아가씨가 입어봐고
 아가씨가 입었던 아홉폭 두리당치마가
 내 허리에 돌려 보입니다
 내 꿈과 같습니다
 꿈해석을 내가 하지요
 한쪽 어깨 해는 스님 직심이고
 한쪽 어깨 달은 아가씨 직심이고
 하늘에 별 세날은 삼신이 굽어 뵈고
 붉은 구슬 세 날은
 아들 삼태 점지하소
 꿈해석 하던 스님이
 먼동이 트고 문살이 환해지니
 장삼입고 갓살을 쓰고
 바람을 지더니만 고깔을 시더니
 간테온데없이 없어지네
 아가씨가 일어나 보니 스님이 간곳
 없으니 아이고 스님요
 나를 두고 어디 갔소
 하루밤만 정드려놓고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나
 이이고 언제나 올렵니까
 얼마만치 울다가 보니
 갔던 스님이 되돌아와서
 아가씨요 울리는구나
 아가씨요 나 이제 갑니다
 박씨 세 날을 던져주고야
 내 간 뒤에 아들삼태 놓거들랑
 아버지 찾아 달라고 조를 테니
 이 박씨 심었다가 박줄이 뻗는 데로
 찾아 오시오
 누바진 석달만에 입맞이

굿치기를 시작한다
 밥에는 빌래가 나고
 물에는 활래가 나고
 장에는 나장내가 나고
 찾는 것은 신 것 을 찾네
 뒷동산에 꺼칠복상
 말말이 따오너라 섬섬히 따오너라
 시금털털 개살구를 말말이 따오너라
 섬섬히 따오너라
 얼마만치 따다놓고
 석달에 입맞그쳐 다섯달에 반침걸어
 일곱달에 칠성걸어 아홉달에 해온바다
 열달이 다 차가니
 앞남산은 높아지고 뒷남산은 낮아진다
 천하공사 갔던 아버님은 오신다고
 심리방포 놓고 오고
 지하공사 갔던 어머니 오신다고
 오리방포 놓고 오고
 어머니 아버지 바양가거라
 저녁에 바양가서 아가씨는 왜 안오나
 하거들랑 어머니 가든 세
 구중빠가 들려 가지고
 앞남산이 불러가지고 원칸 방문을
 못 온다고 여쭙어라
 옥단춘 명산군아
 꽃가마를 가지고 어머니 모시러 가니
 어머니 먼저 오시는데
 애들아 너희들은 마중나오는데
 당금애기 아가씨는 왜 배양을 안오나
 아가신지 구귀신지
 팔만안에 주례국인지
 앞남산이 불러가지고

본칸 방문을 못나오고 누워 계십니다
 그때 자식의 애정은
 부모밖에 더 있나
 가마문을 열고 맨 버선발로
 우야 주야 뛰어 가서 후면 별당안에
 줄베를 건너타고 별당안에 들어가보니
 분통같은 저 방안에 원통같이 누웠구나
 앞남산이 불러서 원낙방문을
 못 나오고 누워있다
 아이고 내 새끼야
 그동안 내가 없었더니 어디가 아프나
 배도 만져보고 골도 짚어 보니
 어머니 나는 아무데도 아픈데 없으도
 배에서 여기서 꾸불통 저기서 꾸불통
 사방에서 꾸불통한다
 무슨 병이 그런 병이 있나
 대문을 열어닫고 돈 석냥 꺼내들고
 하느래 옥녀무당에게 단수를 치러가니
 옥녀무당 단수를 치더니
 마나님요 걱정마소 병이 아닙니다
 삼신이 굶어보았습니다
 그놈에 무당 용하다 하더니
 개심도 못한다
 지하에 필여무당에게 마주 가보자
 필여무당 한테 가 보니
 아이고 마님요 아무 걱정 하지마소
 아들삼태 놓겠습니다
 그 무당도 용하다 하더니
 똑같은 년들이 모였다
 집세 오드니만 모녀간에 못할 말이 있나
 아이고 내 새끼야
 너는 염치도 아주 두껍다

무당들이 생중사를 모르는데
 어찌하여 살겠노 여찌하여 병이 났노
 나한테 좀 알려다오
 어머님 아버님 없을 때
 어떠한 스님이 와가지고
 하루밤 자고 갔는데
 스님이 떠나고 나서 석달이 되니
 밥맛이 없더니만
 배가 차츰차츰 부르다하네
 그때 어머님 후면 별당 안이라
 여복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암에 도사님이 왔다갔는갑다
 삼신이 굽어 봤는데
 이것 참 자식이 아홉상재 아들네들
 알릴여니 겁을 먹고 키울 때
 자식이 무서워서 무서운게 아니라
 자연히 두려워지고 늙고 병이 들어도
 영감이 좋아서 영감에게 가보니
 귀가 멀어서 여러말은 못 듣는다
 아홉상재 아들이 영감보다 먼저 알고
 이게 무슨 일인고
 양반집에 이게 무슨 일인고
 저년 당장 들어가
 작두끝에 목을 잘라 죽이자 하네
 소리개 병아리 치듯이
 달랑 들어가 작두끝에 언제 놓고
 짝두를 누르려하니
 아가씨 작두끝에 목을 언저 있는데는
 서기가 등천하고 어머님 아버님
 아홉상재 오라버니 섰는데는
 흑버들비가 억수를 퍼붓고 있다
 억수를 퍼붓고 있는데

그때에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아홉상재 아들 내 아들이
 죽이더라도 내 말 한마디 듣고 죽여라
 우리 시주애기를 피를 내 죽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자손에 재미게도 많고
 황제 풍채 수재 조계도 많고
 피를 내 죽이지 말고
 뒷동산 좋은 산중에 올라가서
 도람을 모아놓고 도람속에 너노면
 배가 고파도 저절로 죽고
 추위도 저절로 죽고 도람속에 너노라네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 그말이 옳다고
 아홉상재 오라버니가 도람을 모아놓고
 도람속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딸을 안떨어지려고 하고
 딸은 어머니를 안떨어지려고 하네
 아이고 어머니 우리 어머니요
 나는 가요 나는 가요
 빛이 나고야 떠나간다
 어느시절에나 돌아올것
 어머니 아버지 아홉상재 오라버니
 따를 손가 나는 가네
 아버지 움으로 떠나오지
 내자식아 못 가지야
 나를 두고서 못 가지야
 너를 죽이고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니가 살고 내가 죽어야지
 나는 이 세상에서 살만치 살았으나
 너는 한참 세월도 못 봤으니
 당금막이로 죽이겠나
 죽어도 같이 가고 살아도 같이 살자
 나도 가련다 같이 가자

아홉상재 오라버니 앞을 끌고
 뒤로 미니 허기장사 당할손가
 만첩산을 올라간다
 만첩산으로 올라가니 도람이 있는데
 문을 열었으니 도람속에 놓더니만
 도람을 잠그고야
 아홉상재 오라버니 내려온다
 어머님은 집에서 하는 말이
 날이 새면 내자식아
 밤이 와도 내자식아
 오늘은 죽었는지 오늘은 살았는지
 배가 고파서 니가 살겠나
 그 산천을 쳐다보니 눈물이 절로 나고
 아이고 내일이야 아이고 내일이야
 그래서 아버지 찾아 달라하네
 천년묵은 소뻘같이 포아
 산소를 타고 와야 내 아들이라 하네
 산소를 타고 와도 아니라 하네
 산고기 낚아먹고 산고기를 토해야
 내 아들이라 하네
 산고기 토해도 아니라 하네
 큰 아들 이름은 태산이라 하네
 태산이 무너지나
 둘째 아들은 평택이라고 지으라 하네
 땅이 꺼집니까
 세째 아들은 한강이라 하네
 한강이 마를손양
 큰아들은 양산통도사 부처님 말을 한다
 부처님은 무엇을 먹습니까
 아침저녁 고향바다 먹고
 둘째 아들은 태백산 문수보살
 마련한다 삼월 삼짇날이고

시월상달이고 여올며 면봉마지
 저올며 저봉마지 받아 먹고
 세째 아들은 동네 성황님을 마련한다
 동신제만 받아 먹기 마련한다
 우리 이름 지었으니 어머님 마련하소
 부뚜막에 강구나 마련하자
 승승 버리지 마련한다
 진대나 마련한다
 아이고 아버지요
 어찌 그리 험악하게 짓습니까
 나도 늙거든 태일나고 세주동냥가서
 나를 부뚜막에 자고 가시오
 아리방에 자고가시오
 이래저래 팔시 하드라.

6. 용신굿

남산부주 대한민국 강원도 이십육관이고
 이골군은 ○○군이요
 이골면은 ○○면이요
 명당터전은 ○○명당터전이요
 남산은 본이요 주산은 국이라
 사두강남은 쓰러지고 안간은 간이요
 갑산은 제자라
 여산이 동업이요 중님이 행차로다
 스물여섯 중도가남은
 옛날 옛적 갓날 저갈적
 아장구 설법시절 송덕씨 말문시절
 시우야 삼년두리 거리별신아
 내 별신아 받으시던 성황님을 모신뒤로
 사해수중 용왕님네 천지공건 일월성신
 동해바다 용왕님네 남해바다 용왕님네

북해바다 용왕님네 서해바다 용왕님네
 앞바다가 열두바다 뒷바다가 열두바다
 물위에 거품용왕님네
 물밑에 수지용왕님네
 용두용세 당신은 무엇을 불어주었나
 올라가는 대명태 내려오는 대대부
 소대부 불러주었네
 북에 바다 용왕님네 용두용두 용일세
 당신은 무엇을 불러주셨나 대공치
 소공치 대우래기 소우래기 불러주었네
 남해바다 용왕님네 당신은 무엇을
 불러주었나
 대칼치 소칼치 대오징어 소오징어
 온갖 고기를 불러주었네
 서해바다 용왕님네 용두용두 용일세
 당신은 무엇을 불러주었나
 대문어 소문어 채전복 소전복
 대삼치 소삼치 왕바우 덕바우
 칼마치 덕바우 온갖 고기를 불러주었네
 먹고사는 소출로 고기잡아 먹기를
 마련하여 산진 거북이 돌진가제라
 이 물가에 사는 연고로
 사해용왕님만 믿고 만경창파에
 쪽박같은 저 배를 타고 임자없는
 철량 재물을 얻으려고
 눈이 오는 설중이나 비가 오는 우중이나
 이밤저밤 야밤 삼경에도 물결을 따라
 저 바다에 나가 물밑에 기는 채수
 물위에 기는 채수 뱃머리에
 청기홍기가 춤을 추며 나갈적에는
 온짐 싣고 이물칸 골칸 다 채워
 아무쪼록 하시나마 가래소리 등천하여

비늘옷에 비늘신에 각성바지 육성바지
자애자손들 주물망자 시망자
낙수바리 시바리 부릴적에
모진풍과 바람전 구름전 모두 걷어
재수다망 일취월장 소원성취
열어주소

제보자 인적사항

- 김근수(남·80)도문동 1통1반
 김남형(남·69)도문동 4통1반
 김양서(남·81)도문동 3통4반
 김정수(여·65)도문동 4통3반
 김종우(남·52)도문동 2통4반
 문광록(남·65)도문동 4통2반
 박권칠(남·63)도문동 4통1반
 박용권(남·69)도문동 177-1
 오대환(남·62)도문동 4통3반
 오세하(남·69)도문동 4통3반
 오세필(남·69)도문동 4통2반
 이종우(남·70)도문동 3통3반
 이춘화(여·77)도문동 4통3반
 김용구(남·68)동명동 14통2반
 김인용(남·67)동명동 1통3반
 이건설(남·67)동명동 469-36
 김기춘(여·69)중앙동 11통3반
 이명예(여·52)중앙동 8통4반
 장현영(남·62)중앙동 500-8
 김봉춘(남·66)금호동 13통2반
 김종길(남·50)금호동 9통1반
 최태경(남·64)금호동 4통2반
 탁순동(여·57)금호동 4통2반
 정원철(남·50)교동 14통7반
 박익훈(남·77)교동 현대아파트
 김영숙(여·56)청학동 10통4반
 김상지(남·80)장사동 634-1
 김정우(남·70)장사동 3통1반
 성복우(여·73)장사동 2통5반
 이유식(남·85)대포동 5통2반
 이태근(남·60)대포동 379-12
 오세기(남·71)대포동 외웅치
 서원순(여·84)대포동 외웅치
 정백현(남·47)대포동 4통3반
 김계섭(여·73)청호동 3통6반
 김동성(남·78)청호동 5통1반
 김호순(남·70)청호동 3통3반
 김형준(남·78)청호동 4통1반
 빈순애(여·39)청호동 5통2반
 박남준(남·79)청호동 4통1반
 이상직(남·74)청호동 8통2반
 윤덕훈(남·77)청호동 3통3반
 조일광(남·76)청호동 2통3반
 권삼균(남·68)노학동 2통2반
 박일호(남·78)노학동 2통5반
 강웅석(남·87)영랑동 7통1반
 이경모(남·72)영랑동 1통5반
 김종길(남·50)금호동 9통1반
 김봉춘(남·66)금호동 13통2반
 박삼손(여·63)설악동 2통3반
 유만석(남·54·1981년당시)설악동 170
 정형민(남·60)설악동 145-1
 이외에 제보자 다수

〈부록〉 신흥사 사적비문

江原道 襄陽 雪嶽山 神興寺事蹟碑

所在：江原道 襄陽郡 道川面 獐項里 神興寺

年時：朝鮮 英祖四十年甲申

有明朝鮮國 江原道 襄陽府 雪嶽山 神興寺 事蹟碑 銘并序

嘉善大夫前任咸鏡道觀察使趙噉撰

通訓大夫前行楊根郡守金相肅書

楊子雲稱在門牆則麾之在夷狄則進之韓文公嘗取其說余於是法焉可乎雪嶽古有禪定寺新羅哀莊王時洞山覺智鳳頂三祖師說法處也崇禎甲申區宇傾覆冠履倒置時寺亦厄於火劫運牧同釋靈瑞重創淨盪更新舊觀額之以神興其將發願顯化身作大檀越於皇明天地普濟塗炭生靈於慈航重興神京如是寺之爲耶神州陸沈草木腥膻一部春秋無地可讀而左海一隅獨自乾淨匪風下泉之思不絕於謳吟空門繹釋無有能以此名寺而揭扁者其意豈止於呪祝冥祐斷資佛力而已哉顧名思義亦必有激勵感發興起人心者然則鼓動天下尊周攘夷佛亦不爲無助也豈可麾之以崇信異教不知有君臣大義不思所以進之道乎師遠自西妙香來此東海濱未知初欲潔身蹈海終焉逃世入山耶豈不亦異乎哉噫天運循環無往不復涓灘今已三週而夏康之義旅不舉河清之消息尙遲豈意金甌一物反不及窮山小剎同其廢而不同其興耶峨冠博帶誠有愧於斷髮衣縑者矣白頭之南本山最高四時值禪雪常在焉故名以雪也西麟東襄內外之分也西有五歲庵卽梅月堂棲息之所永矢庵在曲百淵上三淵先生嘗嘉懸於此阿育塔藏世尊牙齒在西臺東有天吼山狀若束笏無風而鳴山下有石戶卽繼祖窟窟前有盤石盤上有動石飛仙臺石食堂水石之勝淵翁曾有東方上乘之題品焉師之徒戒豈釋均繼山門事托其徒圖不朽來壘余至再三此亦火傳之義耶余與李上舍衡蒞遊海上數旬亦有所聞見而感於心者故略記之如此云爾

銘曰

雪嶽有禪巖俱雪 不特其巖心亦雪 眼底東流浪激雪 羞天下羞擬刷雪 看三 字額地咬雪 物事一色孰爲雪 撮慨銘刻石又雪

皇明崇禎紀元後三甲申三月 日刻立

강원도 양양 설악산 신흥사 사적비

有明 朝鮮國

嘉善大夫로 咸鏡道觀察司를 前任했던 趙噉은 짓고

通訓大夫로 전에 楊根郡守를 지냈던 金相肅은 쓴다.

楊子雲이 말하기를 “門이나 담장가에 있으면 물리치고 夷狄에게 있으면 이끌어 들이
라”라고 했는데 韓文公이 일찍이 그의 주장을 취한 바 있다. 나도 여기에서 法을 받는
다면 옳을런지…….

설악산에는 옛날부터 禪定寺가 있었는데 신라 哀莊王 때 同山 覺知 鳳頂 이 세 祖師
가 說法하던 곳이었다.

崇禎 甲申年에 나라가 전복되어 위 아래 높고 낮음의 위치가 전도 되었는데 이때 이
절 또한 불에 타는 액난을 당하여 成·住·壞·空의 劫運이 같게 되었다.

釋靈瑞가 청정한 伽藍을 重創하여 舊觀을 更新하고 新興이라 扁額하였다. 그는 應化
身を 밝게 나타내어 皇明天地에 큰 檀越이 되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자비의 배로 두
루 구제하고 神京을 重興하려고 發原한 것이 이같은 절을 만든 까닭인가.

神州가 陸沈하니 초목이 누린내를 풍겨 한권의 春秋를 읽을 곳이 없더니 좌측 바다의
한 모퉁이가 홀로 乾淨하여 땅국의 한탄이 끊이없이 읊조려져왔다.

空門의 먹물웃 입은 佛子 또한 이로써 절이름을 짓고 扁額을 걸었다. 그의 道가 어찌
주문이나 외우고 기도하며 그윽히 부처님의 神力에만 의지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그쳤을 뿐이겠는가

神興이란 명칭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생각해 보았더니 또한 반드시 격려하고 감발하
여 인심을 흥기시키는 것이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천하를 고무하고 감동시켜 周나라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데 부처님
또한 도움이 없다 하지는 못하리라. 어찌 異教를 崇信하고 君臣의 大義를 모른다 하여
물리치기만 하고 그들을 이끌어 들이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스님은 멀리 서쪽 묘향산으로 부터 이곳에 와서 東~六字缺~을 몸을 깨끗이 하고 바
다에 뛰어들어가 여생을 끝내는 듯 세속을 피해 入山한 것인가. 어찌 특이하지 않다
하겠는가.

아-아 天運은 순환하여 가면 되돌아 오지 않음이 없다. 涓灘이 지금 세 번이나 되돌
아 왔는데도 夏康의 의로운 군대가 거행하지 않고 黃河가 맑아진다는 소식이 오히려 더
딘가. 金甌의 한 건물이 도리어 二字缺에 미치지 못하니 망한 것은 작은 사찰과 같으나

그 일이남은 같지 않은 것인가. 높은 관을 쓰고 큰 띠를 띤 유생으로서 먹물옷 입은 자들에게 진실로 부끄러울 따름이다.

白頭山 남쪽에서는 이 산이 가장 높아 春·夏·秋·冬 사시절이 바뀌어도 눈이 항상 쌓여있다. 그러므로 雪嶽이라 이름하였다.

서쪽으로는 麟蹄, 동쪽으로는 襄陽을 內와 外로 분리하였다. 서쪽에는 五歲庵이 있으니 이곳은 梅月堂이 쉬었던 곳이며 永示庵은 골짜기의 百淵위에 있는데 三淵先生이 일찍이 이곳을 아름답게 여기고 은둔하였다. 阿育王塔에는 世尊의 齒牙사리를 간직하는데 西臺에 있다.

동쪽에 天吼山 형상은 笏을 묶은 것 처럼 생겨 바람이 없어도 울리며 山 아래에는 돌집이 있으니 바로 繼祖窟이다. 계조굴 밖에는 盤石이 있고 盤石 위에는 움직이는 돌이 있다. 飛仙臺와 石食堂 아래 물과 돌이 接하는 곳 무릎 위 쯤에는 淵翁이 일찍이 東方上乘이라고 써서 品評한 것이 있다.

스님의 제자인 戒崑·釋均이 山門의 일을 계승하고 그 제자에게 부탁하여 써지 않고 후세에 길이 전할 것을 계획 나에게 찾아와 간청하기를 여러번 하였다. 이 또한 火傳의 의미 이리라.

나는 李上舍 衡喆과 함께 바닷가를 한 달 남짓 유람하여 또한 듣고 본데서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간략히 기록한다.

다음과 같이 銘한다.

설악에 禪氣있어 산정엔 흰눈
산정뿐 아니라 마음 또한 흰눈같고
눈아래 동으로 흐르는 물결도 흰눈일세
천하를 더럽힌 이수치 흰눈으로 씻어 보려
세 글자 편액 보니 그 뜻도 흰 눈 같네.
모든 것 한색이니 어느 것만 눈이라.
돌담아 銘새김도 눈같이 흰뜻일세.

皇明이 崇禎으로 紀元한 후 세번째 甲申年 3月 日에 세우다.

속초의 향토민속

1992. 8. 1. 발 행

발 행 처 : 속초문화원

발 행 인 : 지 일 권

편 집 인 : 최 재 도

인 쇄 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 비매품 〉

